2007 가을 세미나

여성주의 바람 솔솔

경계에서 동요는 색다른 가능성

19대 총여학생회 (Inside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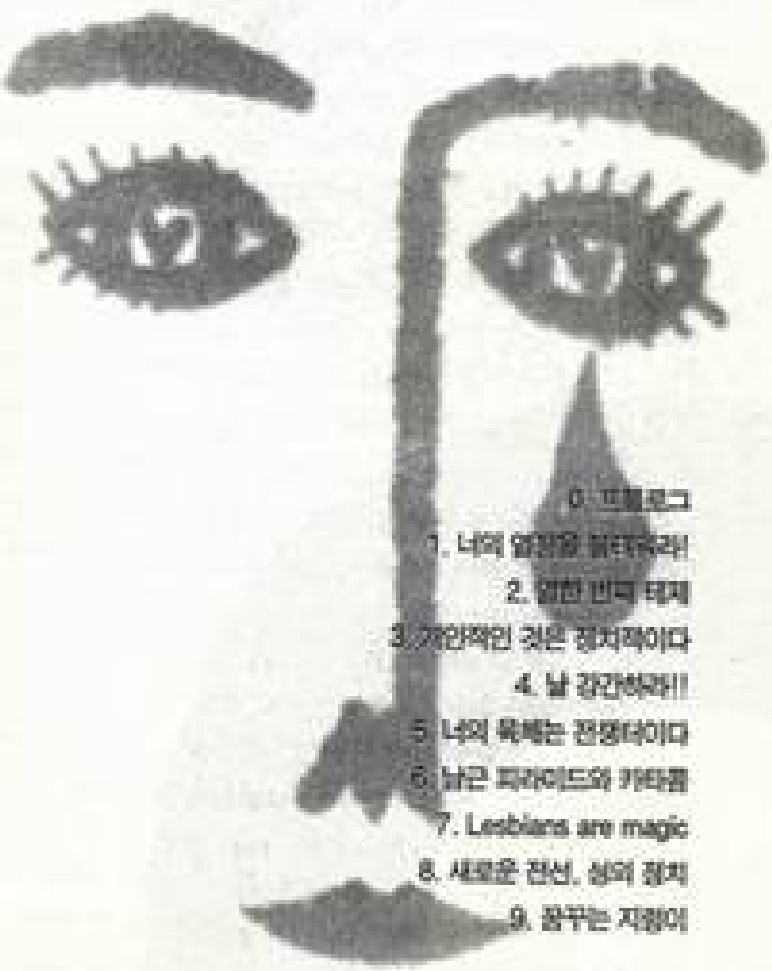
1주차

학내 여성주의 운동의 흐름과 방향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달과 입술 / 동녘 / 2000
나의 아름다운 전쟁
대학 여성 운동의 발자취
- 「2005 연세 여성주의자 워크샵」 자료집
-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반성폭력 이야기」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자료집
연세대는 성폭력 안전지대? - 연세대 내의 반성폭력 운동과 반성폭력 학칙 제정」

나의 아름다운 전쟁

마여의 이야기



0. 프롤로그
1. 너의 열정을 불태워라!
2. 열한 번째 테제
3.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4. 날 강간하라!!
5. 너의 목체는 전쟁터이다
6. 남근 피라미드와 카타콤
7. Lesbians are magic
8. 새로운 전선, 성의 정치
9. 꿈꾸는 지렁이

0.

프롤로그

[illegible]

되[illegible]

쉼표[illegible]

평범한 사[illegible]

것이 어떤 의미[illegible]

대학 생활이 1990년대를 [illegible]

인 정서의 한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과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이후의 나의 삶과 내 다음 세대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변명한다.

나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별로 특별한 구석은 없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때가 있다. 그런 의미로 나는 화려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할 수도 있다. 내 자신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경험으로 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 할 말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93학번인 나는 신세대 담론이 유행처럼 휩쓸었을

때 신세대 첫 학번으로 입학했다. 우리 학번을 대하는 모든 선배들이 우리와 자신들의 다른 점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좋든 싫든 '신세대'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감성의 옷을 모두 입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앞 세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것이 신세대의 이름이건 1990년대의 이름이건, 동구권의 몰락으로 더 이상 좌파의 꿈이 사라진 무기력한 공기 속에서 사라진 선배들의 공백이건, 어떤 의미로 외로운 학번이었다. 한마디로 우리에겐 학습해야 할 이론도 자신감과 패기로 우리를 이끌어 줄 선배도 없었다. 그 정서적인 공백을 메운 것이 개인주의적 침잠이었건, 혹은 낭만적 연애였건, 사람들은 모두 혼자만의 공간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고민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직접적인 책임으로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충실히 고민할 수 있는 자의식의 시간을 허락했다. 그 시간 속에서 내가 가장 모순으로 느낀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와 '여성으로서의 나'와의 거리였다. 그러나 나는 그 모순을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나 본질적으로 주어지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차가 만들어 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여성으로서의 단일한 하나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1990년대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서울에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 생산 질서와 대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오랜 유교적 전통 속에서, 1남 4녀의 막내딸로서, 평범한 외모의 평균적인 미적 기준에 부합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는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는, 좀 이름난 학교에 다닌다는, 이 모든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에 대해, 그 안에서의 내 삶에 대해 속 시원히 설명해 줄 무언가를 필요로 했다. 목마름이거나 답답함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이 살기가 싫거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해 그 이유를 찾고 싶었다.

무언가 흥미로운 일을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하고 싶어서 총학생회에 들어가 성정치국장을 맡게 되었다. 그 때 성정치 문화제를 기획했었다. 성정치 문화제는 내가 아니었어도 형식과 내용은 조금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

시점에서 누군가는 기획했을 행사라고 생각한다. 상황과 조건이 맞아 내가 그 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나와 함께 행사를 기획한 사람들의 미적 감수성을 사람들 앞에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은 성정치 문화제에 있어서 최소한의 자리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연세대학교 성정치 문화제를 회고하는 지금의 글은 당시 그 행사를 기획한 한 사람으로서, 그 행사를 잊지 못할 감격과 정서적 충격으로 경험한 1990년대 중반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던진 '성정치'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성찰하고 싶어서이다. 어떤 의미에서건 성정치 문화제는 내 대학 시절의 가장 인상적인 행사였다. 수많은 대자보와 논쟁, 즉석 자유 발언대가 만들어졌고, 이전까지와는 다른 주제로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과 정치적 조건을 되묻는 시간들이 주어졌으며,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 자신도 조금쯤 성숙했다고 생각된다.

성정치 담론은 1995년부터 2년여 기간 동안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동성애 인권 운동과 성정치 위원회 활동으로 면적 갔다. 성정치 자체에 대한 이론적인 정리를 하기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성정치의 문제 의식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대학 내 여성 운동이 그 흐름 속으로 어떻게 녹아들게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 보고 성정치의 한계와 이론적인 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러한 작업은 내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나는 내가 살아오면서 고민한 몇 가지 문제 의식들과 성정치에 대한 내 나름의 이해로 성정치 문화제를 정리하려고 한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성정치에 대해 논의할 시점은 지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적어도 성정치는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일상의 곳곳에 내재한 권력을 예민하게 문제삼을 수 있는 이론적인 틀과 자신의 삶과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비판과 저항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실제로 성정치는 성을 성관계나 성별 구분을 넘

어 정치적인 비판의 프로젝트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성정치학의 용어를 한국 사회에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를 특징짓는 문제 의식으로 대학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대학 내 여성 운동의 흐름을 일별하고자 하는 이 기획에서 우리는 성정치 운동이 앞 시대에 총여학생회가 주도했던 자주적 여학생 운동이나 기존의 제도권 여성 운동과는 다른 흐름을 만드는 데 이론적이고 정서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정치 문화제를 1990년대 여성 운동의 특징적인 시발점으로 기록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것과 연세대학교 여성 운동의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밝혀 둔다. [illegible] 정치학은 1990년대를 풍미했던 담론으로서 의미 있게 다뤄져야 [illegible] 의 문제 의식은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illegible] 인용하고 있는 여러 문건들은 글쓴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illegible] 문건은 너무나 명문이어서 기록으로 보관하고 싶은 욕심에 이 [illegible] 되었다. 문건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며 열정적으로 활 [illegible] 람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애정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다.

1.

너의 열정을 불태워라![1]

[illegible] 때 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말해 왔던 대학에서의 낭만이 [illegible] 의 순수한 열정 따위는 갖지 못했다. 재수를 하고 대학에 [illegible] 의 열등감은 아니었지만 마냥 새로운 것에 신기해 하기에

1) [illegible] 의 노래 'Light my fire' 에서 따 온 제목이다.

는 내 감성은 메말라 있었고 세상이 너무나 뻔하다는 치기 어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수생이 된다는 것은 고독해진다는 것이다' 라고 어느 소설가가 말했던 것 같다. 무언가에 거부당했다는 무안함과 문 앞에서 서성거리며 대기중인 사람들의 초조감이 우등생과 모범생으로 자란 내 자존심에 조그만 상처를 입혔고, 입시 교육의 틀 속에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열등감은 어제까지 내가 당연시해 왔던 모든 휘황찬란한 가치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열등하다고 낙인찍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무리해도 납득할 수 없는 뭣 같은 현실이 마냥 무료하기만 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입시 학원의 교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자주 반복되면서 나는 나를 포함한 현실을 냉소적으로 보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대학은 환상이 아니다. 아무 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환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책에 코를 박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회의했지만 내게는 그래도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무언가 내 열정을 불태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신을 싣고 몰두할 그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단지 끼고 다니는 책이 다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과 이상한 내력을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때의 흥미로움을 빼고 나면 그리 다를 것도 없이 여전히 무료했다. 까닭 없이 우울해지고 생각 속에서만 일탈을 꿈꾸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던 대학 1학년생이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해 가을 내 생일 파티 때의 일

이다. 누군가의 생일을 핑계로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들 거나하게 취할 무렵, 사람들은 둘셋씩 무리 지어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생일이었던 탓에 나는 우울해 있었다. 그런 날은 으레 더 많이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턱없이 어리광을 부리고 싶고, 한편에서는 그런 식의 유치한 감상을 비웃고 재미있어하는 이성의 목소리에 더욱 주눅들고 우울해지는 것이다. 취기 탓이었을까? 나는 한번도 내뱉어 보지 못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 앞에 앉았던 한 학번 위의 선배를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인 채, 나는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느니, 바리케이드가 그립다느니,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하고 역사적 사명과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과 위대함에 열정적으로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느니 하면서 앞뒤도 없는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너무 놀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이 있다.

나는 전쟁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분노하고 싶었다. 내 안의 열정을 불태워 버리길. 눈앞에 보이는 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껏 울분을 토해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동지가 있어 같이 분노하고 함께 울고 웃고 싶었던 것이다. 까닭 없이 억울한,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한없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내 안의 설명할 수 없는 울분들에 위안을 얻고 싶었다. 내 안의 욕망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내가 어설프게 좌익 소아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았다.

내 영혼을 다 바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청춘을 불사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으리라. 나는 불나비 같은 청춘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1990년대 신세대. 삶에 대해 너무 진지해지거나, 가슴 벅차게 감동해야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메마른 감성의 시대였다. 역사의

도움에 가슴 벅찬 사명감을 [illegible] 지도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세대의 일원이 [illegible] 미가 없었고 아무 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 [illegible] 지도 몰랐으며 그저 할없는 감상에 시달 [illegible] 도 풀리지 않았다.

2.

열한 번째 [illegible][2]

[illegible] 해석만 해 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 [illegible]

[illegible] 모습을 찾고 싶었고, 취기 속에선 정직한 욕 [illegible]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감상에 취해 비틀대는 것이 지겨워질 무렵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날날하게, 가볍게, 재미있게' 라는 말들에 지쳐 나는 똑똑하고 진지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럴듯하게 정돈된 말로 세상을 해석하고도 싶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

2) 마르크스의 『포이어바흐에 관한 테제』 중 열한 번째 테제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 시절 내가 공부했던 준비 연구 모임 이름이다.

어 정치적인 비판의 프로젝트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성정치학의 용어를 한국 사회에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를 특징짓는 문제 의식으로 대학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대학 내 여성 운동의 흐름을 일별하고자 하는 이 기획에서 우리는 성정치 운동이 앞 시대에 총여학생회가 주도했던 자주적 여학생 운동이나 기존의 제도권 여성 운동과는 다른 흐름을 만드는 데 이론적이고 정서적인 기초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성정치 문화제를 1990년대 여성 운동의 특징적인 시발점으로 기록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운동의 출발점이라는 것과 연세대학교 여성 운동의 특수한 사례라는 것을 밝혀 둔다. [illegible] 성정치학은 1990년대를 풍미했던 담론으로서 쉬이 잊게 다뤄져야 [illegible] 문제 의식은 지금에도 유효하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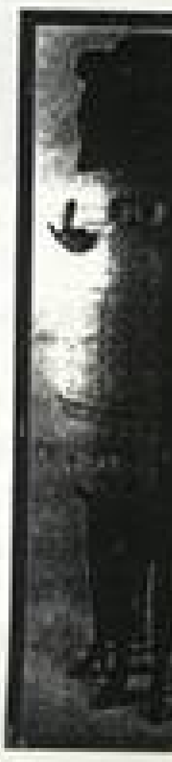
[illegible] 인용하고 있는 여러 문건들은 글쓴이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 [illegible]은 너무나 명문이어서 기록으로 보관하고 싶은 욕심에 이 [illegible] 되었다. 문건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알리며 열정적으로 활 [illegible]람에게 이 자리를 빌어 애정 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다.

1. 너의 열정을 불태워라![1]

[illegible] 되었을 때 나는 사람들이 숱하게 말해 왔던 대학에서의 낭만이 [illegible]의 순수한 열정 따위는 찾지 못했다. 재수를 하고 대학에 [illegible]의 열등감은 아니었지만 마냥 새로운 것에 신기해 하기에

1) [illegible]의 노래 'Light my fire'에서 따 온 제목이다.

는 내 감성은 메말라 있었고 세상이 너무나 뻔하다는 치기 어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재수생이 된다는 것은 고독해진다는 것이다'라고 어느 소설가가 말했던 것 같다. 무언가에 거부당했다는 무안함과 돈 앞에서 서성거리며 대기중인 사람들의 초조감이 우등생과 모범생으로 자란 내 자존심에 조금한 상처를 입혔고, 입시 교육의 틀 속에서 자신이 실패자라는 열등감은 어제까지 내가 당연시해 왔던 모든 휘황찬란한 가치들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열등하다고 낙인찍힌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무리해도 납득할 수 없는 쳇바퀴 같은 현실이 마냥 무료하기만 했다.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찬 입시 학원의 교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날이 자주 반복되면서 나는 나를 포함한 현실을 냉소적으로 보는 법을 익히게 되었다. 대학은 환상이 아니다. 아무 것도 새로울 것이 없다. 너무나 뻔하지 않은가. 스스로를 기만하는 환상 속에서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책에 코를 박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심했지만 내게는 그래도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다. 대학생이 되면 무언가 내 열정을 불태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자신을 잃고 몰두할 그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단지 끼고 다니는 책이 다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는 것과 이상한 내력을 가진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기이한 행동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때의 흥미로움을 빼고 나면 그리 다를 것도 없이 여전히 무료했다. 까닭 없이 우울해지고 생각 속에서만 일탈을 꿈꾸며 여기저기를 기웃거렸던 대학 1학년생이었다.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해 가을 내 생일 파티 때의 일

이다. 누군가의 생일을 핑계로 술이나 실컷 마시자고 사람들이 모였다. 모두들 거나하게 취할 무렵, 사람들은 둘셋씩 무리 지어 주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생일이었던 탓에 나는 우울해 있었다. 그런 날은 으레 더 많이 사랑받고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턱없이 어리광을 부리고 싶고, 한편에서는 그런 식의 유치한 감상을 비웃고 새삼 꾸짖는 이성의 목소리에 더욱 주눅들고 우울해지는 것이다. 취기 탓이었을까? 나는 한번도 내뱉어 보지 못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다. 내 앞에 앉았던 한 학번 위의 선배를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인 채, 나는 일제 시대에 태어났으면 좋았겠다느니, 바리케이드가 그립다느니, 선과 악의 대립이 분명하고 역사적 사명과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도덕적 정당성과 위대함에 열정적으로 도취되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느니 하면서 앞뒤도 없는 장광설을 늘어놓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는 너무 놀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적이 있다.

나는 전쟁을 바라고 있었다. 나는 분노하고 싶었다. 내 안의 열정을 불태워 재가 되길, 눈앞에 보이는 적이 있었으면 좋겠고, 마음껏 울분을 토해내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동지가 있어 같이 분노하고 함께 울고 웃고 싶었던 것이다. 까닭 없이 억울한,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한없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소리 높여 외치며 내 안의 설명할 수 없는 불행들에 위안을 얻고 싶었다. 내 안의 욕망은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고 나는 내가 어설프게 좌익 소아병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았다.

내 영혼을 다 바쳐 미친 듯이 몰두하며 청춘을 불사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으리라. 나는 불나비 같은 청춘의 열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1990년대 신세대. 삶에 대해 너무 진지해지거나, 가슴 벅차게 감동해야 할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메마른 감성의 시대였다. 역사의

[illegible]중에 가슴 벅찬 사명감을 갖[illegible]지도 않는 차가운 심장을 가진 세대의 일원[illegible] 흥미가 없었고 아무 것도 하고 싶은 일이 없[illegible]지도 몰랐으며 그저 할없는 감상에 사로[illegible]도 풀리지 않았다.

2. 열한 번째 테제[2]

[illegible] 해석만 해 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변혁하 [illegible]

[illegible] 모습을 찾고 싶었고, 취기 속에선 정직한 욕 [illegible], 나 [illegible] 시도 [illegible] 하고 [illegible] 을 사 [illegible] 없었다. 이렇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쓸데없는 감상에 취해 비틀대는 것이 지겨워질 무렵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냉냉하게, 가볍게, 재미있게'라는 말들에 지쳐 나는 똑똑하고 진지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럴듯하게 정돈된 말로 세상을 해석하고도 싶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기 위

2) 마르크스의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 중 열한 번째 테제를 말하는 것으로 대학 시절 내가 공부했던 [illegible] 연구 모임 이름이다.

해선 책을 좀 바꾸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 해 겨울 동아리 연합회에서 준비한 겨울 문화 학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세미나를 통해 1960년대 출발하기 시작한 포스트 이론[1]과 문화 연구의 패러다임을 일별하게 되었다. 거대한 지식의 바다에 겨우 한발 내디딘 것으로 내 앞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이다. 이름만 겨우 들었던 이론가들의 원전을 읽을 때의 가슴 두근거림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을 접하며 내가 알고 있어 왔던, 아니 내가 안다고 생각해 왔던 세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어언까지 나를 괴롭혀 왔고 나를 힘들게 했던 것에 나는 '감성과 세계관의 분열'이라는 명명을 붙여 주었고, 내 감성에 어울리는 세계관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스런지에 몸이 스며들 듯 나는 놀라움과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긴장감을 가지고 책들을 읽었고 현기증 나는 이론의 난해함에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그 즈음에 세미나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내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열정으로 나를 몰입시켰다. 동고동락을 약속하며 우리는 아상에 관 금진 문화 연구 저널을 낼 지혜까지 세웠었다.

비판적으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과 내가 딛 딛고 살아가는 현실과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세세하는 휴머니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난 뒤 나는 우리의 공동체가 보다 나은 삶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살아온 이력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주며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게 했던 공통점을 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로 비극적인 현실 진단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살 만하지 않다는 것이다. 누구는 자본주의 탓을 하고 누구는 가부장제를 얘기하고 누구는 전쟁과 폭력, 환경 오염과 기만적인 자유주의의 허상을 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1]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구조주의, 페미니즘의 등으로 불리는 일련의 현대 이론 이론.

하는 구조라는 인식이다.

둘째로 우리들은 보다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꿈은 말하는 순간 환상이나 허구로 바뀌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행간에 보다 나은 미래에의 꿈을 감추어 말한다.

셋째로 우리는 모두 슬픈 사람들이다. 웃나고 울으면 한없이 현란한 수사로 치장할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말로도 채 그려낼지는 알할 수 없이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의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고 이 사람들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고결한 것도, 부유하거나 외모가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아주 치열한 수준의 이기심과 이타심을 나누는 기준을 넘어 자신과 세상을 분리된 무엇이 아니라 세계 안의 자신과 자기 안의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자신도 행복해지는 길임을 존재의 이유로서 깨달은 사람들이었기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수줍고 소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과 세상을 바꾸는 일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계를 변혁하는 일이 위대한 몇몇의 소명인 것만이 아니라고 느끼게 되었다. 비로소 나는 내가 옳다고 주장할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과 누구라도 당당히 토론할 수 있는 내 자신의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까닭 없이 우울해 하거나 멍하니 하늘을 보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름 붙일 수 없는 내 삶의 불행의 그 이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3.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1]

난 게으름뱅이다.
난 잠꾸러기다.
난 몽상가다.

[illegible] 사춘기 이후 나는 나를 설명할 말들을 찾[illegible] 내가 건져 올린 말들은 모호하게 삶의 전전[illegible]다.

한때 나는 낮 [illegible]에서의 삶이 더 실제적인 나의 삶이라고 생각[illegible]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껴 현실의 삶을 영[illegible]지 않았다. 깨어 있는 동안 나는 나를 [illegible]지 못했다. 오히려 자면서 내가 [illegible] 있었다. 내 안의 다양한 내가 새로운 [illegible]속 현실, 그 속에서 나는 때로 공주이[illegible]는 때는 남자이기도 한 그 현실이 내 [illegible] 생각했다.

[1] 케이트 밀레트의 『성[illegible]』(1970)에 나오는 구절로,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주장하[illegible]도록 했다.

낮 동안의 삶의 파편들에 대해 이성적인 자아가 인식하는 삶의 일면이 아니라 무의식이 인지하는 삶의 이면이 더더욱 삶의 실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나는 더 오래 더 깊은 꿈을 꾸기 위해 잠자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잠잘 때의 행복 이상의 것을 현실에서 구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때의 습관이 남아 있어 나는 하루의 3분의 1을 꿈속에서,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취기 속에서 산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물인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약지가 있다.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언제부터 내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는지 사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담배를 피우면서부터였는지 결혼을 안 하기로 마음먹은 때부터였는지 잘 모르겠다. 굳이 설명하자면 사연하게 남은 가슴 속으로 사라지는 독다를 탄 여자의 뒷모습과 희미한 방울 소리, 버지니아 울프를 사랑하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물론 이건 거짓말이다. 터무니없이 게으른 내가 어떻게 운동이니, 정치니, 이념이니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듯 여성 운동을 하는 여자들은 기구한 삶의 아픔과 분노가 있어 그것을 원동력으로 운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또한 여성 운동이 바람없이 트집잡기 좋아하는 여자들의 그럴듯한 명제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페미니즘에 대한 자신의 조악한 이해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일부에선 여성 운동이 진보 정치의 한 부문 운동이며, 어떤 유토피아적인 삶을 꿈꾸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과 전체를 나누는 구획과 총체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운동은 그 자체가 스스로 거부하는 질서를 닮아 있는 것 같아 나는 그러한 거대 담론으로 페미니즘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과, 세상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이 때로는 세상을 날카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보편적인 것, 대관적인 것을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 그리고 지겹게 싫고 미운 것들을 싫다고 말하는 것에 정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

세상은 살 만하지 않고 나는 행복할 수 없는데, 내가 행복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운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감동과 위안을 주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도가에서 말하는 '인간이 소우주'라는 것이 인간 안에 우주의 질서를 담고 있는 것이라면, 내 안의 모순과 내 삶의 부조리함이 세상의 규범과 질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과 삶의 아주 작은 부분도 이러한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나름으로 세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페미니즘은 삶의 정치학이다.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많은 선택의 상황에서 나는 항상 우유부단했다. 어떠한 것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데 주어지는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다. 우리 시대의 진리는 부정 어법의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있고 무언가를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쉽게 조롱거리가 된다. 냉소는 가장 고상한 삶의 전략이다. 그러나 공허하다.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정치'라는 어릿광대의 옷을 입고 춤을 출 용기를 갖게 된 것은 고상한 삶의 공허함을 벗어 버리고 싶어서이다.

나는 열정적으로 살고 싶다. '세상에 붙잡고 지켜야 할 그 무엇이 하나도 없는 내가,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갈 이유를 찾고 싶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있기 때문이야'라는 유행가 가사처럼 싸구려 사랑 타령으로 내 삶을 포장하지 않도록 좀더 그럴듯한 삶의 명분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사는 이유를 찾기 위해 헤매었다.

비트겐슈타인은 "삶의 문제의 해결은 그 문제의 소멸에 있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삶의 의미라거나 살아갈 이유 등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다.

4. 날 강간하라!!

날 강간하라 …
날 강간하 …
날 강간 …
다시, 또 …
난 유일 …

커트 코베 …
렬한 태도로 …
으로 친구에게 자신을 강간하라고 한다. 음울한 목소리로 …
라고 외치는 커트 코베인의 목소리엔 살기마저 감돈다. 그러나 …
면 이 노래의 '날 강간하라'는 말은 '난 이미 너무 많이 강간당했다' …
이 들리기도 한다.

더럽고 추한 세상에 순수라는 이름의 모든 것은 이미 유린되고 짓거져 남아 버렸고 우리는 상처 속에서만 순결할 수 있으니. 날 강간하라고 절규하는 상처 입은 목소리가 나를 슬프게 한다. 지금의 상처를 견디기 위해 더 많이 자신을 상처 입히려는 어리석음을 이해할 것만 같아서 나는 슬퍼진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사는 세상이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나의 삶도 또한 너무나 뻔하게 그러하리라는 것, 하루를 견디기 위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갑자기 이해할 것만 같은 어느 날, 그 모든

1) 록(Rock) 그룹 '너바나(Nirvana)'의 커트 코베인이 부른 'Rape Me'의 가사 중 일부

1995년 10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주최 '성정치 문화제' 포스터

절망적인 생각들에 자기 연민까지 더해져 나는 더욱 슬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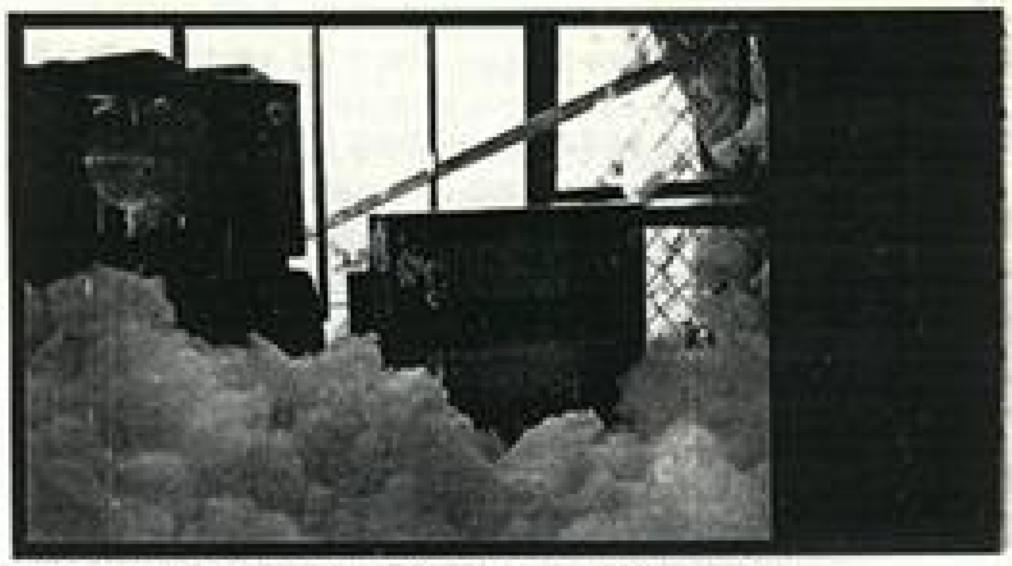
강간은 항상 '당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누가 누구를 강간하다.'라는 문장 형식은 익숙하지 않다. '누가 강간당했다.(누구에 의해)'라는 형식이 훨씬 자연스럽게 쓰이지 않는가. 그리고 '강간하다'라는 동사가 명령형으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항상 강간에 대한 공포심을 잊지 않는다는 것일 게다. 여성과 성에 대한 담론은 성에 대한 여성의 공포심을 고무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듯하므로, 자신을 방치하고 무방비 상태로 자신을 폭력에 내맡기는 마조히즘의 극단적인 모습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

다. 길거리에서 성기 노출증자와 마주친 여성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모습을 보며 그 자신의 페니스의 힘과 권능을 확인하는 이 남성이, 그 페니스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그의 우스꽝스러움을 조롱하는 여자를 만났을 때의 광경을 그려 보면 그의 은밀한 쾌락이 저지당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당황하고 수치를 느낄지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남근에 부여되어 있는 과도한 폭력성과 권위를 희화화시키는 것은 유쾌한 페미니즘적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상징 코드가 바뀌지 않는다면 남성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성기가 여성에게 위협의 무기가 된다는 이 아이러니컬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라거나 강간범이라는 사법적 단어들이 환기시키는 이미지는 성과 폭력에 관한 사회적으로 고정된 의미들을 만들어 낸다. '날 강간하라!!'는 외침은 성폭력의 끔찍한 상황을 드러내 주며 동시에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의 구도가 아닌 폭력적이고 범죄적인 상황과 대면했을 때 느끼게 되는 공포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성정치 문화제에서 "날 강간하라!! Rape Me!!"라는 커트 코베인의 노래 제목을 문화제 제목으로 삼은 것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적 인상이 너무나 강하게 남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문화제라는 형식에 새로운 방식의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을 정치적인 화두로 제기하는 데 이전까지 여성의 성을 임신과 출산, 혹은 강간과 포르노에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였다. 성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코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말 걸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제목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성정치 문화제는 언론의 선정적인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며 1995년 대학 내 학생 운동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며 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1995년 연세대학교 '성정치 문화제'에서 여성의 출산과 수유에 관한 경험과 강간에 대한 공포를 체험한다는 의미로 학생회관 앞에 전시한 '자궁 속으로(In Utero)' 설치물.

1995년 연세대학교 '성정치 문화제' 기간 중 전시되었던 '남근 피라미드' 설치물을 한 기독교 학생이 파손시키자 학생들이 몰려들어 항의하는 장면.

성정치 문화제는 1995년 10월 11일 '날 강간하라!! Rape Me!!'라는 구호를 내걸고 개막했다.

1) 여성의 출산과 수유에 관한 경험과 강간에 대한 공포를 체험하기

학생회관 앞에 '자궁 속으로(In Utero)'라는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쇠로 된 철제 조형물을 만들어 그 안에 두 개의 TV를 설치해 한쪽에서는 여성의 출산과 수유에 관한 산부인과 교육용 테이프를 틀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강간 장면을 모아 편집해서 틀었다. 조형물 입구를 여성의 바기나(Vagina: 질) 모양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그 안에 머리를 넣어 조형물 안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2) 남근 피라미드와 TV 수상기

도서관 앞에는 나무와 스티로폼,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잡지 등에 실린 여성의 육체를 재현하고 있는 광고들을 모아서 붙여 놓은 '너무나 편한'이라는 설치물을 전시하고 그 앞에 네 개의 TV 수상기를 설치해서 미국에서 동성애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스톤월 항쟁[6]의 역사를 기록한 'Before the Stonewall' 다큐멘터리 테이프와 게이/레스비언 청소년을 위한 교육용 테이프를 틀었다.

6) 스톤월(Stonewall) 항쟁 : 1969년 6월 28일 새벽, 뉴욕의 대표적인 동성애자 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인 그리니치 빌리지에 자리 잡은 게이 바 '스톤월 인(Stonewall Inn)'에 관례적인 경찰의 불시 단속이 있었다. (당시 뉴욕에서는 게이 바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이 바들은 경찰에 정기적인 상납을 했고, 경찰은 상납이 미흡할 경우에는 게이 바를 급습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1969년 6월 27일은 미국 레즈비언과 게이들에게 많은 추앙을 받고 있던 '주디 갈랜드(Judy Garland)'의 장례식 날이었기에 많은 동성애자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행렬에 참가했고 밤엔 게이 바에서는 많은 [illegible]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다. 이 날 경찰의 불시 단속에서 손님들로 왔던 많은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게 되었고 이 충돌은 커다란 소동으로 번졌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스톤월에 모여들어 시위를 계속하였고, 시위 소식은 미국 전역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동조 시위가 일어났다. '스톤월'은 미국 사회에서 게이와 레즈비언의 정체성 확립과 사회적 코뮤니티의 결성, 평등권을 요구하는 동성애 운동의 과정에서 근대적 동성애 권리 운동의 시작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3)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인권 모임 '컴투게더(Come Together)' 게시판

도서관 앞 한쪽 공터에 연세대학교 동성애자 모임 'Come Together'에서 'Gay Pride'라는 게시판을 설치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비판하고 동성애자 문화를 알리고, 동성애자를 에이즈 보균자로 잘못 알고 있는 인식을 바로 잡는 대자보 등을 붙였다. 이 게시판에 컴투게더 측 사람들이 콘돔을 붙여서 장식해 놓았는데 많은 학생들에게서 음란하다는 비난을 받았다. 미국의 게이 운동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심으로 순결서약식을 하는 보수 진영에 대항해 Safe-Sex 운동[7]을 펼쳤었다. 콘돔을 보는 것조차 음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성에 대해 그 다음의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4) 섹슈얼리티(Sexuality) 주제 도서전

반대편 공터에서는 Sexuality 주제 도서전을 열어 성정치와 페미니즘 관련 서적을 할인하여 판매했고 수익금은 '오늘의 책' 살리기 기금[8]으로 사용되었다. '오늘의 책' 서점 관리자에게 전해들은 말로는 도서전을 열어 책을 팔았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성정치 문화제에서 대단히 책이 많이 팔렸다고 한다. 책을 팔았던 친구는 기자들이 보도를 위해 많은 책을 사 갔다고 했다.

5) 'Your Body is a Battle Ground!' 걸게 그림

학생회관 벽면에 거대한 바바라 크루거 모작의 'Your Body is a Battle Ground!' 걸게 그림을 걸었다.(그림은 It's our pleasure to disgust you라는 십자가 위에 방독면을 쓴 나체의 여자가 그려진 그림에 Your Body is a Battle Ground!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이 그림은 일부 기독교 학생들로부터 십자가를 모독한다는 터무니없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이 그림을 제작한 선배는 십자가는 수난의 상징이고 이 그림에서 십자가는 여성의 수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했다.

7) 세이프 섹스(Safe-Sex) 운동 : 미국에서 에이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에이즈가 동성애자의 [illegible] 문란한 성관계의 산물처럼 알려지면서 도덕적 순결주의가 득세하게 되었다. 이에 미국 게이 운동 단체들은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게이들의 순결하고 아름답고 안전한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 콘돔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포스터 등을 붙이는 Safe-Sex 운동을 했다.

8) '오늘의 책' 살리기 기금 마련 운동 : 신촌에 자리 잡은 사회과학 서점 '오늘의 책'이 건물주의 임대료 부당 인상에 따라 운영이 어렵게 되자, '오늘의 책'을 아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과 졸업생, 교수와 교직원들이 신촌 문화에 대한 애정과 사회과학 서점 살리기 운동의 취지로 '오늘의 책' 살리기 기금 마련 운동을 벌여 조합 형태의 서점 운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였다.

바바라 크루거 作, It's our pleasure to disgust you.

6) 팩 판매

아홉 가지 종류의 팩(Pack: 간단한 구호와 삽화로 생활 속에서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고안된 배지)을 디자인하여 판매했다.

◆Queer Smile

퀴어(queer)는 이상한, 기묘한, 동성애자의 등의 뜻이 있으며 동성애자를 뜻하는 게이(gay)라는 말 대신 사용되고 있다. Queer Smile은 야릇하고 기묘한 뉘앙스를 가진 동성애 운동의 마스코트이다.

◆아담의 정조대는 아담에게로

여성에게 강요되는 순결, 처녀막에 대한 숭배는 오랫동안 여성을 옭아매는 성관념의 기제였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씌운 정조대라는 이름의 족쇄를 거부하고 그것을 가부장제적인 사고를 하는 이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다.

◆No Rape-Republic

"강간 공화국을 반대한다!" 르완다와 보스니아의 강간 캠프[9]에 대한 비판과 우조교 성희롱 패소 사건[10]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폭력에 대한 무감각한 반응, 난무하는 성에 관한 폭력들을 방관하는 가부장적이며 보수적 정치 사회는 강간 공화국이다.

9) 르완다는 다수(85%) 종족인 후투족과 소수(14%) 종족 투치족이 오랫동안 종족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illegible]

1992년부터 [illegible] 보스니아의 [illegible]

10) 1992~1993년까지 서울대학교 화학과 실험실에서 조교로 일하던 우모(26, 여)씨는 자신에 대한 계일 [illegible] 신교수(57, 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했다. [illegible] 500만 원을 지급하라 [illegible]

우조교 사건으로 알려진 이 성희롱 사건에 대해 [illegible]

◆Lesbians are Magic

아버지의 이름이 지배하는 곳에 딸들의 문화를…….

레스비언은 남성의 지배권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인지적, 경제적 기초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이다. 남성을 사랑하지 않는 여성은 가부장제의 가족 제도와 결혼 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남성 중심적 성질서를 따르지 않는 여성이고, 여성을 예속시키는 심리적 장치들로부터 자유로운 여성이다. 또한 레스비언은 여성의 열등성, 연약함, 수동성에 관한 허구를 폭로함으로써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선천적인 욕구를 부정하고 남성 지배권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한다. 가부장적 상징 질서에서는 표상되지 않는 레스비언의 정체성을 신비롭게 재구성해 내는 의미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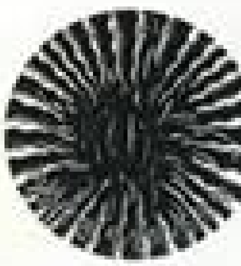
◆Oh! (My) God Mother

신을 남성 명사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부르는 남성성에 의한 율법은 인류에게 전쟁과 폭력을 가져다 주었다. 가부장적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신을 여성 명사,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여성적인 감수성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의지이다.

◆Your body is a battleground

"너의 육체는 전쟁터이다."

여성의 육체가 물화되고 대상화되며 상품화되는 자본주의적 성질서에 대한 미국의 페미니스트 미술 작가인 바바라 크루거의 탁월한 통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거절당한 여성의 드로잉

주디 시카고의 "예제에 관한 2중주" 중 '거절당한 여성의 드로잉' 작품이다. 가부장적인 표상 체계에서 언제나 소외되는 데 대한 반발으로 여성적 이미지로 여성주의 미술 운동을 개척하고 있는 2세대 페미니스트 미술 운동의 함의를 담고 있다.

◆적과의 동침

결혼 관계 내에 존재하는 차별적 권력과 가부장적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여성들과 보수적 여성 운동의 공모 관계를 폭로하며 페미니즘의 급진화를 요구하는 의미이다.

◆Fat is Beautiful

뚱뚱한 여자에 대한 말들은 너무나 모욕적이다. 여성의 육체를 관리하는 권력, 34-24-36의 신체 치수를 만들기 위해 먹기를 거부하는 여성들에게 우리의 육체는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공모로 벗어진 아름다움을 평가하는 권위를 회수하겠다는 주장이다.

7) 바디 페인팅

'거절당한 여성의 드로잉'이라는 제목으로 바디 페인팅(Body Painting) 행사를 했다. 원하는 사람에게 운동적인 문구나 조그만 그림들을 낙서하는 기분으로 그려 주어 몸에 대한 전통적인 터부로부터 자유롭고자 기획한 행사이다. 요즘에는 경기장에서 응원을 할 때나 축제의 기분을 낼 때 많이 하지만, 이 행사 제목을 보고 나체 퍼포먼스쯤으로 여겨 많은 기자들이 몰려 왔었다.

8) 섹슈얼리티(Sexuality) 영화제—Sexuality Queer Movie Festival

학생회관 1층 식당의 공간에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일상적인 문화 공간을 창출하려고 했다. 다음과 같은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 우디 알렌, "당신이 섹스에 관해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 에드워드 D. 우드, "글렌 또는 글렌다"
- 두샨 마카베예프, "W. R.(빌헬름 라이히) 혹은 유기체의 신비"
- 토드 헤이즈, "독약"
- 스테픈 피어즈, "나의 아름다운 [illegible]"
- 샹탈 애커만, "파리는 [illegible]"

9) 성의식 설문 조사와 성정치 대중 강연회

성정치 문화제 기간 동 [illegible] 진 씨의 성정치 대중 강 [illegible]

5. 너의 육체는 전쟁터이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illegible] 생곤 하셨다. 무언가를 집어 던 [illegible] 는 것으로 자기 내부의 폭발하는 폭력성을 해소시킬 사치를 부릴 수 없었던 엄마는 자해를 하는 것으로 삶의 울분을 터뜨려왔던 것이다. 자식들은 부모의 못된 습관은 더 잘 배운다. 자신을 상처 입히고 학대하는 것으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은, 자

기 자신을 애틋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객체화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이다. 나는 어린 나이에 이미 마조히즘의 정수를 터득했다.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리고 더없이 슬퍼져서 자신을 위안하는 기교를 습득했을 때 나는, 매일 두들겨 맞으면서도 몇 십 년을 살아가는 매맞는 여자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았다. 자신을 때린 남편이 얼마나 속으로 상처받을까를 헤아리며 다음날 선물을 사들고 머쓱하게 들어오는 남편을 말없이 받아 주며 애틋해 하는 그녀들. 상처 주고 상처받음으로써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는 기이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 같아 나는 알 수 없는 혐오감에 치밀어 오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사디스트를 위한 변명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상처 주는 사랑의 상처에 왜 그렇게 관대한 것일까. 이것도 식민지 시대의 남은 유물일까.

> 굳이 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육체의 이미지가 범람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이 표류하는 육체의 이미지 속에 섞여 있는 '내 몸뚱이'

> 에 대해, 나는 가장 기본적이며 자연스럽고 실존적이며 자유로운 영역이라고 느낀다. 사실, 자기 몸뚱이 하나 못 챙겨서야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러나 뒤로 한 발짝 물러나 남자와 여자,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등등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권력의 네트워크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육체는 결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관적 영역이 아니다. 육체는 주체화의 시발점인 동시에 권력과 정치가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통로이며 나이, 계급, 인종, 민족성 따위가 얽혀 세력을 다투는 투쟁 공간이다. 헤게모니를 장악한 권력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토대가 되기도 하는 동시에 저항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급진적인 정치 공간이 되기도 한다. 너의 육체는 전쟁터인 것이다(Your body is a battleground)!!
>
>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대상화시킨 여성들의 육체, 바로 이곳에 우리는 화려한 저항의 꽃을 들 것이다. 그리고 여성적 재현으로 우리의 주장을 각인 시켜 나갈 것이다.
>
> —[illegible], 「Body painting: [illegible]」, 『[illegible]』, 1995

내 몸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청바지 하나 마음대로 찢어 입지도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염색할 수 없다. 불타는 오렌지색이나 인어 공주 같은 에메랄드 빛 녹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싶었다. 큰맘먹고 염색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엄마의 성화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엄마는 자신의 흰머리를 염색하는 염색약을 가져 나를 쫓아다니면서 내 머리에 바르셨다. 다 큰 딸아이는 머리를 감싸 쥐고 온 집안을 뛰어서 도망다니고 엄마는 염색 붓을 들고 쫓아서 같이 뛰어다니는 꼴은 차라리 희극적이었다. 하지만 그날 난 그렇게 유치하게 뛰어다닌다는 사실에 미쳐 버릴 것 같았고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결국 나는 내 방의 커다란 거울을 발로 차서 깨뜨렸고 놀란 엄마는

1995년 5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주최 '여성 새로 만남' 문화제 — 'Let's break the mirror!' 자료집 표지

그래서야 잔잔하고 소동은 멈췄다. 하도 화가 나서 나는 발바닥에 박힌 유리 조각이 아픈 줄도 몰랐다. 깨어진 거울 속에 비친 금간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나'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깨달았다. 내 몸은 조각조각 나서 그것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 언젠가 '70cm의 에티켓, 10cm의 사랑'이라는 구취 제거제의 광고 문안을 보고 한참을 생각한 적이 있었다. '과연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체온과 체취를 그토록 견디기 힘들어하게 된 걸까' 라고. 아무리 문명화된 사회에 산다 한들,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었음을 우리는 왜 그렇게 철저하게 은폐하며 사는 걸까. 미셸 푸코의 '생체 권력'과 같은 어려운 개념을 굳이

> 도입하지 않고라도 우리의 육체는 규격화된 주조틀에 들어맞도록 끊임없이 강요당해 왔다. 태생적으로 그것에 접근하지 않은 육체는 열등했고, 권력이나 그 시대에 의해 승인된 최소성을 가진 육체들 앞에서 도무지 이성적으로 해명될 수 없는 열패감을 느껴야 했다. 정해진 규격을 향한 열망은 수많은 여성들을 성형외과로 내몰았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영양 실조로 고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 남성들 역시 같은 이유로 전투적으로 헬스클럽을 다녀야 했고 '열악한' 육체는 그들을 향한 폭력에 미약한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다.
>
> —서울대학교 사회대 여학생 자치회(준), 「[illegible]」, 1997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외부의 [illegible]
기준이나 스스로를 검열하는 [illegible]
내 몸을 난도질하는 [illegible]
거울을 깨자!

6. 남근 피라미드와 카타콤

'귀신사(鬼神寺)' [illegible] 양을 닮았다고 [illegible] 우 장한 곳이라 [illegible] 양상의 커다란 돌을 [illegible] 양기를 북돋게 [illegible] 곳곳에는 흔히 남근 바위라 불리는 천연의 [illegible] 들이 있다. 남근을 숭배하는 민족답다는 생각 [illegible]

성정치 문화제 때 도서관 앞 만주 광장에 나무와 스티로폼을 이용하여 남근을 상징하는 피라미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 잡지나 광고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여성의 육체를 상품화하는 사진들을 오려 붙였다. '너무나 변태'이라는 제목을 붙여 우리 사회가 여성의 육체에 대해 얼마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를 폭로하는 설치물이었다. 그 때 붙였던 사진들은 겉보기로 흔하게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수영복 입은 여자들이나 속옷 광고 모델들이었다. 우스운 것은 신성한 캠퍼스에 이런 음란한 조형물을 만들어 놓았다고 분개하는 사람들이었다. 빨간 확성기를 쥐고 행사 기간 내내 '동성애는 피라미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다니며 복음을 설파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던 중 신학과의 한 학생이 도서관 앞에 설치되었던 피라미드 조형물을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나는 그 때 맞은편 학생회관 앞에서 떠들

1996년 연세대학교 '성정치 문화제' 기간에 도서관 앞에 설치되었던 '남근 피라미드'. 성직자의 한 신학과 학생이 이를 파손하는 모습.

1996년 연세대학교 '성정치 문화제' 기간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학생들이 성직자 등 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비난과 '동성애는 피라미니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모습.

쯤고 있다가 어떤 남학생이 설치물과 TV 수상기를 발로 차서 부수고 입기에 놀라서 달려갔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그는 내 목에 걸려 있는 커다란 나무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는 "당신도 크리스천입니까?" 하고 되물었다. 순간 당황한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었고,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것만 같았다.

이후에 달려온 다른 학생들과 빨간 확성기와 십자가를 들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고, 이들이 연세기독연합회 산하의 카타콤이라는 모임에 소속된 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카타콤 학생은 확성기를 붙잡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고 총학생회에서 이를 수습하여 축제에서 자유발언대가 만들어졌다.

처음에는 '성정치 문화제'보다는 동성애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들의 주장만을 펴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들려온 일반 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욕을 하며 야유하는 분위기였고, 신학과 학생들도 논리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펴기보다는 '회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수준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분위기로 잡혀 나갔다. 구조물을 부순 일에 대하여는 신학과 학생이고, 연기면 대표인 *** 형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얼마 후 총학생회측에서 영프 시설을 준비하여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토론이 마련되었다.

— 「기독교 세계와 동성애 성정치 문화제 상황 설명 팸플릿」, 중에서

(연세기독연합회 나무 토론 문건), 1996

1996년 연세대학교 '성정치 문화제' 기간 중 '남근 피라미드' 설치물 파손을 계기로 도서관 앞에서 '성정치 문화제'에 대한 격렬한 자유 발언대가 벌어지다.

성정치 문화제는 카타콤 학생들이 벌인 해프닝으로 대학 뜨거운 논쟁이 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나, 기독교 학교임을 강조하여 성에 대한 정교도적 윤리를 주장하는 것을 편견이라고 치부하기엔 그 바탕에 너무나 강고한 성에 관한 본질주의적 믿음이 깔려 있다. 그러한 신념이나 생각을 말하는 데 있어 그들이 보여 준 행동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렵게 폭력적이었다.

행사를 마치고 나는 시말서를 써야 했다. 학교의 원로 교수회의에서 당시 성정치 위장이었던 나와 총학생회장의 징계 문제를 논의했다. 그 때 시말서에서 나는 '세계 유수의 대학은 학칙에 종교나 인종, 민족이나 피부색, 정치적 신념이나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100대 대학에 손꼽히는 학교로 발전하고자 하는 연세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차별을 두어서 되겠는가?' 라는 요지로 간단한 내 생각을 써 냈다.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이후 일부 기독교 윤리 실천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쪽에서는 다양한 성도덕을 따로 잡고자 하는 정계 운동과 순결 서약식 등의 운동이 펼쳐졌다. 1996년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밝은 성 문화제'에서는 성정치 반론 성토지얼이 열렸었다. 대부분은 성에 관한 본질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라는 도덕 교과서의 논조였고, 우리가 슬하게 님

순결서약서

1997년 연세대학교 기독교목요주의 동아리모임 주최한 순결 서약식에서 읽어진 순결 서약서

여서고자 하는 가정——성은 억압되어야 하고 성욕은 파괴적인 본능이고, 성기 중심적인 성인의 성에 대한 것이라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논의들을 보고 아연해지고 말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진지하게 성정치가 제기한 성에 대한 폭넓은 접근과 성에 대한 정치적 논의를 이해하려는 시각도 엿보였다.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도 서로 거리가 아주 먼 것만은 아니다. 교권과 왕권이 통합되어 있던 중세나 그 이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종교에 의해 강화된다. 맹목적인 신앙은 때론 아편보다도 무서운 것이다.

> 여자는 보기에 아름다우나 만지면 죄에 감염되고 소유하면 죽음을 가져온다. —— 여자는 우정의 적이요…… 필요악이며—— 보기 좋은 색깔로 칠해져 있는 자연의 악이며 본성적으로 거짓말쟁이다. …… 모든 마녀들은 육정의 충족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탁월한 남자들에게서 찾으려 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에 탐닉함으로써 영혼의 죽음을 자초한다.
>
> —제콥 스프렝거와 헨리 크래머가 15세기 말 종교 재판의 길잡이로 쓴 『마녀들의 망치 *The Malleus of Maleficarum*』

> (여자는 성욕이 거의 없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온 세계가 유곽이 되고 결혼도 가족도 성립될 수 없다. 여성을 피하는 남자나 남성을 추구하는 여자가 비정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사랑에 대한 요구는 남성보다 여성이 강하며 간헐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 그러나 여성이 찾는 사랑이란 관능적인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인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에 관능적인 것은 없다.
>
> —크라프트 에빙(성과학의 창시자 중 한 사람), 『성심리』

> 처녀나 동정인 자에 대하여는…… 내 생각에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에게 신경을 쓰지만, 결혼한 자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세상일에 마음을 씀으로 마음이 둘로 나뉘어 버린다.
>
> —『고린도 전서』 제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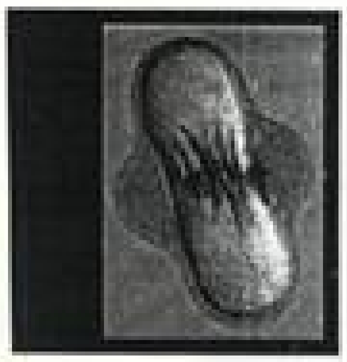
> 하느님은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죄로서 처단하셨느니라. …… 육신의 욕망은 죽음이기 때문이니라. —— 육신을 좇아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
> —『로마서』 제8장 3~11절

7. Lesbians are magic

'한 달에 한 번 여자는 마[illegible]'

내가 제일 좋아하는 [illegible] 의 그 비뚜둥한 기분과 아랫배의 불쾌한 통증[illegible] 생리란 불결하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illegible] 구는 여자들만의 생리 경험을 무언가 신비로운 [illegible] 같아서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일본 애니메이션 [illegible] 학교 5학년 때의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의 "추억은 [illegible] 가 있는데, 어느 날 체육 수업 시간에 갑자기 배분[illegible] 고 앉아 쉬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조금 조숙하[illegible] 명이 자신은 생리중이라 쉬고 있는 것이라고 [illegible] 생리가 무슨 전염병인 양 옆으로 멀



어져 앉으며 둘이서 생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었다. 주인공 여자 아이는 자신 또한 생리 때문에 체육 시간을 쉬고 있다고 여겨질까 봐 몹시 창피했던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생리라는 것을 불결하고 창피하고 은밀히 감추어야 할 터부처럼 교육받고 자랐다. 생리혈이 옷에 조금이라도 묻는 것을 대단히 단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생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남자 아이들이나 남자 선생님들이 알까 봐 매우 조심했었다. 생리라는 새로운 생체 리듬을 자신이 성적으로 성숙했다는 징표로 받아들이기보다 열등한 여성성의 표시로 여기거나 자신의 몸이 성적인 것과 관련지어 생각되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여겼던 것 같다.

지금에 와서야 나는 내가 생리를 한다는 사실에 어떤 우주의 신비가 깃들어 있다고 여기게 되었다. 천체의 운행과 달의 공전 주기에 맞춰 여성들이 생리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우리의 몸이 보다 큰 우주의 생성 원리와 그 신비한 비밀의 문에 더 가깝게 닿아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생리를 할 때 그리 불쾌한 기분만은 아니다. 내 몸이 정화되는 느낌이 좋기도 하고 생리 주기가 규칙적이 되면서 내 몸과 연결된 달, 혹은 어느 별과 교감하며 그 울림을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느낌은 흡사 무슨 종교적 제의와 같아서 성스러운 느낌까지 생길 때가 있다. 모른다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그것을 터부시하여 막연한 공포심과 괴물상을 투사한다.

여성의 경험들은 쓰여지거나 알려진 것이 너무나 없기에 언제나 이상하거나 낯선, 혼자만의 비밀로 존재해 왔다. 내가 처음 생리를 했을 때 나는 엄마에게도 셋이나 되는 언니들에게도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사실은 아무 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런 때에 할 수 있는 말들을 나는 책에서든 그 어디에서든 들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세대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다. 내 큰조카가 초경을 했을 때 형부는 케

이크와 꽃다발로 이제 사춘기를 맞아 자신의 딸이 비로소 여자로서 태어난 것을 축하해 주었다.

오랫동안 여성들은 고립되어 있었고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하여 서로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없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말할 수 있을 때, 여성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 맺기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자신의 부정성과 열등성, 수동성만을 강요당해 왔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여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내가 레스비언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들이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들이기 때문이다.

> 그녀가 다른 여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녀와의 성적 경험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녀와의 성적 · 감정적 경험을 가로막는 이성애주의와 여성을 가치 절하하고 멸하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에 대한 분노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는 그녀를 둘러싼 여성이 놓인 조건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
> —연세대학교 일상/지식/지형 문화제 기획단, 「어느 레스비언의 일상」, 『일상/지식/지형 문화제 자료집』, 1996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숱하게 많은 남자들이 사랑에 목숨 바치고 그들의 베아트리체를 찬미해 왔던가!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여자를 사랑한 것일까?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열정이 만들어 낸 환영이 아니었을까? 남자들이 정말로 여자를 사랑한다면 우리 사회의 여성의 삶의 조건에 그토록 무관심할 수 있는 것일까?

/난 남자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

남자들이 자신들의 우정과 신우애, 그 진한 의리에 대해 호방하게 말할

이면 나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동성애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에기만 해도 남자들은 여자들이 알지 못하는 남자들끼리의 그 무언가 끈끈한 우애를 지향하지 않는가. 사실 가부장제의 남성 중심적 문화는 어느 정도 남성 동성애를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우리 사회는 한편에선 결혼이 동성애 혐오증을 키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적인 동성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정치 문화에는 동성애자의 존재를 가시화한 행사였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시각은 동성애자의 '성적 취향'과 차이함에만 몰려 있기에 가심거리로 여기거나 정체성 자체를 성애화해 왔다. 그래서 오랫동안 동성애자

는 '동성연애자'[11]로 불렸다.

성정치 문화제에서는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라는 논의를 넘어서 동성애를 사회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동성애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태도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폭력적인 남성성을 재생산해 내는 가족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와 성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결혼과 가족 제도, 친족 체계 등과 남성다움, 여성다움과 같은 성역할에 대한 신념, 성별에 따른 사회적 차별 등의 문제가 남성 중심주의에서 생겨난 성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본주의적 경제 제도를 지탱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장치인 이성애적 신념이 기반 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동성애가 제기하는 정치적인 비판의 패러다임을 숙고하기엔 우리 사회의 담론은 동성애 대한 성적 취향을 인정해야 하는가 혹은 범죄시할 것인가라는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동성애는 동성애자의 인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면서 여성과 마찬가지로 이성애 중심주의의 주변적 성으로 배제되어 왔다. 동성애자의 존재가 집단적으로 가시화된다는 것은 동성애 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삶의 경험들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상하에 각인된 의미와 성의 질서를 의문시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기 위한 여성주의적 시각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는

[11]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한 혐오 이해는 동성애를 병든 성교육 연결짓거나 변태 성욕자로 생각하거나 호모섹슈얼(homo-gender)로 오인하는 것이다. 동성애자는 오로지 섹스로 주체이거나 이해한 성도착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었다. '동성연애자'라는 용어에는 동성애자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시각으로 재단하는 함의를 가지고 있기에 동성애자들 스스로는 게이나 레즈비언, 혹은 레즈비언 이성애자와 같은 일반 인이 아니라는 전제에 기반한 이름으로 부른다. '호모'라는 말도 동성애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의미이 강하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한 사람의 총체적인 정체성이 가려질 위고 있는 사람 모두 규정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모멸적인 정체성이라고 생각한다.

조우하게 된다. 강제적 이성애주의와 결혼, 가족 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성을 둘러싼 제도에 가장 이질적인 존재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이다. 그런 의미에서 레즈비언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가장 첨예하게 느끼고 그렇기에 가장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레즈비언들 중에는 남성성을 혐오하는 과격한 페미니스트들도 있고, 남성성을 동경하는 이들도 있다. 레즈비언과 게이는 세상에서 가장 상관없는 존재들이라고 규정짓는 이들도 있을 정도이다. 굳이 남성성만이 잣대가 아닌, 다양성, 단절을 만드는 기제들은 수없이 많다. 여성으로서, 동성애자로서, 이론과 우리 사회의 '구중 바닥 날뛰'하고 자조하는 삶의 방식이 지독한 본질주의와 삶의 단절의 현실로 이끄는지 모르겠다. 현재의 레즈비언 모두니하는 이제 이 단절들과 다양성을 어떤 식으로 봉쇄하고 무엇을 대상으로 싸워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아직 레즈비언들은 분명한 소수이지만, 이들의 가치를 하나로 규정하려는 전체주의적 오류는 없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동성애자 인권 모임 이음 003, "레즈비 이런 성하게 지내요", 1997

이성애주의는 너무나 강고해서 동성애자들은 이성애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를 빠지기도 한다. 부치(butch)와 펨프(femme)는 레즈비언들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성별이기도 하여 성역할에 대한 고정적 틀을 더욱 정교하게 재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성별이 언제나 유동적일 수 있고 상호 교환될 수 있다면 성에 관한 고정 관념을 유쾌하게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성애자의 동성애자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동성애자다움을 확립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이성애주의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다. 그렇기 위해 더 많은 관계의 실험과 다양한 전교의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이제야 비로소 동성 [illegible] 넘어서 여성 운동과 소통과 연대가 가능한 진 [illegible] 출발점에 서있다.

8. 새로운 전선, 성의 정치

[illegible] 명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는 [illegible] 강박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는 결코 [illegible] '전선'을, '성의 정치'로 대체함으로써 시작한[illegible]

여성에 대한 굴욕적 지배를 [illegible] 제도와, 남성들의 성적 편애를 가족 질서의 [illegible] 매춘의 역사, 그것은 성의 정치이다.

여성을 성적 욕망의 [illegible] '성'과, 낭만[illegible] '찢어진 로맨스' [illegible] 감시하는 저 위대 [illegible] 이외의 모든 성적 행동 [illegible] 동성애 공포증의 비극적 사회 병 [illegible] 저편에는 '성의 정치'가 있다. 때문에, 우리의 전선은, '도처'에 있다.

우리는 성의 담론과 은근하게 결합된 모든 사회적 금기와 도덕적 편견을 거부한다.

허나 거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와 사회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또 다른 나

사이에 끝임없는 적대의 전선이 발생하길 희망한다. 우리의 작은 바람은, 그 전선의 부단한 부딪침과 스쳐짐 속에서, 고매한 일상의 가치 체계가 조금이라도 전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의 정치 : 일상의 가치의 전복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illegible] 선거 자료집』, 1995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삶의 주술적 광기에 사로잡혀 신들린 무당처럼 무아의 열정으로 살게 되는 때가 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 입을 열게 되고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을 마구 쏟아 놓게 되는 광기의 시간. 나에게 성정치 문화제는 그러한 광기와 카니발의 시간이었다.

많은 취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고 누구나 성정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 그때 나는 내가 책에서 읽고 이해한,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언어들이라고 생각했던 가부장제니 자본주의니 혹은 이성애주의니 하는 거칠고 척박한 말들로 성정치를 설명했다.

'성은 정치적이다'라는 이 진부하기 짝이 없는 주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인 관심이 유난스러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지 동성애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일까?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성을 말할 때는 두 가지의 언어가 있는 것 같다. 페니스, 고환, 질, 자궁, 난소, 오르가슴, 조루, 지루, 불감증, 관음증 등과 같은 해부학적인 의학 용어로서의 생리학적 언어와 포르노, 변태, 강간, 외설, 불륜, 간통 등과 같은 윤리적인 성도덕의 언어들이다. 우리 사회가 관용하는 방식으로만 성을 얘기해야 하는 것이다. 성정치 문화제에서는 '억압되어 있는 성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만 말하도록 허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언어화되지 않는 것은 사유되지 않는다. 이름이 없는 폭력은 폭력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부부간에도 강간은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의 낯설음은 '부부'라는 말과 '강간'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 사이에 공집합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이분법을 뛰어넘어 성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적으로 행사되는 폭력, 혹은 비언어화된 권력의 작동 방식을 사유하고 이를 비판하기 위함이다.

40~50대의 많은 여성들, 아줌마, 혹은 우리의 어머니들은 항상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다. 생물학적 노화 현상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이 나이 때의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슴이 답답한 증세나 두통, 신경통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뿐 아니라 이러한 증세에 대한 사회적 맥락을 읽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흔히 화병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병은 아줌마들을 이유 없이 앓아 눕게 만든다. 자기 삶의 불행과 상처들을 번역해 낼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줌마들은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자신들 삶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다. 아줌마들은 불행하거나, 사랑받지 못해서 아픈 것이다. 희생의 미덕만을 강요당해 온 아줌마들은 괴로하고 각박한 일상의 일거리에 지치고 힘들 때 자신들을 위로할 수 있는 언어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언어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이다. 신경 정신 질환의 일종인 이 이름 없는 병은 남편과 자식 사이에서 소외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조명되지 못한 여성들의 불행에 기인한 병이다. 여성의 일상의 세밀한 경험들을 정치화하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개념 자체를 새롭게 사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분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언어들을 가져야 한다.

성정치는 사생활이라는 테두리로 보호되거나, 혹은 가족주의적 성윤리의 상투적 언어 속에서 행사되는 남성적 권위와 폭력을 가시화하고 그러한 권력을 지탱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지극히 일상적이며 사적이고 주관적 체험이라고 여겨지는 성적 경험, 혹은 성적 관계를

정치적으로 재독해하려는 시도이다.

성정치, 이것은 바로 성이라는 것을 성애화된 담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것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며, 성이 왜 사적인 영역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애화된 성, 비밀스러운 성은 사실상 근대 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등장한 개념이고, 수많은 권력의 메커니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실체화된 것이다. 성이라는 것이 인간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인 만큼 거기에는 강력한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성정치란 무엇인가」, 『성정치 문화제 자료집』, 1995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는 성(Sexuality)[2]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푸코는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 조건과 담론에서의 권력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을 매개로 작동하는 권력의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다. 푸코는 '성은 억압되어 있었다'는 억압 가설을 부정하고, 오히려 성에 관한 무수한 말들이 있어 왔었다 주장한다. 성은 성을 둘러싼 제도와 담론만이 존재할 뿐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푸코의 문제 의식은 우리 사회가 '성'을 말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2] 성에 대하여 말하려고 할 때 언어를 통해서건 혹은 시각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이건 우리는 항상 성(sexuality)을 둘러싼 특정한 법칙과 규범들의 범위 내에서 작동하는 의미들의 체계들을 사용해 왔다. 이 특정한 법칙과 규범들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역사적으로 조건지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이유로 성을 둘러싼 담론은 정치적인 맥락 안에 놓이게 된다. 여기서 성(sexuality)은 생물학적 성차를 구분 짓는 sex와 성관계를 뜻하는 sex, 문화적으로 구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별짓는 gender와 성적 취향, 성적 지향성, 성을 매개로 한 권력이 [illegible] 성적 정체성 요구를 포괄하는 말로, '성'이라는 개념을 정치적으로 독해하려는 성정치학은 성을 정치적으로 사유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개념을 다시 새로할 것을 주장한다. 미셸 푸코의 문제 의식은 일상에 잠복된 권력의 그물망으로서 성적 관계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에서 '정치'에 대한 다른 식의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80년대 우리는 한 철학자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단연 그 인물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이다. 그는 성은 억압과 해방, 금지와 관용의 문제라 받아들였던 전시대의 이야기 전체를 비웃는다. 그리고 그는 극히 충격적인 주장을 세상에 부려 놓았다. 성과 권력, 지금 우리에겐 『성의 역사』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그 첫 저작을 통해 그는 아주 명쾌하게 성에 관한 전시대의 지식을 비웃었다. 성이란 억압과 금지된 것이 아니었다. 성과 그를 둘러싼 지식과 관행, 상들은 단지 자신의 육체와 감정을 조절하고 지배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권력일 따름이다. 우리는 복종과 계율을 위해 쾌락과 행복이란 이름으로 저 유별난 성이란 것을 끊임없이 떠들고 즐겨 찾을 따름이다. 결국 그의 말을 따를 때 우리가 자유롭도록 풀어 놓아야 할 그 성이란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의 그 사사로운 삶을 다스리고 판별하기 위해 만들어 내는 성의 이야기와 제도들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20세기의 입구에서 성이란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미지의 대륙이라 생각했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 반대 극의 주장에 당도하게 되었다. 성,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20세기 성과학의 지식들—킨제이에서 보리스 까지」, 『성정치 문화제 자료집』, 1995

'성은 없다. 성에 관한 무수한 담론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주장의 난해함 속에서 성정치의 문제 의식은 어쩔 수 없는 미궁에 빠진다. 성정치를 기존의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정치의 핵심적 문제 의식을 단순화시켜 동성애자의 정치학이라고 분류하거나 프리섹스주의의 세련된 표현이라고 오해했다면, 나에게 성정치는 여성 운동을 새롭게 사고하는 문제틀이 되었다.

나는 진부한 여권 신장론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도식적이고 정답이 빤히 보이는 문제 제기의 무미 건조함은 여성 운동을 사법적 권리의 문

제로 혹은 추상적 남녀 평등의 구호로 여기게 했다. 여성 운동은 더 풍요로운 언어들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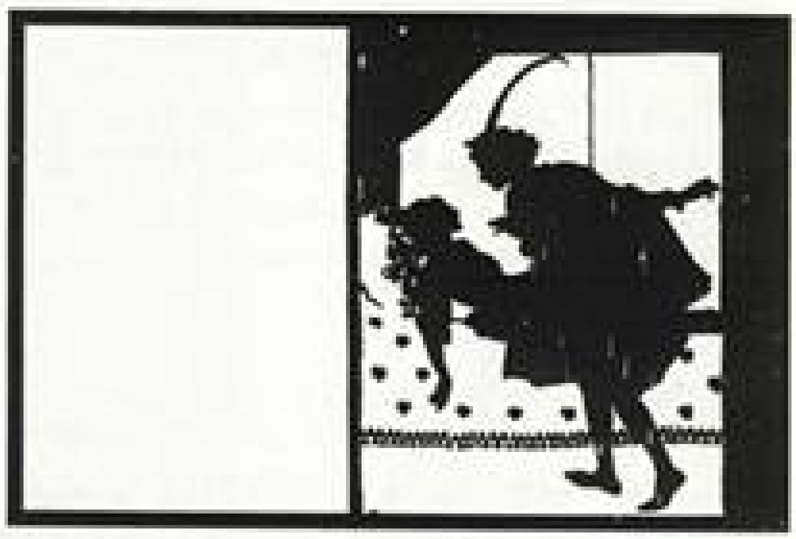
성정치는 여성 운동의 상투화된 구호들을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성정치가 이전까지의 여성 운동과 다른, 전혀 새로운 운동의 테제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국 사회에서 성정치 담론은 기존의 여성 운동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양날의 칼이 되었다. 여성 운동을 말하면 촌스러운 것이 되고 성정치를 말하면 세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어설프고 도식적인 구분은 진지하게 여성 운동을 고민해 왔던 사람들에게 적잖은 불쾌감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정치는 여성 운동의 관성화된 언어들이 환기시키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터부나 그것을 둘러싼 권력 구조에 대한 섬세하고 [illegible]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성에 대한 정치적 발언의 가능성을 실험한 장이 되었다.

성정치 문화제에 열광했던 사람들이나 광적인 혐오를 드러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극단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신들린 무당과 같았다고 기억되는 것은 그 때의 그 집단적 광기의 행위들이 어떤 의미의 주술적 의식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한 판의 굿을 벌린 듯한 신명 속에서 남아 있던 신기의 모드짐으로 나는 그해 총여학생회 선거에 나가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열정적인 삶의 순간이었고, 치열하게 삶과 세계에 대한 많은 것을 고민했던 시간들이었다. 그 때의 고민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에 기대어 자연스럽게 나는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그때 성정치 운동을 함께 고민한 사람들의 문제 의식을 정리한 다음의 글은 성정치를 여성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고하려 했던 우리 나름의 성찰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글로 평가되기에 전문을 싣는 것으로 '성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지루한 질문의 답을 대신한다.

성에 관해 말하는 것은 뭔지 낯부끄럽다.
— 아마도 그건 아랫도리의 음흉함을 말하는 거겠지?
천한 것, 외설스러운 것, 비밀스러운 것, 끈적끈적한 것, 퇴폐한 것,
출렁거리는 것……
나의 욕망과 환상과 희열과 어른들의 기대와 탄생 이전의 비밀까지,
그것이 환기시키는 모든 것을 사뭇 '야하게' 만드는 마이더스의 손.
성에 대해 말할라치면,
말하는 나는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인간,
점잖지 못한 속물,
원초적 본능과 쾌락에 극히 약한 퇴폐적 인간.
이 은밀함, 이 조심스러움, 이 위험함.
그러니까



성에 대해 말할 땐 권위 있는 사람들의 학제적 용어로만 말할 것.
아니면 술자리 음담 패설로, 화장실 낙서로만 말할 것
(한번 웃어 넘길 정도로).
그러나, 쉿! 함부로 말하지는 말 것 — 애들이 들을지도 모르니까!

1. 성정치라는 말을 꺼낼 때 아마도 대다수는 '성'을 '정치적'인 의제로 '새로이'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정반대다. 오히려 성은 언제나 정치와 권력의 관계 속에서 역사적·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온 것이라 말하는 편이 진실에 가까우리라. 즉 성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성의 정치는 역사와 함께 성쇠해 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성의 정치라는 말로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은 결국 오늘날의 일반적 상식, 즉 성과 정치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잊지 말자. 이렇듯 성이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며 비정치적인, 주관적 체험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 온 '성의 정치'의 효과이다.

2.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성정치는 성차와 성적 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투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 해방 운동은 '성'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의제화한 가히 혁명적인 운동이다. 이들이 문제시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 성적 착취, 남녀의 다양한 차이들, 그리고 동의와 합의의 의미들은 전통적인 정치의 형태와 방식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게 하였고 '정치'라는 용어 자체의 의미를 확대시켰다. 위대한 페미니스트 케이트 밀레트가 일갈한 대로 성의 정치라는 용어는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승인될 수 있는 말이다.

3. 하지만 성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어김없는 도덕적 분노와 혼란을 초래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현실의 남성성/여성성을 문제삼는 성차별주의의 문제 설정을 넘어선, 그야말로 은밀하고 야한 '그것'의 의미로서의 성까지 포괄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성은 대개 생식기의 접촉을 환기시키는, 성적 충동과 욕망, 금기와 호기심의 영역으로서의 의미, 그것이다. 이런 상상력

속에서 성과 정치를 연결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태 의연한 의미에서의 결합. 즉 권력 집단이 대중을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 3S(섹스, 스포츠, 스크린) 정책을 썼다는 우리 현대사적 실례에서의 '성'과 '정치', 혹은 외설이냐 예술이냐를 판가름하는 데 공윤과 사법부가 가위질과 구속 처벌로 개입하는 데서 읽을 수 있는 '성'과 '정치' 이상은 없다. 아마 거기 더 나아가면 성폭력 처벌의 법제화, 그때의 '성'과 '정치'일 것인데 불행히도 많은 이들은 이것이 인정된 것도 기나긴 세월 여성 운동이 투쟁한 공과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나마도 우조교 사건 항소심 패소에서 드러나듯 성희롱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 마찬가지의 상상력 속에서 성을 공론화하자는 주장은 십사리 성개방, 즉 프리섹스를 하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되면 제일 먼저 종교 근본주의자들과 성-도덕주의자들이 치를 떨며 개탄하는데, 그들의 분개인 즉슨, 성을 함부로 말하면 그것은 무분별한 성관계와 성타락을 가져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근거로 드는 것이 서구 사회의 현재 모습과 병폐인데, 사실 이러한 주장들은 그 해괴한 성-결정주의는 차치하고라도 그 진의가 의심스러운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수다한 문제들을 일군의 여성 해방 운동가, 동성애 운동가들에게 전가시키는 그 어처구니없음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왕의 정치적 보수주의자들과 진보적 정치 의식을 가진 운동가들이 만나는 진기한 해프닝이 벌어진다.

5. 우리는 성이 자명하고 자연적인 그 무엇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얽혀드는 정치적 힘겨루기를 간파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를테면 '성본능'에 관한 한 상식보다 더 깊이 뿌리내린 가정이 있는데, 도덕적 의지와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파멸을 몰고 오고야 말 고질적 인간 본성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수주의적 성본능론은 또한 남녀의 성적 본성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는데 이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성차 또한 '자연스럽게' 유추된다.

6. 문제는 그 동안 여성 운동 진영이 제도적 평등과 권리 획득의 문제, 출산과 가사의 문제 등등을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 왔으나, 성과 욕망의 문제에 관한 한, 취약한 지점들이 허다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보수주의자들이 대충 '공격적인 남성의 성욕'을 그나마 안전하게 가둬둘 수 있는 것은 결혼과 가족 제도뿐이라고 성토할 때 심각해진 여성 운동가들은 성문화와 전통적 도덕을 옹호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만다. 이렇게 해서 사회의 병리적 불안 현상들은 모두 사회의 변혁을 모색하는 이들 탓으로 돌려지고 성을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에서 단단한 재미를 챙기는 건 신보수 우익 세력이다.

7. 성이 자연스러운, 이미 거기에 있지만 다만 말 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점이 이야기하고 싶은 첫번째의 것이다. 그것은 시대마다 지역마다 문화적으로 다르게 구성되는 것이며 정치적 형성물이다. 우리 사회 속에서 성이 코드화된 방식 중 한가지가 여성의 지나친 성애화이다. 여성의 육체는 끊임없이 상품화되고 미학화되어 에로틱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것처럼까지 보인다. 그래서 폐경기가 지난 여성은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중성적 폐물이며 어쩌면 그녀의 인격적 가치까지도 심하게 훼손당한다. 그리고 아마 이와 짝을 짓는 신화로 남성들의 콤플렉스 ― 정력의 화신에 대한 환상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코드화 속에서 여성들의 목소리 높임은 마치 '더 많은 봉사를!'과 같은 요구로 읽히는 희화화를 초래한다.

8. 물론 여성 운동은 언제나 '성의 정치' 운동이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서 다

1996년 5월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주최 '여성 새내기 문화제―"Let's break the mirror!"' 포스터

시 한 번 성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은 성차와 성적 문화를 둘러싼 여성 운동의 급진적 주장들이 그 동안 '정치적'으로 읽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성 해방 운동이란 기껏해야 남녀 관계의 사소한 불평등을 트집잡아 권력 관계 운운하는, 좀 배운 여자들의 배부른 수다라고 깔보는 인물들이 세상에는 숱하게도 많다. 그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한 개인의 불행은 그저 그 자신의 못난 탓으로 돌려진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 속에서 아내 구타를 포함한 가정 내 폭력과 강간, 성희롱, 낙태, 이혼모, 취업 기회의 불평등, 구조적 임금 격차 등등의 사회 문제들이 개인의 문제로 간단히 치부되어 버리는 것이다.

9. 또한 성의 정치는 성애적 성에 관한 정치적 의제화도 포함하는 것이다. 여성 운동은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과 사회의 이중적 성규범을 공략해 왔다. 확실히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는 대단히 엄숙하고 규제적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성을 팔아먹고 광고한다. 이 이중적 성규범은 윤장 해춘형 여성과 순결 정조형 여성을 구분하고 각각을 상이한 방식으로 '구해' 하게끔 한다. 그러나 여성 운동은 한발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성인과 비성인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 성규범 또한 공략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되었다는 치더라도 그것은 남성과 [illegible] 권고 - 허용된다. 이는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은 성 [illegible] 도 자신을 성적 주체로서 자각하고 그 [illegible] 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성은 더 [illegible]

[illegible] 1995

9. 꿈꾸는 지렁이

[illegible] 어의 수사적 표[illegible] 다는 것은 많은 긴장 [illegible] 게 살아가야 할지에 [illegible] 는 것은 자신의 삶 그 [illegible] 고 매순간 자기 삶을 [illegible] 될 것이다.

나는 한동안 내가 [illegible] 떠나 있었다. 내가 했던 말들과 내 감성들이 [illegible] 것이 싫었다. 책에서

보고 이해했던 말들을 내 삶의 때가 묻은 언어들로 바꾸기 위해,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떨쳐 버리지 못한 어떤 낭만적 환상이나 이기적 욕망을 미련 없이 떨쳐 버리길 바랐다. 젊은 날의 마지막 방황이기도 하고 내 삶 전체를 다시 쓰기 위한 단절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나는 도망가고도 싶었다. 내 앞에 펼쳐진 페미니스트로서의 삶이 피곤하고 두렵기도 했다. 나는 여행을 떠났다.

어느 날 이국의 낯선 공항에서 비행기를 놓치고 망연자실하여 서 있을 때, 그때 느꼈던 아득함,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고독감과 피로움. 악몽에 시달리다 깨어났을 때 느끼는 현기증 같은 피로감이 나를 엄습했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된 것이다. 너무 많이 반복해서 규범이 되어 버린 방황과 일탈, 축제와 전쟁의 날들을 가슴 한구석에 접어 두고 돌아와 내 일상의 언어들과 정치의 언어들의 하나로 엮어 내 삶의 언어들로 바꿀 때가 된 것이다.

나는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여 '페미니즘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다. 여성적 감성의 언어와 이미지들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고 싶다.

로트레아몽의 시 "말도로르의 노래"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나는 숫상어와 암호랑이의 자식이다.'

한 친구가 이 구절이 인상 깊다고 했다.

나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상어나 호랑이의 상투적인 남성성을 표상하는 은유가 싫었다. 그래서 나는 "하 그건 불가능한 이성에다. 나는 차라리 암수한몸인 지렁이의 말이다."라고 말해 주었다.

남자와 여자는 숫상어와 암호랑이만큼의 거리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성의 삶에 대해 자각할수록 나는 망바닥을 기어다니며 진창을 탐구는 지렁이와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지렁이가 끊임없이 토해

내는 것들이 땅을 비옥하게 한다니 존경할 만하지 않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견고하게 깨지지 않는 틀을 강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조차 더 이상의 소통이 불가능할 때, 그래서 그 터무니없는 권위 의식과 남성 우월주의에 상처받으면 나는 숨고 싶다. 땅속으로.

그 음습한 지하 세계에서 혁명을 꿈꾸는 무정란의 세끼들을 키우고 싶다.

부록 2.

대학 여성 운동의 발자취*

1. 들어가며

1) 대학 여성 운동

한국의 학생 운동에 관해서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많은 평가와 기록 작업이 이루어졌다. 한국 현대사에서 대학, 그리고 학생 운동은 진보와 변혁의 실험실로 여겨졌다. 대학 여성 운동은 바로 그 진보적인 공간의 보수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되어 끊임없는 실험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 여성 운동은 학생 운동이라는 큰 흐름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자료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는 대학 여성 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더불어 여학생들의 운동이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 여성 운동은 두 가지로 설명된다. 먼저 '여학생 운동'은 전체 학생 운동의 내부에서 여학생들이 주체가 되었거나,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따라서 '여학생 운동'이라는 말은 여학생들이 주체가 된 운동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두 번째로 '대학 내 여성 운동'은 비교적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활동, 즉 '성'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있는 운동을 말한다. 대부분 '학생 운동'의 개념보다는 '여성 운동'의 개념에 가까운 것을 가리킬 때 쓰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구분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나고자 두 가지 모두를 '대학 여성 운동'이라 지칭하였다.

대학 여성 운동의 시작은 대학에 여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여학생들의 입학 자체를 여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으므로 대학 여성 운동의 역사는 여대생의 역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시작은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인 1980년 전후로 잡았다.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대학 여성 운동을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 형성되는 시기인 '형성기'와 새로운 형태의 조직 정서와 대학 여성 운동에 관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는 시기인 '전환기'의 두 시기로 나누었다. 이 '시기' 개념은 지역별·학교별로 큰 편차를 가지므로 두 시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정확한 연도가 아니라 운동 양상의 변화로 삼았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사실들이 섞여 있는 까닭은 그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및 자료

대학 여성 운동에 관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평가 작업 또한 미비한 편이다. 군복무 때문에 대학을 6~7년 만에 졸업하는 남학생들에 비해, 여학생들의 재학 기간은 짧은 편이어서 운동 주체들의 세대 교체도 빠른 편이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의 일도 다음 세대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약점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주로 대학 내 여성 언론의 출판물과 학생회에서 제작한 인쇄물들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여성과 사회』 6호(창작과비평사,

* 이 글은 1990년 이후 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을 역임 박홍재씨의 글이다. 박홍재씨는 1990년 여성 연대 회지 등의 기록들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Move Entertainment에서 일하고 있다.

1995)를 토대로 쓰여졌는데, 그 외에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밖에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들은 대학 여성 운동 내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체험에 근거를 둔 내용이다. 자료의 특성상 연구 범위는 대학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는 몇몇 학교들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연구자가 대학 여성 운동에 뛰어든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경험적인 근거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서 대학 여성 운동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앞으로는 더 많은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시작한다.

2. 형성기 : '여학생 운동'

1) 여학생 조직 생성의 배경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초로 남녀 공학을 표방한 이래 수많은 남녀 공학 대학들이 생겨났다. 전체 대학생 중 여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전통적으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법과 대학이나 의과 대학, 공과 대학에서도 여학생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해서 주어진 조건이 모두 열린 것은 아니었다. 대학 내에서도 여성은 '대학생'이 아니라 '여대생'이었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활동해도 항상 '여성'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여학생들은 제각기 대응책을 찾아야 했는데 여성성을 거세한 채 남성화되기도 하였고 환경에 순응하기도 했다.(남학생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고자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터프한' 여학생이 되거나, 남학생들에게 호의를 사기 위한 '여자다운' 여학생이 되는 것이 대부분의 선택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여학생들의 '독립 운동'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신문』은 당시의 상황을 아래와 같이 회고한다.

> 1970년대 후반 학번의 세대, 즉 198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던 여학생들은 대학을 자유로운 사상과 이념의 천국으로 여겼다. 그 당시의 학생 운동은 독재 정권의 타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만큼 여대생들도 그러한 사회 문제의 해결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위 '언더 서클'에 들어가 80년대 초반의 모순된 현실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들은 자신들을 받아 주지 않는 남성들을 보며, 가장 진보적이라는 운동권에서조차 남녀의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여학생들이 취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남학생들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것이었다. 선배를 형이라 부르는 등 자신의 여성적인 특징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주류 질서에 편입, 스스로 남성화됨으로써 동참할 수 있었다. 이는 전체 학생 운동에 여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후 독자적인 여성 운동이 싹틀 토대를 마련했다.
>
> — 「80년대 이후 대학 여성 운동의 발전」, 『대학신문』, 서울대학교, 1996

여성 조직이 형성되는 초기에 학생 운동 진영이 여성을 배제했던 분위기는 다음의 글에도 잘 드러나 있다. 왜 여학생 모임이 따로 생기게 되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 80년대 새로운 개변의 세월 속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자 했던 여학생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 길 외에는 없는 것 같았다. 첫번째 길은 상대적으로 능력 있는 남학생들의 보조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고 두 번째 길은 지치고 힘들어서 결국은 그 대열에서 떨어지는 것이며, 세 번째 길은 거의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로 인해 81학번부터는 더욱 더 절실하게 여학생들만의 서클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러한 서클이 하나로 결집됨으로써 그 결집된 힘의 과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로써 82년부터는 선정회(善貞會 : 여학생들만의 서클)를 중심으로 '여파(女波)'라는 개념으로 각 서클에서 활동하는 활달한 여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
> — 김상실, 「여학생 운동 소고」, 『성균』, 20호, 성균관대학교, 1991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정확하게 말하자면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 학생 운동의 주력 부대로 자리하고 있던 '패밀리' 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이었다. 여학생을 받지 않은 이유는 여학생의 투쟁력에 대한 불신과 조직에 이성이 들어옴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 ……엄격한 보안을 생명으로 하던 지하 사회과학 학회는 여학생들에겐 철저한 금단의 영역이었다…… 어떤 남학생이 감옥에 가면 약혼자를 빙자하여 감옥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여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실천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였다. 드물게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 참여했던 걸출한 여학생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떠돌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전설이었을 뿐 여학생들은 학생 운동권에서는 철저히 차단되었다…… 여학생들은 한마디로 학회 분위기를 버린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었다. 그 엄혹한 실천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녀가 함께 있으면 분위기가 흐려져 학회의 장래를 망치고 만다는 게 여학생들을 받아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
> — 이혜원, 「페미니즘 여학생 조직을 만들기까지」, 『여성과 사회』, 6호, 창작과 비평사, 1995

가장 진보적이라는 이들 모임에서조차 여성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현실에 반기를 들고 1970년대 후반부터 여학생들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인식의 차이로 인해 여성 문제, 여성 조직의 필요성 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와해와 재건을 거듭하면서 몇몇 학교들을 중심으로 여학생 모임들이 자리를 잡아갔다.

> …… 여파(여학생회)가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부딪쳤던 것은 '인식의 차이'였다. 주로 "여학생들만의 조직이 왜 따로 필요한가?"와 "여성 문제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으로 '인식의 차이'는 드러났으며 그 폭은 너무나도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쉽사리 그 문제는 극복되지 못하였고 여학생체대(학도호국단 체제 하에 있었던 여학생 호국단이랄까, 여학생회 같은 기구) 그리고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이론적 대립 이전에 학우들간의 감정적 대립 양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곤 했다.
>
> — 김상실, 「여학생 운동 소고」, 『성균』, 20호, 성균관대학교, 1991

학원 자율화 조치 이후 유화 국면을 타고 '패밀리' 들은 학회나 학생회로 전이되었다. 각 학교에 총학생회가 건설되고 1980년대 중반 학생 운동에서 여학생들의 입지가 조금씩 넓어지면서 학회에서 여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학생들이 학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자 여학생 모임들은 필요성을 잃은 듯했고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학생회 건설 붐을 타고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형태를 갖춘 체계로 변화하게 된다.[1] 여학생 조직 역시 학생 운동 조직과 마찬가지로 여학생 학회를 중심으로 학생회 건설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학회로 대변되는 여학생 조직의 존재 이유가 불분명해진 상태에서 어떻게 여학생회가 건설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찾기 어렵다. 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학생들이 학우들의 고민은 학생회를 통해 해결한다는 당시의 흐름을 타고 건설했다는 정도만 찾을 수 있다.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illegible] 조직의 유형에 근거하여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시기를 남성 중심의 조직으로 제한되는, 두 번째 시기로 정의하고 있다. 조직의 유형이라는 측면에서는 1980년대를 전후한 몇 년과 학생회 체제로 재편되는 1980년대 중반은 다른 시기로 구분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지 못하고 전체 운동의 차원에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활동을 담당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았다.

2) 조직의 형성

① 여학생 서클 · 여파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의 여학생들은 학생 운동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었으며 사회 변혁에 참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여학생 모임을 만들게 된다. 여학생 조직은 '여파'의 개념으로 각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학생들의 모임이거나, 여학생 모임을 주축으로 한 '여파'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학생 조직은 여성들만이 모인 '여파'의 개념으로 각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학생들의 연합 모임이나 여학생 서클이 중심이 되어 여학생들이 모이는 식으로 성별 구분에 따른 모임의 형태로 운영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문이나 문집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활발한 몇몇 학교에서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 일부와 대구 지역을 제외하면 학생회 건설 이전에 여성 운동 단위의 흔적은 찾기 힘든 경우가 많다.

처음 여학생 모임이 생겨나면서 자극을 받은 일부 학회들은 여학생을 받기도 하였으며 무림-학림 논쟁[2] 시기에 일부 학교의 여학생 학회들이 활발한 활동[3]을 펼쳐 여학생들의 투쟁력이 인정을 받게 되자 1982년을 전후하여 많은 학회들에서 여학생을 받기 시작했고 여학생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 여학생들이 학생 운동에서 나름대로의 몫을 해내면서 1982년 이후 점차 사회과학 학회들이 여학생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여학생들의 참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활발해졌고 오히려 군대 문제 등에 따른 단절이 없어서 여학생들을 선호하기까지 했다고 들었다.
>
> ― 이혜현, 「독자적 여학생 조직을 만들기까지」, 『여성과 사회』 6호, 창작과 비평사, 1995

2)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쏟아져 나온 대답으로 기존의 학생 운동을 이끌어 온 무림이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직 보존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정세를 판단하자, 학림 진영이 학생 운동이 학회들의 협의체적 구조에서 벗어나 더욱 강력한 투쟁을 위한 강고한 조직화를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림의 사상은 무림에 비해 급진적인 것이었고 여학생 문제 또한 무림에 비해 적극적이었고 진보적이었다.

3) 학림-무림 논쟁에서 여학생 학회들은 학림의 핵심으로 크게 활동하였다.

여학생들에게 학회의 문이 열리면서 여학생 모임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학생 운동에 대거 참여했던 운동 주체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없었던 상황 때문에 공백이 생기자 여학생 모임들은 해소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여학생 모임들이 만든 흐름은 사라지지 않아, 여학생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여학생 조직을 부활시켰다.

② 학생회 체계로의 전환

학원 자율화 조치 이전인 1983년 성균관대학교에는 학도 호국단 체제하에 여학생 세대를 두게 되고, 1984년 학원 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총여학생회가 발족하고, 1985년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에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는 것을 비롯하여 여학생들은 비정규 조직을 벗어나 보다 공인된 체계를 지닌 대표 조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여학생들의 독자적인 운동체에는 그 존재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며 학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많은 학교들에서 건설과 해소를 반복하면서 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1987년에 전국 10여 개 지역에 지역별 연대체가 생겨나고 1989년에는 여학생 대표자 협의회가 건설되면서 각 학교의 여성 운동 단위들이 모이게 되었고 대학 여성 운동의 영역을 확보하는 거름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고 전국적으로 많은 학교들에 기층 여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전여대협(전국 대학 여성 대표자 협의회)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든다. 건설 과정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대구지역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서울 지역을 비롯한 몇몇 큰 대학들에

학생회 체계가 공고해지는 과정에서 여학생회가 잇따라 자리를 잡게 되자 상대적으로 뒤늦게 학생회가 건설된 지방의 대학들에서도 여학생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들 총여학생회가 건설되는 과정은 여성 문제의 독자성을 인식한 조직 구성이 아니라 완성된 학생회 체계가 갖추어야 할 일종의 '구색'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체는 대개 각 학교 학생 운동 진영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여학생이었다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3) 운동의 전개와 주요 활동

이 시기 여학생 조직들이 독자적으로 행했던 주요 활동으로는 1980년대 중 · 후반경 빈민 연대 활동의 차원에서 진행된 보육 활동, 19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주한 미군 범죄 근절(주한 미군 철수)을 요구하는 활동 등을 들 수 있으며, 사안별 활동에는 고용 평등법 제정 시기에 이루어졌던 고용에서의 남녀 차별 금지를 요구하는 활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항의 활동, 김보은 · 김진관 사건 당시 벌였던 석방 운동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마다 이루어지는 농민 학생 연대 활동에서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한 활동 분과의 명칭이 '부녀반'에서 '여성 농민반'으로 바뀐 것도 1990년대 초반 무렵이다.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해 볼 때 '성'을 매개로 한 사안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중적인 활동이 점차 늘어난다. 이들의 운동은 '여학생 운동'이라고 불렸으며 기존 운동의 한 부분으로 '여학생들이 주체가 된 운동', 혹은 '여성에게 일어나는 비민주적인 일들에 대한 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여학생들의 운동은 이른바 '상위 운동'에 반드시 복무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학교 밖의 여성 운동이 지식인 여성이나 중산층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기 때문에 성문제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르주아 여성 운동으로 이해되었다. 당시의 풍토에서 여학생들의 운동이 부르주아 여성 운동을 추종하는 것은 철저하게 금기시되었다.

> ……그러면 여학운(여학생 운동)이란 무엇인가? 여학생 운동이란 여성 억압의 본질과 여성 해방의 구체화된 미래상을 여학우들에게 끊임없이 알려 나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들의 자생적 요구를 궁극적인 해방의 길로 견인 · 수렴해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학생 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자 그 해악을 온몸으로 받아 안고 모순 구조를 깨뜨리려는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섰을 때만이 여성 해방, 노동 해방을 이룩할 수 있음을 알려 내고, 여학생들을 당면 변혁에 있어 노동자 계급의 동맹군으로 훈련시켜 내는 것이다. 여학생들로 하여금 자본주의가 심은 모든 왜곡된 이념을 거부하고 여성 해방의 새로운 미래를 구체화하여 각인시키는 것, 이것이 여학생 운동의 내용인 것이다…… 곧 여학생 운동은 여성 해방이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의 해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직시하고 여학생이 당하는 현실의 여러 억압을 하나의 조망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 속에서만이 여학생 운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앞에서 말한 여학생 운동이 변운(변혁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근거이다…… 여학생 운동과 여성 운동의 관계에도 편향이 존재한다. 그것은 여학생 운동을 여성 운동의 선진 부대로, 학생의 위치에서 여성 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학생 운동을 전체 변혁 운동의 주력군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 여학생의 위치를 과도하게 평가한 결과, 여학생 운동을 여성 운동의 주력군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 해방의 주력 부대로서 여성 노동자를 사고하는 계급적 관점에서의 이탈이며, 프띠적(프티 부르주아의) 속성을 갖는 여학우의 존재 기반에 대한 몰이해이다. 여학생 운동은 여성 운동의 활동가 배출 통로의 역할과 더불어 학생 운동의 부문 운동으로 자리 잡아 여학우들을 프롤레타리아의 주위로 인입하고 (여성) 노동자를 동맹 세력화하는 임무를 가진다.
>
> ― 문영남, 「여학생 운동 조직에 대한 제언」, 『석순』 8호, 고려대학교, 1991

전반적으로 득세하였던 계급 문제 또는 민족 문제로 여성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학생 운동의 인자들이 대부분 학생 운동 진영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점과 여학생 조직의 시초가 학생 운동 내에서 여학생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부문 운동으로서의 여학생 운동을, 여성 문제의 독자성을 인식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전략적 제휴'일 뿐이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대중적인 기반이 튼튼한 학생 운동 내부의 가부장성과 계급적 투쟁이나 식민지 모순의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 상황에서 독자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제휴'의 차원 또한 이해할 수 있다.

> 솔직히 말해 우리는 여성 문제의 '적'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분명히 사회 문제의 해결 자체가 여성 문제의 해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우리에게는 이 양자의 고리를 연결할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자의 대립으로서 여성 문제를 내세우는 데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성의 전쟁을 선포하다니! 이것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끔찍한 결론이었고 우리가 맹렬히 비난하던 부르주아적 여성 운동의 추종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의 대립이라는 측면에서 멀찌감치 물러섰고, 당시의 운동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 얌전하게 머물렀다. 여성 운동의 독자성은 기층 여성들의 존재 양태에서, 그리고 그들이 겪는 모순의 특수성 내지는 중첩성에서 그 명분을 구했다.
>
> — 조한숙, 「불편했던 '적'과의 길고 긴 투쟁」, 『여성과 사회』 6호, 창작과 비평사, 1995

대학의 여성 운동 단체들이 이후 독자적으로 조직되고 여성 운동의 이론도 어느 정도 정립돼 가는 시기는 1980년대 중반인데, 이때부터 총여학생회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1984년부터 각 대학에서 건설됐던 총여학생회는

1988년 '전국 대학 여성 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 건설을 통해 핵심적인 대학 여성 운동 단체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의 총여학생회는 전체 학생 운동 내에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지 못했다. '전체 운동에의 충실한 복무'라는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렀던 한계 외에도 대학 여성 운동은 민중 민주 계열과 민족 해방 계열이라는 두 운동의 조류 안에서, 여성 운동으로서의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전면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초의 여성 운동이 그 두 계열에의 압력 때문에 전혀 독자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우리 학교 2대 총여학생회 회장이었던 이정희(법대 87학번) 씨는 "그 당시에도 대학 내 여성 운동은 일상의 여성 문제에 대해 학과 중심의 기층 단위에서 해결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됐다"며 "여성 운동이 노동·통일의 계열 운동에 갇혀 있었다기보다는 여성 문제의 자체적인 해결 노력을 나름대로 병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 80년대 이후 대학 여성 운동의 발전,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출처 — 나우누리 서울대학교 통신 동호회

4) 외부의 반응

학생 운동 내 '남녀의 벽'을 깨는 것에서 여학생들은 운동을 시작했으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학생 운동 내의 성차별적 처우에 대한 불만, 그리고 민주화의 대열에 참여하려는 의지였다. 여학생들은 자신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기존의 학회들에 대한 대안으로 여학생 학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거나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학회들이 여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혼성 학회들이 늘어나면서 여학생 학회들은 와해되거나 학생회의 형태로 전환하게 된다. 학생 운동 내에서 여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많은 학교에서 여학생회를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여성 문제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

었으며 여학생회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많았다.

> 1대 여학생회는 본질적 목표로서 "여학생회의 특수성과 사회, 학내의 흐름이라는 일반성을 담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여성의 참인간화, 사회 민주화를 향한 전진"이라는 데 두었다. 즉 이것은 당시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여학생회의 목표였을 것이며, 여학생 운동을 풀어 나가는 조직으로 보기보다는 학생 운동의 일반성을 함께 담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 — 「총여학생회 역사 — 1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학교, 1999

그러나 수많은 단위들의 건설과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 운동에서 여학생들의 운동은 그다지 높은 비중을 지니지 못했다. 진보적인 영역에서도 그것은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일 뿐이었다. 처음 여성 조직을 고민하던 선배들의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학생 운동 내부의 보수적인 여성관은 자료상으로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식적인 문건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성과 관련된 내용 자체를 찾아보기 힘든 것도 큰 이유라고 하겠다. 여성 운동에 대한 학생 운동 진영의 관심은 지극히 낮아서, 매년 놓은 활동 자료집에 등장하는 '여성 농민'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여성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4] 아래의 글은 공식 문서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당시 학생 운동가들의 여성관을 보여 주고 있는 한 예이다.

> ——1992년에 경기 남부 지역 통일 선봉대는 어김없이 안양을 찾아갔다. 안양역 앞에서 선전전을 수행하기 위해 모여든 통일 선봉대 대원들을 3개 중대의 경찰들이 둘러싸기 시작했다. 밀고 밀리는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들은 대원들을 하나둘씩 빼어 내어 닭장차에 싣기 시작했는데 2소대 소대

4) 연구자의 자료에도 한계가 있겠지만, 수많은 이 시기의 학생 운동 자료에서 여성 농민 문제를 제외한 여성 문제에 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 없었다.

> 장이 잡혀 가게 되었다. 2소대는 편성을 하고 보니 유달리 여성 대원들이 많은 소대였다. 그래서 애칭도 '꽃소대'로 불렸다. 그런데 자기 소대장이 잡혀 가려고 하자 3명의 여성 대원이 나서서 소대장의 허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
> — 『혈화의 신화』, 전대협 동우회, 도서출판 우리, 1994

치열한 투쟁의 현장에서 여학생들은 복장에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걸이, 귀걸이 등의 장신구와 반바지와 같은 몸이 드러나는 복장은 엄하게 금지되었다고 한다.[5] 이것은 당시 학생 운동 진영에서 여성을 여성이 아닌 동지로 받아들이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나 동시에 여학생들이 동지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 운동 진영의 남성적 질서에 적응해야만 하는, 1980년대 초반과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보여 준다. 한 여학생이 가장 과격한 싸움을 필요로 하는 사수대에 참여하고자 나섰다가 긴 머리 때문에 거치적거리니 나오지 말라는 남자 사수 대원의 지적에 맞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잘라 모두를 감동시켰다는 일화[6]는, 의식적으로 여성들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들은 투쟁의 현장에서도 '꽃'으로 여겨지거나 여성성을 버릴 수 있다는 남다른 의지를 보여 주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했음을 알게 한다.

> (여)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최루탄 연기 속에 눈물 흘릴 때/그대는 빨간 머리띠 묶고/투쟁의 불꽃을 높이 올렸네/아 늠름한 그대 모습에/나도 따라 투쟁 전선 동지 되었네/아 괜시리 설레는 마음/그대를 그대를 사모하나봐
>
> (남)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치열한 연기 속에 눈물 흘릴 때/그대가 내

5) 93학번 학생과의 대화에서

6) 94학번 학생과의 대화에서

빈 빨간 손수건/자랑한 연기를 날려 버렸네/아 자상한 그대 모습에/그대 손을 굳게 잡고 거리에 서네/아 영원히 변치 않으리/거리에 피어나는 동지의 사랑——

노래 —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1992년 작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이라는 노래는 빠른 박자와 디스코 풍의 리듬으로 당시 대학생들 사이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민중 가요였는데, 실각해야 할 투쟁에서 연애를 한다는 내용으로 현장에서 부를 수 없도록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 최고로 인기를 누렸다는 이 노래에서도 학생 운동 진영의 여성관은 잘 드러나고 있다. 좋아하는 남자의 모습에 이끌려 거리에 나서는 여학생의 모습에서 초기 여학생 조직 건설 당시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제약을 받고 있었을 여학생들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1절)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얼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케케묵은 낡은 족쇄를 잘라 버리고/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이 땅의 노동자로 태어나/자랑스런 딸로 태어나/사랑도 행복도 다 빼앗겨 버리고/참아 왔던 그 시절 몇몇해/나가자 계투수자 성차별 노동 착취/동지자 투쟁이다 여성 해방 노동 해방

(2절) 우리는 이 땅의 노동자/역사의 주인인 노동자/더 이상 배탕 끝에 흔들릴 수는 없다/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이 땅의 노동자로 태어나/자랑스런 딸로 태어나/고귀한 모성 보호 다 빼앗겨 버리고 참아 왔던 그 시절 몇몇해/나가자 계투수자 성차별 노동 착취/동지자 투쟁이다 여성 해방 노동 해방

노래 — '딸들아 일어나라', 김호철 곡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민중 가요 중 최근까지도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인 "딸들아 일어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이전에는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었다거나 여성은 사랑만 있으면 되는 듯한 어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도 이 노래를 실제로 불렀을 때, 많은 학생들이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라는 가사를 '딸들아 일어나라 밥해라'로 바꾸어 불렀다는 것은 학생 운동 내부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다. 다른 민중 가요들에서도 "조국의 아들", "노동 형제" 등 남성적 표현과 대조되어 전통적인 어머니와 아내상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표현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3. 전환기 : 여성주의

1) 전환의 배경

① 대학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의 증가

1990년대 초·중반 무렵에는 여대생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어문 계열과 사범 계열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기계·우주·토목 등 여학생이 전무했던 이른바 '남자 학과'에서도 여학생들의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다.[7] 각 대학에는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1970년대 후반에 여학생 조직 건설을 주도했던 이들과 '또 하나의 문화' 동인들을 비롯한 여성 운동가들이 강단에 서기 시작했다. 학회나 동아리는 물론 학생회장으로 여학생이 나서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② 성정치 담론의 확산

이 무렵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성정치 이론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것'이라는 선전 문구로 요약되곤 하는 일련의 여성주의 이론들은 대학 여성 운동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새로운 여성

7) 여학생 수가 적기로 유명한 서울대학교의 '남자 학과' 들에서도 5~10%에 이르는 비율을 여학생들이 차지하기 시작했다.

주의 이론들과 성정치 담론은 '성'의 문제가 다른 '정치적' 문제들의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여성 문제에 대한 다각적·포괄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1995년의 성정치 문화제를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는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8]으로 대변되는, 1990년대 초반의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전환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은 기존의 학생 운동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성적' 화두를 가지고 운동에 뛰어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③ 정치적 상황의 급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학생 운동은 점차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민족해방(NL) 계열은 '자주적 학생회'와 '사람 사랑'의 두 갈래로 갈려 두 계열 모두 한총련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많은 부분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자주적 학생회의 경우, 1980년대의 학생 운동에서 민족 문제에 관해 더욱 골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사람 사랑의 경우 현시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투쟁 방식과 내용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민중민주(PD) 계열은 각기 다른 방법과 체계를 가지고 수많은 계열로 분열과 통합을 거듭한다.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민족 해방 계열 운동의 골수화 경향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로운 전국적 조직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 온갖 형태의 '연대회의', '연석회의' 등이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쏟아져 나온다.

대학 여성 운동가들 또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 운동에 반론을 제기하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냉전 시대의 와해와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군부 독재의 종식으로 설명되는 이러한 다각화 경향으로, 대학 여성 운동가들은 여성 문제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는

8) '우조교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사건으로 대학 교수가 조교에게 성희롱을 하여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성희롱'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제껏 알려져 있지 않던 대학 내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움직임을 시작한다. 이전에 부르주아 여성 운동이라 부르며 연계하지 않았던 학교 밖의 여성계와도 '여성'이라는 화두를 통해 많은 교류가 가능해졌다.

2) 새로운 질서

여학생회 건설 이후 길게는 약 10여 년 간 이어져 오던 여학생들의 조직은 전국 조직-총학생회-단위 학생회로 이어지는 학생 운동 조직과 같은 형태로 전여대협-총여학생회-단위 여학생회의 형태로 운동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무렵 수직적 위계에 대한 반발과 대표체로서 여학생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몇몇 학교들에서 총여학생회가 해소된다.

총여학생회 해소는 수직적 체계를 버리고 수평적인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자치'의 의미를 잃어버린 학생회 체계에 대한 대안이라는 점, 여성 문제가 이분법적 사고에서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성'의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 관위적 조직에서 탈피함으로써 '여성적' 조직 질서를 형성하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8개 여성 운동·연구 단위들이 모여 시작된 '관악 여성 모임 연대'는 1996년에 결성될 당시 다음과 같이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관악 여성 모임 연대 추진위원회는 기층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각 단과 대학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말 그대로 자치 단위들이 필요에 의해 모인 연대체이다. 따라서 다른 학생회와 다른 독자적인 상을 가지며 기존의 학생 정치 조직과도 구별되는 조직이다. 관악 여성 모임 연대 추진위원회의 강점은 바로 이 틀 안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틀은 관악 여성 모임 연대 추진위원회가 대중 조직이 아니면서도, 대중을 추동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해준다. 즉, 각 단과 대학에 비소 세포처럼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 자기 완결성을 갖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비교하자면 대표성은 있으나 기층을 조랑하기 어려운 총학생회의 여성위원회나, 총여학생회가 갖기 힘든 장점을 가지고 있다.
>
> —이기은, 「관악 여성 모임 연대 추진위원회 소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노출 단속법에 대한 규탄 문화제— [illegible]』 자료집, 1996

연세대학교에서도 여성 운동 단위들이 모여 '여성 자치 연합'을 결성하였으며 그 성과를 아래와 같이 평가하고 있다.

> 몇 년 전까지 학내에서 여성 운동이라 부를 만한 흐름은 1988년에 건준위로 시작되어 10여 년간을 지속해 온 총여학생회가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전의 총여학생회의 역할이란 나름대로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류 운동의 부차적인 운동으로서의 의미 이상을 지니기가 힘들었다. 이런 의미에서 1995년도에 있었던 성정치 문화제는 학내 여성 운동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당시 센세이셔널하게 논쟁과 비판의 초점이 되었던 성정치 문화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그 이후 학내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당시 성정치 문화제는 여성 운동을 다른 운동의 종속적인 분과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들에 파장을 일으키며 여성 운동이 독자적으로 사고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 활발해진 문제 의식은 여성 운동과 여성학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여러 소모임과 자치 단체들을 만들어 내는 기폭제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화제가 열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기존 운동들이 토대로 삼았던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후 다양한 운동 단위들의 활성화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1997년 여성 자치 연합(여자연)이라는 조직체를 결성하기에 이른다. 학생회 질서로 포괄되지 않는 급진적이고 본격적인 자치체이자 연대체라는 점에서 여성 자치 연합의 의미는 크다. 이러한 자생적인 움직임들이 활성화되면

> 서 독자적인 헤게모니를 구축해 나가고,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으로서 자치 질서에 관한 단초와 경험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평가받을 만하다.
>
> —무임승 편집위원회, 「[illegible]—자치 질서 만들기」, 『무임승』 창간호, 연세대학교, 1998

총여학생회를 직선제가 아닌 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그와는 별도로 총학생회에 여성국 또는 성정치위원회를 두어 총학생회 차원에서 여성 정책을 고민하고자 시도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총여학생회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학교들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찾아볼 수 있는데, 기존에 총여학생회와 수직적 관계로 이어져 있던 단위 여학생회들이 대의체에서 탈퇴하여 위원회나 소모임으로 바뀌기도 하고, 혼성의 구성원을 가지는 여성 자치 모임이나 여성학회들로 전환되기도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문화된 여성 문제를 다루는 특별 기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학번 질서에 구애받지 않는 여성학회[6]를 조직하거나 학내 여성학 연구 모임들의 연대체 또는 학교에 상관없이 공통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여 모임을 만드는 데까지 다양하게 펼쳐진다. 1995년에 이화여자대학교에 특별 기구로 여성위원회가, 1996년에 대학 사회에 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해 만들어진 '들꽃 모임', 서울대학교 내의 여성 운동 단위 연대 기구인 '관악 여성 모임 연대', 1997년에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 회의'가 생겨나면서 지역별·주제별로 각종 모임들이 생겼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영 페미니스트(Young Feminist)라 불리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며 운동에 뛰어든 이들은 학교 밖의 여성 운동가들에 비해 더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움직임을 보인다. 이

6) 이것은 1970년대 말, 여학생만으로 구성되었던 '여학생 학회'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여성 문제를 중심으로 모인 구성원의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 모임을 말한다.

들은 주어진 이름을 거부하는 뜻에서 별칭을 만들어 부르고 남성 중심적 호적 제도를 반대하는 뜻에서 부모성을 함께 쓰며, 나이와 학번에 관계없는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반말을 쓰기도 한다.

> 들꽃은 20대 초·중반의 푸그니, 샘, 호빵, 파투리, 멘마 이렇게 5명으로 구성된 게릴라 페미니스트 그룹이다. 우리는 서로 나이에 상관없이 반말을 하고, 대표가 없다.(들꽃은 권위주의와 나이주의가 사람들을 논의에서 밀어내는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한다.) 저열하고 편협하다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래, 맞아, 우리 저열하고 편협해"라는 비아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저열하고 편협하다는 것을 늘 잊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
> —저열한 페미니스트들의 편협한 잡지, 『들꽃 모임』, 1998

1989년 건설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의 활동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상 민족 해방(NL) 계열의 부문 운동으로 정리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 여대협(전여대협은 전국 규모이고 그 산하에는 지역별로 '대경여대협', '부경여대협', '경기남부 여대협', '수여대협(수원 지역)' 하는 식으로 지역별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가 있다.)을 통한 연대망을 구축하고 있다. 한총련 아래에서 모든 활동이 결정되어 전여대협의 독자적인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편이며, 조직 체계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도 별로 없는 편이다. 여대협의 상황 또한 시기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다. 최근에는 대구·경북 지역, 부산·경남 지역 등이 비교적 조직 관리와 연대 활동 면에서 활발한 편이어서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거나, 교수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지역 여성 단체와 연대하여 대응하기도 하는 성과를 남겼다. 서울 지역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주한 미군 철수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공안 탄압과 한총련의 침체로 인해 전여대협 전체 차원의 사업은 잘 진행되

지 않는 편이며, 총회나 의장 선출 또한 많은 단위가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3) 운동의 관점 및 주요 활동

① 성폭력에 관한 새로운 담론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해마다 대동제 때 일어났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난동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의 움직임을 보인다. 이화여성위원회,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를 비롯한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대응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결국, 전통처럼 여겨지오던 대동제 난동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그해 8월 연세대학교에서 있었던 범청학련 통일대축전 행사에서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이 경찰들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거나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음이 드러났다. 이 사건은 형태와 운동 방식에 변화를 가하던 각 학교의 여성 운동 단위들에게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고 약 10여 개 학교가 모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를 결성한다.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은 이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시작한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활동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중요한 지점으로 평가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에 비해 확실하게 다른 것이었고, 한총련의 운동 방식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성폭력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점 때문이다.

> 그대는 다른 사람도 아닌 민중의 지팡이여야 할 사람들이 저지른 폭행이라고 분개한 것인가? 내게는 성폭행범과 성폭행범을 잡는 사람들이 그리 다르지 않게 여겨진다—— 이미 그들은 그들이 경찰이 되기 전에 배워 왔던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억압의 형태를 적나라하게 실행했을 뿐이다. 그

리고 그들의 범실을 비호해 주는 것은 단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페퍼포그와 방망이의 힘이 아니다. 그들에게 범실을 주고, 그들이 여성의 약점을 폭력으로 이용하도록 비호해 준 것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대들에 의해서다…… 그대들은 '그놈들'이 나쁘다고 말한다. '그놈들이 한 나쁜 짓을 보라고' 세세히 말한다. 이번 한총련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다.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지고 어떤 폭언을 했는지 보라고 말한다.

예전에, 그대들은 더욱 노골적인 일도 했었던 것도 기억하고 있다. 그대들은 조선의 딸 윤금이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라고 사진 자료를 첨부한 대자보를 곳곳에 붙이는 수고를 했었다.

흑백 사진에는 우산대가 꽂혀서 다리를 벌리고 있는 얼굴이 안 보이는 여성이 있었다. 어느 부위에 흉기가 꽂혔는지에 대해 그대들은 빨간 매직으로 친절하게 동그라미를 그리기까지 했다. 자보를 보고는 당장 화장실에 가서 구역질을 했던 기억을 한다. 그대들의 친절함에 대해 그대들이 폭로하는 '그놈들'과 그대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는 식상한 확인에 대해서……

「남성 동지들에게」,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노출 단속법에 대한 규탄 문화제
— '내려가 자를 찾느냐'」 자료집」, 1996

공동 대책 위원회는 이 사건뿐 아니라 대학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연대의 필요를 느끼며 1997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 회의'를 건설한다. 약 15개 학교 여성 운동 단위의 참여로 시작된 이 모임은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각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공청회, 동시 다발적으로 성폭력 근절 행사를 벌이는 등의 연대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응 활동 이전에는 각 학교에서 학내 성폭력 사

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에 관한 활동을 벌여 왔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일련의 교수 성폭력 사건[10]으로 비교적 일찍 성폭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공동 대응 이후 보다 많은 학내 성폭력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연대체가 꾸려지면서 더욱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들은 법률상의 성폭력에 관해 많은 부분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성폭력 개념의 정립을 통해 성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그것은 철저하게 권력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의 주관을 강조하고, 성폭력 행위의 구분에서 연속선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급진적인 것으로 '성희롱'을 '성폭력'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성폭력의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함께 기지촌 활동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대응 활동 또한 새로운 시각에서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어 온 민족 해방의 시각과 달리 이들은 매매춘과 성권력의 문제, 군대 문화 등에 초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대학 사회에 성폭력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들꽃 모임'의 졸업생들이 결성한 '들꽃 모임'은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성폭력에 관해 경고 방송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5분 정도 길이의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PC 통신상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폭력 사건이나 스토킹에 관한 문제 해결에서도 이화여성위원회를 비롯한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② 여성 노동권 확보에 관한 활동

성폭력 담론과 함께 대학 여성 운동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활동 중 하나가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활동이다. 1997년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1998년

10) 신정휴 교수 사건, 서울대학 우조교 교수 사건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노동권 확보와 성적 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여성 모임 살맛나는 세상(약칭 살맛나는 세상)'이 발족되었다.

현재의 여성 노동의 문제는 여성 운동의 다양한 주제 중의 하나로 여성 노동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본의 거대한 질서 재편의 방향이 신자유주의라는 것이고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주요한 전략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핵심적인 축을 이루는데, 노동 시장의 재편이 곧 여성 노동력의 재편이라고 말해도 그리 과장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수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부활로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인 가족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다가오며 이러한 여성 억압의 구조는 강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1차적인 희생양으로 최전선에 바로 여성들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여성의 문제임에도 1990년대의 무수한 담론 속에서 도외시되었던,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여성들에 의해 이야기되지 못했던 여성 노동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노동권 확보와 성적 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여성 모임
「살맛나는 세상 제안서」, 1998

1999년 3월 여성민우회와 대졸 여성 실업자들이 '신규 여성 실업자 조직 희망 선언[11]'을 결성했다. 이들은 여성주의를 근간으로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가장에게 수입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사고는 당시 사내 부부 중 여성 우선 해고, 정리 해고시 기혼 여성의 우선 순위 선정 등의 정책을 낳았다.) 폐해 등을 내세우며 군가산점 폐지, 여성 정리 해고 반대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노동 운동과 맥락을 같이하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 가고 있다. 1999년 노동절 행사에는 '여성(女聲)'이라는 여성주의

11) 신규 여성 실업자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를 박탈당한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대졸 여성들이다.

참가단을 꾸렸으며 민주 노총(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의 가부장적 포스터[12]에 대해 배포를 중단하고 다시 제작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IMF 체제 이후 늘어나는 여성 정리 해고와 여대생 취업난으로 인해 여성 노동권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③ 전여대협의 활동

1989년 결성 이후 전여대협은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의 유일한 연대체로 자리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한총련의 민족 해방 운동로의 궤수화와 대학 여성 운동의 변화로 인해 많은 학교들은 전여대협과 개별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다음의 출범 선언문에는 전여대협의 사상적 기반이 잘 드러나 있다.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국토 양단과 민족 분열의 비극 속에서 수난과 굴종, 예속과 억압, 탄압과 착취의 역사는 그대로 한민족 여성 민중이 자기 삶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당당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투쟁해 온 과정의 역사적 반증이다. 이러한 여성의 자주적인 요구는 민족의 자주와 계급 해방이 없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하기에 민족의 단합과 분단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놓을 수 없는 2천만 여성 민중의 사활적인 이해와 요구이며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 이러한 상황하에서의 여성 민중의 자주적 진출은 미제의 식민지 조국에서 故 허주연 씨(1998년 초 미군의 범죄로 살해된 기지촌 여성)와 같이 미군의 군화발에 처참히 짓밟히고 있는 누이들, IMF 경제 침탈 속에서 정리해고 0순위, 두 배 세 배의 고통을 강요받는 여성의 현실 속에서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며 가열찬 투쟁 속에서 미제와 사대 매국 김대중 정권을 청산시킬 수 있는 것이

12) 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에서 제작한 1999년 노동절 포스터로, '당신만이 희망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조끼를 입은 남성 노조원의 커다란 모습 뒤로 전형적인 주부의 모습을 한 아내와 자녀가 서 있는 사진이 전부에 배포되었다.

다. 1998년 4기 전여대협은 상반기 초반 300차 수요 집회 속에서 우리의 짓밟힌 역사를 일본 제국주의와 굴욕적 외교를 일삼는 정권에게 보여 주었으며, 故 허주연 씨 살해 미군 진상 규명 투쟁 속에서 민족 자주·조국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 미군 철거의 의의와 목표를 대중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전여대협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 여대협 의장님들을 50만의 힘과 지혜로 당당히 세워 내는 속에서 다진 자주적 여학생 운동에의 신심으로 전체 변혁 운동이 요구하는 모든 과제들과 지역, 단위별 투쟁을 수많은 모범 창출로 일구어 온 것이다.

하나, 청년 여학도 선봉에서 조국 통일, 민족 자주 이룩하자!

하나, 반미 자주 기치 높이 주한 미군 철거시키고 연방 조국 안아 오자!

하나, 반통일 악법, 반민주 악법, 국가 보안법 철폐시키고 한총련 이적 규정 철회하라!

—「4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출범 선언문」, 1998

이들의 운동은 1980년대 운동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1980년대의 운동에 비해 민족 해방의 과제로 순수화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한총련 조직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마찬가지로, 여성 문제를 중요한 '부문'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사람 사랑' 계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에서 여성적 고민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누이'라는 표현, 의장님에 대한 예우 등도 여타의 대학 여성 운동 조직과는 상당히 다르다.

1999년 현재까지도 지방의 많은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은 전여대협을 통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은 기지촌 문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이었고 1998년에 들어서는 학내 성폭력 문제가 핵심 사안의 하나로 떠올랐다. 부산대학교와 경상대학교가 지역 여대협의 힘으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규정을 제정하였다. 전여대협의 활동은 대단히 많이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비판도 많이 받고 있으나 최근 들어 변

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아직까지 활동 면에서는 많이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래에 있는 1999년 사업 계획서를 보면 문서상으로는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난다.

1992년 10월 미군 케네스 마클에게 끔찍하게 살해된 윤금이 씨는 기지촌 여성이었다. 그녀가 받았던 '양색시(미군에게 몸파는 천한 여자)'라는 딱지는 한국 사회 가부장제 문화의 소산이다. 민족 문제를 앞세우며, 미군 처벌을 촉구하고 미 클린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에서 그녀는 '윤금이 누이, 순결한 민족의 딸'로 둔갑한다. 살아서는 천하다고 멸시받던 여성이 '양키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된 다음에는 '순결한 조선의 처녀'가 된 것이다. 윤금이 씨는 천한 여자도 순결한 처녀도 아니다. 무슨 잣대로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저울질하는가? 그것은 이중적 성윤리를 앞세워 여성을 억압해 온 가부장제의 더러운 찌꺼기일 뿐이다——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3·4월 사업 계획서」, 1999

④ 그 밖의 다양한 활동

대학 여성 운동의 조직 못지 않게 영역 또한 다양해졌다. 많은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이 여성주의 문화와 관련한 문화제나 강연회, 교양 학교 등을 해마다 개최한다. 페미니즘 웹진 『달나라 딸세포』, 여성주의 락밴드 '벤신시벤트 귀신', '노히즈 밴드' 등은 모두 대학에서 여성 운동을 하던 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대학 시절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던 여성이 있을까. 그러나 그 수많은 페미니스트들도 사회에 나가면 '순한 양'이 된다. 물론 되고 싶어되는 것은 아니다. 견고한 가부장제 안에서 살아 남기 위한 선택일 뿐. 서울대학교 관악 여성 모임 연대에서 활동해 온 노수경(24·생물학과4) 씨는 그렇게 길들여지고 싶지 않았다. 그는 먼저 졸업한 94학번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에

최초의 페미니즘 웹진 『달나라 딸세포』를 창간, 이 달 초 제1호를 띄웠다.

"달나라는 여성의 공간을 뜻하면서 '다른 나라'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딸세포는 모세포에서 분열한 세포를 말하구요. 우리가 여성 운동 제1세대, 즉 어머니 세대와 구별되는 제2세대임을 상징합니다"——

"우리 나라에만도 수천 개의 웹사이트가 있지만 여성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곳은 하나도 없더군요. 기존 여성 운동이 포괄하지 못하는 '틈새'를 메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20대 여성을 위한 운동을 한다는 달나라 딸세포는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학문적이고 실천적인 글들을 싣는다. 하지만 이 웹진이 가장 자랑하는 방은 '즐거운 성생활'과 '순정 만화 비평'. 둘 다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이다.

—「국민일보」, 1998년 9월 29일자

여성의 sexuality, 성정체성, 여성의 몸에 관한 담론, 여성적 응시(female gaze) 등은 대학 여성 운동의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1997년부터는 미인 대회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1999년에는 PC 통신 천리안의 여성학 동호회에서 시작된 미스코리아 협찬사 불매 운동에 많은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이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 외부의 반응

① 연대의 움직임

대학 여성 운동이 확산되고 지식인층 사이에 성정치 담론이 퍼지면서 여성 운동을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총학생회 선거 공약에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과 같은 여성 정책이 등장하는 경우는 대단히 빈번해졌고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이 총

학생회 각 선거 운동 본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다. 몇몇 총학생회들이 '여성국'이나 '성정치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학생회 내에 두기 시작하였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운동의 경우 학생 자치와 맞물려 논의되면서 다른 많은 단위들과 연대하게 되었다. '대중 행동 광장' 같은 학생 단체 연합 행사에서는 여성의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동등한 비중을 가지고 논의된다.

② 급진성에 대한 비판 / 여성주의에 대한 몰이해[13]

대학 여성 운동과 여성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대학 여성 운동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말하며 가족의 해체, 문란한 성관계, 위계 질서의 붕괴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다.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도 근거는 비슷하다. 영 페미니스트(Young Feminist)들 대부분은 호주제 폐지, 부모성 함께 쓰기, 나이주의 타파 등의 실천 운동을 벌이고, 성희롱과 시선 폭력, 성차별적 언동에 대해 성폭력이라고 규정짓고 있으며 동성애를 인정한다.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생활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로, 많은 학생 운동가들은 이런 '개인적'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공식적 입장으로는 동조하면서도 사생활에서는 별반 바뀌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혹은 공식적으로도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많은 학생회에서 회장이나 정책과 같은 중책을 여성에게 맡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며, 선전은 꼭 여학생에게 맡기는 등의 성별 분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1998년에는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성폭력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으나, 성폭력 개념에 대한 몰이해와 학생 운동가들의 여성 운동에 대한 거부감,[14] 학생 운동 내의 세력 다툼 등으로 인해 사건이 핵심

13) 여기에서는 사람이 급진적이어서 생겨난 몰이해가 아닌,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생겨난 몰이해——즉 여성주의에 대해 전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생긴——를 말하고자 한다.

을 벗어나 오도되거나, 오히려 성폭력의 가해자가 동정을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충돌은 가시화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대학 내 단위간의 알력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개의 대학 여성 운동 단위들은 학내 종교 단체들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데, 비단 종교 단체하고만 대립 구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199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에서는 어떤 학과 학생회장이 "총여학생회는 자폭하라"라는 등의 말을 하고 실력 행사를 하는 일도 발생했다.

체계의 전환 이후 기존 체계들과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은데, 학생회 단위가 아닌 경우 예산 지급과 체계를 인준받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8년 가을에 진행된 총여학생회 선거에서는 '여성주의'를 표방한 후보들이 전국적으로 대거 낙선했는데, 이것은 여성주의의 급진성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 캠퍼스의 경우 '선거 운동원들이 모두 레즈비언이다'라는 소문이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유포되면서 첫 투표에서는 30표차였지만 결선 투표 때 300표 이상의 차이로 여성주의 후보가 낙선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는 여성주의 후보의, 선거 운동 기간 중 일어난 기숙사 성폭력 사건[15]에 대한 대응과 학생회 운영 방식에서의 급진적 정책으로 낙선하였다. 기숙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우리들의 보금자리가 변태들의 천국이었다"는 내용의 문구를 사용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샀고, 학생회 운영에 'table'을 제안하여 대의제를 부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결국 여성주의 후보가 낙선하였다. 지방에서 여성주의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에도 1998년 가을의 선거 때는 여성주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위에 꼽은 이유 말고도 개별적으로 다른 요

14) 가장 진보적이라는 학생 운동가들도 변함없이 남성적인 틀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 여성 운동가들에게 곱지 못한 시선을 던지기 일쑤다.
15) 연세대학교 기숙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 행위를 한 사건.

인들이 있었겠지만, 여성주의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이 다른 후보의 정책에 비해 급진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4. 과제와 전망

대학 여성 운동은 대학 내에서 가장 먼저 조직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라는 측면에서도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학생 운동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학생 운동 체계의 보수성과 가부장성에 대한 논의와 변화 노력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실험적인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어 여성 운동의 실험실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측면이다.

그 동안 문제로 여겨져 왔던 전여대협과 여성주의 운동 단위들 사이의 양분화 경향 또한 조만간 극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전여대협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학교들에서 성폭력에 관해 더욱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여성주의적 시각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해 가고 있다. 이제까지는 교류가 대단히 적었고 대립 구도로 존재해 왔지만, 서로의 차이가 인정되는 가운데 1~2년 안에는 사안별로 어느 정도의 연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는 것은 급진성을 극복하는 일이다. 현재 대학 여성 운동은 지나치게 소수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 사이의 편차도 크다. 여타의 운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둘째로 치더라도 운동의 주체가 지나치게 소수라는 점과 수도권 중심주의의 모습은 운동에서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운동의 확산과 집단간의 다양한 연대를 막는 큰 걸림돌이다. 이미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운동에서 성폭력의 개념에 관한 견해 차이, 각 학교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

해 소통의 불능과 연대의 어려움을 경험한 바 있다. 1998년 각 학교 선거에서 여성주의 후보들이 낙선한 것은 대학 여성 운동이 대중 운동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여 주는 한 예일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운동이 급진적인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중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과제이다.

5. 맺는 글

대학 여성 운동은 민주화의 주역으로 이야기되는 학생 운동의 가부장성과 보수성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싸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가부장으로서의 특권은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흐름은 대학 밖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 나라의 현실이었다. 대학은 여성 운동의 실험실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를 하면서, 대학 여성 운동이 큰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생활 영역의 운동이므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짧은 역사와 활동가들의 부족 때문에 운동의 흐름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예상했던 것보다 자료가 많이 부족했고, 많은 사람들과 논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대학 여성 운동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는 학교들의 이야기라는 점 또한 안타까운 점이다. 아직도 여성 운동 단위조차 없는 많은 학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큰 기쁨은 대학 생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활동을 연구로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학 여성 운동이 발전하고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쉬움 없이 글을 끝내려고 한다.

6. 부록

대학 내 여성 운동 단위 건설 추이

1983년 성균관대학교 학도호국단 여학생 체대 발족
1984년 고려대학교 ·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발족
각 학교에 총여학생회가 발족하기 시작함
1985년 한양대학교 · 서강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발족
1986년 서강대학교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집행부(여학생부)로 형태 변화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해체
1987년 서울, 수원, 용인, 충북, 대전, 경북, 전남, 전북, 진주, 부산, 울산의 10개 지역에서 연대 단위가 꾸려짐
1988년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발족
서강대학교 여학생부, 여학생 협의회로 형태 변화
1989년 '전국 대학 여성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 위원회' 발족
고려대학교, 6대 총여학생회를 마지막으로 해소됨
서울대학교 총여학생회 재건
1990년 1기 '전국 대학 여성 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 발족
1991년 서울대학교 3대 총여학생회를 끝으로 해체
1993년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발족
1995년 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전여대협)' 발족
1996년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발족
'날아라 삐딱이' 결성
'날아라 삐딱이'가 '들꽃 모임'으로 바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결성'
1997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 연대 회의' 결성
'여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여대생 먹고살기 대책위원회)' 결성

'대학 동성애자 인권 연합' 결성

1998년 '여성주의에 입각한 여성 노동권 확보와 성적 차이의 윤리 실현을 위한 여성 모임 살맛나는 세상(약칭 살맛나는 세상)' 발족

'들꽃 모임'의 구성원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들꽃 모임' 결성

페미니스트 웹진 『달나라 땅세포』 창간

1999년 여성 신규 실업자 모임 '희망 선언' 결성

경기 남부 여성 연대 모임 결성

대구 경북 지역 여성 연대 모임 결성

전국에 약 30여 개의 총여학생회와 10여 개의 비대표제 및 연대제 여성 운동 단위(여성학회를 제외한 학내 운동 단위), 10여 개의 연대제(학간) 활동중

참고 문헌

『여성과 사회』 6호, 한국여성연구회 편, 창작과 비평사, 1995

『잉태』 2호,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1988

『아름누리』, 아주대학교 여학생회, 1992

『두입술』 창간 준비호, 연세대학교, 1998

『창조』 2호,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여성학 연구 모임, 1992

『식순』 8호, 고려대학교, 1991

『정정한』 20호, 성균관대학교, 1991

『백목련』 10호,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 1999

『외대여론』 9호, 한국 외국어대 광산 캠퍼스 총여학생회, 1998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 소식지』 15호, 1998

『3차 성장』 2호, 이화여성위원회, 1998

『녹두꽃』 4호,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1992

『녹두꽃』 6호,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1992

『녹두꽃』 9호,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1997

"제1회 자주 여성 민주 남성 학교", 성균관대 출전 총여학생회, 1991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 1997

『신규 여성 실업자 조직 희망 선언』, 한국여성민우회, 1998

『성곤욕 지침서』, 성균관대 명륜 총여학생회, 1997

『문혁진 여성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움직임』, 이화여성위원회, 1999

"Let's Break The Mirror—여성의 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을 거부한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1998

"'98 여성학 학교—有口有言", 한양대학교 여성위원회, 1998

『동국대학교 30대 총학생회 · 13대 총여학생회 선거 자료집』, 동국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7

『I love a woman—여성의 주변성이 가지는 힘 Power』, 이화여성위원회, 1997

"제2회 여성문화제—발굴! 여성 문화!", 한양대학교 여성위원회, 1998

『살맛나는 세상 소식지』, 살맛나는 세상, 1998

『'98 한판, '98 여성연대 한 판 기획단』, 1998

『'99 여성 운동 실포지움 토론용 자료들』, 1999

『너희가 X를 믿느냐?—남성 권력의 폭력성에 관하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과 노출 단속법에 대한 규탄 문화제, 1996

『마음006 소식지』 4호, 서울대학교 동성애자/이반 인권 운동 모임 마음006, 1998

『위대한 군대, 위대한 아버지』,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 1995

"여성 단체 자원 활동가와의 간담회", 이화여성위원회, 1997

"2회 페미니즘 문화제—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화여성위원회, 1997

"3회 페미니즘 문화제—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화여성위원회, 1998

"4회 페미니즘 문화제—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이화여성위원회

1999

『새내기 여학우 두 손에』, 아주대학교 총여학생회, 1996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 여성연대회의, 1998

『'96 여성문화제』, 외국어대 광산 캠퍼스 총여학생회, 1996

『한길』 1호,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 1994

『'99 키르는 함숙』, 아주대학교 총여학생회, 1999

『연대회의 자료집』, 여성연대회의, 1999

『'93 여름 농촌 활동 지침서』, 수원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1993

"윤금이 씨 추모제—더 이상 우리에게 슬픔은——",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 본부, 1993

『영 · 유아 보육법 개정을 통해 본 탁아 운동의 과제』, 성남 · 봉천 지역 탁아소 협의회, 1991

"올바른 탁아 제도 수립을 위한 공청회", 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

『우리네 아이들』 3호, 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

『우리네 아이들』 4호, 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 1988

『우리들이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지역 사회 탁아소 연합회, 1992

『저열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철한 잡지』, 들꽃 모임, 1998

『저열한 페미니스트들의 관철한 잡지』, 들꽃 모임, 1999

『대학 동성애자 인권 연합 소식지』 1호(교육용), 대학동성애자인권연합, 1997

『출범 선언문』,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1998

『3/4월 사업 계획서』,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1999

『현대사에서 여성 운동의 궤적』, 유정미, 1999

『달나라 땅세포』, 신말기, 1998~1999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역사』,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1999

2005 연세 여성주의자 워크샵

2005. 08. 20. 토. 오후5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

여는 글 -*

*

안녕하세요, 연세 여성주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안에 차오르는 여성주의 물결 움-뭄-틈 제 17대 총여학생회입니다. 짧은 봄과 괴롭도록 덥던 여름도 훌쩍 지나가고 쾌청한 가을과 아름다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7대 총여학생회에서는 1학기 때 세터 내규 관련 신입생 맞이 행사와 여성학학교, 섹슈얼리티 영화제 「여성의 섹슈얼리티, 그 촘촘한 억압과 오호한 해방에 관하여」, 강의실 언어성폭력 근절 캠페인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매체 『그녀, 틈 사이로 바람을 불다』 1,2,3호 발간, 월경月慶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 Humming」 「엄마와 딸」, Mayday 女/聲, 교성절연, 여연자연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방학 때는 反성매매 세미나와 「그녀들의 외람된 수업 만들기」 자료집 발간, 세터 反성폭력 내규 개정, 제 8회 여성제, 매체 발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선배들과 함께 여성주의와 그 활동에 관련된 많은 고민들을 나누고 조언을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워크샵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내공도 쌓고 empower도 해서 앞으로 보다 힘차게 살아가는 여성주의자가 되고 싶어요.

*

이번 워크샵에서는 총여학생회의 지난 궤적을 돌아보고 행사를 정리해보는 시진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 자신을 표현해보고 이를 통해 자기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3대 - 16대 총여학생회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지면과 짧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구요. 여러 가지 주제를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코너도 있습니다.

*

모두의 fenergy가 끝없이 up되는, 즐겁고 활기찬 워크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여성주의자들- 멋진 밤을 만들어보아요!

Thanks Goddess, i'm a Feminist-*

프로그램 -*

[5:00 - 6:30] 자기 소개하기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처음만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자기 소개하면서 슬슬 워밍업 해봐요. - 이름표에다가 예술 혼을 담아(^^) 자신을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표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신이 좋아하는 것 5가지를 말해주세요.

[6:30 - 7:30] 식사 및 영상보기
자기소개 하느라 나름 긴장했을 텐데, 맛있는 음식 먹으며 릴렉스해보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이전 활동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7:30 - 8:10] 연세 여성운동사 들어보기
이전 활동에 대한 영상과 문서자료, 사진첩을 보고나면 아무래도 할 이야기들과 궁금한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듣고 이야기해보아요.

[8:10 - 10:40] 주제별 이야기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는 데에는, 그것이 주는 행복만큼 어려움도 많은 것 같아요. 여성주의자로 잘 살기를 방해하는 '무언가'들을 하나씩 풀어보고 싶은 시간입니다. 토닥과 식초, 뽑이 그 '무언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시작합니다.

주제별 이야기 -*

♀ 시초의 이야기 ♀

나는 소심한 새내기였다. 여중여고를 졸업한 나로서는 남자선배 동기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나가야 하는지를 잘 몰랐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문화적 충격 앞에서 움츠러들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증스럽게도 자연스레 내 목소리는 작아졌고, 나의 과거를 모르는 이들은 급기야 날 '여성스러운 아이' 로 봐버렸던 것이다. 여성스러움의 기준이 뭔지 조차 몰랐던 내게 그 반응은 실로 재밌기만했다.
나의 들끓는 에너지는 갈수록 내적으로만 갈어져갔고 뭔가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 즈음해서 나는 전혀 계획적이지 않고 아주 무심하고 무연한 기회로 여성주의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게된 것이다.
에너지를 밖으로 분출해버리고자 결심했던 그 어느 날 들의 그 수많은 시간 시고들 중의 하나가 바로 여성주의에 문을 두드리게 된 일이다. 뭔지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나의 동지가 될 수 있을만한, 얘기가 통하고 수많은 내 젊은 날의 꿈과 고민의 나눔이 가능한 여성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때문이었다. 그런데, 나의 100중에 3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또다시 무심히 판타디씩 내뱉어 버리고 내 얼을 스쳐지나간다.

"너, 여성주의 하더니 많이 드세졌구나 "

내가 여성주의를 하면서 드세진건지, 드세진 시점에 여성주의를 만난건지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으나, 여성주의를 만나면 드세진다라는 전혀 근거없는 공식을 멀쩡 이들에게 전해준 것 같이 여성주의에게 미안하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에게있어 한 여자아이의 드세짐의 원인을 자연스레 여성주의에서 찾게 만든 여성주의가 돌어내야 할 숙제일지도 모르겠다.

••• 나는 석초, 홍대에 있는 옷가게에 취직하여 일하고 있음 . 요즘 홍대에서 프린지 페스티벌하는데 많이들 오시길 ♡

♀ 쎔의 이야기 - 여성주의모임이 필요해 ♀

여성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여성주의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고 여성주의를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갈 모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나 동아리, 소모임 들이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여성주의 모임은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여성주의자 끼리의 연대를 형성하여, 학내에서 여성주의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지금 학내에서 여성주의 모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여성주의자끼리 한분을 쫓으며 지속적으로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때때로 행사를 만들어나가기도 하는 모임이 없다. 여학우 모임은 있지만 여성주의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종종 와해되고 있다. 여성주의 모임을 다시금 만들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어떻게 유지시켜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오친몽따(?)속에 down되기 쉬운 fenergy를 함께 up해줄 친구가 있는 모임이 필요하다. 여성주의 소모임이든 동아리든 생활공동체든 어디든 하나 있었으면... 같이 만들 친구가 있었으면..

••• 썸(ssum)
이과대에 서식하는 자칭 나르시스트. 나와 내주위의 사람들의 fenergy를 up해 줄 수 있었으면^^ 가끔 누군가 지쳤을 때 파이팅을 외쳐주기도 한다는데..

♀ 도닥의 이야기 - 연애 ♀

연애.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노래가사에서 넘쳐나는 이성애적 연애의 이미지는 연애각본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안정감을,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강박을 가져다 주곤 한다.
스스로가 연애에 그닥 연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연애가 남의 이야기로만 느껴졌지만 어느새엔가 나 역시 연애를 하고 있더랬다.
연애남성으로서 용감하게 살아왔던 나는 적어도 비보같은 연애는 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건만... 순간 순간 흘러넘쳤던 감정의 그 나름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애는 어딘가가 늘 불편하고 답답했다.
'밀고당기기'로 이름 붙여진 연애방식과 원동한 듯 보이는 연인 사이에 갖추어진 권력각본에 전력이 날 때 쯤 만난 여성주의는 내게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고 그 자체만으로도 구원이었다. 적어도 내가 왜 괴로웠는지는 알려주었던 것.
이유를 알았으니 이제 내 연애도 활짝 폈으면 좋으련만, 그 다음 부터는 나의 몫이거늘.. 여성주의자의 연애란 어떤 것일까? 애인과 전화할 때 나도 모르는 새 나오는 뭇소리는 유희인가? 지아비론은 계속 된다. 그냥 잘 살고 싶다.

••• 도닥
제제되리의 습격. 폼위유자비 마련을 위해 노동 ☺.

연세여성인권운동사

+여기 실린 내용이나 사건들은 편집자의 한정된 자원과 지식과 주변 정황에 의해 많이 제한/편중되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 밖의 적잖은 실수와 오지한 점들도 양해 바랍니다.

1995년

- 성정치 분회제[1]
- 선거(새로운 진선 성의 정치) 낙선

1996년

- 1일 'the other-성정치 위원회' 생겨남.
- 소위 '연대/한총련 사태'

96년도 말, 그 때 지보가 붙고, 그래서 학내에서 여성운동을 하고 있는 이름 없는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아아~ 맞지다) 그래서 이름 없는 사회대 모임이랑, 동북이랑, 이과대 여학생회랑, 뭐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지. 학생회 구조에 대해서 이런 얘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여성지치연합 결성.)그 여자연에 있던 최승연, 이선민, 조제니 뭐 이런 사람들을 96년도 말에 중심중심이라고 학생하니, 학생운동 전영 전반에 대해 문제 있다, 지금 이거 안되지 않니, 이런 식의 학생사회에서 진보운동은 틀 아니지 않니, 그런 게 있었지. 오늘의 쌔이니, 중심중심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의 쌔 조합 운동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운동하면서 그런...포함도 하고, 그 때 그 쪽에 동조, 동의하는 사람들이 여자연에 있었지. 정말 살았던 거지. 살아서 그 살아냈던 최승연이 선거에까지 나가야 했던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니...그 때부터 기독교와의 전쟁은 시작했지. 【조제】

나는 잘 몰라. 96년도 2학기 때 성이 우월에 빠진 날이라는 성정치위원회의 제2대학 행사에 참여한 세우기였거든. 【동동】

1997년

- 여성지치연합
- 제1회 여성제-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그 때 우리가 총여실을 사용하면서, 학생처에 가서 총여학생회분으로 나오는 지원금도 달라고 해서 쓰고 그랬지. 여성제가 있었지, 1회 여성제, 길들여지지 않는 자신감. 그게 3월에 있고, 그리고 나서 참 여성의 비밀소리가 나왔지. (여자연은 반대표 운동 안 했지?) 아니아니 여자연이 그 당시 젊은들이랑 문제의식이랑 이런 거 다 만들었다구. 비온드도 같이 한 거구. 비온드beyond가 그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뭉~ 됐지. 그 때 그 총여 후보들이 선거도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감이 없었어. 시범세제이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그랬지.

그런데 기독교에서 총여학생회 후보를 내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우리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만들어서, 승연이랑 오늘이랑 해서 선거를 나가게 됐지. 그렇게 학생회 구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참 총여 후보로 나갔으니... 그 때 피투가게 논쟁도 있었지. 학생회를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냐. 학생회는 정말 아니니, 우리가 왜 안 했겠니, 학생회 탈퇴만 올해도 충분히 했을텐데. 결국에는 그래도 공간이니 예산이니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계네가 만 나왔더면 사실 총여학생회를 할 필요가 없었어. 계네가 그냥 총여를 하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갈 길을 갈 건가, 아니면 계네가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할건가 - 총여를 계네가 잡음으로 인해서 여성운동이다 뭐 이런 게 담보되는 면들, 이런 게 근린한 거지- 이러다가, 그런데 계네가 총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여성주의자들이 (운동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구... 그리고 도저히 저들을 우리의 총여학생회로 인정할 수 없다 아무리 학생회가 맞아 갔다지만, 그래도 안 된다. 이랬지. 되게 열심히 했어.

여자연 때는 뭐 우리끼리 세미나하고, 페미니즘 컬쳐도 가고, 청년학생한마당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한강에도 가고. 여자연 이름으로 행사를 많이 한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 상시적인 회의나 이런 것도 없었고. 무언가 활동할 게 있으면 그 때 모여서 회의하고 그랬지. 여성제가 있었지. 【조제+동동】

- 3.8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신문을 내며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 탄생

어떻게 3월에 탄생했지? beyond가 탄생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사회대 안에 이러저러하게 노동들이 여럿 있었는데, 우연히 '3.8 세계 여성의 날' 이라는게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그때까지 아무도 기억하거나 기념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감해 하면서, 97년 3월 7일에 처음 3.8 여성의 날 기념 행사의 신문을 발간을 했어. 근데 그 행사 끝내고 나니까 다들 사람들이, 우리 이대로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름도 없이 그냥 몇 번 모임을 했었지. 그러다가 '참여성' 나오면서 중앙의 공간에서 함께 싸우게 되었던 거고. 【시우】

- beyond 모임(하장)
- womb 탄생
- '참여성' 총여 후보 등장, 반대표 운동

참여성에 대한 반대표 운동을 중심이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 그 이전에 학생회 체제나 이런 것에 대해 불만도 있었고, '참여성'처럼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보결선거에서 당선되어 버린다는게 참을 수 없었던 것 같고. 아마도 학관 여후에서 밤늦게까지 지쳤으고 울컥했던게 생각이 나. 막 역할 분담해서 단체마다 붙이고 다니고, 떨어지면 열받아 하면서 또 갔다 붙이고. 그리고 그때 반대표 운동이 커지면서, 사회대에서 다른 여성주의자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고립되어 있던 beyond가 이러 여성주의자들과 함께하고 만나게 되고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 【시우】

beyond 97년 3월부터 시작했는데 그 후로 모임은 97년 10월인가 11월에 있었던 거거든. (그 때 반응은 어땠고, 준비할 때 느낌은 어땠어? 준비할 때는 재미있었지. 우리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구, 막 이거저거 수소문해서 찾아서, 포스노 붙여서, 다 같이 한 집에 단체로 몰려가서 보고, 애들이 막 '속이 여성해' 이런 얘기 막 하구. (사회대 대상으로 한 거였지가요). (사람들 많이 왔었어가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 (어땠어? 끝나고 나서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근데 표현의 자유랑 관련해서

1) 그 당시 자세한 이야기는 '나는 페미니스트이다' 참조

그 때 한참 그 이현세 만화 천국의 신화였나? 그게 딱 불거지면서, 표현의 자유 얘기가 포르노 얘기까지 넘어간 걸루 알고 있거든. 난 처음 준비단계부터 같이 한 건 아니었지만 처음 주제를 포르노로 잡은 이유가 그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지.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게 웃긴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 때 나는.. 나한테는 그 포럼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beyond에 합류하게 된 계기기도 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나 포르노라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기도 했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나한테는. 【디디】

1998년

▌10대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두입술과 여성학생활도서관 태동)

"재밌었지,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그런데 사실 싸우는 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왜 그 전에 '성정치'이러면서 선거를 나왔었는데, 그 이전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지... 그 때 그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했었던 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 그걸 실제로 하게 된 거지." 【from 오늘, 물건이의 실수로 많은 단어와 문장이 의미가 비슷한 다른 것으로 바뀌었을 것임】

▌여성지치단체들

- 모던, 열세번째, 이과대여성모임, 공대여성모임, 법대성연구모임 등그때지는 은쪽이, 음..

동쪽활동이요? 음~ 동쪽은 법대 여학생회에서 만든 세미나 팀이었어요, 원래. 여름방학 때, 90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게 돼서 들어가게 되고.

(열세번째 어떻게 생겨났는지) 열세번째는.. 레드랑 만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얘기를 하다가 그 어떤 문제 의식이었냐면, 음.. 그 때 한참 살맛을 준비할 때 내가 같이 준비를 하면서, 예들 만났었고, 이제 살맛은 외부단위였고, 그러면 내부에서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돼서 레드랑 얘기를 하다가. 레드 같은 경우에도 학생운동을 접하면서 여성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였고, 나도 그 당시에 (쪽팔리는 일이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때 좀 약간.. 경직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에 적대적인 게 있었고, 적대적인 이유가 설명이 안되고 언어화 안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정리를 해 보자, 이런 목적 하에 모이게 됐는데, 하면서 사실 맨 처음에 했던 행사는, 여성 미술이었어. 페미니즘 미술. 아 그 때 재밌었어요. 그 때 정미언니가 와서 강연했었거든. 정미언니가 강연을 했는데, 그 때 정미언니가 여성학과 들어간지 얼마 안 돼서 첫 강연이었다. 우리 돈도 들여~ (어디서, 그냥 학내에서 모든 연세인을 대상으로?)응. 아 그 때 멋진 기획 자보를 만들었어. 페미니즘 미술 전시도 하고, 설월이 공주라는 사람이 와서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도 해주고. 정미언니는 강연하고.

그 때는 공대같은 경우는 모부를 가지고 전학기 만들 생각을 했는데, 아 그 때는 공대에는 생긴지에 여성모임이 있었어요. 【시비】

(움womb) 음... 내가 제일 인상깊었던 건, 연대 내 유일한 여성주의 문화실험모임이라는 그 기치를 내건 되게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 앞으로도 여 그런 모임이 생겼으면 좋겠어. 사실 사람들이 '문화' 하면 대중문화, 음악이나 춤을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도 사실, 피하고 하면 참 힘들고, 여성주의적으로 한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뭔 아니라,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 하고 그랬던 게 멋졌던 것 같애. 불티는 하이힐이 나와서 멋있지. 그런 것들.. 불티는 하이힐은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일상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다른 운동의 형태였던 것 같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가지, 아이들 will과... 아이들이 멋지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되게 좋구, 행이정신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ssac이 되면서 그 맥을 잇고 있다는 게 좋아. 그래서 참 기분 좋아. 역시 움이야 【예감】

▌beyond 포럼, 지치규약 자료집

(지치규약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지치규약은 아 98년에 지치규약 처음 만들고, 근데 정말 성황리였거든. 그 토론회 하는 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알아? 그 강의실 꽉 찼었다니까. 준비도 되게 많이 하고. 난 지치규약 자료집은 뿌듯한 기억이야. 기뻐. 이번에 만든 공난이도 그래. 【디디】

나는 제일 기억나는 건, beyond에서 지치규약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때가 제일 많이 기억나. 좋기도 했지만 좋아서 기억난다기보다는 되게 힘들었거든. 처음인데 안 힘들었겠어? 고생도 많이 하고.. 뿌듯하고.. beyond에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면서, 막~ 엄청 멋지기(호못호못) 【이언】

▌두입술 창간 준비호/창간호

▌선거-'여성행동' 선본 낙선

갑자기 생각났어. 그 때 11대 선거 때 3차 유세 때 그 이상한 발언을 해 가지구, 온 여성주의자들을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게 생각이 났어. 어 진짜 열 받았어, 진짜 그 때 지치단체들 다 한통속으로 몰면서... 나 그 때 beyond 임장이었잖아? 한통속으로 몰면서, 테이블을 꾸렸겠다, 그랬다니 나네끼리 나눠먹기 하겠다는 거 아니니, 그래서 정말 확 돌아서, 그랬던 기억이 나. 가숙사 가는 길 얘기했어? 11대 선거는 참말... 【이언, 진철쓰】

1999년

▌여성지치연대

▌동쪽방 시절(이과대 여학생회, 두입술 창고 방 있었으나 잘 사용 안함)

▌11대 총여학생회의 반동-두입술과 생활도서관 강제철거, 참수

동쪽방 시절.. 그래그래, 철거 사건도 있었고, 두입술 부르트다 그랬지. 그 때는 이 동쪽방을 사수하기 위한 몸부림, 어떻게 쫓겨나지 않을까..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그러면서도 내 생각엔 참 직무유기였어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애. 학내에서 문제가 막 계속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 때 왜 주차 도우미 문제도 있었잖아?) 응, 주차도우미 말고도 뭐 일이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아무 것도 안 했어, 우리끼리는 막 뭐라고 말 많이 하고 그랬지만 우물쭈물 하고 있는 사이 11대 총여 애들이 다 막 하고.. 【흥흥】

▌모던 '반성폭력 학교(지치규약 제정운동)'

▌제2회 여성제- 여우야 여우야 어디있니?

(2회 여성제 어땠어?) 좋았어. (어떤 면에서 좋았어?)뭐... 그 때 기획교 총여가 하도 행위를 벌이던 상

활이라서 우리끼리 뭔가 형식을 붙였다는 게,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형식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좋았어. (특히 기억에 남는 형식은 뭐였어?) 그 뭐 모만에서 했던 yes, no질하더도 생각나고, 폭력에도 기억나고... 성희롱도 기억나고, '한방만 다오'도 기억나고. (힘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 힘들기도 했지. 같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도 없었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힘들었지. 좋았어요~ [목지]

어 여성제는 되게 멋있었어. 그 때는 되게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의 막 아사비 불어서 작업하고, 여성 영화도 틀고, 그 때 함께 즐길 수 있었던 게 되게 좋았는데, 그런 게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 크진 않아도, 춘여가 하지 않더라도 지역단체들에서 지가내 정체성에 맞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예감]

■ I will 탄생, 여성학 생활도서관→지치도서관→feminary 로 명칭 변경
→ 90년 후반기 여성연구소로 이전, 활동 재개

(12대 선거에 대해서..)그 때 재밌었지. (예?) 선거라는 게 뭐냐 하고생각만 한 공간은 아니잖아. 하는 과정에서의 좋은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되게 괴롭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것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때는 특히 하루의 낙이 없었기 때문에, 음, 관계가 그 내부가 돈독해 지면서... 뭐 그렇기도 하고... 특히 중요한 건 인력에 점으면 이런 얘기 못하겠지만 그 땐 이렇게, 그 압도적인 표차로, 50%이상의 득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따내면서 이겼기 때문에(그 때 3퍼센이었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정말 되게 기뻤지, 정말 정말 기뻤지. (선거할 때 기억나는 재미있는 일이라든가, 황당한 일이나 그런 거 있어?) 뭐 그냥...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게... 1차 문화유세 때, 목지가 노래하고 들어가다가 넘어졌잖아, 목지는 넘어져서 인상해 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사람의 인지상정이지, 괜찮니? 하면서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해야 하잖아, 그런데 너무 웃겨서 표정 관리가 안되는 거야. 그래서 나 뒤돌아 서서 막~ 웃었잖아. 하지만 더 기억나는 건, 그게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위기의 상황을 모면했지. 그게 기억이 나. 그 노래 가사와 뭐 연관하면서... 와 정말 훌륭한 위기 관리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 [이선]

2000년

■ 12대 로그인 연세총여

(12대 총여하면서는 어떻어가 아쉬움이 되게 많고, 뭐 학생회라는 것의 한계도 많이 느꼈고. 아쉬웠던 거는 뭐냐 다른 지치단체들보다도, 총여학생회는 업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어쩔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회를 같이 꾸린 사람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친목이라던 친목이고 나름대로 끈끈함을 만들려고 노력은 했지만, 처음에는 잘 몰라. 아아니어도 하하, 업무 하니 무릴 때아니... 과정이 되게 즐겁고 그랬는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일에 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 끈끈함을 다질 시간에, 차라리 집에 가서 한 숨 더 자고 싶고, 이런 상황들과, 아아니어 같은 것도 일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아쉽지. [이인]

작년에? 나 알고 한 애들도 있어. 음...글쎄..결혼, 연애, 성 이런 얘기는 그렇게 놀랍지 않았는데 특히 그 성폭력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몰랐던 걸 많이 알았던 것 같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아 그리고 그 처음 접하게 되는 놀랍게도 친숙한? 권인한 여성주의 문화가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 뒷풀이를 하는데 술을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나는 술을 잘 못 마시잖아. 술을 안 먹어도 되는 3월의 그 문화는 참으로 놀라웠어. 그리고 그 때 같이 했던 아이들이, 내공이랑 노래랑 춤이랑 음, 이규호도 있었다. 무척이나 반갑고 기뻤지. 아, 그리고 세네기 여성학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기뻤었지. [이정]

■ 연성뿌연 활동- 세미 반성폭력 내규, 반성폭력 학칙(규정안) 제정

기억 많이 했어요, 뭐냐면... 지금은 내가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모든 대학의 여성운동 하는 데서 가장 잘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예아레이, 음, 예아레이 집회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감동 받았어. 연중대회 갔을 때는 구호 삼명을 해주는데, 그 때는 공부하는 느낌이었는데, 예아레이 때는 구호를 외치면서, 절감하여~ 연성뿌연은 너무 어려웠어. 학칙 문구로 비교하면서 수정했던 거... [hani유리]

2001년

■ 13대 별 수 있/다! 총여학생회, beyond, 5연, 페미나리, 두입술, 위기, I will
■ 언론의 관심에 집중되었던 성교육 형식 <body Basice>

슬예 : 우리가 왜 성교육 형식을 했냐면, 그 전에는 성폭력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성폭력 얘기가 여성이 피해자화되는 게 있잖아. 우리가 그걸 피도한 건 아니지만.
운 : 그 전에 뭐냐 학칙제정을 이슈로 했거든. 97년, 98년 이후로 성폭력 얘기가 주된 얘기고 했어.
슬예 : 우린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스스로도 좀 그랬고. 형식파면서도 성적인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하기도 하고... 준비하면서 교육도 받으러 가고 그랬어.
운 : 인우회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많이 갔고 와서 했는데, 반응도 괜찮았던 것 같아. 그 전에 바깥에서 한 형식가 별로 없었거든. 여성제가 있긴 했지만 성교육 형식을 바깥에서 하는 건 또 다르니까.

■ 1회 연세여성주의자 워크샵 <지금지금보금보금 연세여성주의자들의 속사정>

운 : 그냥 자기 들여다보면서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해게 되고 활동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성주의자로 정체화하게 되고...이런 얘기들을 정말 장시간 동안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했었어. 하다보니까 얘기가 다들 깊어지서
슬예 : 그런 얘기를 난생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
운 : 사실 나도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나도 그 당시에 처음 해보는 얘기들이 많긴 했었어.
슬예 : 서로 놀라워하기도 하고.

2002년

■ 14대 총여학생회, 모빈, 페미니즘, 두 얼굴, 비욘드
■ 총여학생회 매체 <맥눈이 수다> 발행

이강 : 그 전에 화장실 신문을 하다가 우리가 매체를 처음 만들자고 해서 발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슈가 됐다?였다는 지금까지 매체를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중요한 일 중 하나였고...

이강 : (두 얼굴은 어땠어?) 물론 총여를 하면서 내가 많이 배우고 주변의 다른 여성주의자들을 많이 만난 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처음 여성주의를 알게 된 곳이 두얼굴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남다르다고나 할까. 책을 만드는 경험이라는 게, 같이 몇 개월씩 기획을 하고 글쓰고,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깊이있게 생각하고 논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자주 있을까. 나한테는 일단 그곳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
(자치단위가 많이 없어져서 아쉬워) 우리도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 단위에다 여학생회 있으면 참 좋겠다하고. 근데 총여를 끝내고 나면 또 보이는 게 다른 거야.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어떤 이슈를 제기한다는 것이, 이미 내가 총여에 있으면 어떤 형태건에서 성상을 하는 거지. (...) 난 어떤 고민이 더 재미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의 문제제기를 하면 적절한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나 어떻게 공감대를 얻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슈가 더 적절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 이슈가 될까나, 그러다보면 나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학교를 통해 모이지 않아도 사람이 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돼. (...)이후에 계속해서 여성운동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아. 대학원에서 여성학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나게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 그들이 그 우리의 운동을 어떻게 연결시킬까나, 그게 학내로 됐을 때 어떤 모양을 갖출까나 이런 생각을 하면 덜 힘빠지고 그렇지 않을까.

2003년

■ 15대 얼굴만큼 총여학생회
■ 세터민성폭력 내규 1차 개정
■ 1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여성, 욕망, 말하다>

목 : 회의 안건지에 있던 내용을 얘기하자면 ^^ 13, 14회에 했던 성교육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성폭력이랑 연결하기도 했고.
여랑 : (성교육 행사가 2년 정도 진행되는 걸 봐서 우리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어. 성교육 행사는 연무회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본동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런 내용들이라서...
목 : 좀 더 어떤 정치적인 것을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준이 (성교육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해 줘야 하나 하는 맘도 했고.

■ 교성절연 활동 시작

여랑 : 그 때 학칙관련한 회의만 따로 하나가 있었어. 교성학연 없어지고 나서 15대할 때 전장 때문에 전장에 반대하는 우슨 연대회의 있고, 페미네이랑 반전행사랑 한 번 때 학칙에 대해서 워크샵을 갖고 나서... 연대에서 교수상록의 사례 모아서 발표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10월 쯤 교성절연을 제안했어.
목 : 그 때 참가한 사인 있고, 서강대 K교수, 서울대 K교수, 동국대, 서울대....
여랑 : 1인 시위하고 그랬어.

여랑 : (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졸업한 이후에도 공장의 기억에 많이 남는 일인 것 같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건 같이 하는 사람들이고, 졸업 후에도 여성주의자로 살게 도와주는 거.

2004년

■ 16대 행복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
■ 반성폭력 학칙 1차 개정

열 : 그리고 사실 학칙이라는 게... 반성폭력 자체만 가지고 이슈화시키기도 쉽지는 않지만 반성폭력이라는 건 그래도 계속 많이 관심을 갈 수 있는 주제일 수 있는데 그게 뭐 이런 저런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킨다할지라도, 어쨌든 관심이라 할지라도 관심거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 이슈화시킬 쉽게 할 수 있는 만들이 있죠. 근데 학칙이다 보니까 이걸 대중적으로 설명하기 너무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이 조항이 이런데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하는데요.라면서 한 열 한 열 붙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슬로건으로 걸을 때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 발언을 해야할 때라든가, 서명운동을 했는데 그 때 설명을 할 때라든가, 이 자세한 조항들을 어느 정도까지 풀어서 얘기해야하는 건지, 이렇게 뭉뚱그려 설명을 하면 과연 동의가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 2회 섹슈얼리티 문화제 <Face! Women's Desi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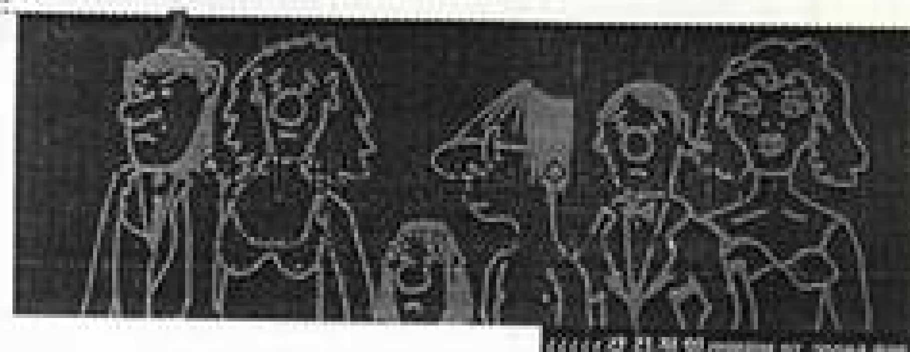
열 : 그 때 '엄마는 여자를 좋아해'가 개봉직전이었니... 그 때, 파일을 구할 수 있단 얘기를 듣고 파일 본 찾았는데 자막이 없는 거야. 정말 하루하루 외기 마라는 거지. 일단 이거를 그대로 들고 가야하니 한 걸 해야하니 이야기를 했는데, 대중적으로 재미있을 수 있으면서 또 문제의식도 있는 걸로 그 영화가 너무 적절했어요. 영화 자체도 매력적이고. 결국 그걸로 들고 나가기로 하고 포스터 다 찍고 홍보지도 다 찍고 자막만 못 빼고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파일 공유 사이트 들어가서 꼭 빠지게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제하기 자막을 만들었어요. 영화 개봉관에 쳐이 가서 보이스 레코더를 들고 영화를 보면서 나오는 자막을 계속 읽는 거야. 진짜 웃겼어요.

■ 7회 여성제 <소녀유랑> - 두고두고 회자되는 달빛시위 남성용 매뉴얼 지보

열 : 그 때 달빛시위 때 나누어졌던 남성용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캠페이닝을 할 때 여자의 다리 쳐 한 여자를 먼저 올려보세요, 이런 식의 남성용 에티켓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 의해 찢겨서 디씨인사이드를 전전하며 원본 댓글이는 리플을 달면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반응 자체가, 그 때는 의아했거든요. 여성제 때 잘 준비한 행사인데 그게 조롱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니까. 처음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반응들을 듣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로 타격받는다고 느끼는 반응이라고 해야하니...그런게 있기 때문에 올해 달빛시위할 때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매뉴얼을 들고 나갔죠요.

反성폭력

연세대는 성폭력 안전지대?



강김정원(인문학부 97, 2000년 졸업)

0. 들어가며

아마도 한국사회의 2000년, 21세기의 첫해를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의 하나는 바로 '성폭력', 혹은 '성희롱'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대변인이자 진보적 사회운동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될 뻔했던 장원씨의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개그맨 주병진씨, 육군의 장군, 대학 교수 등 유명인사 내지는 사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줄줄이 성폭력 사건의 도마 위에 올랐고, 롯데호텔 파업의 진압현장에서 여성노조원들에게 '막 말하고', 여성노조원들을 '막 만졌던' 공권력도 그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한편 각 대학에서는 앞다퉈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제정되었고, 온라인 상에서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공개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진보진영 내의 성폭력 가해자 명단으로부터 비롯된 성폭력에 대한 논쟁은 2001년이 된 현재까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판단은 유효할 것 같다. 장원씨 사건이나 주병진씨 사건에 대한 담론에서 보여지는 '꽃뱀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된다는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는 선정적인 가십거리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2000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 전 영역에 있어서 성희롱[1]을 금지하고 있고 이때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간 '친밀감의 표시', 혹은 '자연스런 남성성의 표현' 정도로 여겨졌던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행위나 외설적인 사진, 편지 등을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포괄적인 성희롱 개념은 지속적인 한국사회 내 反성폭력 운동의 결과이며 여성과 남성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 내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나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대학에서의 변화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각 대학에서 받아보게 된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충·상담창구 마련,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희롱 유형, 수업상 적절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성희롱, 남녀차별 예방과 금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참조해야 할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밝히고 있다. 2000년 연세대에서의 反성폭력 흐름, 특히 흔히 反성폭력 학칙으로 불리우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제정으로 실질화된 흐름 또한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0년 대학 내 성폭력에 관련한 연세대 내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학생 중심의 反성폭력 운동과 타 대학에서의 움직임 등의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1. 연세대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
– 反성폭력 학칙 제정 전까지의 反성폭력 운동

19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계기로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됨

연세대 내에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96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1) 이때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한총련 사태'가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96년 8월 말 '연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세한 상황과 함께 컴퓨터 통신에 올라오면서 '한총련 사태'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전경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었고, 한편으로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을 듣거나 온갖 욕설이 동반된 협박전화들을 받는 등의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2] 연세대 내에서도 여성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했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 고발 내용의 기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했다. 다음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경들의 발언과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 중의 일부이다.

>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이 씨발년들아.
> 니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뭐했냐, 사수대한테 니네 몸대주고 살았지?
> 고년들 참 잘 생겼다.
> 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냐.
> 좀 전엔 [illegible] 한판이 벌어졌냐.
> 내가 밥 사줄테니까 내 것도 빨아줄래?
> 이 씨발년아, 이 창녀만도 못한 년아, 넌 몇 놈하고 잤냐.
> 니네 우리 차에 타기만 해봐라, 다 강간해 버릴거다.
> "지나가는 애를 순서대로 가슴을 잡아 잡아가지고 끌었어요. 경찰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었구요, 급하게 지나가니까 손을 딱 잡아 넣었어요"
> "전경들이 곤봉으로 배를 때리고 가슴을 쥐고 내려갈 때 뒤에서 손이 올라와서 음부를 만졌고..."
>
>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자료집, 1997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내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주사파놀음이나 학생의 자작된 발상 등 '한총

2) 추미애 의원은 96년 10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총련 사태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에게 했던 언어적 성폭력이 추미애 의원의 입을 통해서 보고되었고,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추미애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느냐며 오히려 추미애 의원을 비난했다.

련 사태'에 묻혀있는 여타의 문제들에 묻혀 그리 크게 떠오르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3]가 구성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연대회의는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등 18개 대학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등 여성운동을 하는 학생 단체들이 학내 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연대모임으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사례, 反성폭력 운동에 관한 자료, 성폭력 사건 처리, 각 대학의 反성폭력 학칙제정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왔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4] 사실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여성연대회의를 빼놓고는 서술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연대회의는 각 대학에서 공론화되었던 개별적인 성폭력 사건부터 反성폭력 학칙제정의 상황 등을 공유·소통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주축이 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my body is a battle ground!

97년에는 연세대 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에 의해서 성폭력 사례들이 수집되고 공개되면서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수업시간의 교수에 의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사례 중 학생사이의 성폭력은 술자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음담패설이나 여성에게 술 따르라는 요구, 여성을 대상화하는 게임에서의 벌칙 등의 성폭력부터 신체적 성폭력까지 다양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남성중심성, 왜곡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에 대한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강간이나 물리적 성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도덕성의 부족으로 인해 벌어지

3)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4년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일명 우조교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의해서였다. 신교수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 특히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절감한 공대위는 교수·교직원·학생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해 성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신교수 사건의 소송이 93년부터 시작되어 98년까지 [illegible] 사건을 통해서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소강기를 맞다가 각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고 97년 2월에 국민대 공과대 교수에 의한 여학생 강간시도가 공론화되면서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이 다시금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illegible],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 : [illegible]', [illegible], 2000)

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학내에서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 93년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5]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가볍다고 여겨지는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희롱이 된다는 것이 이슈화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성희롱의 포괄적 개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교수와 학생, 혹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 권력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즉 가해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라는 지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97년에 연세대에서 여성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폭력을 둘러싼 권력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97년 말에는 신학과 김모 교수가 김균진 교수(가) 교양필수인 현대인과 기독교 수업시간에 행한 성폭력적 발언이 총여학생회에 의해 공론화되고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김모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에 의해 총여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중 총여학생회의 한 선거운동본부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가 총여학생회로 당선된 후 총여학생회에서 이 사건을 자보를 통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론화하고 당사자인 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신고한 학생이 기록한 수업시간 중 교수 발언의 일부이다.

> '하얀 기억 속의 너'라는 소설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기를 물심양면 도와준 한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날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는 [illegible] '정말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illegible]? [illegible]'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게도 진정으로 [illegible] 성관계는 거부를 했답니다." 이에 대한 그 교수의 말: '예, 저는 이 남자를 보며 정말 예수님의 현신이라고 느꼈습니다.'

> '여학생들 만나서 [illegible] 하지 마세요. 이대 학생을 보면 [illegible], 신학 박사가 다수인데 연대 여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뻔질뻔질하게 화장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5) 이 글에서 [illegible] '우조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었던 성희롱 사건을 의미하는데 '우조교 사건'이라는 명칭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illegible]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인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딴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칭한다.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 들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여자를 얼마나 생각하는게 목견하잖아요'도중에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한 여학생에게 '시집갈때도 그렇게 늦을래?' 하며 망신을 주시니 하고... 여자 때리지 마세요. 여자의 남편이 때릴 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여기에 있는 남자도 있지요. 얼마나 행신하면 맞고 삽니까? 안 그래요, 남자 남학생들?

'정육점 불어서 칼을 수 없을 만 한 음식점 되지... 안 그래요, 여기 남학생들?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그래요.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육이 출렁되고 나면 난 남자라는 식으로 색 들어서며 많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여일 하는 편한 직업가도 하지 않잖아요?

'남자들 출장가고 그러면 다들 한잔하러 어쩌구요. 사실 출장간다면 남자 동료들이 다들 좋다고 한마디씩 하고 그럽니다. 여기 여학생들, 남편이 출장간다면 고마워해야 합니다... 제 친구들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새로 그들 여사원이 들어오면 꼭 따라갑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당당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생물이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전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군대 갔다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사실 군대 갔다오면 다 사람가게 가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 하겠지만... 난 척 보면 생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연세성폭력투의를/연대회의, 『2000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자료집』, 2000

이 사건은 연세대 내에서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개되고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최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최초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사자인 김모 교수는 결국 수업시간에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

97년 말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98년 한해동안 활동을 펼친 총여학생회는 선거 때 성폭력 학칙 제정과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라는 공약을 내놓았다.* 연세대 내에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98년 총여학

*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재의 행정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점이 미비되었습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②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정된 학칙을 준용하고 법 자문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 치료 상담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 학내 성폭력 전반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제30대 총여학생회 김신현정 · 최현승의 선거운동본부, p. 30, 선거정책자료집, 1997)

생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연세대에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연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과 사례, 성의식,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98년에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나 문과대 여성모임 '꼬빈' 등 학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은 反성폭력 학칙제정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反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갔다. 여성자치단체들은 단과대 안에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화장실 게시판을 통해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이러한 흐름은 99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례 수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대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수집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진보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 혹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라는 허울 속에 은폐되어 왔던 대학 내 성폭력의 현실을 폭로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막연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으로 각인되어 있던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언어화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나는 성폭력이랑 상관없어'는 인식이 학내에 팽배하지만 총여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연세대 내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성폭력이 소수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 일상에 만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서서히 학내에 확산되었던 것 같다.

2. 남녀차별금지법과 反성폭력 학칙

2000년에 연세대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운동의 결과이자 또 하나의 시작점인 규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평등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 · 시설 ·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성폭력의 개념, 특히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비

교적 충실히 고려한 성폭력 개념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명문화되었다는 점과 함께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1. 목적, 2. 정의, 3.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4. 학교(기관)장, 상급감독자, 직원의 책임,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첨부자료 1.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첨부자료 2.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시 유의사항, 참고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은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절차,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피해자의 자세 및 대처요령,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희롱 유형 등을 비교적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 신속하게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 가. 고충상담자의 지정
> ①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 '고충상담'이라 함이 '직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제기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 고충상담을 받는 직원 또는 고충상담에 응하는 상담원 등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2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되, 상담 시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응대)
> ③ 시 · 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이 협력토록에 의해 상담교원(상담교사, 학부모, 지원봉사자 등 적절 활용 병행토록)을 두고 상담을 받을 일시, 장소 및 절차를 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기회 확대 방안 강구
> ④ 상담교원에 대한 적절한 연수기회 부여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상담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상담자 연수기관 : 별첨 참고자료 8. 단체명단 참고)
> 나. 고충상담자의 임무
> ① 상담원 등은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조사 및 당해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 · 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 노력
> ② 상담원 등은 위 고충상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역할 발휘
> ③ 상담원, 주변 관계자 등은 고충상담에 종함에 있어 관련자의 자존심이나 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준수 의무 부과)
>
>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중 일부
> 다. 대학 등 각급학교기관의 역할
> ○ 교육부(시 · 도교육청)에서 통보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 을 참고하여 학교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 ○ 교육현장에서 학생 상호간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 수업 시 지도하고, 학칙, 내부규정 등으로 문제해결 노력

위와 같은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연세대 내에서도 여학생회가 주축이 되어 1999년 말부터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학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反성폭력 학칙이 필요하다는 총여학생회나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의 목소리는 98년부터 가시화되었으나 학교측에 의해 실질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거의 2000년부터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3. 2000년,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다

2000년 연세대에서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反성폭력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새터 反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이고 두 번째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다.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자치적 성찰 –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운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기간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反성폭력 내규를 학생사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목한 이유는 그것의 특수성 때문이다. 연세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학교측에서 준비한 행사와 총동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3일 정도의 공식 오리엔테이션과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2박 3일 정도의 신입생 수련회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입생 수련회는 신입생 수련회에 참가한 신입생과 선배 모두가 2박 3일동안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성폭력이 발생한다.

> 98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당첨된 한 여학생이 다른 조에 가서 술을 얻어오게 되었다. 술을 입으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주세요 보이는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 '스킨십스 해라, 그러면 술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
> 98년 신입생 수련회시 모 단대에서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 일을 겪은 여학생은 자다가 깨서 굉장히 당황했으나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옆 방으로 옮겨서 잤다.

99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 준비동아리 하나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 신입생 수련회 행사 중 이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한 남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그 동아리의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 이를 안 단대 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동아리에 속한 당사자 남학생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관련한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하였다.

99년 모 단대의 모임 술자리에서 어떤 조 남학생 5명이 술을 먹으며 다른 조에 돌아다니면서 여러 동요 노래를 개사하여 성기를 지칭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자리에 있던 여학생이 불만을 제기했으나 '재미있지 않냐'라는 말로 무시되었다.

99년 새터에서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에 여학생이 응하고 술을 따르자 '잘 따르네, 술집에서 일했냐?'라고 말하였다.

99년 모 단대에서 다인의 광고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남학생이 성기 모양으로 스프링을 쥐고 앉아 있는 남학생 한 명이 엉덩이를 들고 있었다. 연구원 복장을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들고 있던 엉덩이 밑을 탁탁 치면서 연기를 하자 남학생이 엉덩이를 흔들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새터 反성폭력 내규 토론용 자료집』, 2000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의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장난삼아 한 말이나 행동'이라는 말로 성폭력적 언행이 정당화되기 일쑤이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선배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학문화는 진보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불쾌감들을 '대학문화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구나' 등의 생각으로 무마하거나, 설사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낀다 해도 선후배간의 권력관계로 인해, 혹은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봐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대게 된다. 바로 이것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터 反성폭력 내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의 유형을 명시하고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구의 설치와 징계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폭력적 문화를 성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놀이문화

나 음주문화를 성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학생 스스로의 고백인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두 번째 反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에 있어서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양면적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분명 反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98년부터 꾸준히 反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학생의 입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양날의 칼과도 같다는 것은 앞서 서술한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특히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이 학교측에서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졸속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에 대한 우려는 근거없는 기우가 아니라 아주대의 실제 사례에서 근거한 이유있는 우려였다. 아주대에서는 2000년 3월에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학칙의 실상을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따로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학칙의 상벌위원회 조항에 "강간-퇴학, 성폭력-무기정학, 성추행-유기정학"의 조항이 첨가된 것으로 기존 학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아주대에서 제정된 학칙은 총여학생회 및 다른 학생회 임원조차 뉴스 방송을 보고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학생들과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었고 일체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성추행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피해자 보호조항이 빠져 있고, 교수 및 교직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채 학생만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대의 反성폭력 학칙은 잘못 만들어진 反성폭력 학칙의 대명사가 되었다. 비록 아주대의 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학칙이나 내부규정 등의 자체 내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와 남녀차별금지법 이후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 학교측의 학칙 제정 움직임은 연세대에서도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연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연세대의 규정은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원주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각 1인으로 구성된 학생대표와 여학생처장 외 4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6월 첫 회의를 가지고 학칙의 가안을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0월에 제정되었다.[6] 反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총여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들은

연세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교측이 제시한 反성폭력 학칙 가안에 대한 학생측의 수정안을 만드는 한편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부터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들을 공개했다. 아래는 당시에 공개된 사례 중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일부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생물학적으로 멀티 오르가슴이 가능하며 혼자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매매춘에 종사하는 그런 류의 짓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 거지요'(여대 한 수업, 행동과학-인간의 성행동)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가 나서 어디 말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총여학생회로 메일을 보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업시간에 앞에 앉은 어떤 여학생이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어제 밤잠 나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용어를 설명하시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예라는 것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선택을 할 때 결혼 전에는 다른 남자가 앞에 좋은 저녁을 하면 되지만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와서는 다른 남자가 더 앞에 든다고 해도 이미 첫날밤을 치른 버린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남자를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할 데가 없나 찾다가 그냥 총여학생회에 말하는 게 제일 날 듯 싶어 편지 드립니다.(문대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보낸 e-mail의 내용)

또 교양수업의 강사가 독수리상 앞에 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는 걸 보면 요즘 연세 여학생들의 성관념을 알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그 강사는 웃으면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 중에 총각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남학생들을 시

6)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과 교수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동수로 동등한 표결권의 행사와 관련 제반의 추진 요구안을 제출하였던 6월 17일의 학생총회에서 제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이 성실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등의 학생들은 학교의 본관을 점거했고, 6월 22일 학생대표와 학교측은 학생측의 요구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서 反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① 성폭력 학칙 제정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한다.
– 이 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성폭력 학칙을 제정한다.
– 교수와 학생은 동수로 한다. (학생대표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원주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 2000년 6월 초 첫회의를 실시한다.

하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고 몇몇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손을 들기도 했다. 그러자 그 강사가 다시 수업을 듣는 여학생 중에 처녀가 있으면 일어나보라는 발언을 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작년 모 건물에 계시는 수위 아저씨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팔을 쓰다듬는다던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경우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다른 곳을 가다가도 익숙한 여학생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그 아저씨가 자신한테만 이상한 줄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저씨한테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 학생회로 신고를 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2000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료집』, 2000

하지만 초기에 학교측이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7] 反성폭력 학칙에 있어서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각종 조치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대책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등[8] 학교측과 학생측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문제가 되었던 대책위원회에도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는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측의 요구가 학교측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몇 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총여학생회나 여성자치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9] 이제 뒷몸에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과 학칙 제정 이후 학칙의 운영

7)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학교측은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는 있으나 학생대표에게 의사결정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8) 이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규정 가안 중 제2장 성폭력위원회(제정된 학칙에서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장 성폭력위원회
제5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2. 각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규정 중 제2장 성폭력대책위원회
제5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2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이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교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4. 反성폭력 학칙 제정=성폭력 근절? 이제부터 시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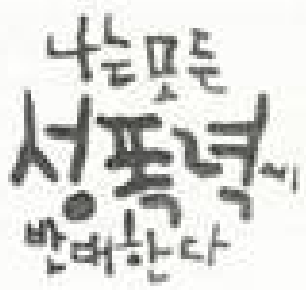
연세대의 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규정이 시행되어 이 글을 쓰고 있는 2001년 1월 31일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을뿐이지 앞으로 제정될 학칙이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측,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도 꾸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규정의 제정은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노력과 활동의 성과임과 동시에 시작인 것이다.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성폭력의 재생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이제까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존재되었고, 그 중 몇몇 사건에 대해서만 학교측, 혹은 학생측에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 등이 주관적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이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수술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생간의 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 속해있다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기가 싫어서 수업을 듣는 것에도 커다란 두려움과 중압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동아리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성폭력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피해자의 많은 수가 졸업을 할 때까지 혹은 논문을 쓸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反성폭력 학칙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 행하는 성폭력만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간의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反성폭력 학칙 제정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명예해야 할 것은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한 타 학교에 비해 연세대의 진보성을 자동적 입증할 것이라거나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다. 규정의 제정 자체가 연세대에서 진행되었던 몇 년간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진 여성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던 것임 만큼,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일상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실질적으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

10) 남녀차별금지법의 제6장 성희롱 기준 중
제10조 성희롱의 금지방식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2주차 누가 오명을 [illegible]

[illegible] 시몬느
[illegible]적 · 심리적 ·
[illegible]서 선택된 태도,
[illegible]고 것"이라고 주장했
[illegible]"에 의해 평가되어야
[illegible]쪽으로부터의 "도피의 양
[illegible]기 때문이다.[2]
[illegible]엇일까?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illegible]있나?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자신에
[illegible] 이는 레즈비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illegible] 성폭력 근절" 활동가의 주도 / 인간사랑 / 2000
2장 페미니즘 섹슈얼 섹슈얼 성폭력
성폭력의 근절, 활동가의 주도

이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교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4. 反성폭력 학칙 제정=성폭력 근절?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세대의 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규정의 시행세칙이 이 글을 쓰고 있는 2001년 1월 31일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을뿐더러 앞으로 제정된 학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측,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규정의 제정은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노력과 활동의 성과임과 동시에 시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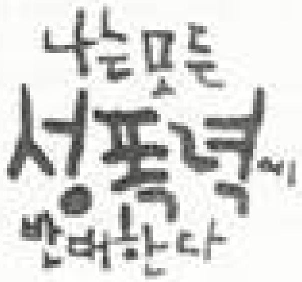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성폭력의 재생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이제까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은폐되었고, 그 중 몇몇 사건에 대해서만 학교측, 혹은 학생측에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 등이 꾸려져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나마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생간의 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 속해있다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기가 싫어서 수업을 듣는 것에도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동아리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성폭력일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피해자의 많은 수가 졸업을 할 때까지 혹은 논문을 쓸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지속적으로 성폭력

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反성폭력 학칙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훈련자에 대하여 행하는 성폭력만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간의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反성폭력 학칙 제정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한 타 학교에 비해 연세대의 진보성을 저절로 담보할 것이라거나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다. 규정의 제정 자체가 연세대에서 진행되었던 몇 년간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진 여성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던 것인 만큼,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일상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2주차

누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 레즈비언 억압

- 『레즈비언의 선택』 클로디아 카드 / 인간사랑 / 2004

2장 레즈비언 태도와 '제 2의 성'

4장 레즈비언 윤리

2장

레즈비언 태도와 『제2의 성』

『제2의 성』의 한 장을 레즈비언에 할애하면서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동성애"란 의도적인 도착이거나 생리적 · 심리적 · 경제적으로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일정한 상황에서 선택된 태도, 즉 동기화된 것이면서 동시에 자유롭게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1]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선택은 "진정성"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때 선택은 자신의 상황으로부터의 "도피의 양식"이거나 "그런 척하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이다.[2]

이러한 주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 것일까? 얼마만큼 진실이 담겨 있나?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자신에 대한 책임의 실패로 돌리는데, 이는 레즈비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인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는 레즈비언의 태도와 선택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을까?

"동성애"에 대한 보부아르의 주장에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그녀의 제안은 개인이 자신의 성적 경향에 대해 책임질 수 있다는 급진적 레즈비언의 입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혹시 보부아르가 선택의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철학적 탐구를 위한 매혹적인 주제의 물꼬를 터준 것만은 분명하다. 반면 놀라운 사실은, 그녀 자신이 레즈비언에 대해 내세운 주장이 같은 책에서 여성들에 관해 했던 다른 주장들에 갖는 함의를 보부아르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동성애"가 도대체 어떤 태도인지(아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하지 않긴 하지만 동성애를 태도로 보는 생각은 명백하기 때문에 보부아르 자신은 결국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이성애에 대한 흥미로운 함의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는 있다.

비록 레즈비언들의 도피가 당연하게 여겨질 만한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현실로부터의 도피는 레즈비언에게 가장 일어나기 쉬운 위험은 아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한 여성이 레즈비언으로 살기를 선택했다면 자신에 대해 책임질 줄 아는 법을 배울 것은 분명하다. 현실로부터의 도피보다는 다른 여성들의 봉사와 양육조건을 착취하고 싶은 유혹이 레즈비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좀더 그럴 듯한 위험이다.

이 장의 제한된 지면에서 이런 주장 모두를 적절하게 변호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보부아르가 자신의 입장에 담긴 의의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황당한 실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주장들

이 흥미롭게 제시하는 바를 얘기해 보려고 한다.

레즈비언에 대한 보부아르의 견해는 1949년, 여성에 관한 「킨제이 보고서」가 나오기 4년 전인 시점에서는 혁명적이었다. 미국정신과협회가 1973년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시킨 이래 우리에게 그녀의 입장은 덜 혁명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레즈비언은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만든다"는 주장은 여전히 급진적인 견해로 남아 있다.[3] 19세기 게이 행동주의가 시작된 이래 대부분이 남성인 성 연구자들은 동성애가 유전적인지 아니면 완전히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여왔다(최근에는 이러한 이분법에 도전하는 것이 추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들은 "동성애자"가 책임을 가져야 할 어떤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해 왔다. "게이는 좋은 것"이라는 1960년대 후반의 슬로건은 책임감을 포함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간 것은 "게이들"이 아니라 급진적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었다.

보부아르는 급진적 레즈비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르크스주의 결정론에 실망한 실존주의자였다. 레즈비언에 관한 그녀의 견해가 제시해준 여성 일반에 갖는 함의를 보부아르 자신이 인정하고 주장하려고 했다면 그녀는 『제2의 성』보다 훨씬 급진적인 책을 썼어야 했을지 모른다. 『제2의 성』은 이성애의 보트를 흔들려는 의도보다는 반대로 진정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녀의 관심은 "양성의 전쟁"은 영원히 계속될 운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전쟁을 대신해서 양성의 협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일이었다. 책임에 관한 실존주의적 관심을 레즈비언의

상황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위에서 인용한 보부아르의 입장은 거의 부차적이 되었다. 그녀는 레즈비언과 관련된 함의를 알고 있었고, 윤곽을 잡아주었다. 레즈비언을 위해서.

『제2의 성』의 위대한 역설은 이성애에 관해서 이와 상응한 결론을 적절히 도출해내는 데 실패했다는 점이다. 보부아르는 동성애가 선택이라면 이성애도 선택이라는 점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를 그녀의 보다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이성애란 생리적으로, 심리적·경제적으로 결정된 태도가 아니라 진정성에 의해 평가받아야 할 태도이다. 레즈비언에 할애된 장을 제외하면 『제2의 성』은 이성애를 선택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레즈비언 장에서조차 이성애는 레즈비언들이 거부한 선택으로만 다루어지고 있을 뿐, 이성애 여성들이 포용한 선택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성애 여성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제2의 성』 서문에서 보부아르는 이렇게 쓴다.

> 양성의 구분은 생물학적 사실이지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은 원시적 [본래적] 공존재[共存在 역주: *Mitsein* 하이데거가 사용한 용어로 현존재(現存在, Dasein)로서의 인간존재는 본질적으로 공존재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한다] 내에서 서로 대립하여 서 있다. … 커플은 두 개의 반쪽이 함께 고정된 근본적인 통일체이다 … [여성은] 두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총체에서 타자(the Other)이며, 두 요소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다. (xix–xx쪽)

이 문맥에서 "커플"은 확실히 이성애 커플이다. 보부아르는 1권에서 여성의 남성에 대한 종속은 생리적·심리적·경제적 조건에 따

른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녀는 출발에서부터 양성의 대립은 성의 생물학적 구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가정하는 듯이 보인다. 인간 의식의 본성을 전제로 하면서 그녀는 헤겔을 언급한다.

> 헤겔을 따라서 우리는 의식 그 자체에서 모든 다른 의식에 대한 근본적 적대감을 발견한다. 주체는 대립을 통해서만 의지한다—그는 자신을 본질적인 것으로 세우고 타자, 즉 비본질적인 대상에 대립시킨다. (xvii쪽)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양성의 전쟁"이 자라날 원시적 토양을 갖게 된다.

레즈비언에 관한 장에서만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양성의 필수조건이 동물의 경우에는 이성애의 태도를 수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의미 있고 지속적인 타자와의 관계를 이성애적 태도만으로 구성한다거나, 우리가 이성애에 대한 경향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결론짓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도 보부아르는 레즈비언의 소극적인 이성애적 태도(혹은 이성애에 대한 무관심의 태도)—그녀는 레즈비언을 "도착자"라고 의미심장하게 부른다—를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것인 양 취급한다. "여성 도착자"[*l'invertie*]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점은 그녀의 선택이 띠는 긍정적인 양상보다는 그 부정적인 경향이다(407–8쪽). 이성애적 여성의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태도는 인식되지 못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레즈비언

은] 여성에 대한 취향이 아니라 이 취향의 배타적 성격에 의해서 구별된다"(406쪽), "여성은 항상 여성을 사랑했다"는 점을 인정하면 이성애적 여성들은 종종 자신의 성적 경향을 그들의 레즈비언 태도가 주된 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지 않는데, 보부와르는 왜 그런지에 대해 물어보지조차 않는다.[4] 『제2의 성』의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 그녀의 초점은 이성애적 경향이 무조건 당연시되는 여성들에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성적 입문과 어머니에 대한 장들은 레즈비언의 성적 입문이나 레즈비언 모성을 논하지 않으며, 기혼 여성에 대한 장은 남성과 결혼한 레즈비언들을 다루고 있지 않다.

레즈비언과 이성애적 여성들에 관한 『제2의 성』의 입장은 이중 모순을 갖는다. 우선 레즈비언이 "스스로를 레즈비언으로 만든다"라는 입장은 어떤 여성이든 레즈비언 경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듯하다. 물론 일부 여성들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는 어떤 여성이든 이성애적 경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일부 여성들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이런 입장은 여성에 커플이 "두 개의 반쪽이 서로 고정된 근본적 통일체"라는 주장과 양립할 수 없다. 둘째, 만일 레즈비언의 경향이 때로 진정하게 선택된다면, 어떻게 여성이 원시적 이성애적 공존재의 일부이며 남성은 여성에게 필수적일 수 있는가? 레즈비언의 경향을 선택하는 일은 커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상황을 위하기보다는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출구는 레즈비언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다. 마릴린 프라이에 따르면, 이와 같은 거부는 바로 남근 우월적 문화가 자행해 온 것이 다름아

니다. 모니크 위티그는 프라이의 주장을 수용한다.[5] 그러나 보부와르가 제택한 용어로 보면 레즈비언들은 여성이기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야 한다. 이성애적인 원시적 이원론의 배경에서 보면 레즈비언의 태도는 진정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런 태도를 취하는 방식"이기보다는 "그녀의 상황으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것 같다. 하지만 레즈비언에 관한 장에서 보부와르는 레즈비언의 태도가 언제나 진정하지 않다고 간주하는 것은 정신분석가들의 큰 실수라고 주장했다(406쪽).

보부와르가 이 모순을 알았다면 아마도 『제2의 성』에서 한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레즈비언의 인간관계에 관한 비관주의를 문제삼았을지 모른다.[6] 인간관계를 이성애적 관계로 정의하고 어떤 의식적 존재에게도 의미 있는 타자란 아마도 "상대" 성(sex)으로서의 타자라고 추정하는 대신, 그녀는 아마 타자에 대한 인간 의식 속의 본래적 적대감에 대한 헤겔의 가정에 도전하고 어떻게 양성이 "대립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지 모른다. 레즈비언의 애정관계(liaison)라는 "특별한 상황"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분할을 따라가면서 그녀는 어떤 의식이 다른 의식을 선험적으로 적대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억압적 제도의 결과이기보다는 억압적 제도들을 낳은 조건들 사이에 존재하는지를 고려했을지 모른다. 그녀가 해석하는 레즈비언 관계들의 "특별한 상황"은 관계를 허가하고 규제하는 사회적 제도와 관습들의 부재이다.

> [레즈비언 애정관계는] 제도나 관습으로 허가되지도, 관례에

> 따라 규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한 상실감을 특징으로 한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경우조차도 어느 정도는 서로에 대해 한 가지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이 항상 일정한 요구사항을 부여한다. (419~20쪽)

이성애 관계에서 상실감의 부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동일한 제도와 관습들은 양성의 "대립성"에 대해서도 역시 책임이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관습과 도덕규범이 이성애 관계에서의 상실감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 한 여성의 이성애적 경향이 이 상황에서 진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보부와르는 장애를 인정하는 것 이상이다. (남성과) 『사랑에 빠진 여자』(The Woman in Love)라는 제목의 긴 장은 여성이 주체가 되려는 시도와 그와 동시에 여성성의 법칙 아래에서 남성의 원인으로서 해체되고자 하는 것 사이의 모순을 풍부하게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조건에서 이성애를 고집하는 선택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문제시하지 않는다. 보부와르에게는 이성애에 어떤 선택이 결부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듯하다.

페미니스트 이론가가, 레즈비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해도 이성애는 강제적이기 때문에—에드리언 리치 등 여러 사람들이 방대하게 기록하듯이—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레즈비언주의는 확실히 강제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언뜻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두 선택 모두 동일한 여성에게 부여된다. 이 여성은 자유로운가, 아닌가? 레즈비언의 자유는 그녀의 선택이 관습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더 쉽게 분명히 드러나

보일지 모른다. 이성애 여성의 자유가 덜 분명한 이유는 그녀의 선택이 쉽게 관습에 의해 결정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성애의 강제성은 여성이 선택을 강요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애는 거부할 때 심한 벌이 따른다는 의미에서 강제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형벌을 지고 살아가기를 선택할 수 있다. 레즈비언들은 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는 그 벌이 너무 잔인해서 이성애적 선택만이 참을 만하다고 여겨지는가의 여부인데, 그런 경우에 레즈비언의 "자유"는 단순히 제정신이 아닐 "자유", 혹은 어쩌면 영웅적일 자유일지 모른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진실을 말해 보자면, 레즈비언들은 관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비교적 자율적이고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선택하지만(보부와르: 레즈비언들은 스스로 만든다) 이성애 여성은 관습에 의해 결정되기를, 비교적 덜 자율적이기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후자의 선택이 진정하지 않은지의 여부는 이성애 여성이 결정되기를 선택할 때 따르는 관습의 본질을 고려하지 않고는 결정될 수 없는 문제이다.

관습이나 제도적 요구사항들에 의해 결정되거나 결정되지 않으려는 선택이라는 아이디어는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하다. 즉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이 이해하고 있다고 느낄지 모른다. 레즈비언이든 이성애적 경향이든 어느 쪽을 선택하는 일은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해한다. 보부와르가 "동성애"란 "특정한 상황에서 선택된 태도"라고 주장한 점에서 옳았다면, 이 태도는

단순히 관습이나 제도를 향한 태도는 아닌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태도인가? 그리고 그것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레즈비언의 선택에 관한 보부와르의 입장이 아기하는 혼란은 선택지로서의 "선택"(그것에 대해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않든)과 여러 선택지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선택하는 사람의 인식을 전제하는 것) 사이를 구별해줌으로써 감소될 수 있을지 모른다. 게이 인권 행동주의자들과 이성애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성적 경향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그런 성적 경향을 갖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점은 최상의 어지럽이 대체로 옳다. 물론 그렇게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선택지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가능한) 선택들이 있다는 주장을 희손시키지는 않는다. 보부와르는 단순한 선택지의 존재가 아닌 선택의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그녀가 레즈비언과 이성애 여성들 사이의 유관한 유비관계를 놓친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다. 물론의 이성애로 구성된 사회에서 레즈비언의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점을 여성들이 깨닫지 못하기는 쉽지만, 이성애에 무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성애 여성보다 레즈비언이 더 쉽게 그녀의 성적 지향에 대한 선택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레즈비언들이 레즈비언의 결함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그들의 좀더 구체적인 선택의 결과로 그 경향을 발전시켰을 수도 있다. 레즈비언의 경향에 헌신하는 일, 즉 최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레즈비언의 성적 경향을 단순히 갖고 있는 것 이상이다.

보부와르의 입장이 아기하는 다른 종류의 불편함은 성적 경향이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가라는 문제가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성적 경향을 향해 다양한 태도를 취할 수는 있지만 ——가령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수치스러워한다든지——, 자신의 성적 경향을 선택할 수 있는가? 성적 경향에 대한 대중적 견해에 따르면 이는 단지 취향의 문제이고, 취향을 설명할 도리는 없으며, 더더욱 개인의 선택이라는 시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적 선미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성적 경향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와 비유해서 왼손잡이이면서 동시에 동성애인 경우가 10%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두 습관 모두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관계들이 의미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의 기원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조차 없다. 보부와르의 접근은 좀더 흥미롭다. 그녀는 논쟁의 다양한 입장들을 타당하게 보이는 대답을 제안한다. 그녀가 표현했듯이 대상선택은 하나의 태도이다. 레즈비언이 되는 일이 (마찬가지로 이성애가 되는 일도) 태도의 문제라면 왜 선택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는지 이해하기 쉽다. 선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렇지 않다는 쪽보다 더 진실에 가깝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생긴다.

한 여성의 성적 경향이 레즈비언이나 이성애자가 되는 과정을 적절히 묘사하려 한다면 한편으로는 "자유로이 선택된", 다른 한편으론 "운명지어진"이나 "결정된"이라는 양분법이 제공하는 것보다는 더 관대한 어휘가 필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암시했듯이 자발적인 것은 어느 것도 선택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이지 않은 어느 것도 비

자발적이지 않다.[7]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선택은 심사숙고의 산물인 욕망이다. 자발성은 강요에 의한 것도 무지에 의한 것도 아니다. 강요나 무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행위가 심사숙고의 산물은 역시 아니다(따라서 자발적이지만 선택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의 영역은 특별히 선택한 것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발적인 것도 포함하며, ——무지 때문에——분명히 자발적이지 않았지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자발적일 수도 있었을 행위도 포함할 수 있다. 태도는 종종 후자의 영역에 해당되어 보인다. 흔히 우리의 태도는 수많은 세부적 행위들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또 우리가 반성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들이 태도였음을 의식하지 못한다.

태도란 무엇인가? 태도는 포즈이며 입장이고, 자세이며 경향이다. 본래 디자인 이도의 기술적 용어에서 비롯되어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태도"는 경향, 행동과 가치들의 복합물을 의미하는 심리적 용어가 되었다.[8] 정서와 마찬가지로 태도는 대상을 가지고 있다. 즉 어떤 것들로 향해 있다(혹은 사람이나 상황 등에). 태도는 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즉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우호적이거나 비우호적, 찬성과 반대일 수 있다. 태도는 관련된 지각과 신념을 동반해서 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판단이나 가치평가가 될 수 있는 기초나 토대를 갖는 경향이 있다. 태도의 토대에 담긴 인식론적인 내용 때문에 태도는 종종 통찰력과 이해를 통해 변화 가능하다. 태도의 행동적 양상으로 인해 태도는 습관의 경우처럼 본래 기초를 두고 있던 판단들보다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사람들이 보고하는 경험들에 담

긴 성적 경향에 대해서도 이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주장할 수 있다. 태도는 때로 그것이 기초한 무지와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놀랄 만큼 완고하기도 하다.

태도는 선택될 수 있을까? 우리는 태도를 계발하고 극복하고 극복하기를 거부하거나 장려하고, 그만두게 하고, 빠져들거나 벗어나거나 고집을 부리고 받아들이거나 취하는 등에 관해서 말한다. 이런 표현 대부분은 행위주체성(agency)의 언어이다. 확실히 태도를 만들고 변형시키고 제거하는 데 기여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를 통해 취향 또한 생산되고 변형되며 제거된다. 만일 태도가 직접적으로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면 특정한 태도를 얻으려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선택은 대상들의 아주 근접한 원인들 사이에 놓인다.

태도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해도 많은 부분은 자발적이다. 비록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령 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이지 않긴 해도 태도를 분명히 나타내는 행위는 전형적으로 자발적이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텔퍼(Elizabeth Telfer)의 우정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특정한 행위에 의해 나타난 패턴을 인정하거나 확증하지 않는 한 진정으로 헌신하지 않는다.[9] 흔히 우리는 태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발견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태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향을 보인다. 아마 우리는 세부적 행위만큼이나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할지 모른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에 책임지기를 기대한다. 성적 경향이 태도라면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책임을 진다는 생각은 일반적

인 기대에 속한다.[10] 그러한 책임감은 자기자신에 관련된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을 키우고 자신의 태도를 구별하고 그 태도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결정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선택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 이런 선택이 내려지면 그에 따른 신념들은 더 이상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 자신의 태도가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은 — 혹은 더 이상 그렇지 못하게 된 — 신념에 토대를 두고 있는 한, 태도 그 자체는 비자발적인 듯이 보인다.

비록 태도가 선택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태도는 진정성 여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태도는 정직하거나 그렇지 못할 수 있고, 책임지거나 그렇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평가에 필요한 것은 선택의 경우처럼 태도 역시 신념과 판단에 토대를 두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이지, 그 자체로 선택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동성애"는 태도(혹은 일련의 태도들)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태도 혹은 태도들인가? 레즈비언을 다른 여성들과 구별해주는 태도들이 존재하는가? 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로서는 아주 분명히 '그렇다'이다. 여성들을 향한 레즈비언 태도들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부아르에 따르면 레즈비언들을 구별짓는 것은 특정한 이성애적 태도, 즉 남성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그녀는 일부 레즈비언 선택들의 진정성을 평가할 때 완고했다. 그래서 그녀는 비교적 우호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거트루드 스타인과 같은 레즈비언을 평가했는데("다소 애처롭"이라고 그녀는 지적했다), 이들은 자신의 남성적 힘에 대해 확신에 차

있어서 남성들만을 친구와 동료로 원한다[이런 발언은 스타인에게는 전혀 공평한 처사가 아니다. 스타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는 앨리스 토클라스(Alice Toklas)였다]. 그리고 나서 보부아르는 다소 비딱하게, 심지어 공포심을 갖고서 그들만의 클럽을 소유하고 남성을 성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거부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422~24쪽). 내가 이런 사례들에 대한 그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가령 거트루드 스타인과는 다른, 다이크 분리주의자가 여성을 향한 태도를 남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는 아니라고 보부아르가 생각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때 분리주의자는 니체식의 분노(*ressentiment*), 즉 신 포도 사례로 환원되어 버린다. 하지만 보부아르는 이것이 분리주의자의 동기라고 생각할 어떤 근거도 제공해주지 않는다. 그녀는 여성을 향한 분리주의자의 태도를 고려할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는다. 레즈비언의 레즈비언적 태도들은 어떠한가? 여성들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어떤가?

레즈비언을 다른 여성들과 구별해주는 것이 레즈비언의 "여성에 대한 취향"은 아니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보부아르는 내가 보기에 레즈비언 행위에서 비진정성의 좋은 모범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를 언급한다. 그녀는 우리에게 말한다. 한 여성이 "남성에게 실망해서 그녀를 배반한 남성을 대신할 연인을 여성에게서 찾을 수는 있다. 콜레트(Colette)는 그녀의 『방랑자』(*Vagabond*)에서 금지된 쾌락이 종종 여성의 존재에 작용하는 위안의 역할을 지적한다. 어떤 여성들은 그들의 삶을 이런 방식으로 위안을 얻는 일에 … 소비한

다"(418쪽).

다른 사람들은 여자 연인을 경쟁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자와 다시 관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사례들에서 특징적인 종류의 "비진정성"은 보부아르가 생각했던 "비진정성", 즉 자기기만과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종류의 것들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실례도 연루될 가능성은 있다.[11] 이 사례들에서 여성은 자신을 "양성애"로 묘사할 수도 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을 이끌고 나간다는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상황을 잘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사례들의 특징으로 나타나기 쉬운 "비진정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정한 우정과 구별해서 공리성의 우정과 쾌락의 우정으로 나누는 것과 쉽게 연관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다.[12] 진정한 우정에서 우리는 친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공리성과 쾌락의 우정에서 우리는 공리와 쾌락을 더 챙긴다. 후자의 친구는 이 점에 대해 앞으로 나서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비진정성의 죄를 짓는다. 공리와 쾌락의 우정들이 반드시 진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들은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꾸밀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그들의 우정은 "진정한 우정"은 아니다. 같은 용어로 정확히 불릴 수 있지만 특성상 어느 하나 공통점이 없는 것들 사이의 "가족 상동성"이라는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을 예견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리와 쾌락의 우정이 진정한 우정과 (각 경우마다 달리) 상응하다는 이유만으로 "우정"이라고 불린다고 말한다. 진정한 우정 역시 유용하고 쾌락을 주는 것은 정상적이다.[13] 이와 유사하게 여전히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성애 경향을 띠는 여성들 사이에 형성된 레즈비언 애정관계에 대해서도 말

할 수 있다. 그들의 태도는 진정한 레즈비언 태도를 닮은 한에서 "레즈비언"이다. 이는 또한 정상적으로는 여성들로부터 경쟁과 양육을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

위안과 경쟁의 사례들에서 만일 그것이 진정하지 못한 점이 있다면, 이는 그 여성만이 아니라 그녀의 레즈비언주의가 진정하지 못한 것이다. "레즈비언 선택"이 진정성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할 때 보부아르는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 어떤 선택인가? 특별한 관계의 선택? 연인으로서 여성을 선택하는 것? 이따금 그녀는 기껏해야 레즈비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같은 종류의 비진정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 같다.

> 두 여성의 결합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감상, 물질적 이해 혹은 습관에 기초할 수 있다. 결혼관계일 수도 있고 낭만적일 수도 있다. 사디즘, 마조키즘, 관대함, 충실함, 헌신, 변덕, 이기주의, 배신도 등장한다. 레즈비언들 중에는 매춘부도 있고 위대한 연인도 있다. (419쪽)

또,

> 모든 인간의 행위처럼 동성애는 꾸미기, 불안정, 좌절, 거짓말을 낳는다. 혹은 반대로 실제생활에서 표현되는 방식과 일치해서 보상이 따라오는 경험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가령 거짓 신념, 게으름, 오류나 혹은 명정성, 관대함과 자유 등 어떤 경험이든. (424쪽)

이러한 발언은 레즈비언의 관계를 단순하게 인간관계로 평가할 뿐

레즈비언으로 특수화하지 않는다. 여기서 언급된 것은 레즈비언의 태도 그 자체가 아니며, 레즈비언이 되고자 하는 선택도 아니다. 이러한 평가가 적절해지기 위해 선택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특별한 원인이나 관계이지 성적 경향은 아니다. 정말 레즈비언이기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평가하는 일에 근접했을 때는 다이크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보부와르의 발언이었는데, 그 때 그녀는 단순히 비전경성을 가정했을 뿐, 아마존의 탄생과 유희의 가능성을 보지 못했다.

앞장에서 논의되었던 역사적 모델들은 몇몇 확실히 구별되고 특징적인 레즈비언 태도를 제시해주며, 이 태도들은 그들이 제시하는 유혹과 그 가능성이라는 견지에서 검토하기에 흥미로운 것들이다 : 아마존의 태도(신체적인 기술을 강추고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경향이 있다), 사포주의자들의 태도(시적이고 관능적이며 흔히 상대 연인보다 아주 나이가 많거나 어리다), 열정적 친구의 태도(종종 사포주의자들처럼 매우 배도덕하며 놀랄 정도로 인내력이 있지만 반드시 관능적이지는 않다). 다른 문화들 속에서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더 많은 패턴을 보여줄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상동성"의 시각에서 이런 태도들을 이해하는 일은 레즈비언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문제의 복합성을 제시해주며, 애드리언 리치의 "레즈비언 연속성"처럼 일반적인 성적 경향이 특별히 레즈비언이 아닌 여성들 사이에서도 레즈비언 태도를 식별하게 해준다.[14]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 태도의 문제라는 시각에 담긴 함의 중 하나는 레즈비언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이성애자도 자연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레즈비언에 관한 어리한 통찰은 보부와르가 레즈비언 주제와 관련해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기여이다.

4장

레즈비언 윤리

이 장에서는 레즈비언 윤리를 다룬 과거와 현재의 문헌들을 살펴볼 것이다. 나의 목적은 새로운 레즈비언 윤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레즈비언 윤리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관심을 공유하는 최근의 다른 윤리들, 가령 케어 윤리, 페미니스트 윤리와의 관계 속에서 레즈비언 윤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나는 마릴린 프라이가 최근에 제기했고 19세기에 이미 니체가 도덕성에 관한 사변을 통해 제기했던 질문, 즉 왜 윤리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겠다.

레즈비언 윤리의 서곡

거의 10년 넘게 나는 〈페미니즘 이론의 고전〉이라는 제목으로 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에서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에 이르는, 선별된 몇몇 고전에 대한 철학사 강의를 해왔다. 텍스트와 레즈비언 사이의 관련성이 선별기준이 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레즈비언의 경험이나 의식이 끼친 긍정적 영향력에 대해서, 그리고 레즈비언 관계나 환상에서 해당 패러다임이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저작들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물론 18세기 초엽과 양 차대전 사이의 레프트 뱅크 파리(Left Bank Paris)에서 나온 소설과 시, 문학 에세이들은 드러내놓고 레즈비언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당연으로도 풍부하다. 가령 로네 버비안(Renée Vivien)의 소설 『한 여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A Woman Appeared to Me*)는 양성성과 물론을 탐색한다. 콜레트(Colette)의 에세이 『순수와 불순』(*The Pure and the Impure*)은 레즈비언 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와 관련된 윤리적 가치를 사색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엽 독일에서 있었던 초기 동성애 인권운동의 대항문화 간행물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지만 좀더 본명의 철학적인 저작으로서 시몬느 드 보부와르의 『제2의 성』의 레즈비언 관련 장보다 앞선 레즈비언 자료를 보지 못했다.[1]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많은 저자들이 하나 이상의 열정적 우정, 아마존, 혹은 사포주의의 패러다임을 통해서 레즈비언으로 무엇이 인

정된 경험이나 애착관계를 가졌으며, 그들 중 일부는 한 가지 이상의 패러다임 속에서 레즈비언으로 알려진 대상 혹은 그런 관계에 분명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실제로 옹호했었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이 놀라운 일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 놀라운 점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의 잠재적인 중요성이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거나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역사는 해당 저자들의 저서에 함축된 레즈비언 의미층을 시사한다. 윤리적 규범이나 가치를 사색하는 저서가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면, 이런 종류의 고전들은 "레즈비언 윤리의 서곡"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모른다. 레즈비언 의미층을 추적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다섯 명의 작가들을 간략히 살펴보겠다. 이들은 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 마가릿 풀러, 샬롯 퍼킨스 길만(Charlotte Perkins Gilman), 에마 골드만(Emma Goldman)과 버지니아 울프이다.

레즈비언 주제에 대해 처음 생각하는 사람은 레즈비언 윤리의 서곡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이나 어머니들이 에로틱하거나 그 외의 열정에서 이성애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을 버려야 한다. 즉 그들의 결혼적 유대와 정치적 헌신이 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었다는 가정 말이다. 많은 여성들은 결혼의 선택권을 갖지 못해 왔다.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허가된 선택은 독신이나 종교집단, 혹은 결혼 정도에 국한되어 왔다. 독신과 수녀원은 쉽게 레즈비언 연애관계를 감출 수 있다. 결혼 또한 그렇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도망자들의 은밀한 애춘 아니면 연애적 연애관계로 막을 내렸다. 레즈비언 연애관계는 애춘부들 사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이 혼외

이성애적 관계로 악명을 떨치게 된다면(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와 에마 골드만의 경우처럼), 레즈비언 관계는 문자 그대로 언급될 수 없었고 후세들도 인지할 수 없었다.

내가 고른 다섯 명의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은 모두 기혼이었다. 일부는 아직못해 결혼했고, 어떤 결혼은 짧게 끝났다. 드러내놓고 레즈비언적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과 시, 문학 에세이들은 양적으로 풍부하다. 비록 이들 중 일부에게는 이성애적 관계가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긴 했지만, 다섯 명 중 어느 누구에게도 그들의 인생에서 결혼이 지배적 위력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관계를 논의할 때 혼외 주제가 "결혼"의 이상(理想)에 대한 것이지만, 초점은 대체로 법에 있지 않았다. 적어도 이들 중 세 사람은 단혼제를 믿지 않았다. 아이를 낳은 세 사람 중 둘은 아이 양육을 위해서만 살지는 않았고, 그 중 한 사람은 자신의 딸이 첫 번째 남편과 자신의 절친한 친구(남편의 두 번째 부인)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 사람은 "교정"수술 받기를 거부했다.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유아감각이 풍부했다.

18세기 영국에서, 프랑스혁명이 일어 날지 않았던 시기에 결혼 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는 패니 블러드(Fanny Blood)와 열정적 우정관계와 단기간의 교수(敎授) 파트너 관계를 가졌다. 패니 블러드는 당시 기혼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르투갈에서 해산중 죽었는데, 당시 메어리가 그녀를 돌봐주었다. 메어리는 자신의 큰 딸[길버트 임레이(Gilbert Imlay)와 혼인관계로 낳은 아이]의 이름을 패니라고 지었다. 월스톤크래프트와 패니 블러드의 우정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여성의 권리에 대한 옹호』(*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초판 1792년)에서 월스톤크래프트가 여성의 지위와 양성의 도덕적 이상을 비판했을 때 결혼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2] 물론 딸[후에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을 쓴 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 셸리(Mary Wollstonecraft Shelley)이다]을 낳기 바로 직전 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는 무정부주의자 연인 윌리엄 고드윈(William Godwin)과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결혼한다. 그러나 그들은 법적인 제도로서의 결혼은 믿지 않았고, 결혼제도와 결부된 이중기준도 믿지 않았다.[3]

고드윈이 일찍이 공언한 신념들을 굽히면서 결국에는 그들도 함께 살게 되지만 각자 자신의 집을 갖고 있었고 친구도 있었다. 그들은 서로 상당히 독립적으로 살았는데, 이 또한 레즈비언 연인들이 보통 사는 방식이었다(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일은 경제적인 이유로서의 선택지가 되지는 못했다.[4]

두 번째로, (사촌) 마가릿 풀러는 1810년 뉴잉글랜드에서 태어나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교육받았는데(그는 아들을 원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초기 교육에 버금갈 만큼 강도 높은 것이었고, 당시로는 보통 남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과목들을 배웠다. 그녀의 유명한 에세이 『위대한 소송 : 남자 대 남자들, 여자 대 여자들』(The Great Lawsuit : Man vs Mm, Woman vs Women)은 1843년 미국의 초월주의 저널 『다이얼』(*Dial*)에 실렸는데, 풀러는 1년간 이 저널을 편집하기도 했고 또 많은 글을 기고했다. 이 에세이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문제삼고 있다.

1845년 『19세기의 여성』(*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이라는 제목으로 확대 출간되어 개인의 영혼은 각기 다른 비율로 남성성과 여성성 모두를 보여주며, 이 점은 이상하기보다는 평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6] 「위대한 소송」이 나오기 1년 전, 마가렛 풀러는 젊은 독일 시인 캐롤라인 본 군더로드[풀러는 "율수수녀(역주 : Canoness 수도서약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한 규율하에 수도원에서 사는 수녀)"라고 불렀다]와 캐롤라인의 나이 어린 친구 베티나 부렌타노(나중에 소설가 베티나 폰 아르님이 된다) 사이의 1905~6년 사이에 오간 열정적이고 에로틱한 서한을 번역 출간했다.[8] 마가렛 풀러의 일기에서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발췌문을 보면[랄프 왈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이부분을 빼드렸는데 풀러의 전기작가 메이슨 웨이드(Mason Wade)가 1940년에 복원했다], 르카미에르 부인(Mme Recamier)과 스탈 부인(Mme Stael) 사이의 친밀함에 대해 사색하면서 풀러는 "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지고 남성이 남성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진정 사실이다"라고 언급한다.[7] 이 외에도 저널의 다른 항목들에서 풀러가 13세 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영국 여성에게 열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것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마가렛 풀러의 사회비판의 대부분은 그녀의 초기 교육과 그로 인한 사회적·지적 열망에 관련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를 비판할 때는 여성에 대한 그녀 자신의 열정과, 이와 유사한 열정을 품고 있던 여성들에 대한 그녀의 감탄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만일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남성적"이라면, 가령 남성성은 여성에게도 존재한다. 그리고 여성적 남성성이 유별난 것

이 아니라면 아마도 여성에 대한 여성의 열정도 특이한 것은 아닐 것이다. 『19세기의 여성』에서 그녀의 결혼의 이상은 친구 사이의 다차원적 파트너 관계에 기반해서 젠더와 역할이 기본적으로 사소한 것으로 보이는 상호 보조체제이다.[9] 왜 "결혼"에 대한 그녀의 이상이 동성 파트너와도 동등하게 충족될 수 없는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없다.

마가렛 풀러는 자신의 주장이 인쇄되어 남아 있는 최초의 여성들 중 한 사람이다. 그녀는 여성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적 기대수준에 여성들이 도전하려 할 때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남성에게 기대지는 말라고 주장한다. 그녀는 이렇게 쓴다. "나는 현재 여성들은 서로에게 최상의 지지자라고 믿는다", "남성은 현재 교육받은 대로는 이 일에 도움을 줄 수 없다", "한때 나는 남성이 이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것에 관해서) "그들의 찬사는 정말 언제나 어떤 의미에서는 굴욕적이다. 그들은 지나치게 많이 놀라워한다."[10] 하지만 10년 이상 지난 후에 존 스튜어트 밀조차도 "상당한 수의 남성들이 이 과업에 여성들과 함께 동참할 준비가 되기 전에는 여성들이 여성의 해방에 스스로 헌신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11]

마가렛 풀러는 또한 그녀의 다음과 같은 불평이 인쇄로 남아 있는 최초 여성들 중 한 사람이다: "여성이 교육을 잘 받으면 남성을 위한 더 나은 동료요 엄마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12] 한 긴 문장은 "나이든 처녀"를 칭송하면서 그런 여성들은

여러 다른 가능성들 중에서 "내적인 맹세를 서약한 율수수녀"라고 한다(물론 캐롤라인 본 군더로드를 떠올리면서).[13]

메어리 월스톤크래프트처럼, 하지만 마가렛 풀러와는 달리 샬롯 퍼킨스 길먼(1860~1935)은 로드 아일랜드의 디자인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혼자 수학했다. 자서전의 <소녀 시절—만일 그런 것이 있기나 했다면>이라는 장에서 그녀는 마사 루터(Martha Luther)와의 4년간 지속된 우정을 "완벽한 행복"이라고 묘사한다. 이 우정은 그녀가 17세, 마사가 16세 때 시작된다.[13] 길먼은 젊은 남성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마사에 대한 감정과 비교하면서 비우호적으로 묘사하며, 이 "왕자님들" 중 어느 한 사람을 잃는 것은 마사를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14] 길먼은 그녀의 인생에서 여성들과 강렬한 우정관계를 맺었다. 1890년대에 수차례의 혼인관계 사이사이에 그녀는 절친한 친구 에이들린 E. 크냅(Adeline E. Knapp)과 3년간 함께 살았다.

찰스 월터 스텟슨(Charles Walter Stetson)과 결혼한 뒤 1년 조금 지나서(자서전에 따르면 길먼은 이 결혼을 하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시켰다고 한다) 딸 캐서린을 나은 뒤, 그녀의 어머니라면 "신경불안"이라고 불렀을 것을 겪고 필라델피아의 "신경전문의" S. 위어 미첼(S. Weir Mitchell) 박사의 정신병원에서 "휴식치료"(rest cure)를 받으면서 끔찍한 1달을 보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 곁을 떠나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했을 때 잠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남편과 아이에게 돌아갔을 때 병이 재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5] 스텟슨과 이혼한 뒤 수년간 강연을 하면서 매우 유목적인 생활을 보낸 뒤

1900년 그녀의 사촌 조지 휴튼 길먼(George Houghton Gilman)과 결혼한다. 이러한 전기적 내용과 와이어 미첼의 "휴식치료"의 여성혐오성(이 치료법에는 종종 그가 "정신질환 여성"에게 시술한 것으로 알려진 난소제거 수술이 함께 시술되었다)은, 길먼의 힘 있는 단편소설 「노란색 벽지」가 재발견되어 재출간됨으로써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들이다(「노란색 벽지」는 남성비평가들의 손에서 수십 년 동안 페미니스트 텍스트로 인정받지 못했다). <페미니스트 출판사>에서 재출간된 「노란색 벽지」에는 일레인 헷지(Elaine Hedge)가 쓴 역사적 배경을 담은 후기가 함께 실려 있다.[16] 이보다 덜 알려진 사실은 어린 캐서린이 스텟슨과 그의 둘째 부인 그레이스 엘러리 채닝(Grace Ellery Channing, 길먼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다)과 함께 사는 데 길먼이 동의한 점이다. 이 때문에 그녀는 악명을 얻게 되었지만, 냉담한 대중이 인식하던 것과는 달리 이들의 결정은 자식유기가 아니라 세 친구가 캐서린의 양육에 공동 참가한 것이었다.

샬롯 길먼의 논문 「여성과 경제」(*Women and Economics*)는 1920년대 대학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7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가정생활보다는 아파트의 생활에 기반을 둔 가정을 이상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상형은 연인들의 동거를(물론 좋은 생각이라고는 보고 있지만) 전제하지 않았으며, 주거지를 거주자들의 일상적인 양육, 요리, 혹은 가사노동의 장소(이 중 어느 것도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보지도 않았다. 가령 부엌이 없었으며(바느질용 방 등도 없었다), 취미로 요리(혹은 바느질)를 즐길 수 있는 정도였다. 요리는 공동식당에서 전문 요리가가 할 수 있고, 세탁은 이 집 저 집 다니

는 전문 가정세탁부가 할 수 있다.[17]

그녀의 1915년 소설 『그녀의 나라』(*Herland*)는 비폭력을 소중히 여기지만 자기방어 및 다른 것들에도 능한 여성들의 사회를 그리고 있다.[18] 재생산은 처녀생식으로 묘사했으며 레즈비언 친밀성은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섹슈얼리티를 빠뜨린 점에서 이 소설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 역사에서 유일할 것이다. 하지만 비교적 유목적인 생활이 열정적인 여성간의 우정관계와 그녀의 두 번째 결혼에 의해 빛이 나고 안정되었으며, 활기에 가득 참으로써 이 책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상들을 강조해주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엠마 골드만(1869~1940)은 1885년 러시아에서 온 이주민으로, 베를린 성과학연구소의 설립자 매그너스 허쉬펠드(Magnus Hirschfeld)에 의하면 동성애 권리를 옹호한 첫 미국 대중연설가가 되었다.[19] 그녀는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가 영국에서 수감되었을 때 그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녀는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당시 "동성애자들과 내가 갖고 있었던 유일한 친분은 내가 감옥에서 만난 몇몇 여성들에 한정된다(나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수감되었었다)."[20] 그녀는 계속해서 동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동성애 인권을 공적으로 옹호했는데, 그녀의 자서전에 따르면 동료들이 보기에 "무정부주의는 이미 오해를 받을 대로 받아왔고 동성애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도착적인 섹스형태를 인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오해를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대한 그녀의 반응은 이랬다. "동료들로부터의 경멸은 내게는 경찰의 처벌과 같은 효과를 준다. 이는 내 자신에 대해 더 확신을 갖도

록 하고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 더욱 항의하도록 결심하게 해준다. 그것이 사회악이든 도덕적 편견이든."[21]

이런 입장은 엠마 골드만의 성해방주의와 무정부주의에 잘 어울린다. 하지만 그녀의 지속적인 헌신은 그저 추상적인 원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인생의 사건들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 같다. 조나산 캐츠(Jonathan Katz)는 알메다 스페리(Almeda Sperry)가 엠마 골드만에게 보낸 연애편지들을 발췌해서 출판했다. 골드만은 알메다 스페리와 적어도 일 주일간 시골에서 같이 지냈다.[22] 이 서한들은 비록 스페리만큼 열렬하고 절실하지는 않았지만 골드만이 알메다 스페리의 열정에 반응을 보였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공연히 자신의 "유라니어니즘"(역주 : uranianism urania는 그리스신화에서 천문을 관장하는 뮤즈 중 하나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부르는 이름이기도 함. 여기서는 여성들간의 동성애를 지칭한다. 주 23도 참조) (골드만과 다른 사람들은 그 때 당시에 종종 동성애를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혹은 양성성을 선언했던 것은 엠마 골드만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물론 그녀가 정말로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23] 어떤 경우이든 동성애에 대해 그녀가 유지해 온 윤리적 입장은 매춘과 같은 다른 쟁점들에 대한 입장처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레즈비언 행위를 했다고 반드시 가정할 필요는 없지만(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알메다 스페리의 열정의 대상이 되었고 감옥에서 레즈비언들을 만난 것은 분명하다(또 매춘부들 중에서도 레즈비언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다).[24]

엠마 골드만은 결혼도 반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그녀가 단혼제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여성해방의 비극』(The Tragedy of Woman's Emancipation)에서 그녀는 페미니스트 직장 여성들이 "일이나 가족이나"의 "양자택일"을 받아들인다고 비난하면서, 청교도식 관습이라는 "내부의 독재자"가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여성들을 사랑 없는 생활로 억지로 몰아넣는 한, "외부의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분노한다.[25] 그녀가 감옥 밖에서 레즈비언들과 더 많이 살아봤다면, 미혼 여성들의 친밀한 관계가 그녀 자신의 혼외 이성애관계보다는 덜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랑 없는 관계와는 종종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주목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녀의 주장은 정곡을 찌른다. 그녀는 청교도 관습에 대한 거부와 "자유연애" 옹호를 확장시켜서 혼외 이성애적 동료애와 모성을 지지했던 것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레즈비어니즘을 옹호했을 수도 있었다. 잠재적 혹은 함축된 의미는 있지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동성애에 대한 그녀의 옹호는 불간섭, 관용과 존경이라는 입장에 그쳤지만, 그녀는 혼외 이성애 파트너 관계와 모성은 적극적으로 변호했다.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울프(1882~1941)가 있다. 그녀의 후기 저작이며 가장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저작 『3기니』(*Three Guineas*)는 매우 분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여성들이 비경쟁과 비폭력을 배양하기 위해 고안된 여성들만의 실천으로 분리적 교육제도를 만들고 폭력을 지지하는 남성들을 여성들이 지지하거나 동참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퍼레이드를 보거나 상망을 키워주고 전쟁

터에서 생긴 부상을 간호해주는 일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6] 이러한 분리주의는 적극적인 레즈비언 관계를 위한 무대를 제공한다. 또한 그러한 관계를 배경으로 해야 쉽게 분리주의가 나올 수 있다. 이 책은 그녀에게 반전운동 지지를 요청한 남성을 위해서 씌어졌는데, 여기서 울프는 레즈비언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10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을 출간하기 1년 전 그녀는 『올랜도 : 전기』(*Orlando : A Biography*, 사실은 소설이다)를 출간하면서 울프를 사랑하게 된 여성, 또 그 애정에 울프 또한 반응을 보여주었던 비타 색빌-웨스트(Vita Sackville-West)에게 헌사한다.[27] 울프는 여러 의상을 입은 비타의 사진을 보고 올랜도를 스케치한다. 사회적·문학적 비평서이면서 동시에 즐거운 환상인 『올랜도』는 남자로 태어나서(올랜도) 수세기를 살다가 어느 날 아침 깨어나서(소설의 중간부분) 여성의 몸을 한 자신을 발견하는(이후 여자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다. 버지니아 울프의 조카이며 전기작가인 퀜틴 벨(Quentin Bell)은 울프와 비타 색빌-웨스트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다. "얼마간의 애무, 그리고 잠자리를 함께 했을지도 모른다 —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아마 그랬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성격을 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버지니아를 흥분시키거나 비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종류의 것이었는지는 의심스럽다."[28] 전기 전반에 걸쳐서 그는 울프가 많은 여성들과 연애했고, 많은 여성들이 그녀와 사랑에 빠졌으며, 여기에는 귀부인 에셀 스미스(Dame Ethel Smith)도 포함되어 있다고 쓴다.

울프 해석자들은 어린 시절 외롭고 빠들에 의한 성적 학대가 울프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주목했다.[20]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오직 어린 시절의 부정적 경험만 주목한다면, 그녀가 어른이 되어 여성들과 누렸던 긍정적인 경험과 페미니스트 사상에서 그녀가 보인 발전은 도외시하기 쉽다. 가치와 성 정치에 대한 그녀의 사고는 『올랜도』와 『자기만의 방』에서의 양성성 탐색으로부터, 『3기니』에서 여성이 억압을 버티고 살아 남아서 남성성의 가치를 거부하고 그로부터 배운 파괴적인 가치들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옮겨간다. 이러한 발전의 타이밍은 그녀가 관찰한 세부적 사실들과 함께, 어린 시절 남자 아이들에게서 얻은 정신적 외상 못지않게 어른이 되어 여성들로부터 얻은 이해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레즈비언의 경험이 얼마나, 또 어떤 종류의 것으로 이 다섯 명의 어른가들의 삶에 스며들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들은 분명히 레즈비언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레즈비언들에게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레즈비언이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중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마도 단지 "레즈비언"이라는 표지가 빠져 있을 뿐일지 모른다. 하지만 여전히 레즈비언적 삶에 관해서 어떤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은 절박적 시련을 방해한다. 시몬느 드 보부와르만 해도 울프가 죽은 지 10년도 안 되어서 레즈비어니즘에 대해 공공연히 말 수 있을 정도였지만, 소녀와 여성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공개하지는 않았다.[21] 명확하고 풍부한 레즈비언 자료에 토대를 둔 채 공개적으로 자성적인 윤리적 사고를 만나려면 1970년대 이후로 시선을 돌릴 필요가 있다.

윤리와 정치 : 왜 윤리인가?

레즈비언 윤리와 페미니스트 윤리를 이해하려면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지적뿐 아니라 스스로 정치적이라고 밝히는, 가령 사라 러딕(Sara Ruddick)의 『모성적 사고 : 평화의 정치를 향해서』(*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과 같은 책들을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22] 최근 여시에서는 정치에 대한 강조가 무엇보다 우선적이었다.

사라 호그랜드의 『레즈비언 윤리 :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에 관해 쓰면서 마릴린 프라이는 레즈비언이 윤리가 필요한가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레즈비언 윤리』라는 제목을 단 책에 이끌리는 많은 사람들이, 레즈비언 윤리를 만들려고 하는 대신 윤리를 전적으로 없애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한다.[23] 그녀는 사라 호그랜드의 책이 제공하는 것이 기성 윤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나은 대안, 즉 의미와 가치를 만들고 유지하는 행위주체성(agency)의 이론이라고 제안한다.[24] 이 "대안"은 마릴린 프라이가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처럼 들린다. 가령 그녀는 다른 글에서 정치를 행위주체성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힘,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는 의지"와 관련해서 제시한다.[25] 윤리의 가치에 대한 그녀의 최 의론은 그저 독불장군식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레즈비언 및 다른 정치적 운동가들 사이에는 — 비록 종종 도외시하고 옹호하지는 않지만

만 — 정치는 필수적이지만 윤리는 없어도 된다는 시각이 유통되고 있다. 마릴린 프라이의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녀의 최근 에세이 『올바로 하기』(*Getting it Right*)에서 얻은 통찰력을 발전시키면서 나는 왜 윤리인가라는 질문을 다루려고 한다. 이 질문은 수사적인 거부하기보다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는 정치와 윤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 한다.[26]

『올바로 하기』에서 마릴린 프라이는 정치적 권리의 총수동합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용어의 의미획손을 해석해한다. 그녀는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속적 강화가 필요한 사회역사적 과정의 복지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는 운동에 의지와 자원"을 투여하려는 목적을 갖는 정치적 이해를 옹호하면서, 후기에서 "무엇이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좋은가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27] 복지라는 용어로 진술된 정치의 이러한 목적은 내게는 윤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들린다. 무엇이 복지에 포함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는 관례적으로 윤리의 영역이다. 윤리는 통상 규범과 가치, 옳은 것과 선한 것의 연구로 이해되며, 인간복지의 문을 열거나 혹은 지지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이 때 규범은 정치적 제도가 존중하는(혹은 무시하는) 것이며, 가치는 정치가 촉진시키는(혹은 방해하는) 것이다.

정치란 무엇인가? 마릴린 프라이는 정치적 권력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이해(가령 미셸 푸코의 권력개념)를 잘 전달하는 비유를 보여준다: 그녀가 제안하는 바에 따르면 "어떤 상황에 대한 정치는 기후와 날씨, 지형과 토양과 같이 다차원적이며 다층적이고 단기적으로

로 확장되며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움직이는 매개체"이며, "고도로 구성되어 있고 유동적인 권력의 작용은 인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모든 생동과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위협한다. 이는 힘과 압력, 흐름, 격동과 고요, 운명의 변수, 이 모든 것들의 총합"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특정 시대와 장소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이며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28]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치는 단순히 기존의 주체들을 압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행위주체성을 창출한다.

한편 날씨의 비유는 가변성을 전면에 드러낸다. 날씨는 매일 매주 매달 따로 변화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마릴린 프라이는 가변성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 점이 날씨 비유를 특히 정치에 적합한 것으로 만든다. 가변성은 또한 윤리와 정치의 차이도 제시한다. 윤리는 비교적 국부적 변화에 저항한다. 정치적 가치가 바람과 같다면 윤리적인 가치는 기반암에 더 가까운 경향이 있다. 윤리는 변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통상 더디다. 이러한 차이는, 가령 사라 호그랜드가 의도하는 혁명적 윤리를 시도한다면 간과되기 쉽다. 격동의 시기에 윤리와 정치는 심오하고 비교적 빠른 변화의 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변성은 비혁명기에라도 정치의 의사일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가변성은 윤리의 특징이 아니다.

날씨 비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마릴린 프라이는 문제가 되는 세력들(forces)은 날씨의 물리적 요소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따라서 무엇이 구성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 불일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만일 이 세력들이 물리적이지 않다면 정

치적 "세력"이란 무엇인가? 규범도, 기준도, 혹은 때로 규칙도 아니라면? 어떤 점은 분명하지만 다른 점은 함축적이다. 세력은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실천(가령 집단의 진행과정에서 의장을 교대로 맡거나 가입하는 것과 같은)들과 그에 따라 사회적 결과를 낳는 행위로서의 행동의 형태를 규정한다.

나는 윤리와 정치를 나누는 분명한 선을 찾지 못한 대신 서로 겹치고 상호 조건짓는 관계를 발견했을 뿐이다. 특히 윤리가 도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그렇다. 어원을 따져보면 "윤리"는 습관을 지칭하는데, 이는 무심한 반복이기보다는 선택하고 주목하는(혹은 무시해버리는) 습관이며, 습관적 태도나 성향이다. "윤리"(Ethics, 고대 그리스어에서 비롯되었다)는 성격과 행위주체성을 지칭한다. "도덕성"(Morality, 라틴어의 "mores"에서 왔다)은 사회적 관습과 전통을 지시한다. 현대 철학자들은 종종 "윤리"와 "도덕성"을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사용하면서("윤리적 범죄"를 재정적 위반과 결합시키고 "도덕적 범죄"를 성적인 위반과 결부시키는 세간의 용법은 무시한다면), 해당 분야를 성격과 관습 모두에 대한 사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해된 윤리적 가치는 인간 복지, 위험, 진실성, 충실, 공정, 정직 등의 개념을 언급하면서 종종 정치적 권력과 그것의 이용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윤리적 가치를 구현하는 정치적 규범 또한 윤리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정치는 꼭 윤리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는 없다(그래야만 할 때라도 마찬가지이다). 윤리 또한 정치적 규범으로 소진될 필요는 없다. 개인의 행위주체성과 개인끼리의 관계는 그들이 처한 환경의 정치로 인해 상당히 협소하게 정의되었

다. 윤리는 자신과 타인, 운명, 우주를 지향하는 태도에 관한 것이며, 특히 이러한 태도가 정치적 결과를 전혀 갖지 않고 사회적 세력과 제휴되지도 이탈하지도 않을 때, 또 사회적 세력에 기여하지 않고 또한 그 세력들로부터 떨어져 나오지도 않을 때 그렇다. "세력"(운동과 그 결과를 가져오는)이 항상 윤리의 주제가 되지는 않는다. 만일 정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생산된 권력에 대한 것이라면 윤리는 전적으로 사회적 구성의 산물은 아닌, 생명력과 복지에 대한 것이다. 정치에서 완전히 추출된 윤리가 순진하다면, 윤리가 빠진 정치는 섬뜩하며 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우리에게 윤리가 필요한지, 또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분명 그것을 원하는지의 문제는 도덕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니체의 프로젝트를 떠올리게 한다.[illegible] 니체는 "악"의 도덕적 개념—이 때 악은 증오할 만한 대상을 지칭한다—이 약자들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질시하는 강자들을 낙인찍기 위해서 자기기만적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가정한다. "선"은 처음에는 스스로 고귀하다고 여긴 강자와 젊은이들이 그들이 보기에 볼썽사나운(증오할 가치도 없는), 또 때로는 자신을 괴롭히기도 했던 "나쁜" 사람들과("천한", "평범한", "보통의" 의미로 쓰인다) 구별지으면서 나르시스트적으로 사용했다고 니체는 주장했다. 하지만 선이 악에 반대하게 되면서 그 관계가 뒤집어져서 이제는 (힘보다는) 나약함을 찬양하며 어떤 미래적 가치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선과 악의 역전 이후 예전에는 "고귀한" 것을 의미했던 것과는 달리 "선"은 "악이 아닌" 것—안전하고, 해롭지 않으며, 아마도 유용하기도 한—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니체의 사색은 가

치화의 도덕적 양식이 선과 악의 대립과 관련된 이상 자기기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도덕성은 초월해야 할 어떤 것인지 등의 문제들을 제기한다.

"도덕의 계보학"에 관한 니체의 가정들은 "선"의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한 통찰력을 보이지만, 그가 가정하고 있는 권력층 엘리트들의 정직과 신의에 대해 종종 무비판적으로 보이는 가정 때문에 결함을 갖는다. 그는 이따금 강자가 약자만큼이나 쉽게 자기기만에 빠질 수 있고, 악의 판단에서 증오심은 범인(凡人)의 입장만큼이나 강자의 입장에서도 익숙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강자는 범인으로부터 받는 조롱을 증오하는데, 이 때 범인은 강자를 질시하기는커녕 종종 강자들이 자처하는 것만큼 강자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자는 그들이 증오하는 사람들이 "반역자"요, "배은망덕한 자들"로서 그들의 "보호자"가 신의를 베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강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강자들이 믿고 봉사하려는 사람들 중에는(여자, 아이, 노예와 하인) 전형적으로 악한 반역자들이 있다. 신뢰감이 클수록 "악"의 잠재성은 크다. 메리 데일리(Mary Daly)가 지적하듯 이브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악이다.[illegible]

역사에 대한 정치적 관점은 니체보다 좀더 직접적이고 좀더 그럴듯한 가정을 제공하는데, 즉 선의 두 가지 개념 모두가 강자에게서 "기원했다"는 사실이다. 하나는 비공리적 개념으로("고귀함"이라는 개념) 강자 자신들과 동료에게 적용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매우 공리적인 개념으로 강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다가 좋은 시절에는 충

실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반역적이라고 판단하는 타자들에게 적용된다. 니체가 "가치화의 노예적 양식"이라고 불렀던 것은 힘 있는 억압자들이 그들의 노예들에게 적용했던 가치의 발전—아마 가치의 내면화일 것—처럼 들린다. 좋은 노예, 여성, 아이, 하인들은 충성을 바치고 감사할 줄 안다. 그들은 반역하지 않고 지배의 명령에 도전하지도 않는다. 재산노예 혹은 다른 형태의 노예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는 점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가치를 고양시키도록 귀결된다면, 이는 강자의 가치전도가 아니라 억압자 자신의 타자에 대한 공리적 태도가 그들에게 되돌아와서 유령 출몰하는 것이다.

"악"에 대한 판단이 단순히 권력에 대한 공포 혹은 지배에 대한 도전의 공포에 기반하고 있는 한, 누구의 시각을 반영하는가와 상관없이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위협 대상이 단순히 권력이나 지배만이 아니라 진실성, 인간성, 존경과 정의와 같은 가치들일 때 "악"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개념이 된다.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미국의 노예제는 전형적인 도덕적 악인데, 극단적인 권력이나 도전받는 지배질서를 명백히 보여주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존중하지 못한 가치 때문에, 즉 이들이 파괴한 것, 파괴하려고 목적한 것 때문이다.[illegible]

니체의 "노예적 가치"가 기본적으로 공리적이라면, 이 가치는 분명 도덕적이지 않다. 물론 이 가치는 인구집단의 관습에 기반하고 있고, 도덕적 가치가 좌절시키는 행위와 동일한 수많은 행위를 좌절시키기는 한다. 따라서 그런 가치들을 초월하는 일이 도덕성을 초월

하는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사회와 그 후손들, 혹은 이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상가들이 공리적 가치를 논의하게 신봉해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노예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현존하는 수많은 자료들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많은 노예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걸러졌으며, 이런 경우 종종 다른 사람들이란 노예에게 권력을 휘둘렀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노예들조차 인터뷰 담당자들이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되는 말만 해왔다. 공리성이 인터뷰 대상자들의 최상의 가치라고 결론짓는 일은 경솔할지 모른다. 공리성과 자기이해는 종종 도덕성과 대조적이다. 예나하면 이들은 위엄, 자기존중, 성실성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선명하게 인지하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논쟁을 무릅쓰고 억압을 인식하는 일은 주체의 가치에 대한 비공리적인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억압은 자기존중, 자신감과 성실성과 같은 가치에 제감을 물린다. 하지만 피상할 여지없이 많은 노예들은 억압을 인식했다. 가령 해리엇 제이콥스(Harriet Jacobs)는 미국 노예로 살아온 세월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쓴다. "내가 내 아이 옆에 누워 있는 동안 주인이 다른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는 것을 매일 보아온 나로서는 이 아이가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일이 더 쉬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 이렇게 말한다. "무더운 계절이 땀과 노예상인을 데려올 때 나는 독이 든 뱀을 싫어하는 만큼이나 다른 독이 든 생물, 즉 노예상인 무리를 끔찍해 한다. 어떻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47] 해리엇 제이콥스는 그녀를 사서 노

예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살아온 북부 백인 여성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소유주에게서 다른 소유주로 팔려 가는 것은 노예제와 너무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다."[48] 제이콥스의 태도는 공리주의적 시각이 아니다. 니체가 노예와 여타 하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힘 있는 억압자들의 기만적 시각에 의존했던 정도만큼 그의 가설은 심각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지혜와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바필린 프라이의 가설은 니체의 것과 다르다. 그녀가 보기에, 페즈비언들 사이에서 나타난 윤리에 대한 최근의 대중적 욕망은 우리에게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과의 자기동일화를 배우고 이 자들이 스스로에게 적용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온(그들이 우리에게 적용한 가치들의 내면화에 이해 확실히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결과를 갖는다. 그녀는 "숨은 편"에 있어야 할 필요는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그들의 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마니 부르스 프랫(Minnie Bruce Pratt)이 어떻게 "순교자로서, 변화와 영광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고 … 나는 올바른 길을 알기에 조정자로서 양쪽 편 사이에서 중재하고 협상하며 …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도록" 길러져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함으로써 그녀는 이 점을 예증한다.[49] 마니 부르스 프랫의 설명은 부분적으로 내가 다른 맥락에서 — 계약주의적·공리주의적인 근대의 도덕철학이 사회적 통제에 집중하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 "행정적 시각"이라고 불렀던 관점

을 상기시킨다.[50] 행정가의 일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합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고 반드시 해야 하는 방식으로 했는지를 결정한다. 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가는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바필린 프라이가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되어 주장한 바대로, "제대로" 하는 문제는 행정가의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적 관점은 옳은 것을 그른 것과 구별해야 할 필요에서 일종의 투자를 제안한다. 권력의 "명목상" 지위에 적합한 여성들은 이러한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하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기를 주장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명목주의(nominism)에 해당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가령 수많은 다이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문리주의적 다이크와 사회적 배경이 "그릇된" 여성들이 그렇다. 나는 내가 도덕적 철학자로서 받은 훈련과는 아주 다른 나의 도덕적 훈련을, 마니 부르스 프랫이 그녀의 도덕적 훈련을 묘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지는 않겠다. 그녀의 설명은 도덕적 철학자로서의 나의 훈련에 기본을 이룬, 도덕철학의 고전의 반열에 든 저작들의 저자들에게 적용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집 혹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도록 배우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다. 만일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나는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길러졌다. 나는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학대를 증명할 방도가 없고 나 자신(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만한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학대와 단순한 의지의 갈등 사이를

구별할 길도 없다는 점을 힘들게 배워야 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루 자의 입장 — 즉 단순한 의지간의 충돌로 보는 입장 — 은 "상호 구타"라는 개념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학대와 단순한 충돌 사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51] 심판을 내리는 일은 여기서 선고를 내리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심판은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의 기준은 권력의 사용에 대한 판단에 이용되며, 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는 윤리를 정치로 흡수하려는 유혹에 저항한다. 우리는 권력이 시행하고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가치들을 참조해서 권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다. 나는 바필린 프라이가 이러한 사고의 본질을 문제삼는지를 의심한다. 즉 윤리를 거부할 때 그녀가 의미하는 바가 정의, 품위, 성실성, 존경 등등, 정치적 계획을 평가하는 가치들을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 이런 가치들은 전형적인 윤리적 가치이다. 바필린 프라이가 사라 호그랜드의 『페즈비언 윤리』가 윤리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은 옳다. 나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이 — 이는 사라 호그랜드의 『페즈비언 윤리』가 공언한 목적이었다 — 우리가 창조하는 선택지들 속에서 가치를 구현하거나 혹은 가치를 침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가치창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선택지가 구현하는 가치들이 아무리 윤리적이라 해도 선택지 혹은 실천의 창조는 아주 정치적일 수 있다. 사라 호그랜드의 책은 페즈비언 공동체에 안정을 가져오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직을 손상시킬 없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

하는지는 그다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예사회와 그 후손들, 혹은 이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상가들이 공리적 가치를 눈에 띄게 신봉해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노예들이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현존하는 수많은 자료들은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 많은 노예들이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 걸러졌으며, 이런 경우 종종 다른 사람들이란 노예에게 권력을 휘둘렀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자유노예들조차 인터뷰 담당자들이 듣기를 원한다고 생각되는 말만 했다. 공리성이 인터뷰 대상자들의 최상의 가치라고 결론짓는 일은 경솔할지 모른다. 공리성과 자기이해는 종종 도덕성과 대조적이다. 예나하면 이들은 위엄, 자기존중, 상실성과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선명하게 인지하도록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논쟁을 무릅쓰고 억압을 인식하는 일은 주체의 가치에 대한 비공리적인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억압은 자기존중, 자신감과 상실성과 같은 가치에 제감을 품긴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많은 노예들은 억압을 인식했다. 가령 해리엇 제이콥스(Harriet Jacobs)는 미국 노예로 살아온 세월을 서술하면서 이렇게 쓴다. "내가 내 아이 옆에 누워 있는 동안 주인이 다른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는 것을 매일 보아온 나로서는 이 아이가 주인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을 보는 일이 더 쉬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또 이렇게 말한다. "무더운 계절이 왔과 노예상인을 데려올 때 나는 독이 든 뱀을 싫어하는 만큼이나 다른 독이 든 생물, 즉 노예상인 무리를 끔찍해 한다. 어떻게 자유롭게 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40] 해리엇 제이콥스는 그녀를 사서 노

예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어한 북부 백인 여성의 제안을 거부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 소유주에게서 다른 소유주로 팔려 가는 것은 노예에게 너무 욕감이 보였기 때문이다."[41] 제이콥스의 태도는 공리주의적 시각이 아니다. 나체가 노예와 여타 하인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힘 있는 억압자들의 기만적 시각에 의존했던 정도만큼 그의 가설은 심각할 정도로 보통 사람들의 지혜와 가치를 과소평가한다.

마릴린 프라이의 가설은 니체의 것과 다르다. 그녀가 보기에, 페르비언들 사이에서 나타난 윤리에 대한 최근의 대중적 욕망은 우리에게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과의 자기동일화를 배우고 이 자들이 스스로에게 적용한 가치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온(그들이 우리에게 적용한 가치들의 내면화에 의해 확실히 개선된 것은 분명하다) 태경을 갖는다. 그녀는 "옳은 편"에 있어야 할 필요는 다른 사람들을 감독하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그들의 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니 부르스 프랫(Minnie Bruce Pratt)이 어떻게 "순교자로서, 변화와 영광에 대한 모든 희망을 지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고 — 나는 올바른 길을 알기에 조정자로서 양쪽 편 사이에서 중재하고 협상하며 —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설교자가 되도록" 길러져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인용함으로써 그녀는 이 점을 예증한다.[42] 미니 부르스 프랫의 설명은 부분적으로 내가 다른 책에서 — 계약주의적·공리주의적인 근대의 도덕철학이 사회적 동제에 집중하는 특징을 설명하면서 — "행정적 시각"이라고 불렀던 관점

을 상기시킨다.[43] 행정가의 일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조합하는 것인데, 이들에게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고 반드시 해야 하는 방식으로 했는지를 결정한다. 이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행정가는 곤란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마릴린 프라이가 "정치적 올바름"에 관련되어 주장한 바대로, "제대로" 하는 문제는 행정가의 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행정적 관점은 옳은 것을 그른 것과 구별해야 할 필요에서 일종의 투자를 제안한다. 권력의 "명목상" 지위에 적합한 여성들은 이러한 입장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다. 하지만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별하기를 주장하는 수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명목주의(nominalism)에 해당될 자격을 갖지 못한다. 가령 수많은 다이크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리주의적 다이크와 사회적 배경이 "그릇된" 여성들이 그렇다. 나는 내가 도덕적 철학자로서 받은 훈련과는 아주 다른 나의 도덕적 훈련을, 미니 부르스 프랫이 그녀의 도덕적 훈련을 묘사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지는 않겠다. 그녀의 설명은 도덕적 철학자로서의 나의 훈련에 기본을 이룬, 도덕철학의 고전의 반열에 든 저자들의 저자들에게 적용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집 혹은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도록 배우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도록 훈련받지 않았다. 반일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다면, 나는 "내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길러졌다. 나는 남을 심판하지 않으면 학대를 증명할 방도가 없고 나 자신(혹은 다른 사람)을 보호할 만한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학대와 단순한 의지의 갈등 사이를

구별할 일도 없다는 점을 힘들게 배워야 했다. 가정폭력에 대한 후자의 입장 — 즉 단순한 의지간의 충돌로 보는 입장 — 은 "상호 구타"라는 개념을 낳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학대와 단순한 충돌 사이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44] 심판을 내리는 일은 여기서 선고를 내리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심판은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의 기준은 권력의 사용에 대한 판단에 이용되며, 권력이 미치지 않은 곳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나는 윤리를 정치로 흡수하려는 유혹에 저항한다. 우리는 권력이 시행하고 증진시키고 보호하는 가치들을 참조해서 권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윤리가 필요하다. 나는 마릴린 프라이가 이러한 사고의 본질을 문제삼는지를 의심한다. 즉 윤리를 거부할 때 그녀가 의미하는 바가 정의, 품위, 상실성, 존경 등등, 정치적 계획을 평가하는 가치들을 거부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내가 보기에 이런 가치들은 전형적인 윤리적 가치이다. 마릴린 프라이가 사라 호그랜드의 『페르비언 윤리』가 윤리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은 옳다. 나는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이 — 이는 사라 호그랜드의 『페르비언 윤리』가 공언한 목적이었다 — 우리가 창조하는 선택지들 속에서 가치를 구현하거나 혹은 가치를 훼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가치창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선택지가 구현하는 가치들이 아무리 윤리적이라 해도, 선택지 혹은 실천의 창조는 아주 정치적일 수 있다. 사라 호그랜드의 작은 페르비언 공동체에 안정을 가져오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직을 손상시킬 없이 갈등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

내려는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레즈비언 윤리에 대한 그녀의 전망은 보살핌과 존경에 기반을 둔 감동의 배소와 문제해결에 모아져 있다. 이러한 전망은 정치와 윤리적 가치를 통합시킨다.

레즈비언 윤리에서 무엇이 레즈비언적인가?

레즈비언 윤리학은 철학적 탐구에서 많은 양의 문헌이 쏟아지고 있는 비교적 새로운 분야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계간 저널이 이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수많은 저널들이 이 분야의 원고를 접수하고 있다.[48] 레즈비언 윤리 분야의 활동은 적어도 15년 전에 시작되었다. 나의 화일에는 미네소타 대학의 영문과 교수 탐 맥나몬(Tom McNamon)이 보내온 두 장짜리 편지가, 위스콘신 메이든 락의 농장에서 여성교육연구소의 1978년 여름 프로그램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꽂혀 있다. 이 안내문의 목록에는 사라 호그랜드가 진행자로 되어 있는 〈페미니스트와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를 위한 윤리학〉이라는 제목의 워크샵이 들어 있다. 사라 호그랜드가 그녀의 에세이 『레즈비언 윤리』를 시카고에서 열린 〈철학과 여성중서부학회〉 반년간 학회에서 읽었던 그 해에 나는 "레즈비언 윤리"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 이 글은 현재 이 주제에 대한 가장 독넓고 영향력 있는 철학적 탐구로 남아 있는 『레즈비언 윤리: 새로운 가치를 향해』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보되었다. 현대 레즈

비언 윤리의 또 다른 뿌리는 에드리언 리치의 「여성과 명예 : 거짓말에 대한 몇 가지 노트」(Women and Honor: Some Notes on Lying)인데, 여성이 남성과의 억압적인 관계에서 배우는 여성적 가치들과의 관계의 발전을 탐색하고 있으며, 또 마릴린 프라이는 「분리주의와 권력에 관한 몇 가지 단상들」(Some Thoughts on Separatism and Power)에서 권력뿐 아니라 분리가 증진시켜주는 가치들을 논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매우 흥미롭지만 동시에 매우 어려운" 글이라는 반응을 보였다.[49] 이 두 글은 1978년 팸플릿 형태로 유통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의식화 그룹과 워크샵의 텍스트로 이용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라 호그랜드와 줄리아 페넬로프가 1980년대 초에 편집을 시작했던 『레즈비언만을 위하여 : 분리주의 모음집』(*For Lesbian Only : A Separatist Anthology*)이 『레즈비언 윤리 : 새로운 가치를 향해』와 같은 해에 출간되었다.[50]

레즈비언 윤리 관련 문헌에 기고하고 영향을 준 사람들에는 철학 교수 제프너 알렌(Jeffner Allen), 뱃-아미 바 온(Bat-Ami Bar On), 크리스 쿠오모(Chris Cuomo), 문서보관인 조운 네슐(Joan Nestle), 소설가 조애나 러스(Joanna Russ), 시인 글로리아 안잘두아(Gloria Anzaldua), 주디 그란(Judy Grahn), 수잔 그리핀(Susan Griffin), 고(故) 오드르 로드(Audre Lorde), 팻 파커(Pat Parker), 신학자이며 철학 교수인 메리 데일리(Mary Daly), 여성학 교수이며 전직 수녀인 제니스 레이몬드(Janice Raymond), 환경학자이며 전직 수녀 H. 패트리샤 하인즈(H. Patricia Hynes), 철학 교수이자 전직 비프록 조이스 트레빌롯(Joyce Trebilcot), 철학자이자 여성학 교수이며 영화비평가인 자클

린 지타(Jacqueline Zita), 그리고 철학 교수이며 정치조직가인 마리아 루곤(Maria Lugones) 등이 있다.[51] 수잔 캐빈(Susan Cavin)의 사회학 연구, 릴리안 페더만(Lillian Faderman)과 주디 그란의 문화사도 빼놓을 수 없다.[52]

레즈비언 윤리에 관해 가능한 하나의 오해는 그것이 단순한 동물윤리, 즉 기존의 기준들을 레즈비언이 갖는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에 초점을 맞춘 레즈비언 윤리의 개념에 이런 식의 이해가 반영되어 있기 쉽다. "정치적 올바름"은 원래 좌파들이 만 조롱조의 자기비판 용어로 사용한 것으로, 대상을 조롱하고 사소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들린다. 바꾸면 "올바름"은 여기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정확성이나 기술만을 암시하고 기준의 가치와 적용하는 측에서 그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대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윤리적 올바름" 또한 마찬가지로 조롱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든다. 정치에서와 마찬가지로 윤리에서도 공정성을 올바름으로 협소화시키는 것은 관련된 행위주체성을 피상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앞서 열거한 이론가들이 헌신하고 있는 레즈비언 윤리는 "동물윤리학"이 아니다,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 이론이나 원칙을 레즈비언들이 당면한 경험들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경우처럼 (줄리아 페넬로프의 주장에 따르면 페미니스트 윤리학은 윤리학으로부터 갑자기 나왔다고 한다) 레즈비언 윤리는 모든 차원에 걸쳐서 사고하고 이론화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가령 레즈비언 레스토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에서부터

어떤 개념들이 레즈비언의 생활로부터 비롯된 시각에 따라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가라는 추상적인 문제까지 다룬다.

레즈비언 윤리를 레즈비언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배경, 자료, 그리고 레즈비언 윤리를 자라나게 한 역사, 패러다임과 자료들이다. 레즈비언 윤리는 레즈비언의 경험, 상상력, 관계 등을 토대로 삼아서 실행되는 자성적 윤리탐구이다. 이는 물론 막대한 다양성의 잠재력을 제공한다.

역사적 현상으로서 레즈비언 윤리는 서구 유럽사상의 철학적 전통과 관련되어 혁명적일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여성의 윤리와 페미니스트 윤리에 관한 많은 훌륭한 저서들은 레즈비언 윤리, 그리고 역시 비교적 새로운 분야인 환경윤리에서처럼 신체, 물질, 순간성, 구체와 특수를 가치절하시키는 서구전통을 거부하는 주제를 특징으로 한다.[53] 이러한 새로운 윤리의 대변자들은 종종 전체주의(holism)의 경향을 띠면서, 비록 다양한 패러다임으로 작업을 하지만 관계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현대 페미니스트 철학 일반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윤리는 흔히 규칙, 원리, 제도, 위계, 이원론과 경쟁에 대해 회의적이면서 무정부, 사적인 관계, 에로틱한 것, 세속얼리티, 자기계발, 주체성과 창조성을 탐색한다. 사라 호그랜드는 현대 레즈비언 공동체를 위한 정의라는 개념의 우위성 못지 않게 그 가치를 문제삼는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 이런 문제들은 다루어지는 주제일 뿐이며, 그 자체로서도 레즈비언 윤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지 않다.[54]

레즈비언 윤리는 단지 혹은 주로 에로틱하거나 성적인 관계에 대

한 것만은 아니다. 레즈비언들이 흔히 하는 불평은 레즈비언 윤리에 대한 많은 저서들에서 성과 에로틱한 것이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레즈비언 윤리는 정치적 윤리에서 좀더 오래된 전통에 속하는 것에 필적할 만큼 포괄적인 한편, 기원에서 비롯되는 한계에 대한 자의식은 더 심한 경향이 있어서 레즈비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레즈비언 윤리를 읽고 있으며 또는 계몽적이라고 생각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레즈비언 윤리는 레즈비언 삶의 모든 측면들, 즉 경제·정치적 문제와 교육, 도덕적 발전, 정서적·신체적 복지, 폭력과 학대, 영성(spirituality), 인종적 차이, 신체적 장애와 질병, 윤리적 상호관계에서 나이와 신체 크기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려는 목적을 갖는다. 위의 필자들이 레즈비언 독자를 상대로 글을 쓴다는 사실이 다른 윤리보다 레즈비언 윤리를 편협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가령 레즈비언 윤리가 물리적 환경이나 빈곤 혹은 인종차별주의와 같은 전반적인 쟁점들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백인 남성 철학자들의 윤리이론 역시 선별되고 덜 윤리적인 패러다임에 기초해 왔다면 레즈비언들은 이 패러다임에서 제외된 부류에 속한다. 역사적으로 기존 윤리이론들은 백인과 다른 백인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단순히 기반해 왔고 독자층은 압도적으로 교육받은 백인 남성으로, 대개 다른 남성들로부터 위협받기 쉬운 권력이나 부를 갖고 있는 층이었다. 그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발전된 윤리학이 보편적이고 영구적이라는 사실이 흔히 아무런 이의 없이 인정받는다. 레즈비언 윤리에서는 보편주의의 가정은 스스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좀더 넓은 문제들을 열어놓는 것

으로 대체되었다.

페미니스트 윤리에서조차 많은 저자들이 그들의 패러다임에서 이성애를 당연시하고 있으며, 종종 이성애 어머니의 경험을 규범과 가치를 발견하는 토대로 삼고 있다.[53] 레즈비언 윤리는 이를 레즈비언 패러다임으로 바꾸면서 초점을 이동시킨다. 이에 따르는 차이에 관해서 어떤 확신이나 명확성을 띠고 얘기하는 것은 비록 위에서 언급된 주제, 패턴, 가정들이 글을 통해 규명될 수 있긴 해도 아직 시기상조이다. 하지만 레즈비언 윤리가 지금까지 보여준 윤리적 사고에 대한 접근법들에 관해 설명하는 일은 가능하다.

자의식적으로 역사에 뿌리를 둠으로써 레즈비언 윤리는 "보편주의적"이기보다는 "특수주의적"이다. "특수주의"라는 말은 여기서 "상대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상대주의는 보편적으로(간문화적이거나 초역사적으로) 유효한 규범이나 가치의 존재를 부인한다. 특수주의적 윤리는 그러한 가능성을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윤리적 규범이나 가치를 일부 집단들과 다른 집단들을 구별해주는 특수성의 종류들로부터 추상화해서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도 않는다. 보편주의적 윤리와 마찬가지로 특수주의도 진리, 혹은 나아가 여러 진리들을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진리의 모델은 과녁의 중심(bullseye)이나 사다리의 꼭대기보다는 조이스 트레빌콧이 제안한 팟럭(역주: potluck은 각자 한 가지씩 요리를 해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다)이거나 또는 퀼트 조각보 모델에 가깝다.[54] 과녁과 과녁의 초점 모델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진리를 목표로 삼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경쟁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팟럭이나 조각보 모델은

서로 다른 참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역사들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음으로써 개인의 노력을 앞지르는 진리의 각 부분들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인데, 진리의 극히 일부만이 개별 참여자들에게 흥미롭거나 혹은 관련을 갖게 된다. 팟럭과 패치워크 모델에서는 일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모든 요리가 소화하기 쉬운 것은 아니며, 모든 조각이 사용할 만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제주변 많은 참여자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조각보와 팟럭은 서로 하나처럼 걸려 있지만 어떤 타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져 있지 않은, 비트겐슈타인의 케이블 비유에 가깝다.

윤리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법은 레즈비언 윤리의 시각에서 보면 문화적인 역사를 가진 요리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상적인 식사법이나 식사를 구성하려는 시도나 다름없다. 어쩌면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 해도 그것이 잘 먹는 유일한 방법일 수는 없다. 보편주의적 윤리는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로부터 추상화해서 단순히 인간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위한 규범과 가치를 발견하려고 한다. 보편주의자들은 "우리"라는 표현을 마치 모든 인간을 언급하는 것처럼 사용하기 쉽다. 특수주의자들은 좀더 제한적인 "우리"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페미니스트 윤리는 레즈비언 윤리와 마찬가지로 특수주의의 경향을 띠어왔다.

레즈비언이 반드시 페미니스트인 것은 아니지만, 레즈비언 윤리가 발전시켜온 관점들은 역사적으로 페미니스트적이었다. 레즈비언 윤리가 자란 역사들은 한편으로는 동성애공포증, 여성혐오, 레즈비언에게 폭력적인 역사였고(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역

사),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억압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저항의 역사이다. 동성애공포증, 여성혐오, 폭력은 레즈비언의 비가시성과 남성에 대한 여성의 경제적 의존을 강화해왔고, 최근까지 여성이 서로에게 성적 관계나 친밀한 삶의 동반자로 만나지 못하게 해왔다. 결과적으로 레즈비언 윤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어떻게 바람직하고 강한 레즈비언 연계를 이루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지, 레즈비언 공동체와 기본적인 레즈비언의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일이 되어왔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레즈비언 윤리는 여성을 사랑하는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조건을 규명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아왔다.

레즈비언 윤리 대 게이 윤리, 여성 윤리와 페미니스트 윤리

레즈비언 윤리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일이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자라온 경향이 서로 겹치지만 종종 긴장관계에 있기도 한 아마존, 사포주의, 열정적 우정 등, 1장에서 설명한 다양한 패러다임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완전한 하나의 역사적 현상으로서는 최근에 등장했고 레즈비언 윤리와 관심을 공유하는 다른 윤리들과 구별되는 레즈비언 윤리를 특징짓는 일반적인 성격을 짚어보는 일은 가능하다.

가령 레즈비언 윤리는 게이 윤리와 동일하지 않다. 물론 이 둘 사

이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 "레즈비언과 게이"라는 표현에서 "게이"는 오직 남성을 지칭한다. 이런 용법은 혼란스럽기도 한데, 일부 레즈비언들은 스스로를 "게이"라고 내세우기 때문이다. "게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관심이 법적인 개혁에 있거나 선택한 공동체가 혼성 저항문화를 포함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55] 하지만 게이 윤리는 레즈비언 윤리의 이론적 자율성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게이 윤리는 도덕적 이슈들에 대한 게이 패러다임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응용윤리로서, 다른 사람들이(다른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애초에 규정한 윤리적 이론, 원칙, 사상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스스로를 구상해왔다. 레즈비언 윤리와 달리 게이 윤리는 윤리이론에서 서구 철학적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혁명적이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 물론 특정 이슈들에 대한 게이 윤리의 결론들은 인정받아온 지혜를 공격하고 있긴 하다. 게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퀴어 윤리라는 좀더 새로운 현상에 이르면 목표에 있어 혁명적으로 보인다.[56] 퀴어 윤리에서 "퀴어"(Queer)는 게이와 레즈비언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성적 이단을 포괄한다.

게이 윤리와 퀴어 윤리는 레즈비언 윤리에 비해 좀더 섹슈얼리티에 초점을 두어왔다(레즈비언 중 적어도 아마존과 우정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본다면). "게이"는 페미니스트적 관심사에 언제나 민감하지는 않은 저항문화를 시사한다.[57] 하지만 지난 10년간 게이 문화는 젠더 이슈뿐 아니라 인종, 계급, 장애의 문제들에 점점 신경을 써왔다. 게이 조직인 〈흑인과 백인 남성이 함께〉(Black and White Men Together)는 수년간 활동을 해왔다. 1988년에 〈미국철학협회〉의 위성조직으로 설립된 〈레즈비언 게이 철학학회〉는 레즈비언과 게이 철학자들 사이의 지적인 접촉을 도모하기 시작했다. 철학적 게이 윤리가 좀더 이론적인 자율성을 발전시킨다면 레즈비언의 역사와 남성들의 동성 관계 역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가령 게이 남성과 레즈비언이 여성혐오적 사회에서 남성의 특권에 대해 맺어온 관계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차이).

레즈비언 윤리는 "여성의 윤리"(women's ethics)와도 동일하지 않다. 레즈비언이 페미니스트 윤리의 다른 이름인 것도 아니다. 여성의 윤리는 교육 분야의 교수들 중 대변인을 많이 갖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과 스탠포드 대학의 철학자 넬 노딩즈(Nel Noddings)가 대표적이다. 캐롤 길리건은 윤리학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보살핌의 윤리"를 발화하는 것으로 묘사하면서 종종 남성에게서 발견되는 "정의의 윤리"와 대조시킨다.[58] 보살핌의 윤리의 주된 관심은 자발적이지 않거나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밀착된 관계에서의 양육이다. 넬 노딩즈는 보살핌의 윤리라는 개념을 철학적으로 탐색하면서 마찬가지로 자발적이지 않거나 전혀 자발적이지 않은 관계를 패러다임으로 삼는데, 이 때 특히 성인 양육자가 어린 아이와 맺는 관계를 살핀다.[59] 최근에 그녀는 주요 악——빈곤, 질병, 전쟁과 테러리즘——을 여성 경험의 관점에서 살피면서 고통, 분리와 무기력의 견지에서 분석한다.[60] 넬 노딩즈와는 달리 캐롤 길리건은 보살핌을 옹호할 때 정의를 가치절하하지 않는다. 캐롤 길리건의 초기 관점은 보살핌의 윤리와 정의의 윤리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이었다. 좀더 최근에는 이 둘은 양립 불가능한 게슈탈트(역주 : gestalt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나온 것으로, 경험적 사실들의 개별요소의 총체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종류의 통일성이나 전체성을 의미)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시에 함께 갖지는 않더라도 둘 다 누릴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보다 다른 하나를 더 선호한다는 점을 발견했다.[61] 그러나 넬 노딩즈는 정의보다 윤리가 더 월등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의는 보살핌에 대한 빈곤한 대안이라고 한다. 이런 점이 캐롤 길리건보다 그녀의 작업을 레즈비언 윤리의 탈법적 요소에 더 근접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레즈비언 윤리학도 아마존을 위한 정의의 가치에 대해 종종 회의적이다.

레즈비언 윤리의 주창자들은 캐롤 길리건과 넬 노딩즈의 보살핌의 윤리에 대해 페미니스트적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이기 때문에, 혁명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여성에게 보수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회의적이었다.[62] 기본적인 비평은 사라 호그랜드에게서 나왔다. 비판의 요점은 보살핌의 윤리가 보살핌의 패러다임으로서——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가부장제에서 규정된 어머니의 역할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역할은 페미니스트들이 억압적이라고 간주해온 것이다.[63] 게다가 함께 하기(togetherness)에 대한 가치화도 문제인데, 특히 여성혐오적 사회에서 이성애적 함께 하기는 더더욱 문제이다. 레즈비언 윤리에서는 남성과 이성애 가부장제의 제도로부터의 분리가 강력한 긍정적인 주제였다. 보살핌은 "여성의 윤리"에서만큼이나 레즈비언 윤리에서 중심적이었다. 하지만 보살핌의 레즈비언적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대해 전복적이고 부모와 아이 사이와는 달리 권력관계에서 양측이 거의 평등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적으로 레즈비언적인 동의의 패러다임이었다. 정치적 권력 차이가 다문화적 레즈비언 공동체에 부재한 것은 아니지만, 레즈비언 윤리에서 보살핌의 패러다임은 권력의 차이나 그로 인한 결과들을 가치화하기 위해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레즈비언 윤리가 전적으로 자발적이지는 못한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은 중요하다. 레즈비언 공동체를 선택함에 있어 다른 상황이라면 상호관계를 맺기로 선택하지는 않았을지 모르는 이웃을 얻게 될 수도 있다. 레즈비언 연인을 선택할 때조차도 그렇지 않았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연인의 친구나 가족을 가까이 두어야 할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 윤리가 "여성의 목소리" 윤리와 동일하다는 대중적인 오해와는 달리 페미니스트 윤리는 (레즈비언 윤리와 마찬가지로) 사실 캐롤 길리건과 넬 노딩즈가 가치화한 여성의 목소리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윤리는 레즈비언 윤리와는 달리 "여성의 목소리" 윤리처럼 남성과의 좀더 폭넓은 관계를, 심지어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도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상호성을 가진 것으로 가정하는 경향이 있다. 사라 러딕의 "모성적 사고"는 이성애적 모성을 보살핌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고 그 패러다임 내에서 억압적인 것과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려고 시도한다. 그녀의 책의 핵심 주제인 비폭력은 레즈비언 윤리보다는 페미니스트 윤리를 더 특징짓는 주제가 되어왔다.

많은 페미니스트 윤리에서의 비폭력 논의와 대조적으로 제프너 알렌은 강간당하는 경험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비평화주의적 레즈비언 대응을 제시한다.[64] 폭력을 논하는 수많은 레즈비언처럼

그녀는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당하는, 공적인 것보다는 흔히 사적인 경우가 많고 자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집중한다. 페미니스트 윤리는 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공적 행위, 흔히 남성이 행위자이자 희생자로서 연루되는 행위 — 전쟁의 폭력, 집거리 범죄, 신체적 형벌이나 사형 — 로 삼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종종 평화주의적 대응을 옹호한다.[88]

레즈비언 윤리가 아마존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 가부장제적 조건에서 어머니들이 주축이 된 비폭력의 철학은 의심받기 쉽다. 아마존 윤리는 때로 딸의 윤리로 불리기도 하는데, 모성적이기보다는 자매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아마존들이 딸인 반면 극히 일부 아마존들만이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아마존 윤리는 모든 여성들이 반드시 혹은 이상적으로 출산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이 양육을 공동 분담해야 한다거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 해도 모두가 비폭력적 경향을 띨 것이며 또 그래야 한다고도 가정하지 않는다. 아마존 사회는 때로 모계적이라고 부정확하게 묘사되지만, 사실 아마존 사회에서 공공의 업무는 어머니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들과 유대를 맺고 있는 여성들의 활동에 의해 규정되고 구성되었다. 아마존은 역사적으로 전사이며 유목민이었다. 아마존의 윤리는 가내성(domesticity)보다는 이동성의 조건을 제시하며, 여기서 여성들이 외세로부터의 방어에 대한 결정을 비롯해서 주요한 사회적 결정을 내리고 실행한다.

하지만 레즈비언 윤리가 아마존일 필요는 없다. 레즈비언 윤리는 사포주의적 패러다임이나, 나오미와 루스의 예에서처럼 열정적 우

정의 패러다임에 토대를 둘 수도 있다. 만일 아마존이 유목적이고 신체적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사포주의적 패러다임은 종종 남성지배 사회에 둘러싸여 여성들만의 가운으로 감금되거나 숨어 들어가는 것을 피하한다. 가령 여학교나 여대, 여성 감옥, 여성 병영, 수도원 등의 예처럼, 사포주의적 패러다임은 에로틱한 것에 집중한다. 이 패러다임은 때로 예술과 맺는 관계, 예술가와 뮤즈 사이의 관계, 선생-학생의 관계를 시사한다. 사포주의적 패러다임은 또한 선생-선생, 학생-학생의 애착도 포함하는데, 이런 관계는 흔히 비교적 짧게 끝나고 또 늘 상호적인 것은 아니다. 이 관계들 중 어느 것도 권력의 불균형을 구현할 수 있고, 그 불균형은 애착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선생-학생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전반적인 권력의 불균형이 존재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라도 어느 쪽이 이익을 얻는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사포주의적 윤리는 종종 권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이슈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가령 이는 부치 뱀프(butch femme) 역할, 새도매저키즘, 포르노그라피, 그리고 더 나은 용어가 없는 사정상 흔히 "비-단혼제"(non-monogamy)라고 불리는 이슈들에 연루된 규범과 가치들에 반영되었다.[89] 사포주의적 윤리는 또한 아마존 윤리와 겹치기도 하는데, 적어도 부치 패러다임의 경우 아마존 윤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사포주의적 윤리는 열정적 우정의 윤리와도 겹친다. 열정적 우정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레즈비언 윤리는 에로틱한 것에 초점을 두거나 혹은 두지 않는, 혹은 몇 단계에서만 에로틱한 장기적 관계에 관련된 경향이 있다. 경제학은 장기적 관계에서 현재의 의미로 자원에

대한 관심과 고대적 의미의 가사일에서 더 전면에 드러난다.[87] 장기적 관계는 자신의 환경, 즉 주거지, 공동체와 물리적 세계의 좀더 큰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시한다. 환경윤리와 레즈비언 윤리가 맺는 자연적 연관성은 열정적 우정의 패러다임을 통해서이다.

여기서 간략히 제시한 레즈비언 윤리는 단순히 레즈비언들이 이론화하고 실천한 윤리만이 아니다. 레즈비언들은 많은 종류의 윤리, 즉 그들의 내용과 일치하거나 남성 창조자들의 이름을 딴 오래된 전통뿐 아니라 게이 윤리, 퀴어 윤리, 페미니스트 윤리, 여성의 목소리 윤리 등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레즈비언 윤리는 무엇보다도 레즈비언과 맺는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레즈비언 정체성을 삶에서 중심으로 삼는 레즈비언들의 창조물이다.

비록 레즈비언 윤리의 목적이 타인을 교육하는 것은 아니었고 레즈비언 윤리가 그저 아무나 욕구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윤리로부터 배울 수 있다. 고전적 윤리 이론을 구성해온 가치의 소유자들에게 하는 것만큼 충분히 레즈비언 관점에 공감하는 법을 배운다면 말이다.

3주차

에코페미니즘,

지구를 지키는 여성주의자!

·『음식혁명』 존 로빈스 / 시공사 / 2001
13장 건강한 환경을 위한 선택
·『진보의 미래』 벨레나 노르베리-호지, 반다나 시바 / 두레 / 2006
발전의 미래, 현대화 압력
지역적 활동에 대한 글로벌 시각 : 스웨덴 스토렌의 사례
·『살아남기』 반다나 시바 / 송출판사 / 1998
개발, 생태학, 여성
과학, 자연, 성별
·「빌리리에게 암소를 - 세계화 경제를 넘어 '자급'의 삶으로」
아리아 미즈 · 베르니카 벤홀드-듀센 / 녹색평론 제57호 / 1999

13장 건강한 환경을 위한 선택

우리가 둥근 지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다. 지금으로부터 350여 년 전만 해도 인간들은 거의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인간은 지구상의 땅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시작했다. 한 방향으로만 가면 지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을 한 바퀴 돌아 출발지로 되돌아온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상의 발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다.

이토 시스템은 옥스퍼드 대학, 하버드 의과대학, 캘리포니아 대학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연구 활동을 해온 과학자다. 그는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한 바 있다.

> 지금 우리는 지구상의 땅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사실보다 훨씬 중요한 원리를 알기 시작했다. 우리는 지구가 홀 시스템(whole system: 전체적이면서도 완벽한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깨닫고 있는 중이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 지구는 둥근 행성이라는 훨씬 조절하는 존재다. 지구는 완벽하고 전체적인 홀 시스템이다……
> 지구상의 모든 물리적인 존재와 살아 있는 유기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 그것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방법으로 움직인다. 구름, 바다, 산, 분화구, 식물, 박테리아, 동물들이 지구가 움직이는 데서 자기가 맡은, 더없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물질에 거의 완전히 포위되어 살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안녕과 생존이 다른 생물체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잊기 쉽다. 우리의 음식 · 공기 · 물 · 에너지를 나르는 것, 오물과 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것이 경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경제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지구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요즘에는 우리가 다른 생명형(生命型: 생물이 장기적으로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낸 생활양식)으로서 생물권(生物圈: 생물이 생활하는 장소 전체)에 의존하는 생물학적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천연자원을 고갈시키며, 지구가 재흡수할 수 있는 분량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온난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행위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존 조건을 악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가 허약한 지구의 일부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일례로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온수 히터를 담요로 싸는 것도 에너지 절약 방법 중 하나다. 냉장고, 냉동기, 세탁기, 건조기, 온수기 같은 가정용품을 파는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대대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람들은 아무도 살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에는 히터를 넣지 않거나 끈다. 균열을 틀어막거나 테이프를 붙이고, 열풍 순환식 시스템의 온수통을 감싸줌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한다. 더운 날에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쳐서 태양빛을 차단하고, 밤에는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소형 형광등 같은 열효율 전구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와 돈을 절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방을 비울 때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쓰레기'를 만들고 나서도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내다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쓰레기는 결국 땅에 매립하거나, 소각하거나,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원을 절약하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문지와 유리, 알루미늄캔 등을 재활용하고 있다.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아 돈을 절약하기도 한다. 마당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부엌 쓰레기로 혼합물질을 만들기도 한다.

재활용한 종이로 신문을 찍는 일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요즘 나오는 에어컨이나 냉동기는 더 이상 오존층을 파괴하는 CFC(chlorofluorocarbon: 클로로플루오로카본)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어디를 가나 자동차 합승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도시들은 재활용품 분리 수거(curbside recycling)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거나 확대하고 있다. 저인산염(low-phosphate) 세제를 사용하는, 지구 친화적인 가구용품들이 붐을 이루고 있다. 국내 최대의 주택 건설업자이자 수리용품 판매업체(Home Depot, Lowe's)는 앞으로는 고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고목으로 만든 제품의 판매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지구를 존중하고, 그 한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더 가볍게 살면서, 가능하면 '생태적 발자취(ecological footprint)'를 덜 남기기 위해 노력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80%가 환경주의자라고 한다. 사실상 모든 사람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환경이 나빠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환경 악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더 생태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우리 개개인에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보존하며, 소

중한 지구와 지구가 붙들고 있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흐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개개인의 능력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지금 무엇을 먹느냐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

지구의 관리자?

전통적으로 농장 동물은 건전한 생태학적 기반 위에서 농사를 짓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동물은 인간이 먹을 수 없는 풀, 농작물 쓰레기, 부엌 쓰레기를 먹어치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놓는다. 게다가 그들의 배설물은 땅에 필요한 영양소이기도 했다. 그 외에도 동물은 땅을 일구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등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을 해왔다.

하지만 전통적 농업방식이, 거대한 산업적 조립 라인을 갖추고 엄청난 수의 동물을 처리하는 공장식 축산업에 조금씩 자리를 내줌으로써 상황이 변하고 있다. 축산업의 확장과 기계화 덕분에 세계 육류 생산량은 지난 50년 사이에 무려 4배나 껑충 뛰었다.[1] 전세계의 가축을 모두 합치면 그 수가 지구 전체 인구의 3배나 되는 200억 마리에 달한다.

그토록 엄청난 변화는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발생할 수 없다. 대규모 애그리비즈니스가 식품 생산 비즈니스를 장악해 들어가면서 생태적인 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낙농업은 소를 목초지에 풀어놓고 풀을 뜯어먹게 하는 소규모 단위로 운영되고 있었다. 여전히 '미국 낙농의 땅(America's Dairyland)'이라 불리는 위스콘신의 구릉진 목초지는 홀스타인종(Holstein) 젖소와 건지종(Guernsey) 젖소의 고향이었다. 하지만 지

금은 소규모 농장이 거의 다 사라지고, 소를 수천 마리씩 키우는 대목장들이 들어섰다. 한 농부는 "그러한 대규모 가축 사육장은 목장이 아니라, 60에이커의 콘크리트 바닥과 10에이커의 분뇨 구덩이에 불과하다"고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다.[2]

더 능률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도로 산업화한 축산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약으로 인한 오염, 지방 문화의 혼돈 같은 엄청난 희생을 고려하지 않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오늘날 우리는 악의 3대 요소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의학계에서 우리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품 생산 시스템 — 동물에게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 — 이 위기에 몰린 지구의 생명 지원 시스템에까지 손상을 입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월드워치 연구소, 어스세이브,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 오듀본 협회(Audubon Society: 조류학자이자 탐험가였던 존 제임스 오듀본의 이름을 따서 1905년에 설립한 국립 기관으로, 인간 및 생물 다양성의 이익을 위하여 조류와 기타 야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연 생태계 보존 · 복구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천연자원 보존위원회(Natural Resources Defence Council), 환경 보호 기금(Environmental Defence Fund), 시에라 클럽(Sierra Club: 1892년에 설립한 세계적인 민간 환경운동 단체) 같은 비영리 단체들과 공정한 과학자들은 현대식 육류 생산과정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과 정치인들에게 경고해 왔다.

요즘에는 축산업자 중에서도 현대의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이 허약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다. 피터 R. 치키 박사는 오리건 주립대학의 축산학 교수이자 〈동물과학 저널〉을 비롯하여 여러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1999년에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 거대한 비육장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다시 말해 천 마리, 아니 만 마리가 넘는 소들, 돼지들, 조류를 구속적인 축사에 억지로 집어넣는 요즘의 추

서는……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지하수와 공기를 엄청나게 오염시킨다.[3]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지구상의 생물은 물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물에 의존하여 산다. 생명은 물에 의해 번성한다. 사막이 정원으로, 울창한 삼림으로, 혹은 텔아비브와 로스앤젤레스처럼 나무가 울창한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죽고 만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소중한 자원을 당연한 것처럼 낭비해 왔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서야 물이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절박한 상황으로 빠르게 접근해 가고 있다. 좋은 물을 접할 기회가 경악할 만한 속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2000년에 세계 수자원 위원회(World Commission on Water)는 인구 증가에 따른 물 사용량의 증가가 "환경에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주어 생물 다양성에 손상을 입히고 있으며, 생태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식물과 인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4]

요즘에는 어디를 둘러봐도, 특히 서부에서는, 물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다. 세차를 그 전보다 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샤워 꼭지와 싱크대 수도꼭지를 물을 덜 소비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변기물을 덜 쓰기 위해 돌 같은 것을 물탱크에 넣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를 닦으면서도 칫솔을 헹굴 때 외에는, 면도를 하면서도 면도날을 헹굴 때 외에는 수도꼭지를 잠근다.

그러한 것이 분명 있고 도움이 되는 행동이긴 하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절약할 수 있는 물을 모두 합친다 해도 식단을 채식 위주로 전환하여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에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 전국 축육업자 협회에 따르면, 미국에서 1파운드의 육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441갤런이다.[5]

▷ 미시간 주립대학 식물영양학과 학과장 조지 복스트롬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파운드의 육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2,500갤런이다.[6]

▷ 수자원 교육 재단(Water Education Foundation)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1파운드의 육류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2,464갤런이다.[7]

▷ 캘리포니아 대학의 축산 전문가를 밑에서 농업지도자 과정을 이수 중인 토양과 수자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1파운드의 식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다음과 같다.[8]

1파운드의 상추: 23갤런
1파운드의 토마토: 23갤런
1파운드의 감자: 24갤런
1파운드의 밀: 25갤런
1파운드의 당근: 33갤런
1파운드의 사과: 49갤런
1파운드의 닭고기: 815갤런
1파운드의 돼지고기: 1,630갤런
1파운드의 소고기: 5,214갤런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당신이 하루에 한 번 샤워를 한다고 가정하자. 샤워 시간이 평균 7분이라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일곱 번 샤워를 하게 되니까 총 49분을 샤워에 쓰는 셈이다. 계산하기 편하게 반올림하여 50분이라고 가정하자.

샤워 꼭지에서 1분 동안 떨어지는 물의 양은 2갤런 정도다. 일주일에 50분을 샤워하니까 총 100갤런의 물을 샤워로 사용하는 셈이다.

100갤런 곱하기 52(1년은 52주다) 하면 1년 동안 샤워로 사용하는 물의 양이 모두 5,200갤런에 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캘리포니아에서 1파운드의 소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수자원 교육 재단은 2,464갤런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는 1파운드의 소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6개월간 샤워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캘리포니아 대학 농업지도자 과정의 토양 및 수자원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치를 이용하면 더욱 극적이다. 그들의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산 소고기 1파운드를 먹지 않는 것이 1년 동안 샤워를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시가 아니다. 석유회사도 아니고, 화학공장도 아니고, 국방 산업체도 아니다. 포도 농장이나 토마토 농장도 아니다. 관개시설을 갖춘 목초지가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사막 같은 땅에 소들이 뜯어먹을 풀을 키우기 때문이다.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서부 지역의 물 위기—다른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긴 하지만—는 이 한마디로 줄일 수 있다. 가축."(마크 라이스너, 『캐딜락 사막 *Cadillac Desert*』의 저자)

축류 생산은 지역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이 다르다. 남동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물이 덜 필요하다. 식물 성장기에 비가 내려 관개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그와는 반대로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지역에서는 캘리포니아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

소고기 생산에 드는 물의 양이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생산할 때보다 많은 것은 양돈업체와 양계업체들이 관개시설이 거의 필요없는 지역에 밀집해 있는 데다 돼지와 닭이 사료를 먹고 살을 불리는 데서 소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목우업자(牧牛業者)들은 축류 생산과정에 그렇게 많은 물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차를 몰고 도중에 주유소가 없는 길을 갈 때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필요한 가솔린 양을 과소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을 과소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경우에도 물이나 가솔린 부족은 현실로 드러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법이다.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물이나 대수층(帶水層: 물이 고여 있는 지층)에서 물을 퍼낼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고갈되는 줄 모르게 마련이다. 연료 게이지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격이다. 가속기를 눌러 차가 빨리 달리면 가솔린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기 십상이지만, 가솔린이 갑자기 떨어지면 착각에서 깨어나게 된다.

물 사용량을 과소 평가하지 않는 것은 가솔린 사용량을 과소 평가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가솔린은 수소, 태양열, 바람 등을 에너지원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지만, 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체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이 고갈되면, 식품을 조달할 수 없고, 그 밖에 삶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영위할 수 없다.

> 미국에서 소비하는 물 중 거의 절반 정도가 가축, 특히 소를 키우는 데 들어간다.(오두본, 1999)[9]

고갈되는 수자원

오늘날 사우스다코타에서 텍사스에 이르는 광대한 오갈랄라 대수층(Ogallala aquifer)이 형성되기까지 무려 수백만 년이란 세월이 필요했다. 오갈랄라층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지하수층으로,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농장지대—거대한 아메리칸 벨트—밑으로 뻗어 있다. 미국이 국민소득당 세계 최대 곡물 생산국, 세계 최대 식품 공급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바로 오갈랄라층 때문이다.

오갈랄라층은 미국에서 관개수로 사용하는 총 지하수량의 3분의 1 가

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곡물의 황금 물결(amber waves of grain)' 지대가 바로 그곳에서 물을 뽑아 올려 관개수로 사용한다. 오갈랄라층은 화석 대수층(fossil aquifer)인데, 이는 그 안에 갇힌 물이 후기 빙하시대에 녹은 빙하에서 흘러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가 내리면 정기적으로 채워지는 저수지나 강하고는 다르다. 대수층에 고인 물이 사라지면 그대로 영원히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50여 년 전만 해도 오갈랄라층은 펌프로 퍼내어도 수량을 그대로 유지할 만큼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 소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오갈랄라층에서 뽑아 올리는 수량이 급속하게 증가해 왔다. 요즘에는 해마다 그 거대한 대수층에서 13조 갤런 가량의 물을 뽑아 올려 대부분 육류 생산용으로 사용한다. 육류 생산만을 위해 오갈랄라층에서 뽑아 올리는 물의 양이 미국 전체에서 과일과 채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의 양보다 많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의 빵 바구니'라 불리는 미국의 곡물 벨트에서는 인간이 먹는 곡식보다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에 있는 동물들의 사료를 더욱 많이 생산해 낸다.

불길하게도, 오갈랄라층의 수위는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우물들도 말라가고 있다. 텍사스 북부 지역에서는 1990년대 초반까지 대수층의 4분의 1 가량이 완전히 고갈되고 말았다. 1970년대에 관개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받던 텍사스 지역 중 3분의 1 가량이 물이 끊겨 땅이 타 들어가면서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했다. 비옥한 땅도 물이 없으면 사막으로 변하고 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오갈랄라층에서 물을 계속 퍼내면, 아메리카 곡물 벨트가 캔자스,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뉴멕시코의 우물들처럼 메마르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사람도 살기 어려운 땅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지만, 수많은 환경학자들이 예측한 시나리오다. 〈월드워치 WorldWatch〉의 편집장 에드 아이레스는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참혹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 말한다.

> 미국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잉여 농산물을 거의 대부분 소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안전을 지킬 능력조차 상실하고 만다――.[10]

오갈랄라층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가 먹을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해야만 하는 대규모 청정 물 탱크인 대수층이 무서운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 인간은 지난 반세기 만에 강력한 디젤과 전기 펌프를 이용하여 대수층의 물을 단 수십 년 만에 고갈시킬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와 돼지, 닭을 사육하기 위해 더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백만 개의 우물이 메말라가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인도, 중국, 북부 아프리카, 미국 등은 빗물이 보충해 주는 속도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대수층에서 끌어올려 신선한 물을 고갈시키고 있다.(〈타임 매거진〉, 1999)[11]

하지만 전국 목축업자 협회도 그 문제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 소를 사육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소비되는 것'도 아니고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다. 사용된 물은 자연적인 수문학 순환계(hydrological cycle)의 일부분으로 재활용된다. ――일례로, 농경지에 뿌리는 물은 대부분 증발되거나 흘러가 버렸다가, 수문학 순환계에 따라 빗물이나 다른 지역의 강물 등으로 다시 나타난다. 옥수수 밭(가축을 먹이기 위한) 1에이커에서 수문학 순환계로 되돌려지는(put back) 물의 양은 24시간당 4,000갤런 정도다.[12]

되돌린다(put back)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목

축업에 사용한 물은 거대한 지구의 수문학 순환계에 그대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개 인간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수층(혹은 인간이 끄집어낼 수 있는 곳)에서 끌어올려져 경작지로 흘러 들어간 물은 결국 증발하여 빗물이 되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데, 대개 바다(지구의 71%를 차지하는)나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떨어진다. 게다가 경작지를 벗어나 수로로 흘러 들어간 관개수는 땅을 침식하고 강물이나 하천을 오염시켜, 결국 사용할 수 없는 물로 변하게 된다. 합성 비료나 살충제―미국에서는 곡물 생산을 위해 당연한 것처럼 사용한다―를 살포한 경작지는 특히 그렇다.

지구 수문학 순환계를 흐르는 97% 이상의 물이 짠물이다. 소금기 있는 물은 지구에 사는 모든 유기체에 독성을 발휘하는 데, 유기체는 소금기 없는 물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소금기가 사라진 물은 거의 대부분 빙하와 대빙원(大氷原), 혹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갇혀 있다. 신선한 물 중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0.0001%에 불과하다.[13]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 무게 1,000파운드짜리 소 한 마리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물의 양은 해군 구축함 한 척을 띄울 수 있는 양이다.(〈뉴스위크〉)[14]

식물 위주 식단으로의 문화적 전환은 상당량의 물을 고갈시키는 무지한 낭비를 막는 데 도움을 주어 소중한 천연자원인 물을 보존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후손이 마시고 요리하고 청소하고 채소를 재배할 수 있는 물을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진지하게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살기 좋은 세상을 물려주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렛대가 어디에 있는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을 절약하는 데서 식단을 식물 위주로 전환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소, 돼지, 닭의 또다른 면

매해 미국에서 가공 처리하는 닭의 수는 전세계 인구 60억 명보다도 많은 76억 마리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칠면조의 수는 3억 마리로 미국 인구 2억 8,000만 명보다 더 많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1억 마리의 돼지와 6,000만 마리의 식용 소를 사육하고 있다.[15] 그 많은 동물의 배설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일까?

적절하게 처리한 배설물은 쓰레기가 아니다. 미생물로 분해될 수 있는 자연 비료다. 예전에는 가축 배설물을 대부분 땅을 비옥하게 하는 데 이용했다.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동물을 비육장이나 축사에 가두어놓고 사육하는 오늘날에는 동물의 배설물을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요즘 농업은 날이 갈수록 화학 비료와 살충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

동물 배설물 대신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바람에, 대지는 땅의 본질을 상실하고, 표토(表土, topsoil)는 본질을 되찾는 능력마저 잃어버리고 말았다. 표토란 영양분을 충분히 품고 있는 토양층으로, 토양층이 없으면 식량 생산은 위기를 맞게 된다. 아이오와 주에서만 매해 상실되는 표토층의 양이 미시시피 강을 떠다니는 바지선 16만 5,000척을 꽉 채울 정도다. 월드워치 연구소의 에드 아이레스는 "표토층 상실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이 피를 잃는 것과 같다. 그 부작용은 엄청나다"[16]고 말한 바 있다.

미국에서 0.25파운드짜리 햄버거를 생산할 때마다 유실되는 표토층의 양은 그 햄버거의 다섯 배나 되는 1.25파운드다.[17]

불행하게도, 요즘 가축 배설물은 땅으로 되돌아가 표토층을 복원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물에 버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 대량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골치 아픈 오염원이다. 카우파이(cowpie: 밀크를 주재료로 만든 파이)가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상시킬 때도 있었지만, 최근의 축산 폐기물은 대량으로 물고기를 죽일 뿐 아

문을 연 이래 그 지역의 보건 문제는 줄곧 심각해져 왔다.

> 유타 주 보건국에 따르면…… 밀퍼드 주민이 설사병에 걸릴 확률은 전체 유타 주민의 20배에 달하고…… 밀퍼드 주민이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은 전체 유타 주민의 7배에 달한다.(《솔트레이크 트리뷴》, 2000)[39]

서클 포 팜스는 당연히 보건국의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 어떤 데이터도 밀퍼드 지역의 질환 발생이 서클 포 팜스와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서클 포 팜스의 대변인 브라이언 볼드윈)[40]

미국인은 자신들이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국인이 생수와 정수용 기자재 구입으로 지출하는 돈의 액수는 매년 20억 달러에 이른다. 레바논 국민 총생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41]

한편, 걱정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은 고기 1파운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되는 물의 양이 파스타(pasta: 밀가루 음식)를 만들 때 오염되는 물의 양보다 무려 17배나 많다고 주장한다.[42]

식수

우리가 키우는 동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깨끗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은 지구를 정화한다. 우주에 떠 있는 지구가 파란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물 때문이다. 지구가 다른 행성이나 달과 확연히 다를 수 있는 것은 순전히 물 때문이다. 물은 지표의 4분의 3을 덮고 있다. 물은 우리 육신의 4분의 3을 이룬다. 아트 시스먼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운다.

> 백만 년 전 아프리카에 살았던 우리 조상을 생각해 보자. 7,0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을 생각해 보자. 인간이 오기 전 수백만 년 동안 미국 중서부를 뛰어다녔을 버펄로를 생각해 보라. 그 어떤 것을 생각하든, 그 유기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물을 마셨다. 그들이 마신 물은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바로 그 물이며, 우리가 먹는 곡식 한 알, 물고기 한 마리, 혹은 고기 속에 들어 있는 바로 그 물이다. 물 분자는 유기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몸의 일부가 되었다가 피와 땀, 소변, 수분 증발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다.

물 한 방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분자(3,000,000,000,000,000,000,000)가 들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말은 아래와 같이 계속된다.

> 컵에 물을 채워보라. 당신이 들고 있는 컵의 물 분자 중 1,000만 개 이상은 버펄로의 몸을 돌던 것이며, 또 1,000만 개 이상은 공룡의 몸을 돌던 것이며, 또 1,000만 개 이상은 아프리카 조상의 몸을 돌던 바로 그 분자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은 우리 이전에 이 지구상에서 산 모든 생명체들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고, 현재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과 연결시켜 주고, 미래의 모든 생명체와도 연결시켜 준다.

하지만 최근에는 우리가 마시는 물이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의 배설물과 연결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낙농업은 곤혹스런 사례 중 하나다.

면적이 50스퀘어마일이나 되는 캘리포니아 치노 베이슨(California's Chino Basin)의 젖소들이 해마다 배출하는 배설물을 미식 축구장에 쌓으면 그 높이가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소나기가 쏟아지면, 치노의 배설물은 산타아나(Santa Ana) 강과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 마시는 식수의 절반을 공급하는 대수층으로 고스란히 스며들게 된다.[43]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미국 최대의 우유 생산지는 캘리포니아의 센트럴 밸리(Central Vally)다.

▷센트럴 밸리에 자리잡은 낙농업체 1,600군데에서 나오는 배설물의 양은 텍사스 전체 주민의 배설물보다 많다.[44]

▷센트럴 밸리의 수질검사원 수는 2명이다.[45]

▷센트럴 밸리에 식수원을 두고 있는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그 주변 도시들이다.

▷캘리포니아 주민 중 젖소 배설물에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은 2,000만 명이다(전체 주민의 65%).[46]

▷1993년 낙농장에서 나오는 젖소 배설물에 들어 있다가 밀워키 식수원을 오염시키고 40만 명의 시민을 병들게 하여 그중 100명 이상을 사망케 한 병균은 와포자충(Cryptosporidium)이었다.[47]

▷로스앤젤레스 수도공사 직원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센트럴 밸리 낙농장 배설물에 포함된 병균으로 지속적으로 위협이 되는 존재는 와포자충이다.[48]

당신은 목축업이 수자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대중들이 왜 그토록 모르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 할 것이다. 업계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 책임의 일부분이 돌아가야 한다…….

누구 말이 옳은가?

"모든 가축과 조류의 배설물은 천연으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천연 비료로 쓴다. ——물을 오염시키는 일 따위는 없다."

— 전국 목축업자 협회[49]

"낙농업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수자원 오염원이다. ——젖소들의 배설물을 대량으로 배

출하여 물줄기를 오염시키고 물고기를 죽게 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양한 수중 생태계를 잃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의 수로를 모니터하는 환경운동가들의 조직)[50]

식물 위주 식단으로의 문화적 변화는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에서 가축을 더 적게 사육하게 함으로써 배설물 배출을 줄이고 물의 오염을 막는 것을 의미한다. 물이 더 깨끗해지고, 동물 배설물을 매개로 전염되는 위험한 병균이 그만큼 적게 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물 위주 식단은 또한 우리 지구의 물을 생명수로 되돌리는 첩경이기도 하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물, 우리의 강과 개천을 흐르는 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의 몸 속을 흐를 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장식 축산농장과 비육장에서 생산되는 육류 식품이 아니라 채식 위주의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행위다. 우리 개개인은 우리가 취하는 행동의 순수성과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새로운 음식문화의 방향은 우리 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성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서부

요즘에는 가축들을 다양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다. 미국과 선진 산업국가에서는 거의 모든 돼지와 닭을 공장식 농장에 수용하여 사육한다. 예를 들어 소들은 처음에 방목장에서 풀을 뜯어먹으며 자라다가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3, 4개월 전부터 비육장으로 옮겨 주로 곡물과 풀을 먹는데, 그 사료에 [illegible] 건조한 조류 배설물과 하수 침전물, 혹은 그보다 더 역한 것들까지 받아먹는다.

소가 미국 서부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과대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서부의 70%를 가축 방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네바다, 유타, 아이오와 주의 3분의 2 이상을 방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와 양 등의 동물이 풀을 뜯어먹는 지역이 무려 5억 2,500만 에이커에 이르는데, 사람에게는 1인당 겨우 2에이커의 땅이 돌아갈 뿐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목축업에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접근이 쉽지 않은 빙원이나 덤불 지역, 아주 건조한 사막, 모래 언덕, 극도로 돌이 많은 지역, 절벽이나 산의 정상, 대도시와 마을, 도로와 주차장, 공항, 골프장뿐이다. 서부에서 동물들이 들어가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곳은 모두 동물들이 들어가 풀을 뜯어먹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환경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누구 말이 옳은가?

"가축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지구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준다. ─가축은 예부터 내려온 자연의 혜택을 가꾼다. ─가축은─ 환경을 보호하는 기계다."

─전국 목축업자 협회[31]

"서부의 목축업이 다른 업종보다 물을 더 많이 오염시키고, 표토층을 더 많이 망가뜨리고, 물고기를 더 많이 죽이고, 야생 생물을 더 많이 파괴하고, 경작지를 더 많이 황폐화시키고 있는데도, 일반 대중은 목축업자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라고 장려하고 있다."

─테드 윌리엄스(환경 관련 칼럼가)[32]

미국의 카우보이는 전통적으로 야성적인 남자의 상징이자 자립심의 대명사로 표현되어 왔다. 하지만 소들이 풀을 뜯어먹는 땅은 대부분 일반 대중의 공동 소유지다. 따라서 국민의 것이며, 후손의 재산이다.

오늘날 서부 국유림의 70%, 토지관리국 소유 대지의 90%에서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다. 그것도 목축업자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일

반 대중은 그들로부터 그만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1994년 연방 정부는 목축업자들의 가축이 풀을 뜯어먹는 공공 소유지를 관리하기 위해 1억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 그 대가로 연방 정부가 목축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은 겨우 2,900만 달러였다.[33]

주 소유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애리조나 주 정부가 소유한 930만 에이커의 땅 중 94%를 가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리조나 주 헌법에 따르면, 애리조나 대지관리국은 주 공립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대지 사용자들로부터 가능한 많은 수입을 올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애리조나 대지관리국이 1998년에 목축업자에게서 거두어들인 세금은 220만 달러에 불과했다.[34] 이는 대지 사용료가 1에이커당 26센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축업자가 개인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지 사용료와는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적은 액수다.

뉴멕시코 주도 하등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1994년, 뉴멕시코 주지사 브루스 킹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1만 7,372에이커의 주 소유 땅을 빌린 대가로 지불한 돈은 1에이커당 65센트였다.[35]

▷1994년, 뉴멕시코 주 대지관리국 국장으로 입후보한 스털링 스펜서가 자기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2만 [illegible]에이커의 주 소유 땅을 빌린 대가로 지불한 돈은 1에이커당 53센트였다.[36]

▷뉴멕시코 주가 목축업자에게 주 소유 땅을 빌려주고 받는 돈은 1에이커당 99센트다.

▷목축업자에게 부여한 특별세 감면 및 면제 조치로 인해 뉴멕시코 목축업자들이 내지 않게 된 재산세와 판매세, 특별세를 모두 합치면 연간 수십 억 달러에 달한다.[37]

▷뉴멕시코 주보다 가난하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주는 세 곳이다.[38]

▷뉴멕시코 주보다 빈곤하게 사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주는 한 곳도 없다.[39]

목축업자들은 서부 지역만큼 방목지로 좋은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전

국 목축업자 협회는 "동물이 적절하게 풀을 뜯어먹으면서 발로 땅을 팔 때 공기가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땅이 비옥해진다. 이는 가축이 걸을 때마다 땅이 느슨하게 풀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소가 땅속으로 들어가면 풀과 나무는 그만큼 더 잘 자라게 된다"고 주장한다.[40]

하지만 무게가 1,000파운드나 나가는 동물들이 걸음을 옮기면, 식물을 짓밟는 것은 물론, 땅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게 된다. 따라서 오히려 물이나 식물이 살기 힘든 땅으로 변하게 된다. 다져진 땅으로는 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소나기라도 내리면 표토층이 뒤이고 도랑이 더욱 깊게 파일 뿐만 아니라, 강바닥이 손상을 입어 지표상의 물 흐름이 왜곡된다.[41]

목축업자들은 뻔뻔스럽게도 가축이 땅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옳은가?

"자연생태계가 존재하는 것은── 주로 미국의 목축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다. 목축업자 협회는 이 나라의 공공자원이 풍성한 자연을 위해 존재하는 재산이다."

─전국 목축업자 협회

"오랜 세월 동안 많이 기어왔던,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가축들이 말끔하게 하천 수자원 프로젝트, 노천 채굴(strip mines), 발전소, 고속도로, 지역 발전 계획을 모두 합쳐도 그것보다 더 심하게 식물의 생장과 지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팀 프리이(오두본 협회 연구원)[42]

1931년 미 농무성에 동물 피해 통제소(Animal Damage Control: ADC) 프로그램이 설립된 것은 단 하나의 목적─서부 지역의 가축산업에 피해를 줄 것으로 여겨지는 야생동물을 제거·억압·통제하는 일─을 위해서였다. 반대자들에게는 물론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반대자들은 ADC를 '모든 동물의 말살(All the Dead Critters)', '의존적인 카우보이에 대한 원조' 등 다양한 타이틀로 불렀다.

1997년 연방 정부는 홍보 관계자와 이미지 컨설턴트들의 조언을 받아

들여 ADC에 '야생동물 서비스'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붙였다. 그러면서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삶'이란 모토를 들고 나왔다.

재미있는 발상이다. '야생동물 서비스'란 사실 가축의 경쟁 상대거나 위협적인 동물은 가리지 않고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독극물, 함정, 올가미, 총기 발포 등이 그 방법이다. '굴에 사는' 야생생물을 죽이기 위해 공무원들이 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둥우리 속의 어린 생명까지 씨를 말리고 있다.

야생동물 서비스 소속 공무원들이 의도적으로 죽이고자 하는 동물에는 오소리, 흑곰, 살쾡이, 코요테, 회색 여우, 적색 여우, 쿠거, 주머니쥐, 너구리, 줄무늬 스컹크, 비버, 뉴트리아(늪너구리라고도 한다), 산미치광이(porcupine, 호저라고도 한다), 프레리도그(다람쥐과의 포유류), 블랙버드(찌르레기과), 황로, 찌르레기 등이 포함된다. 또 야생동물 서비스 공무원들이 무의식적으로 죽이는 동물에는 가정용 개와 고양이를 비롯하여 멸종 위기에 처한 여러 종류의 생물이 포함된다.

사람들은 '야생생물과 공존하는 삶'을 모토로 내세우는 연방 정부 기관인 야생동물 서비스가 의도적으로 죽이는 동물이 연간 150만 마리에 달한다고 말한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목축업자의 개인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불과하다. 목축업자들은 자신들이 환경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누구 말이 옳은가?

"목축업자들이야말로 궁극적인 환경주의자들이다."

─전국 목축업자 협회의 대변인 줄리 오 퀴
(목축업을 남서부 전역에서 철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43]

"서부 지역의 공유지 대부분, 특히 남서부는 '소로 인한 황폐화' 지옥이 분명하다. 서부에서는 어디를 가든 소 떼를 볼 수 있다. ─그것들은 기생충과 전염병을 끌고 다닌

> [illegible] 그것들은 [illegible] 그리고 [illegible] 초원, 거대 목초지, 숲 등 소들이 뛰어다닐 만한 곳이 없다. 거기 있는 [illegible] 배설물 무료 나무숲가, 예로 [illegible]Durch [illegible] 물을 [illegible] 이러한 지하연료로의 전화, 신선한 공기 그리고 자녀 [illegible] 대신 목재가 있는 키보그레스Gravsyra이라는 시는 [illegible] 일종), 리사인 [illegible] 같은 [illegible]Lassu/Lifwad gravs 을 [illegible] 스웨덴 지역은 지금 [illegible] 대신, 피트, 토탄, 연탄, 풍력 [illegible] 다양한 [illegible]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illegible]이라면 남녀 [illegible] 할 수 있다. 귀국 시는 가족의 [illegible]하여로 [illegible]고 있다."
>
> —[illegible] 자원보호론자이자 작가,
> 1980년 [illegible]에 대해서 [illegible]에 관 [illegible]

우리가 지금보다 고기를 적게 먹으면, 서부 지역의 광활한 공유지는 더 가치 있고—환경적으로 생존 가능한—쓸모 있는 땅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서부 지역의 상당 부분은 태양빛이 강렬하고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대형 태양열 발전소와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지역에서 가축이 사라지면 광천지 토양과 풍치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일 없이 엄청난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화석연료보다 오염도가 훨씬 덜한 '바이오매스(biomass: 식물과 동물의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수소로 만든 합성 연료)' 연료로 이용될, 수확 가능한 풀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야생동물이 거주지를 이탈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이 사는 자연을 감상하면서 그저 그 생물들이 스스로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식물 위주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서부의 광활한 목초지가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가 현재 목표로 삼고 달성하려 하고 있는 수많은 동물의 멸종이 아니라 생존을 의미한다.

식물 위주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은 또 우리 자녀들이 지구의 자연적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발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발전의 미래

■ 할아나 노르베리-호지, 라다 고어월

빈곤과 환경 악화에서부터 인구 과잉과 종족 간 마찰, 엄청난 대외 채무에 이르기까지 남반구 '개발도상'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들이다. 북반구의 공업국들이 당면한 위기 상황 또한 자원 고갈과 오염, 실업, 범죄, 홈리스처럼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병폐를 고칠 수 있는 처방으로 환경 같이 (오늘날 '자유 무역'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동일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과 기술 향상으로 이루어진 산업상의 요법을 내놓았다. 북반구에서는 '발전progress'으로, 남반구에서는 '개발development'로 불리는 익히한 처방은 흔히 지구 자체에는 장기적인 건강을, 인류 전체에게는 번영을 안겨주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의 필자들의 생각은 환경 같이 이런 인식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의 시각에서 보면 산업화 개발 모델은 해결방안을 제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사실상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산업화 모델을 이루는 수많은 요소들은 서로 촘촘하게 뒤엉켜 있어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산업사회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측면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보다는 구성요소가 서로 연관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

경제 패러다임

현대 경제학에 따르면 지금보다 더 큰 번영을 누리고 동시에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도 해결하려면 경제적 산출량을 계속 늘려야 한다. 정치 스펙트럼에서 어느 위치에 있건 관계없이 사실상 모든 국가의 제반 정책은 그 밑바탕에 이런 믿음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경제를 계획하고 운용하는 데는 좁은 의미로 규정된 경제 효율이라는 표준이 활용되고, 무엇보다 연기 비중을 두는 대상은 통화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생산품목의 선택은 통화 경제에서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결정한다.

경제 성장이라는 장막에 숨기는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과 자원, 그리고 식민지로 만들 생활 영역을 찾아 나서야 한다. 제품은 필요한 것보다 빨리 닳아 없어지게 만들고 있다. 마케팅 전문가들은 소비 지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수요' 창출을 포함해서 가능한 온갖 수단을 활용한다.

개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경제 모델 속에서는 자연계에 대한 배려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에서는 지구가 당연히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폐기물까지 흡수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다고 은연중에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 산업사회가 생물권에 심각할 정도로 과중한 부담을 안겨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다. 산업사회는 사실상 미래 세대의 몫을 계속 끌어다 씀으로써 자원이 고갈되고 값진 삶을 누릴 수 없는 지구를 후손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내세우는 경제 모델에서 무시되는 것이 단지 환경만은 아니다. 경제 패러다임 안에서는 가장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삶의 영역들에 관심이 집중된다. 행복과 성취감, 덕성, 미적 감각 등을 포함해 인간의 복리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여러 가지는 기본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이런 사고방식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 여러 가지 편견은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계획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순수한 경제적 평가로는 전통적인 자급자족 사회subsistence society를 인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나라로 본다. 이 때문에 부탄의 거의 모든 국민이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고, 정교하고 세련된 미술과 음악을 즐기며, 또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보다 가족이나 친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유엔은 부탄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축에 드는 나라로 꼽는다. 현대 경제학에 비춰보면 통화가치로 계량되지 않는 이런 복리의 척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GDP와 1인당 국민소득이고, 그런 점에서 부탄 국민들은 집거

리에서 생활하는 홈리스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간주된다.

과학과 기술

경제 패러다임은 현대 과학 기술과 나란히 나아간다. 즉 함께 손잡고 산업사회를 밀고 가는 추진력 구실을 하는 것이다.

과학은 자연이라는 상호 연결된 연속체의 작은 부분을 분리시켜 연구하는 식으로 이 세계를 파악한다. 이런 접근 방식이 흠잡을 데 없는 성공을 이루어내면서 사실상 현대 기술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란 과학적 방식에 내재된 한정된 범위에 국한되어 있다. 여러 가지 과학적 모델은 비교적 단순하고 단기적인 것을 다룰 때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사회 체제나 생태계처럼 한없이 복잡한 대상과 장기적인 시간들을 다룰 때는 과학의 한계가 특히 두드러진다. 따라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생물공학bio-techn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내세우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눈부신 과학적 발전'의 장기적인 사회 및 생태적 연관성은 과학의 탐구로 규명될 수 없다.

이런 근본적인 결함을 감안할 때 오늘날 과학이 차지한 두드러진 위치는 매우 불안해 보인다. 과학은 다른 모든 지식체계를 파괴하거나 이르렀다. 비서양 문화권의 여러 가지 전통과 개인적 체험 및 직관적 지식은 과학적 관찰과 지식으로 입증될 수 있는 범위까지

한 용인되고 있다. 한편 과학적 탐구의 초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폭이 좁아지고 있고, 자연계에 대한 과학의 조작도 심화되고 있다.

인프라 개발과 집중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 향상은 상호 보완적인 구실을 한다. 양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결국 중앙집중적 조직을 확대시키고, 교통과 통신망, 중앙공급식 에너지 설비, 대규모 관개사업 계획, 서양식 교육 시설 등의 인프라를 끊임없이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남반구의 경우, 인프라 사업계획들은 현대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된다. 이런 인프라 사업계획은 보통 '원조' 프로그램에 따라 수립된 뒤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을 재원으로 삼아 추진된다. 지난 50년 동안 제3세계 국가들의 외채가 엄청난 규모로 불어난 것은 상당 부분 인프라 개발 때문이었는데, 이런 인프라 개발은 거의 모두가 국제 무역에서의 필요와 대규모 도심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나 지역 내 거래활동의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프라 개선에는 자원이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경제학이 환경 및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대규모 생산단위가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또 지역으로 분산된 소규모 구조보다 더욱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프라 개발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도 간과되고 있는데, 이런 보조금은 지역 자원의 소규모 생산단위보다 중앙집중적 형태의 대규모 사업에 편중 지원된다.

중앙집중화와 경제 성장은 상호 보완적 순환구조로 움직인다. 규모가 더 크고 수익성이 더 높은 기업은 시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고, 투자 재원과 정보를 취득하는 데 더 유리하며, 또 연구개발 시설을 더 잘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은 또 기업의 규모를 더욱 키우고 군소 경쟁업체들을 밀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화

개발을 통해 산업과 모델을 확장시키게 되면 그보다 적은 규모의 지역 경제는 더 쉽게 허물어진다.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거시경제(경제)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조그만 도회지와 농촌 지역을 떠나 점차 규모가 커지는 도시 지역의 거대 복합기업들로 몰려가지 않을 수 없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어느덧 주변부로 밀려난 채, 농촌이 정치 활동과 문화 생활의 중심지인 도시 지역의 자원 공급처로 전락한 처지를 실감하게 된다. 농촌 지역의 인구와 정치적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사람과 토지의 연결성도 사라지고 있다.

개개인과 지역 공동체가 자체의 자원을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이런 관리를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 주변 환경의 활용(이나 오용)으로 직접적인 이득(이나 피해)을 보는 것이 바로 그들 자신과 가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방식을 좇아 사회적 안정성과 생태적 균형을 탈 없이 유지한다. 그러나 중앙집중적 거시경제 구조 속에서는 사

람들이 경제활동 강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결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었던 전통적인 활동양태는 사라지고, 인구 급증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있다.

사회 문제와 환경 문제는 농촌 지역보다 급속하게 팽창하는 도시 지역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몇몇 중심적인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자원의 절대량만 보더라도 사람의 갖가지 활동으로 빚어진 영향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일대 생태계의 능력은 완전히 압도될 지경이다. 이에 따라 자연의 순환과정은 교란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으로 빚어진 결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쇠퇴와 손상의 기미가 뚜렷해도 이를 모른 척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 지역의 거대 기업집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웃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 전통적인 삶에서 꼭 필요했던 상부상조적인 공동체는 현대화된 여건 속에서 경쟁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로 탈바꿈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불안정함 속에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현상은 현대화된 전체계 도시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곧 범죄와 폭력, 알코올과 마약 중독, 어성과 어린이 및 노인 학대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민족 간 싸움

전체계 '개발도상' 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현대화가 민족 간의 싸움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일은 '발전' 을 위

해 꼭 치러야 하는 대가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철저하게 동질적이고 탈종교적인 사회를 만들어야만 이런 대립을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서양 사람들은 오늘날의 민주주의 제도가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면서 오랜 편견과 증오가 표면화되어 이런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들은 과거에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오로지 독재 정권들이 그런 대립을 억눌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전혀 다르다.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심지어 한 국가 안에서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뒤여 살 경우도 종종 있다—이 농촌 지역에서 대도시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대도시 지역은 공동체적 유대관계가 끊어지고 취업 기회도 거의 없다. 과거 젊은이들은 사회 조직의 일부를 형성하면서 저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매우 드문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벌이는 등 살아남기 위한 싸움을 벌여야 한다. 이 같은 인위적인 상황에서는 종교적, 민족적 문화가 과장 · 왜곡되기 쉽다. 집권 세력은 보통 그들이 소속된 종교 및 민족 집단을 우대하고 다른 종교 집단과 다른 민족 집단을 차별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마련이다.

좀더 깊이 살펴보면, 현대적 개발 모델은 삶의 조건이 다른 사람들에게 서양의 모델을 따르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서양 모델이 세워놓은 표준을 도저히 지킬 수 없다. 개발도상권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눈동자가 푸르거

나 금발일 리도 없고, 한 집에 자가용을 두 대씩 굴리면서 살 리도 없다. 그런데도 갖가지 미디어와 광고를 통해 이런 이미지가 이상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이상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은 곧 자신의 정체성을 내버리는 것이다. 그로 인한 소외감이 원한과 분노를 자아내고 결국 폭력과 근본주의로 치닫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온세무에 미지마나Noekuye Bizimana는 자신의 조국인 르완다에서 서양의 여러 가지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 어떻게 공동체를 와해시키면서 부족 중심의 의식을 불러일으켰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같은 공동체 붕괴와 부족 의식은 최근 수많은 르완다 사람들을 희생시킨 끔찍한 폭력사태의 전조였다.

산업화를 이룬 선진국 사람들도 미디어가 조성한 판에 박은 듯한 여러 가지 이미지에 희생되고 있지만 현실과 서양의 이상 간의 괴리가 훨씬 큰 제3세계에서는 그 질땅감 또한 그만큼 엄청나다.

자급자족과 지속성의 상실

토착문화는 그 지역 환경 특유의 자원이나 제약 요인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지구상의 문화적 다양성은 곧 생태적, 지역적 다양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 고산 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열대지역 섬에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일구었다. 그러나 산업문화는 자연계가 아니라 기술과 국제 금융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확산은 곧 다양성이 사라지고 여러 문화를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늘날 현대화된 모든 도시에서는 그 지

역의 기후나 자원, 문화적 변천과정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의복이나 음식, 건축물이 거의 똑같다.

개발의 영향에 휩쓸린 농촌 지역은 농작물 생산까지 한 가지 서양식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 '개발도상' 국가들은 산업화된 국가들의 압력으로 그들 특유의 식량 생산 방식과 기초 수요품 산업을 포기해왔다. 갖가지 자원은 북반구의 사치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날이 갈수록 수출량이 늘어나는 반면, 북반구의 공산품이 원료 공급국으로 수출됨에 따라 현지에서 조달되던 물품을 대체하고 있다. 과거 농민들은 자체 소비용으로 여러 가지 농작물을 재배하고 가축도 몇 마리 길렀지만, 지금은 멀리 떨어진 시장에서 거래될 한 가지 환금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이들의 생계는 원유 공급 중단이나 국제 1차산품 시장의 가격 동락에 따라 직접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무난하게 유지되던 생활방식이 외부에서 들어온 여러 가지 수법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방식은 인간과 생태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도외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틴 쇼르Martin Khor는 이른바 '가난한' 국가 중 상당수가 본래부터 값싸고 풍성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 구실을 해왔다고 지적한다. 전통적인 어획 방식은 어종을 유지시키고 산란장을 보호하게 되어 있지만, 첨단장비를 이용하는 새로운 어업은 어족 자원의 보충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갈시키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제3세계의 소규모 어업 종사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는 한편, 생선 값이 계속 오른 탓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이상 생선을 사먹을 수 없게 되었다.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았던 곳이라도 '개발' 바람이 불면 그 지역의 환경은 눈 깜짝 할 사이에 황폐해질 수 있다. 필리핀 델 로사리오-산토스Filipina del Rosario-Santos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벌목률이 그대로 지속된다면 필리핀의 삼림은 불과 35년 뒤에는 사라진다고 한다. 이처럼 열대우림이 대규모로 파괴되면 표토가 심각하게 침식되고 종 다양성이 상실되며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생계를 삼림자원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인구 증가

구유럽을 포함한 전통 국가들의 인구가 수백 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는 사실은 대체로 간과되고 있다. 에드워드 골드스미스Edward Goldsmith는 이들 전통 사회가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몇 가지 방책과 터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한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문화는 주변 토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자원과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수가 토지의 부양능력에 알맞게 조절되는 데 한결 유리했다.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전통적인 패턴이 허물어진 뒤였다.

이런 인구 급증을 억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제개발을 가속화시켜 남반구도 북반구 수준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겉보기에는 이런 인식이 매우 합리적인 주장처럼 비친다. 전세계의 인구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더라도 산업화가 뒤진 지역은 인구 증가율이 높은 반면, 산업화된 지역의 증가율은 낮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이런 주장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북반구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세계 전체 인구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북반구 사람들이 세계 전체 자원의 약 5분의 4를 소비하기 때문인데, 이런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더구나 생물권은 현재와 같은 정도의 인간 활동으로도 이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반구가 북반구와 같은 수준의 소비를 누리려면 경제활동을 10배나 늘려야 하는데, 지구 생물권이 그런 활동을 계속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남반구에서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면 여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함으로써 가족과 가정에서 벗어나 취업할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가 많지 않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는 필요한 취업 훈련이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주장은 그런 현실을 무시한 것이다. 여성에게 서양식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개발추진 과정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과정이 지역에 바탕을 둔 다양한 경제운동을 허물어뜨리고 도시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론이다.

산업화 모델은 전세계 어디서나 그대로 모방해 쓸 수 있는 모형이 아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가능하다 할지라도 매우 심각한 사회 및 환경 문제, 즉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토양과 수질 오염, 기후 불안정 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모델을 전세계 어디에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문화적 쇠퇴

현대적인 교육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동안 이런 제도는 개발도상권 전역에서 널리 권장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생태계 안에서 살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반면, 서양의 학교는 서양식 도시환경에 알맞은 한정된 영역의 전문가를 기르게 길러낸다. 이런 교육방식으로는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주변 지역자원에 관한 축적된 지식을 어린이들이 습득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현대적인 교육은 지역 문화를 쇠퇴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부심마저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비서양 문화권에 속하는 많은 나라의 어린이들은 생활환경이나 자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을 배우는 일이 거의 없다. 그 대신 이들은 라다크Ladakh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워즈워스Wordsworth와 영국문 일리아드를 배우는 등 내용이 다소 빈약하기는 해도 뉴욕 시의 교과 내용과 별 다름없는 교육을 받는다. 에블린 홍Evelyne Hong은 말레이시아의 이스트 사라와크에서도 사정이 비슷해 문화적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개발과 현대화는 인위적인 '욕구' 창출을 통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소리 없이 손상시킨다. 미디어와 광고, 교육은 전세계에 걸쳐

산업화의 '풍족한 생활' 이라는 이미지를 넘어 전파한다. 현실적으로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그런 이미지 자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상대적으로 따분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빈곤하게 비치게 만든다. 전세계에는 각기 다른 문화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자부심과 자립심을 버린 채 '현대적' 편의 도구를 지니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제는 수입 시멘트와 포장되풍뿐만 아니라 반사형 선글라스와 고급 청바지, 랩보 티셔츠까지 '필요' 하게 되었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사람들도 사치품 소유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원의 고갈, 특히 열대 지역의 자원고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3세계의 엘리트층은 북반구 엘리트들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려는 경향을 드러내면서 심지어 자국에서 가져간 자원으로 생산한 값비싼 수입물품을 구매하기도 한다. 이들의 이런 소비 행태가 자국민을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 S. M. 이브라스S. M. Ibrahim는 제3세계 대부분의 대중운송 체계가 점점이 부적절한 상태인데도 제3세계 국가들은 자동차를 수입하고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데 수십 억 달러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지적한다.

발전의 허구성

'발전' 이라는 개념은 산업사회 이데올로기의 핵심이다. 사람들은 현대 기술과 경제 성장이 확대됨으로써 번영을 보장할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모든 국가는 결국 선진공업국들과 같은 길을 걸게 되리라는 점을 당연시한다. 개발에 대한 이 같은 1차원적 인식은 결국 여러 나라를 '앞선' 쪽과 '뒤진' 쪽으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된다. '후진' 이나 '저개발' 이란 딱지는 한층 현대적이거나 선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불러일으킨다. 지향하는 목표가 끊임없이 바뀌면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런 목표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불안정한 체제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자원의 한계와 현재와 같은 사회 · 환경상의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발전에 대한 믿음이 터무니없는 허구임을 알 수 있다. '현대적' 생활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는 제쳐하고라도, 단순히 자원은 전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나라의 소비패턴을 그대로 흉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부국들이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에도 역시 불충분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런 자원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신묘한 방법으로 기술혁신을 내세우지만 이 또한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이런 약속은 새로운 기술이 활용될 때마다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생태적 영향을 미치고, 또 당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 중 상당수가 과거 신의 은총인 양 떠받들었던 여러 가지 기술로 빚어진 '산물' 이란 사실을 잊추고 있다. 인류는 자연계를 이해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오히려 생활필수품을 얻기 위해 결국 기댈 수밖에 없는 대상은 기술이 아닌, 자연계의 여러 가지 작용인 셈이다.

전통적인 해결 방안

많은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가 현재의 개발 모델에 내재된 몇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요즘 대부분의 토론장에서 제시되는 해결 방안은 그런 문제점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의 미래」(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보고서로서 흔히 '브룬트란드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 로 불린다)는 빈곤을 줄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데 필요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환경상의 개선방안을 곁들이긴 했어도—여전히 경제 성장과 첨단기술에 다시 전력투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담당 조직은 (자급자족하는 지역공동체가 권한을 다시 회복하기보다는) 초국가적 기구로 권한이 넘어가는 것을 긍정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인다. 또 이런 조직은 서양식 초 · 중등학교와 대학교 설립에 전념하는데, 서양식 교육제도는 전문성에 역점을 두어 지역과 연관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게 만든다.

자유 무역

각국의 정부 지도자들은 '자유 무역' 을 세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볼 때 자유 무역 정책은 지방과 지역에 바탕을 둔 경제를 조직적으로 파괴함으로써—남반구와 북반구 양쪽의—대부분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지 못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다국적기업들이 가능한 한 규제를 덜 받는 가운데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시장을 개척하고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다국적기업이 남반구에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인건비가 싸고 환경상의 규제를 덜 받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공장과 기업농 영업활동을 개발도상권으로 옮기면 북반구의 실업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종사해온 일자리, 특히 농사 일자리도 빼앗기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과밀상태를 보이는 도시 지역으로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 농촌 지역은 한층 급속하게 공동화할 것이다.

자유 무역은 제3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자원 보호를 위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규제도 허물어뜨린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최근 급속하게 감소하는 삼림자원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책으로 인도네시아산 통나무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그러자 미국과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런 금수조치가 용납할 수 없는 무역장벽이라고 즉각 항의하고 나섰다.

전세계 모든 경제를 개방한다면 다국적기업들이 북반구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와 약품을 남반구에서 판매하기는 한결 수월할 것이다. 이미 제3세계는 북반구에서 생성된 독성 폐기물의 행선지가 되었는데, 자유 무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을 막으려는 노력도 어려워지고 있다.

마틴 코르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그는 우루과이라운드

가 북반구 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철폐의 확대를 예고한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여러 선진국들이 발의한 제안들에 따르면 앞으로 북반구의 서비스 산업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남반구로 마구 밀려들어 오게 된다. 이런 상황은 금융, 보건의료, 미디어, 통신 등의 서비스 산업 부문을 그 지역이나 국가가 관장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국적기업의 손아귀로 넘어 넘게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서구 미디어와 광고 활동이 조성한 이미지에 끌림없이 점하는 것은 곧 문화의 다양성을 손상시켜 사회적, 심리적 쇠퇴를 가져오는 요인 중 하나가 된다. '자유 무역'을 핑계삼아 이러 가지 조악은 문화를 손상시키는 이런 이미지의 유입을 거의 통제 또는 규제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기업 영농

단일 부문으로 산업개발 과정에서 농업만큼 크나큰 타격과 영향을 받은 곳은 없었다. 또한 농업이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탓으로 개발에 따른 변화의 영향은 그만큼 광범하게 미치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단순화된 방식으로 한정된 작목에 집중하는 형태의 서양식 영농 방식을 권장한다. 이 같은 영농기술—농기계와 교배 종자, 화학비료, 살충제 등—의 수출로 북반구의 관련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데, 경제 성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 남반구는 북반구 수출

품에 대한 의존도가 이처럼 커지더라도 농산물 증산으로 얻는 부가 그런 의존성을 메우고도 남는다는 그럴듯한 기대를 품게 된다.

그러나 농업 기술자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자연계의 복잡한 작용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교배종에서 나온 새로운 품종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재배된 특정 농작물의 다양한 품종과는 달리 생장 환경 속에서 점진적인 적응과 진화 과정을 거친 산물이 아니다. 이러한 품종은 기후와 해충이 끼치는 영향에 약하기 때문에 수확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비료와 살충제 사용량을 늘려야 한다. 결국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번영이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농토의 지력이 떨어지고 서양의 영농 기술에 계속 의존하며, 식량 공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생물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는 이런 과정이 가속화하고 있다. 유전자공학에서 활용되는 유전 관련 정보 중 상당수는 본래 남반구에 있는 야생 또는 재배 대상 식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걷어간 (식물) 자원 중 일부는 '특허'란 이름을 달게되 남반구로 다시 판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해마다 새로운 종자와 비료, 살충제를 사들여야 한다. 농약회사들은 그들이 만들어 낸 살충제에 내성을 지닌 농작물을 유전자 공학의 방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이처럼 함부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행위가 장기적으로 생태계에 어떤 위험을 끼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조작으로 얻는 경제상의 결실 때문에 초국가 기업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방법

변화를 위한 방법은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파괴적인 추세에 대처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더욱 긍정적인 대안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은 접근 방식도 서로 다르다. 산업화 방식의 단일화industrial monoculture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막는 '변모개발'은 지역이나 국가별, 그리고 국제적으로 신속하고 대규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지속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실행하는 일은 서서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또 지역에 따라 그 양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남반구는 생활방식이 아직도 전통적인 모습과 생태환경에 민감한 패턴을 보이는 만큼 많은 지역이 지속 가능한 독자적인 장래를 기약할 수 있는 씨앗이 남아 있는 셈이다. 도시화의 수준이 높은 북반구에서는 단단한 지역 경제와 사람 중심의 활기찬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일이 훨씬 큰 과제가 될 것이다. 남반구는 아직도 촌락 중심의 주거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한층 온전한 생활방식으로 이끄는 역할은 아마도 남반구에 달려 있는 듯하다.

기술—경제 중심 모델에 대한 도전

반개발 전략에서 중요한 것은 북반구의 환경 악화와 사회적 문제를 실상 그대로 널리 알리는 일이다. 특히 이런 사실은 남반구에까지 널리 알려져야 한다. 남반구에는 '현대적'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스테파니 밀스Stephanie Mills는 미국에서 나타난 그릇된 개발의 여러 가지 영향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야말로 남반구의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남반구 출신 중 선진 공업국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의 증언은 그릇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윤세무에 비지마나 박사는 서양 세계 생활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실제로 그곳에 살면서 알게 된 정도를 훨씬 웃돌았고, 또 서양 세계의 체험을 통해 자신의 조국 코란다의 해체 상태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한다.

북반구 사람들도 남반구 삶의 실상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개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개발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제3세계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기는커녕, 이들이 도저히 이해해볼 수 없는 국제 경제 및 정치의 요인들에—심신 양면으로—의존하게 만듦으로써 대체로 이들을 빈곤하게 만드는 구실을 했다.

현행 세계 질서 속에서 특혜를 누리는 북반구 지식계층은 변화를 일으킬 각별한 책임이 있다.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 남 · 북반구 소외계층보다 활용할 방편도 훨씬 많고 영향력도 훨씬 더 크다. 또 북반구의 민주 국가들은 종종 나라나는 남반구의 독재 국가들보다 시민들의 압력에 한층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남 · 북반구 사람들이 상호 연계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면서 서

요건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독창적인 방법은 많이 있다. 실비아 리베이로Silvia Ribeiro와 비르지타 렌펠트Birgitta Wrenfelt는 '스웨덴 지구의 미래Future Earth Sweden'가 비슷한 사회-생태적 이슈들을 붙잡고 씨름하는 여러 풀뿌리 단체들과 손잡고 활동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지역적 자립화에 바탕을 둔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원하고 생각이 같은 단체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며,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과 대안적 개발 같은 이슈에 관한 교육을 시킨다.

현재 정보를 관리하는 권한은 정부와 대기업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조직은 현행 체제를 영속화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따라서 대안적 관점과 분석은 걸러지고, 개인의 인식과 체험은 평가절하되며, 또 중요한 사태와 이슈 중 상당수가 한 번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많은 비용이 들고 중앙집중적 조직화가 불가피하기는 해도 소규모 풀뿌리 조직의 원칙에 부합하는 활동은 대안 미디어를 통한 대규모적인 캠페인이다. 개발이라는 불가항력적 움직임을 저지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이 싹트고 자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데에는 대규모적인 홍보 활동밖에 없을 듯하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식량농업기구FAO,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몇몇 국제기구의 방침은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도 이런 기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민주적이지 못하고, 또 일반 대중의 의견을 수렴할 진정한 의미의 토론장도 갖추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런 기구를 개혁하고 나아가 지속 가

능한 환경과 사회 정의를 지키겠다는 공식 선언을 그대로 지키도록 강요하는 캠페인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활동이 이루어지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에콜로지스트The Ecologist'이라는 단체가 FAO의 방침과 정책의 지속 불가능성을 폭로하기 위해 사회운동가들을 모아 조직한 네트워크와, 세계은행이 인도 나르마다 댐 지원을 포기하도록 설득해 성공을 거둔 수십 개 풀뿌리 조직의 일치된 노력, 그리고 세계은행과 IMF를 대상으로 전세계 사회운동 단체들이 참여해 전개한 '50년이면 족하다50 Years is Enough'라는 이름의 캠페인 등이 있다.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가 동료들과 함께 종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벌인 노력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WTO와 FAO 같은 국제기구는 현재 다국적기업들로부터 유전자 자원이 (지역이나 국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 자원이 아닌) '전인류의 자원'임을 인정해달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북반구가 이런 원료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다. 시바와 동료들은 이런 요구에 맞서 '일반 대중의 종 다양성 보존 실행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계획은 유전자 자원의 지역 및 국가별 관리를 인정하고, 이 분야와 관계된 국제기구들의 활동을 감시·분석하며, 영농과 삼림자원 활용 과정에서 종 다양성의 재생·보전을 권장한다.

이 책에 글을 쓴 사람들은 산업화 방식의 단일화 과정에 반대하는 그밖의 다양한 활동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반다나 시바는 1970년대에 시작된 칩코Chipko 운동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운동은 히말라야 일대에서 벌어지던 대규모 상업 벌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소규모의 여러 산기슭 지역 사람들이 나서서 히말라야 일대 몇몇 삼림 지역의 파괴를 지연시키는 데 성공했다.

•'유럽공동체EC에 반대하는 노르웨이환경정치공동체NOFF' 회원들은 EC 가입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이를 관철시켰다. 이들은 EC 가입이 지속 불가능한 개발 패턴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노르웨이 특유의 문화를 잠식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다.

•마틴 코르와 모하메드 이드리스Mohamed Idris는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의 영향에 관해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 '자유 무역' 협정은 전세계 구석구석을 초국가기업들의 수익원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우루과이라운드가 남·북반구 간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전세계적인 천연자원 고갈을 촉진시킬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 모델을 거부하는 운동이 가능한 한 폭넓은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정 이슈를 목표로 삼는 압력단체들도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런 단체들도 기본적으로 '한층 폭넓은 상황'을 이해하면서 활동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추진되는 댐 건설이나 특정 열대우림의 벌목을 막는 일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대규모 댐 건설이나 열대우림의 벌목이 '대체로 지속 가능성이 없는' 이유를 널리 알리는 대중 교육용 자금을 확보하는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개별적인 활동을 한층 폭넓은 시각에 비춰 판단한다면 반개발 메시지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에서 지향하는 목표가 유사한 개인과 단체들이 서로 손잡고 같은 목소리를 내도록 권유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그 영향력 또한 매우 커질 것이다. 또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과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뛰는 사람도 서로 제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니콜라스 힐드야드Nicholas Hildyard의 표현대로 '해방 생태학liberation ecology'이라는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 대안의 육성

우리가 지속성 있는 삶의 방식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산업화 방식의 단일화를 통해 식민지화가 확대되는 것에 맞서야 하지만, 이는 필요한 전략의 반쪽밖에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기술-경제 구조에 맞추기 위해 자연—과 인간의 필요—을 조정하기보다는 자연계에 적응하고자 한다면 규모를 줄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접근 방식의 밑바탕에는 자연계를 통제하고 조

작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 경향이 깔려 있다. 우리는 기술적 오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생명체와의 영적인 친교를 권장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연과 더욱 친밀해지고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일과 놀이를 하나로 연결시킨다면 물질적 소유물을 끌어 모으는 식으로 채우려 하는 정서적, 정신적 공허감도 사라질 것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다.

•에르니Erni와 올라 프리홀트Ola Friholt는 스웨덴의 조그만 어촌인 스토렌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복원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개인 소비 수준을 1950년대 수준으로 낮추며, 또 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활용하는 카페를 운영한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체제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남으로써 지역 기반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애쓰고 있다.

•마르타 프리츠Marta Fritz는 스웨덴에서 계속 확대되는 '생태마을eco-village' 운동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공동체는 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독성이 없는 건축자재를 활용한다. 또한 이런 생태마을은 주류 문화의 일반적 흐름(스톡홀름 주택 중 65%는 한 집에 한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다)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자 애쓴다.

•스테파니 밀스는 폭넓은 기반을 갖춘 '생태지역 운동bioregional movement'에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은 미국 내 여러 생태지역의 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녀는 산업화 모델의 단일화로 허물어진 생태계의 복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정기술

남반구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은 자국이나 지역별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의 소규모성'과 '지역 분산성'을 권장한다. 라다크 프로젝트Ladakh Project와 토착적인 라다크생태개발그룹LEDeG은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다수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전통적인 수력 이용 방식도 확대시켰다. S. M. 이드리스와 마틴 코르는 페낭소비자협회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적정기술을 홍보하고 뒷받침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만 싱Aman Singh은 인도 라자스탄에서 현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발로 무시되고 과학 '전문가들'에게 경시된 실효성 있는 소규모 기술을 되살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거저 쓸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원이 남반구 여러 지역에 풍부하지만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자국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공업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기술이 화석 연료나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적 에너지원과 경쟁을 벌일 수 없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이 수십 년 동안 인프라 투자 형태의 보조금으로 이득을 보고, 또 환경에 끼치는 피해도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은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이 중앙집중적 에너지 기술에 몰래 지급하는 직접적인 보조금은 한 해 500억 달러를 훨씬 웃돈다. 사회와 환경상의 균형을 회복시킬 만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현상황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지방 분산적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수많은 태양열과 소규모 수력·풍력 발전 기술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 같이 지방 분산적 주거 패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식량과 에너지 같은 기본적 수요를 지방이나 지역별로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운송비는 대폭 절감될 것이다. 또한 인프라 건설과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대안

자연계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생활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서양의 교육은 학문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협소한 영역에 한정시키는 식의 과도한 전문화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양의 여러 이름 높은 고등교육 기관은 요즘 전문화된 교육의 한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몇몇 분야에서 여러 부문에 걸치는 접근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애든버러 대학의 인간생태환경그룹Human Ecology Group과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너지자원그룹Energy and Resources Group은 과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식으로 완전히 분리됐던 학문 분야 간의 장벽을 넘어 현실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복잡성을 실상 그대로 한층 가깝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대학들은 교육 방식 면에서 이보다도 더욱 급속히 변화했다. 영국의 슈마허 대학이 두드러진 사례인데, 이 대학은 계량적이면서 기계적인 세계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욱 총체적이면서 정신적인 학문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통합학문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가 동서양의 사상과 가치체계를 종합하는 분야의 학위과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시애틀의 안티오크 대학은 총체적인 '시스템'식 관점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과 탈산업화 가치관의 종합

공업화를 이룬 북반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산업화 체제에 의존해온 탓으로 대부분 지난날의 전통과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방식의 씨앗은 뿌려지기 시작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과 분쟁 해결을 돕는 중재 활동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구식인 것과 가장 현대적인 것 사이에서 두드러진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있고, 또 건강

자라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기본적 경양이 깔려 있다. 우리는 기술적 오만에 빠지지 말고 모든 생명체와의 영적인 친교를 권장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연과 더욱 친밀해지고 공동체와의 유대를 강화하며 일과 놀이를 하나로 연결시킨다면 물질적 소유물을 끌어 모으는 식으로 메우려 하는 정서적, 정신적 공허감도 사라질 것이다.

이 책의 필자들은 다음과 같은 계획을 만들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이다.

*에르니Erni와 올라 프리홀트Ola Fribolt는 스웨덴의 조그만 어촌인 스토랜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방식을 복원하고자 애쓰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개인 소비 수준을 1950년대 수준으로 낮추며, 또 주로 현지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활용하는 카페를 운영한다. 이들은 글로벌 경제 체제로부터 의식적으로 벗어남으로써 지역 기반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애쓰고 있다.

*마르타 프리츠Marta Fritz는 스웨덴에서 계속 확대되는 '생태마을eco-village' 운동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공동체는 물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며, 독성이 없는 건축자재를 활용한다. 또한 이런 생태마을은 주류 문화의 일반적 흐름(스톡홀름 주택 중 63%는 한 집에 한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다)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키워나가고자 애쓴다.

*스테파니 밀스는 폭넓은 기반을 갖춘 '생태지역 운동bioregional movement'에 참여하고 있다. 이 운동은 미국 내 여러 생태지역의 다양성과 생태적 안정성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녀는 산업화 모델의 단일화로 허물어진 생태계의 복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적정기술

남반구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체들은 자국이나 지역별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의 소규모성'과 '지역 분산성'을 권장한다. 라다크 프로젝트Ladakh Project와 토착적인 라다크생태개발그룹LEDeG은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다수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했고, 전통적인 수력 이용 방식도 확대시켰다. S. M. 이드리스와 마틴 코르는 페낭소비자협회와 함께 말레이시아의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적정기술을 홍보하고 뒷받침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아만 싱Aman Singh은 인도 라자스탄에서 현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개발로 무시되고 과학 '전문가들'에게 경시된 실효성 있는 소규모 기술을 되살리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적정기술에 대한 지원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거저 쓸 수 있는 태양열 에너지원이 남반구 여러 지역에 풍부하지만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태양에너지를 자국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삼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공업화를 이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런 기술이 화석 연료나

원자력과 같은 중앙집중적 에너지원과 경쟁을 벌일 수 없다. 화석 연료와 원자력이 수십 년 동안 인프라 투자 형태의 보조금으로 이득을 보고, 또 환경에 끼치는 피해도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면은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이 중앙집중적 에너지 기술에 몰래 지급하는 직접적인 보조금은 한 해 500억 달러를 훨씬 웃돈다. 사회와 환경상의 균형을 회복시킬 만한 희망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현상황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지방 분산적 형태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인프라를 촉진시키는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수많은 태양열과 소규모 수력·풍력 발전 기술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다 같이 지방 분산적 주거 패턴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식량과 에너지 같은 기본적 수요를 지방이나 지역별로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오늘날과 같은 운송비는 대폭 절감될 것이다. 또한 인프라 건설과 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을 절감해 지역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문의 대안

자연계에 의존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이 생활환경을 이루는 다양한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서양의 교육은 학문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협소한 영역에 한정시키는 식의 과도한 전문화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서양의 여러 이름 높은 고등교육 기관은 요즘 전문화된 교육의 한계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면서 몇몇 분야에서 여러 부문에 걸치는 접근 방

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든버러 대학의 인간생태환경그룹Human Ecology Group과 버클리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에너지자원그룹Energy and Resources Group은 과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식으로 완전히 분리됐던 학문 분야 간의 장벽을 낮춰 현실 세계의 상호 의존성과 복잡성을 실상 그대로 한층 가깝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대학들은 교육 방식 면에서 이보다도 더욱 급속히 변화했다. 영국의 슈마허 대학이 두드러진 사례인데, 이 대학은 계량적이면서 기계적인 세계 인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더욱 총체적이면서 정신적인 학문 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통합학문대학California Institute of Integral Studies가 동서양의 사상과 가치체계를 종합하는 분야의 학위과정을 마련해두고 있고, 시애틀의 안티오크 대학은 총체적인 '시스템'식 관점으로 다양한 분야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전통적 가치관과 탈산업화 가치관의 종합

공업화를 이룬 북반구 여러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산업화 체제에 의존해온 탓으로 대부분 지난날의 전통과는 단절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활방식의 씨앗은 뿌려지기 시작했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과 분만 체험을 돕는 중재 활동과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가장 구식인 것과 가장 현대적인 것 사이에서 두드러진 유사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점차 많은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있고, 또 건강

이야에 땅 한 방울 나지 않았다. 그러니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미지

개발로 밀어닥친 것은 관광객만이 아니었다. 서구와 인도 영화, 그리고 최근에는 텔레비전까지도 들어왔다. 관광객과 이런 미디어는 사치와 과시에 대한 이미지를 강렬하게 전달하고 있다. 수많은 도구도 있고, 신기하고 교묘한 기계장치도 많다. 또한 사진을 찍거나 시간을 알려주는 기구, 불꽃을 만들거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 주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사람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기구도 있다. 기구는 사람 대신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관광객들이 그렇게 깔끔하고 손도 그렇게 매끈하고 뽀얀 것이다.

갖가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부유하고 아름답고 풍감한 쪽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의 삶은 걱정없는 활력과 매력으로 넘친다. 라다크의 젊은이들은 이런 모습에 완전히 매료된다. 이 모습은 도시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결정판이다. 스피드와 젊음, 더할 수 없는 청결함, 아름다움, 패션, 경쟁상에 역점을 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인 것이다. '발전' 또한 역점의 대상이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가운데 기술적인 변화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받아들여야 한다.

다른 문화권이 조성하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이미지와는 대조적으로 촌락의 삶은 원시적이고 구차하며 비능률적으로 비친다. 현대적인 삶을 1차원적으로 인식하다보니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진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밤에 나가 일하고 또 온별이가 거의 또는 전혀 안

되는 일로 손에 흙을 묻히는 식의 생활방식을 따르도록 권하지만 라다크의 젊은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전통적인 라다크의 모습을 관광객과 영화 주인공의 세계와 비교해보면 우스꽝스럽게 비칠 뿐이다.

남반구 전역의 농촌 지역에서는 이와 똑같은 양태가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농촌 지역의 수많은 젊은이들은 현대적인 서양 문화가 그들 자신의 문화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일이다. 이들처럼 바깥에서 바라보면 현대화된 서양 세계는 물질적인 측면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양 문화가 장점을 지닌 것이 그 부분이기도 하다. 이들의 눈에는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사회 또는 심리적 측면은 잘 보이지 않는다. 환경 악화와 실업, 인플레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와 달리 그들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 한계와 결점을 포함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

라다크나 남반구의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서양의 영향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일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열등감을 느낀다. 이들은 자신의 문화를 모조리 부정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열을 올린다. 그리고 현대성의 상징으로 선글라스나 워크맨, 블루진을 갖겠다고 서둘다. 청바지가 더 보기 좋거나 편안해서가 아니라 현대적인 삶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입겠다는 식이다.

라다크에서는 현대성의 상징물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성도 더해간다. 이제 젊은이들은 영화 속에서 멋지게 묘사된 폭력을 즐긴다. 이들은 서양의 영화를 통해,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자 한다면 담배

를 연거푸 피우고 속력이 빠른 승용차를 운전하며 시끌벅적 정주하듯이 달리면서 파우로 총을 난사해야 한다는 식의 인상을 쉽사리 받는다!

내가 아는 라다크 젊은이들에게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려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다. 이들이 모두 폭력적인 행태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화를 잘내고 경거망동하거나 포한 것은 분명하다. 사람들이 심지어 젊은이들조차 이기를 꼭 갈어안거나 할머니에게 따뜻한 정을 보이는 일을 조금도 부끄럽거나 쑥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차분하고 부드러운 품성과 문화가 이처럼 변한 것이었다.

서양식 교육

지식을 폭넓고 깊이 있게 쌓아나가는 교육의 진정한 가치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제3세계의 교육은 이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되어버렸다. 교육이 어린이들을 그들이 자라온 문화와 자연으로부터 떼어놓은 채 서구화된 도시 환경에 알맞은 쪽 좁은 전문가로 키워나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라다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학교 교육이 거의 눈가리개나 다름없는 구실을 하면서, 어린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들 어린이는 학교를 마치더라도 주변의 자원을 활용하거나 자신이 사는 세계에서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

수도원의 종교 수련을 제외하면 라다크의 전통적인 문화 구조

속에는 '교육'이라 부를 만한 별도의 과정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대신 교육은 개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및 생태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어린이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 가족, 친구 들은 물론 자연계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은 파종일을 거들면서 마을 한쪽이 기온이 약간 높고 반대쪽은 기온이 약간 낮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린이들은 또 경험을 쌓아가면서 보리의 종종을 가려내는 것은 물론, 종종마다 적합한 재배조건이 다르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배우게된다. 또한 야생식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이름과 사용법을 익히며, 또 멀리 떨어진 산비탈에 있는 동물도 가려낼 수 있도록 배웠다. 이들은 상관성이나 과정, 변화에 대해 배우고 또 변동없이 얽히고설킨 채 끊임없이 변동하는 주변 자연계의 상황을 익혔다.

오랜 세대에 걸쳐 라다크 사람들은 의복과 주거지를 스스로 마련하는 방법을 익히면서 자랐다. 즉 돌소 가죽으로 신을 만들고 양털로 옷을 짓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교육은 현지 사정에 알맞고 또 현실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졌다. 라다크의 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직관적 인식을 심어줘 이들이 성장하면서 주변 자원을 효과적이면서 지속적인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지식은 그 어느 것도 현대적인 학교에서 제공할 수 없다. 어린이들은 생태 중심적이라기보다는 기술 중심적인 그런 사회에서 전문 분야나 아는 사람으로 양성되고 있다. 오히려 학교는 전래적인 기능이나 숙씨를 외면하는 곳이자, 더 고약하게는 그런 기능을

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마을에서 관개 수로를 손보는 일은 마을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다. 그래서 수로가 터져 물이 새면 곧바로 사람들이 삽을 들고 몰려가 손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관개 수로 보수를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수로에서 물이 새더라도 정부가 보수할 때까지 그대로 내버려둔다. 정부가 나서서 마을 일을 처리해주면 해줄수록 마을 사람들의 상조하는 마음은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라다크 사람들은 과거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라다크에 기근이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나에게 말하곤 했다. 그동안 나는 '롱보스 자보스', 즉 '마실 것도, 먹을 것도 넉넉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런데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뀐 부분에서는 요즘 이런 소리가 자주 들린다. "개발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 우리에겐 넉넉한 것도 없었다."

미디어를 통한 문화의 집중화 현상도 커지는 불안감과 이런 피동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촌락의 삶은 춤과 노래, 연극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활동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참여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둥글게 둘러앉은 자리에서는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까지 형이나 누나의 도움을 받으며 춤을 추었다. 노래를 부르고 어릿광대짓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법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제는 라다크에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사람들은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없다. 그냥 앉아서 최고

의 가수나 만담꾼의 노래나 재담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내성적이 되었고 수줍음을 타고 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이웃이나 친구—노래는 더 잘 하지만 아마 춤 솜씨는 자신만 못할 사람—에 견주지 않는다. 또한 그 누구도 라디오에 출연한 스타들만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한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기보다 무료하게 앉아 스타들의 노래에나 귀를 기울이다보니 마을 공동체의 유대도 온전할 리 없다.

인공적인 욕구

라다크 사람들은 관광객 새도와 현대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전만 해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었다. 따라서 개발 따위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 내가 밀려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되풀이해서 물었을 때도 이들은 현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보다는 가끔씩 현대화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곧 연결 도로가 건설될 오지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와 관련해 기껏 해줄이 엇갈리는 감정을 드러낼 뿐이었다. 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1975년 스타그로 마을 사람들이 이웃 여러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다고 법석을 떨던 상황을 비웃었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들은 그토록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얻은 것이 이처럼 어이없을 정도로 하잘것없다니, 정말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천장에 전구 하나 달랑 매달아놓는데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할 가치가 있을까?"

그로부터 2년 뒤 같은 마을을 찾았을 때 마을 사람들이 나에게 한 첫마디는 이런 것이었다. "불도 밝히지 못하고 사는 이런 낙후된 마을에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가?" 농담조로 말을 했지만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음은 분명했다.

이들은 자존심과 자부심이 흔들리기 전에는 문명화를 입증하기 위해 굳이 전기 따위가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안 되는 기간에 개발 바람이 불면서 이들의 자부심이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전기는 물론, 콘크리트 벽과 플라스틱 제품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이 손목시계를 차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들은 시계를 볼 줄도 시계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또한 현대적인 모습으로 바지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까지 배척하고 있다. 전통적인 음식까지도 이젠 더 이상 자부심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이제 내가 어느 마을을 찾아가면 사람들은 인스턴트 국수 대신에 (전통 음식인) 온갖 채소를 대접해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라다크에 밀어닥친 현대화 바람은 사람들의 개성까지 앗아가고 있는 듯하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면서 이상화된 이미지, 즉 아메리칸 드림을 따르고 이에 맞춰 살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이와 달리 전통적인 마을의 경우, 외지인이 보기에 복장이나 얼굴 생김은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더욱 여유가 있고 느긋하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 별로 거리낌이 없는 듯하다. 이런 마을 사람들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듯으로 개성을 드러내는 데 거침이 없다.

지역사회라의 경제적, 정치적 유대가 끊어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점차 낯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생활의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성이 커져 친숙한 관계조차 피상적이 되고 단기간으로 끝나게 된다. 사랑 간의 유대는 대체로 결혼에로 바뀐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라 소유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람의 모습은 의복과 소지품의 뒤편으로 사라진다.

분열되는 인간관계

내가 라다크에서 목격한 갖가지 변화 중에서 어쩌면 가장 비극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개개인이 느끼는 불안감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유대감을 약화시키고, 다시 이런 일이 개인의 자부심을 되돌리는 식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비 집착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물질로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욕구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인정과 용인을 받겠다는 생각이 소유물, 즉 자신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 그런 소유물을 취득하려는 욕구를 부채질하는 것이다. 물론 그 자체에 마음이 끌리기보다는 바로 이런 점이 훨씬 큰 동인이 되는 셈이다.

사람들이 남의 부러움과 존중, 그리고 결국에는 호의와 공경을 받게 하는 그런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그러나 나중에 이런 물건은 거의 물질없이 역효과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은 가장 먼저이는 새 승용차를 사들인 사람과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들에게 용인되고자 하는 당지의 욕구는 커지기 마련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더욱 유리되고 분리되는 악순환이 자리 잡게 된다.

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분열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남녀와 노소 간은 물론, 넉넉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에, 불교도와 회교도 간에도 틈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마 가장 큰 틈새를 보이는 것이 교육을 받은 현대적 감각의 전문가들과 같을 때우지지 못한 '낙후된' 농부 사이일 것이다. 현대화된 (중심도시) 태의 주민들은 그대로 농토에 묻혀 사는 자신의 친척들보다는 멀리나 캘커타에서 온 사람들과 더 비슷한 점이 많다. 이들은 별로 현대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다. 현대화된 지역에서 사는 자녀들은 이제 부모나 조부모와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탓으로 쓰는 말조차 다르다. 즉 우르두어나 영어로 교육을 받는 탓에 토착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낳아, 가정 남자는 가족을 시골에 남겨둔 채 현대적인 경제구조 속으로 뛰어들어 돈을 번다. 남자들은 가정 바깥에 있는 기술 중심적 사회생활의 일원이 됨으로써 생산활동을 하는 사회의 유일한 구성원이 된다. 라다크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일이 점차 뚜렷하게 구별됨으로써 남녀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여성은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구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은 더 이상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들이 하는 일은 GNP를 산출할 때 포함되지도 않는다. 직업별 분류에 따라 정부 통계에 잡히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부문에서 일하는 라다크 인구의 10% 정도뿐이다. 주부와 전통적인 의미의 농민들인 나머지 90%는 모두 '비노동자'로 분류된다. 농민과 주부는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는데다, 이들 자신도 불안감과 함께 스스로 무능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나는 지난 여러 해에 걸쳐 거세고 파괴적인 라다크 여성들의 모습이 그와 다른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이들 새로운 세대의 여성은 자신감이 없으면서 외양에 극도로 신경을 썼다. 그 전에도 여성이 남에게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중요시되었지만, (예전보다는) 포용력과 사회성을 포함한 능력이 훨씬 큰 평가를 받았다.

남성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가족 및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감이 깨진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남성은 다른 무엇보다도 자식과 긴밀하게 접촉하지 못한다. 젊을 때는 강한 남성적 이미지 때문에 애정 표현을 하기 어렵고, 나이 들어서는 일에 파묻혀 가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젊은층과 노년층 간의 유대 단절

전통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은 부모와 끊임없는 접촉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나이가 많아 형이나 언니뻘이 되는 족이 동생뻘 되는 족을 챙기는 식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었다. 나이 어린 족은 형이나 언니를 존중하고 감탄하면서 이들의 모습을 닮고자 했다. 성장은 이처럼 경쟁심이 작용하지 않는 자연스런 학습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연령별로 모여져 있다. 이런 식의 연령별 분류는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을 같은 연령별로 나눠 놓음으로써 서로 도움이나 배움을 나눠 가질 수 있는 능력이나 기회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 그 대신 서로 경쟁을 벌일 조건이 자동적으로 조성된다. 모든 학생들이 저마다 곁에 있는 학생만큼 잘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다. 연령이 각기 다른 학생 10명이 한 그룹이 되는 경우가 12살짜리 10명이 한 그룹이 되는 경우보다 서로간의 협력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

연령대별로 나누는 것이 학교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제 어디에서나 또래끼리만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노년층과 젊은층이 서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시골에 그대로 파묻혀 있는 조부모들과 만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몇몇 전통적인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들과 맺고 있는 끈끈한 정을 엿보았다. 이런 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자연스런 관계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이런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다.

비슷한 압력들이 전통적인 가족을 해체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은 서양식의 핵가족제가 일반적인 것인 양 인식되고 있다. 라다크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구증가를 막는 문화적 요소 중 하나였던 전통적인 일처다부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이 일처다부제를 버리고 일부일처제로 기울어지면서 인구는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독신의 수도승이나 수녀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수도생활에 대한 사회적 존중도 약화되고 있다. 이런 점도 인구를 늘리는 데 한 몫을 한다.

종족 분쟁

종교문제도 많은 라다크 사람들은 출생률 상승을 현대적인 민주주의의 도래와 연결시킨다. "과부는 곧 투표수의 문제다"라는 것이 요즘 흔히 들을 수 있는 슬로건이다. 현대적인 영역에서는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권력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새로운 중앙집중적 조직 안에서는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시키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경쟁이 라다크 사람들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부족과 종교상의 차이가 정치적 세력을 띠면서 대립과 질시는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화되고 있다.

이 같은 대립과 경쟁은 내가 라다크에서 목격한 분열상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축에 든다. 이런 대립은 종래의 독실한 신앙이 약화된 정도만큼 반비례해서 강화되었다. 내가 라다크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불교도와 회교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

러나 그 이후 몇 년도 안 되어 경쟁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폭력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처음에는 교도 간의 개별적인 다툼이 벌어진 정도였지만 1986년이 되면서 집단 간의 긴장 조짐이 처음 눈에 띄었다. 잘 아는 라다크인 친구들이 불교도와 회교도를 가려가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여기저기에서 삐걱대는 소리가 들리다가 1989년 여름에 갑자기 두 종교집단 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레의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라다크 여러 지역에 야간통행 금지령이 내려졌다.

그 이후 노골적인 대립은 가라앉았지만 불신과 편견은 그대로 지속되어 양쪽의 관계를 크게 손상시켰다. 폭력과 불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이 사태는 뼈아픈 체험이 되었다. 어느 회교도 여성은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태 때문에 우리 집안은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다. 몇 사람이 불교도와 회교도로 나뉘어 있는데 이젠 서로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라다크 사람 전체의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동을 빚은 직접적인 원인은 불교도 쪽에서 회교도가 지배하는 지방정부가 회교도를 우대하는 대신 불교도를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회교도 쪽에서는 다수파인 불교도가 정치적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소수파인 그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고 조바심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폭력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뿌리가 훨 광범하게 뻗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라다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그곳에서만 벌어지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슈미르의 회교도와, 힌두교도가 지배하는 델리의 중앙정부 간 긴장관계는 물론, 힌두교도와 부탄의 불교도 정부, 네팔의 불교도와 힌두교 정부 간의 긴장과 그밖에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비슷한 형태의 수많은 소동은 모두 한 가지 근본적인 원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현재와 같은 형태의 개발은 중앙집중성이 강해 농촌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대도시 지역으로 몰려들게 만들고, 또 권한과 의사결정을 소수의 사람에게 쥐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중심부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도사리고 공동체로서의 유대감도 해진 상태인데다, 서로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심하다. 현대화된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은 치열한 생존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나 종족상의 차별성이 과장되고 배격되는 현상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더구나 권력을 잡은 집단은 혼히 같은 부류를 감싸게 되고, 또 다른 쪽이나 반대쪽은 차별을 받는 일이 잦아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적, 종교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남반구에서는 현대화가 이런 대립과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일부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즉 개발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해소되고, 또 종교

적인 색채가 완전히 가신 사회가 조성되면 그런 현상은 자연스레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서양 사람들은 온갖 제약과 구속을 없애주는 민주주의의 영향 때문에 공공연한 종교적 대립과 부족 간 차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이런 충돌의 불씨가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억누르지 않으면 곧바로 불붙는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런 충돌의 원인을 흔히 현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식하는 이유는 쉽게 알 수 있다. 분명 부족 또는 인종 간 대립과 말썽은 식민주의와 현대화 이전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나 나는 인도에서 20년 가까이 직접 겪어본 뒤에야 '개발' 과정이 그런 긴장과 대립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런 현상을 직접 조성하는 경우도 적잖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개발은 인위적인 결핍을 자아내는데, 이런 결핍은 필연적으로 경쟁을 격화시키게 된다. 또한 개발은 사람들에게 서구의 이상적인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금발과 파란 눈, 아름답고 부유한 것으로 상징되는 이런 표준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상적 표준에 맞추고자 안간힘을 다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문화와 뿌리를 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셈이다. 그 결과 소외감과 원망,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는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폭력과 근본주의가 크게 대두되는 것이 이런 과정의 산물이라고 확신한다. 선진공업권 사람들은 화려하고 매혹적인 미디어 및 광고 이미지가 개인의 자부심에 미

치는 악영향을 점차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식욕감퇴와 이상 식욕항진과 같은 섭생상의 질환에서부터 고기의 '살점' 운동화나 의상 때문에 폭력행위를 저지르는 일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남반구처럼 현실과 서양의 이상적 표준 간의 괴리가 워낙 큰 곳에서는 심리적 영향도 그만큼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옛 문화와 새로운 문화

전통사회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 개발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얼마간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맺고 있는 매우 중요한 관계, 즉 토지와 다른 사람 또는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개발은 달리 보이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옛것과 새것의 차이는 두드러져 보이면서도 다소 혼란스럽게 비친다. 자연 환경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사회는 여러 가지 결함과 제약이 있는데도 사회적,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그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인간과 환경 간의 대화, 즉 지난 2천 년 동안 온갖 시행착오를 거치는 동안에 문화가 잘잘못이 변화함을 의미하는 지속적인 공진화共進化의 결과였다. 라다크 전통 불교의 세계관은 변화를 장조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온갖 현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랜 문화는 자연적인 제약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그대로 만족했다. 이 때문에 재구실을 할 수 있었다. 자연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을 위해서도 그러했다. 전통적인 구조 속에서

상호 연관성을 지닌 다양한 관계는 서로 버팀목 구실을 하면서 조화와 안정을 이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친구들이 극적일 정도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전통사회의 상호 유대와 책임감이 짐이 되기는커녕 마음 든든한 느낌을 주었으리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마음 든든함은 내적인 평안과 만족스러움을 주는 필요조건인 듯하다. 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처지보다는 개발 이전의 삶에 훨씬 큰 만족감을 느꼈다고 확신한다. 또한 어느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로서 한층 중요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사회적 측면으로는 사람들의 복리이고 환경적 측면에서는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발된 새로운 라다크는 이런 기준에 비춰볼 때 성과가 형편없다. 현대적인 문화는 온갖 환경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될 것이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문화가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개개인의 정체성을 좀먹고 있다.

내가 구미 지역에서 강연을 할 때면 사람들이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을 통해 만면에 함박웃음을 짓는 라다크 사람들의 모습이나 또 현대화한 부문의 천박성이나 정신적 빈곤과 대비되는 전통예술, 건축, 경관의 아름다움을 살펴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품게 된다. "라다크 사람들이 어쩌다가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이들이 분명 변화를 원했고, 또 전통 문화를 내던질 마음을 갖게 만든 어떤 결함이 그 속에 있

었던 게 분명하다. 그런 문화와 삶이 그렇게 바람직할 리는 없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내가 라다크에 도착했을 첫해부터 그 지역의 토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라다크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다면 나도 이런 사람들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살펴본 라다크 사람들은 모두가 만족스런 삶을 누리고 있었다. 이들은 정말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 내가 영국에는 불만과 불행을 느끼는 정도가 지나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적잖다는 이야기를 하면 라다크 사람들은 예외 없이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다. 입을 딱 벌린 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런 일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이들에겐 당연한 일이었다.

라다크 사람들이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다면 쉽게 할 수 있었다. 레는 수백 년 동안 아시아 횡단 무역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라다크 사람들은 순례객이나 무역업자로 머나먼 곳을 다녀오면서 외국의 다양한 문화와 접하게 되었다. 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물을 흡수해 자신의 문화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흡수는 다른 문화를 통째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성격이 전혀 달랐다. 중국에서 누군가가 레를 찾아왔다고 해서 젊은이들이 갑자기 중국 모자를 쓰고 중국 음식만을 먹고 중국어로 말하겠다고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앞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처럼 문화를 쇠퇴시키는 압박 요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열등감을 갖게 만드는 심리적 압박과, 또 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현대화는 문화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은 무조건 향상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부정적 형태의 장기적 영향을 예상할 방도도 없다. 사람들은 개발이 세계 여타 지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정보를 거의 입수할 수 없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에나 이를 돌이켜볼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라다크 사람들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통사회가 변모한 새로운 사회에 비해 더 낫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개발은 과괴를 의미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는 라다크 사람들이나 다른 전통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누려온 사회 - 생태적 균형 같은 것을 희생하지 않고도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이들은 자존심과 자립심을 견지해야 한다. 또 이들은 종래의 개발 방식과 마찬가지로 오랜 사회적 토대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바탕 위에 새로운 변화와 개발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헬레나 노르베리-호지의 책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

Sierra Club Books, San Francisco, and Rider Books, London, 1991)의 내용을 발췌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지역적 활동에 대한 글로벌 시각: 스웨덴 스토켄의 사례

■ 에르니, 올라 프리홀트

이 글은 스웨덴 서쪽 해안에 있는 조그만 어촌인 스토켄의 경제 및 문화상의 개발 양상을 다룬 것이다. 다른 지역의 비슷한 개발 양상에 대해서도 얼마간 언급할 생각이다.

오늘날 스토켄에는 15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스토켄 인근이나 가장 멀게는 50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 이 마을은 오르스트라는 섬에 있는데, 이 섬의 전체 인구는 1,200명이다. 이 섬은 지금까지 선박이나 보트를 만드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왔다(현재도 요트 보트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다). 1970년까지도 오르스트 연안의 여러 촌락은 어업과 그와 연관된 활동에 종사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들 조그만 어촌 대부분이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숙박지로 변해버렸다. 현재 이들 어촌의 전통가옥 중 90% 정도는 외지인의 소유로 넘어가 해마다 약 7주 동안

은 여름 별장으로 쓰이고 있다. 나머지 기간은 대체로 빈집으로 남아 불빛도 찾아볼 수 없다. 반면에 휴가철인 여름이 되면 소란스럽다. 모터보트가 굉음을 내며 고속으로 달리는가 하면, 수백 대의 승용차가 아무데나 주차하고, 갖가지 형태의 수상 스포츠와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이처럼 6월부터 도시의 생활방식이 이 조그만 어촌에 밀어닥쳤다가 8월 중순쯤 되면 불과 몇 시간 만에 썰물처럼 완전히 빠져나간다. 그러면 희미하나마 어촌생활의 분위기가 다시 되살아난다.

지역경제의 쇠퇴

스토켄의 경제는 지금까지 어업과 농업, 수공예와 같은 지역 활동에 의지해왔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의 고용과 투자, 외부의 취향과 문화적 영향에 완전히 의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스토켄 본래의 특성은 완전히 사라질 지경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어업과 소규모 영농을 뒷받침하던 규정을 폐지한 것이나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형태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자금 대출의 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그런 경우다. 이런 정부 정책은 글로벌 시장경제체제나 다국적기업, 통화중심 경제운용, 제3세계로부터 수입한 값싼 물품으로 이득 챙기기 등에나 적합한 것이다.

도시를 생활 근거지로 삼는 스웨덴 국민 대다수의 견지에서 보자면 죽어가는 무기력한 시골에는 별로 값진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곳

일 뿐이다. 또한 레크레이션용으로만 쓰이거나 아니면 도시민에게 필요한 온갖 자원을 제공하는 터전으로 활용되는 이런 버려진 땅을 관리하는 일은 그리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 동안 시골을 되살리자는 도시 중심의 캠페인이 벌어졌다. 되살리겠다는 내용은 도시 지역의 경우와 똑같았다. 즉 경제활동의 현대화를 통해 '발전'을 이룩해 수익성 있는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식이었다. 시골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캠페인은, 눈에 두드러진 한 가지 병폐를 훨씬 많은 동일한 병폐로 치유하려는 전형적인 사례로 비칠 뿐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아늑한 느낌을 주는 오랜 어촌은 주민들이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오래된 어촌은 점차 여름 휴양지로 변해 겨울에는 거의 죽은 마을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어촌은 모든 지역이 아스팔트로 덮였다. 또한 도처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다. 전에 해안은 파도에 시달려 반질반질해진 바위들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위에 1~2미터 두께의 흙을 부어 평평하게 다지고 아스팔트 포장을 한 뒤에 도시처럼 흰색 페인트로 선을 그어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다. 선원들이 보기에 조난사고를 당할 만한 곳은 아니겠지만, 햇빛에 반짝이는 작은 파도가 잡석으로 어수선하게 쌓아놓은 해변의 방파제에 부딪치는 모습은 시흥詩興을 자아낼 만한 풍경은 전혀 못 된다. 전에는 포구 안쪽

해변이 온통 초목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 초목이 밑부가 물에 잠긴 채 꽃을 피우면 갖가지 새들이 날아들었다. 또 해변가의 경사가 완만해 빗물이 포구로 천천히 흘러들면서 얕은 바다에 풍부한 어장을 형성해놓았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뱀장어가 잡혔다.

오늘날에는 이 평평한 해변이 배수로 구실을 해, 해마다 수백 대의 차량이 3개월 동안 캠핑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산성비가 그대로 얕은 바다로 흘러드는 바람에 더 이상 고기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다. 여름철의 차량 캠핑사업은 여러 차례나 허위 파산 과정을 거쳤다. 도시에서 온 사업자들이 납세를 피하기 위해 파산 형태로 수익분을 소멸시키기 때문이었다. 지금은 우리 마을은 아니어도 우리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캠핑사업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전자오락기와 미니 골프장, 햄버거 판매점도 들어와 있다. 또한 인근 농토에는 9홀짜리 정식 골프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스토켄 반대편 외곽지역에는 보트 정박지 건설사업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주인이 몇 차례 바뀌면서 수선만 피우다가 빠져나가는데, 환경보호 차원의 노력은 찾아볼 길이 없다. 이들 사업자들은 흙을 쏟아 부으면서 마을로 통하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마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얕은 바다에 형성된 어장은 이런 일로 교란되고 또 해마다 여름철이면 300여 척씩 몰려드는 보트가 한 척당 약 2킬로그램 정도의 독성 페인트를 바다 속에 풀어놓는다. 해조류가 보트에 달라붙어 자라려고 하면 보트에 칠해놓은 페인트는 곧바로 벗겨져 떨어지게 된다. 이런 페인트 조각은 바닷물 속에

서 녹아 없어지면서 독성을 내뿜어 바다 밑 생물과 바닷물 자체에 해를 끼친다.

스토렌 사람들도 변하고 있다. 일부는 이런 외적인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고, 일부는 자신의 정체성과 생활방식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토박이 주민들은 자신이, 휴가철만 되면 도시 사람들이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박물관 같은 어촌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점차 갖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 종류의 바닷새도 소란스러움에 놀라 사라지고 있다. 마을은 전보다 더욱 침묵을 지키게 되었다.

이런 과정이 시골을 살리자는 캠페인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이런 캠페인은 모두 현대화의 초기단계 형태로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수세식 화장실과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쓰레기를 모아 농사용 퇴비를 만드는 순환과정은 깨져버렸다. 오늘날 우리 군도 안의 어업은 거의 중단 상태다. 가정에서 난방용 기름을 쓰고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자급자족형 지역경제를 뿌리 뽑는 데 도움을 줄 뿐이다.

지역 쪽 해결방안

스토렌의 처지는 전세계에 산재한 여러 지역의 상황과 비슷하다. 우리는 2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한 끝에,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이 같은 사태 진전과 그 결과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전보다 한층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의 두 가지 기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생태환경적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나가건 간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 의식에 보탬이 된다.

*경제적, 정치적 파워를 지닌 당국이나 사회집단은 모든 사람이 적당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다. 설사 그런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자원 면에서 엘리트 계층의 여건과 경쟁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우리는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의 뒷받침을 받는 체념이 아닌 그 바탕에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는 스토렌에서 지속성 있는 삶을 실천해보려고 여러 해 동안 노력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거나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했다. 우리는 개인적인 소비량도 적절한 수준(스웨덴의 1950년대 수준)으로 낮추었다. 우선 시판되는 온갖 전자기기나 제품을 일절 사들이지 않았다. 이런 형편으로 살다보니 지속성 있는 삶의 실천이란 개인적 프로젝트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우리가 사는 낡은 주택에는 오래된 보트 창고와 콘크리트로

해변에 만든 데크가 딸려 있었다. 우리는 이 데크를 카페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는 가능한 한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구매할 수 있는 재료로 직접 케이크를 만든다. 또한 오래전부터 활용된 방식에 따라 아이스크림도 만든다. 보통 아이스크림은 42가지 재료를 쓰지만 우리는 5가지 재료만으로 만든다. 우리는 닭장에 가두지 않고 키우는 암탉의 달걀을 쓰고, 생태환경에 알맞은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로부터 밀가루를 사서 쓴다. 또한 커피와 차, 코코아는 멕시코와 탄자니아, 짐바브웨, 베트남, 볼리비아, 그밖의 여러 나라에서 운용되는 자율협동조합에서 사온다. 우리는 거대 다국적기업이나 탐욕스런 현지 기업인들을 보이콧하고 이들과의 거래를 회피해야 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한다.

우리는 채소와 감자, 딸기류, 꽃 등을 조금씩 재배하고 산딸기나 야생 버섯을 채취하기도 한다. 우리는 직접 만든 집열판으로 태양열을 활용하는 식으로 기름 소비를 줄이고자 노력했다. 또 근처에 있는 밭에 물을 채워 땔감용 나무biomass를 키우기도 한다.

우리는 보트 창고에 유화를 전시하고 책을 팔기도 한다. 이곳에 가수나 음악가, 극단을 초빙해 우리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기도 한다.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은 마르크스와 마오쩌둥, 간디, 니에레레, 상카라, 그밖의 여러 사람의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상이나 견해의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마을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면모를 지니게 된다.

우리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생태환경에 알맞

은 형태의 대안이 있다는 점을 역설한 인쇄물을 값싸게 제작해두고 있다. 이런 인쇄물은 우리 사회가 소비 사회로서 다른 지역, 특히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의 노동력과 물자를 강탈해서 유지되는 사회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지역 사람들을 구할 수는 없고 우리 자신만을 구할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우리 자신의 경험과 양심에 합치되는 방식으로나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우리 고장의 여러 마을이 존속하면서 세계시장의 영향을 물리치도록 돕고 있다. 우리 고장의 생산으로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기업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대신, 앞으로 소규모 경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 같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는 단체는 탄자니아, 멕시코, 페루, 니카라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국가의 원료에 대한 외부의 압박을 완화시켜주고, 또 이들 국가의 지역별 협동조합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매함으로써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추구하는 외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노동조합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파워와 대칭적인 파워가 맞서는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일 위험성이 있다. 노동조합이 필요 없고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항상 생산을 좌우하는 파워 수준에서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이다. 기존의 파워 구조 안에서 더 많은 권리를 얻어내는 것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심지어 토지개혁도 정황이 갖춰지지 않으면 실패로 끝날 수 있다.

우리는 소비자로서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소비 형태를 바꿀 경우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있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이나 사상이 인기를 끌고, 또 이런 이념이 실천을 통해 널리 확산되는 역사적 계기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점을 하찮고 평범한 방식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개발, 생태학, 여성

서구 가부장제의 새로운 기획으로서의 개발

'개발'은 탈식민주의적 기획이며 식민주의에 따르는 종속과 착취를 겪을 필요 없이 식민주의적 근대 서구를 좇아 전세계가 재구성되는 진보의 모델을 받아들이는 선택이었다. 여기에는 서구식 진보가 모두에게 통하리라는 가정이 있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향상된 복지를 의미하는 개발은 필요, 생산성, 성장 등 경제적 범주들의 서구화를 의미했다. 식민 세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성장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등장했던 경제 개발과 천연 자원의 이용에 관한 개념들과 범주들은 제3세계의 신생 독립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본적 필요를 충족한다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보편적 가정과 적용이라는 수준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가 지적한 바 있듯이, 서유럽에서 산업화 초기의 개발은 식민 세력들에 의한 식민지의 영구적 강점과 그 지역의 '자연 경제'의 파괴를 필연적으로 요구했다.[1] 로자 룩셈부르크에 의하면 식민주의는 자본주의적 성장을

1) Rosa Luxemburg,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1.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다. 식민지가 없었다면 자본의 축적은 삐걱거리며 멈춰 섰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과, '잉여'와 이윤 생산을 위한 경제의 상업화를 의미하는 '개발'은 특별한 형태의 재화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이에 연관된 가난과 박탈의 창조까지 재생산했다. 신생 독립국에서 상품 생산을 목적으로 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반복되는 경제 개발은 내부의 식민지를 창출했다.[2] 이렇게 개발은 지속적인 식민화 과정으로 환원되었다. 개발은 근대 서구 가부장제의 경제적 시각에서 재화를 창조하는 기획을 확장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서구와 비서구) 여성의 착취 혹은 소외와 자연의 착취와 오염, 그리고 다른 문화의 착취와 침식에 기반했다. '개발'은 여성과 자연 그리고 예속된 문화들의 파괴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제3세계 전역에 걸쳐 여성, 농부, 그리고 부족민들이 식민주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투쟁했듯이 '개발'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투쟁을 하는 이유이다.

유엔 여성 10년UN Decade for Women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이 개발 과정의 팽창과 확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했다. 하지만 10년이 끝나갈 즈음에 이르자 개발 자체가 문제라는 사실이 분명해져갔다. '개발'에 대한 불충분하고 부적절한 '참여'가 여성들이 갈수록 저발전 상태에 놓이게 되는 원인은 아니었다. 오히려 여성들이 강제적이고 불평등하게

2) '개발'이 어떻게 인민중요로부터 부유중요로 이전되는가는 다음 글들에 잘 드러나 있다. J. Bandyopadhyay and V. Shiva, "Political Economy of Technological Polarisations" 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VIII, 1982, pp. 1827~1832; and J. Bandyopadhyay and V. Shiva, "Political Economy of Ecology Movements", 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XI.

개발에 참여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개발의 수혜에서는 제외되어온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발의 배타성과 박탈은 생태 파괴의 식민화 과정과 자연의 생계 토대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의 상실을 악화시키고 심화시켰다. 경제 성장은 새로운 식민주의였고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빼앗는 것이었다. '국익'과 GNP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착취를 교묘히 주도했던 것은 식민 세력이 아니라 민족 엘리트들이며 이들에 의한 착취는 더 강력해진 착취와 파괴의 기술에 의해 자행되었다.

에스터 보서럽Ester Boserup은 식민 지배 동안 여성의 빈곤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를 기록했다.[3] 몇 세기 동안 자국의 여성들을 지적 능력이 없는 비숙련 부속물으로 종속시키고 불구로 만들었던 지배자들은 또한 식민지 여성들을 땅, 기술 그리고 고용 기회에서 홀대했다. 식민지 저개발의 경제적·정치적 과정에는 근대 서구 가부장제가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대다수의 남녀들이 이 과정을 겪으면서 빈곤화되었는데 여성들의 경우는 더 많은 것을 잃었다. 수익 창출을 위한 토지의 사유화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토지 사용권을 파괴함으로써 여성들을 더 치명적으로 추방시켰다. 환금 작물의 확산으로 식량 생산이 줄어들게 되었고, 남자들이 이주하거나 식민 세력에 의해 강제 노역에 징집되어가는 경우에 여성들은 빈약한 자원만으로 아이들과 노인, 병약자들을 먹이고 돌봐야 했다. 유엔 여성 10년이 끝날 무렵 여성 운동가, 조직가, 연구자들이 만든 공동 기록에 따르면, "이 1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동일한 결론을 제시한다. 몇몇을 예외로 한다면 경제적 자원, 수입, 고용에 대한 여성들의 상대적인 접근 통로가

3) Ester Boserup, *Women'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London: Allen and Unwin, 1970.

심각히 줄어들었고 여성들이 감당하는 노동의 부담은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건강과 영양, 교육 상태는 저하되었다."[4]

개발의 팽창에 따라 여성이 생산적 활동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은 대체로 개발 기획이 생계와 생존의 생산을 위한 자연 자원의 토대를 강탈, 혹은 파괴하는 방식에서 연유한다. 자연의 생산성과 재생 가능성이 손상된 만큼 토양, 물, 식물계의 생태를 파괴함으로써만이 아니라 토지, 물, 숲에 대한 여성의 관리와 통제를 제거함으로써 여성의 생산성이 파괴되었다. 성별 억압과 가부장제는 가장 오래된 억압이지만 개발 기획을 통해서 새롭고 더욱 폭력적인 형태를 띠어왔다. 파괴를 '생산'으로, 생명의 재생을 '수동성'으로 이해하는 가부장제적 범주는 생존의 위기를 초래했다. 자연과 여성의 '본성'을 수동성의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자연과 생명의 활동성을 부정한다. 진보와 개발로 간주되는 파편화와 획일성의 범주는 '생명의 망web of life' 속의 관계들과 그 관계들의 구성 요소와 패턴의 다양성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파괴한다.

자연과 여성, 토착민에 대한 경제적 편향과 가치는 전통적인 자연적 사회의 '비생산성'에 대한 아래의 전형적인 분석에 담겨 있다.

> 생산은 기계력보다는 인간과 동물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농업은 비생산적으로, 인분이나 동물의 거름을 사용했고 화학적 비료와 살충제는 아직 알지 못했다. 대중들에게 이러한 상황은 가난을 의미한다.[5]

4) DAWN, *Development Crisis and Alternative Visions: Third World Women's Perspectives*, Bergen: Christian Michelsen Institute, 1985, p. 21.

여기에 전제된 생각은 분명하다. 자연은 비생산적이고 자연의 재생산 주기에 기반한 유기 농업은 가난을 초래한다.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여성과 부족민, 그리고 농부 사회는 비생산적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왜냐하면 협동해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의 물품과 서비스를 부족하게 생산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상품 생산을 위한 기술에 매개될 때에만, 비록 그런 기술이 생명을 파괴한다 해도, '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가정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안정되고 맑은 강물은 생산적 자원이 아니다. 강이 생산적이려면 댐을 만들어 '개발' 해야 한다. 강을 가족과 사회의 갈증을 채워주는 공동 식수로서 함께 나누는 여성들은 생산적 노동과 관계없다. 남성 엔지니어가 그들을 대신할 때 물 관리와 사용은 생산적 활동이 된다. 자연림은 상업적인 종자를 단식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원으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비생산적이다. 그러므로 개발은 여성적인 것, 보존, 생태적 원칙을 잃은 개발을 의미하는 악개발maldevelopment과 같은 것이다. 스스로를 재생하는 자연의 일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형태로 생계 물자를 생산하는[6] 여성의 일을 무시하는 것은 악개발의 패러다임에서 본질적인 부분이며, 이때 이윤과 자본을 창출하지 않는 일은 모두 비생산적 혹은 반생산적인 일로 간주된다.

5) M. George Foster, *Traditional Societies and Technological Change*, Delhi: Allied Publishers, 1973.

6) 이 책에서는 '생계(유지)를 생산한다, 생존을 생산한다'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악개발에 기반해 있는 기존의 생산성 개념에 대해 악개발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생계 유지적 활동과 노동이 진정한 생산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역주.

마리아 미즈Maria Mies가 지적하듯이, 이러한 잉여의 개념은 가부장제 경향을 갖는다.[7] 자연과 여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잉여는 공동체에 필요한 물자 이상으로 생산된 물질적 잉여에 토대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스로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산물의 일부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과 여성들(생계를 생산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산물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로부터 폭력적인 방식으로 강탈하고 착취한 것이다.

제3세계 여성들의 시각에서 볼 때 생산성이란 생명과 생계를 생산하는 척도이다. 이러한 생산성이 비가시적이었다고 해서 생존에 대한 중심성은 감소되지 않는다. 비가시성은 생명이 아니라 오직 이윤만을 보는 근대 가부장적 경제 범주들의 지배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다.

여성적 원리의 죽음으로서의 악개발

이 체제에서 악개발은 남녀 불평등의 새로운 근원이 되었다. '근대화'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가 도입되는 것과 연결되어왔다. 앨리스 쉴레겔Alice Schlegel은 생계의 조건하에서 남녀 사이에 분리된 일의 영역이 상호 의존하고 보완하는 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다양성에 기반한 특징적인 양식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8] 악개발은 이러한 다양성 속의 평등에 적대적이며 과학 기술적 이데올로기로 구성된 범주를 계급과 문화, 성별의 가치에 대한 획일적 기준으로 부과한다. 환원주의와 이중성, 단선성에 기반한 지배적인 인식 양식들은 다양성 속의 평등이라는 개념이라든가, 서로 다르

7) Maria Mies,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London: Zed Books, 1986.

8) Alice Schlegel (ed.), *Sexual Stratification: A Cross-Cultural Stud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7.

지만 의미 있고 유효한 형식과 활동에 맞설 능력이 없다. 환원주의 정신은 서구 남성 중심적 개념들이 갖는 힘의 역할과 형태를, 여성, 모든 비서구 민족,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에까지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모두 '결핍되고',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인식론적으로 볼 때 다양성과, 다양성 속의 통일과 조화는 악개발의 맥락에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이때 악개발은 여성의 저개발(성차별적 지배를 조장하는)과 자연의 고갈(생태 위기를 심화하는)에 대한 동의어이다. 상품은 늘어나지만 자연은 위축되어 왔다. 남반구가 처한 빈곤 위기는 물, 식량, 사료와 연료가 갈수록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는 점증하는 악개발과 생태 파괴와 관련되어 있다. 빈곤 위기가 여성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첫째,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들은 가장 가난하기 때문이고, 둘째, 자연과 더불어 여성은 사회의 일차적 생계 유지자이기 때문이다.

악개발은 유기적이고 상호 연관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세계들의 온전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착취와 불평등, 불의와 폭력의 과정을 유발한다. 악개발은 자연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문제의 정의를 위한 선결 요건이라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다. 이것이 바로 간디Mahatma Gandhi가 "세상에는 모든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큼 충분한 양이 있지만, 소수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이다.

악개발은 사고와 행동 모두에서 일어난다. 실제로 파편적이고 환원주의적이며 이중적인 시각은 자연 속에 사는 인간의 온전함과 조화, 그리고 남성과 여성 간의 조화를 침해한다. 이것은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의 협동적 통일성을 파괴하고, 여성적 원리를 상실한 남성이 자연과 여성 위에 군림하게 하고 그를 자연과

여성으로부터 분리한다. 생태 위기의 징후로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폭력과, 여성의 종속과 착취의 징후로 나타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이러한 여성적 원리의 종속으로부터 기인한다. 나는 최근에 개발이라 불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연과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끌어들이거나 강화하는 것에 토대를 두고 있는 악개발이라고 주장하고 싶다. 악개발에서 자연과 여성은 '타자', 즉 수동적인 비-자아로 제시된다. 여성적 원리와 연결되었던 활동, 생산성, 창조성은 자연과 여성의 특성이라는 자격이 박탈되고 남성의 독점적인 특성으로 변형되었다. 자연과 여성은 수동적인 대상물로 변해서 통제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소외된 남성의 욕망을 위해 사용되고 착취된다. 자연과 여성은 파편적이고 반생명적인 악개발 모델 속에서 생명의 창조자이자 유지자로부터 '자원'으로 강등되었다.

두 종류의 성장, 두 종류의 생산성

악개발은 흔히 '경제 성장'으로 불리고 GNP(Gross National Product)로 평가된다. 대표적 생태학자인 포쉬Porritt은 GNP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 보잘것없는(Gross의 다른 뜻—역주) 국민 생산—GNP의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성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GNP는 대체로 무용지물이라는 간단한 이유에서 보수 경제학자들도 GNP의 좋은 시절은 끝났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GNP는 화폐 경제에서 생산된 재산, 물품, 서비스를 측정한다. 물품과 서비스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누리지 못한다. 오히려 엄청나 사정이 나빠가에 대한 척도일 뿐이다. 범죄와 오염이나,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명 피해로 인해 늘어나는 지출, 낭비와 과도한 정치 때문에 늘어나는 지출, 점증하는 관료주의로 인해 늘어나는 지출, GNP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한다.[9]

GNP의 문제는 지출의 일부(가령 오염 통제)를 이윤으로 계산하고 그 밖의 지출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 숨겨진 지출 가운데에는 남반구와 북반구 양쪽에서 환경 파괴로 창출된 새로운 부담들, 즉 변함없이 여성이 더욱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지출이 포함된다. 따라서 GNP가 늘어진다는 것이 반드시 그에 비례해서 재화나 복지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나는 GNP가 갈수록 실질 재화—자연의 풍요로움과 생명 유지를 위해 여성들이 생산해내는 재화—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해가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다. 주요 경제 활동으로서 상품 생산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면, 이것은 기본적 필요를 위한 생명, 물품,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연과 여성의 잠재력을 파괴한다.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현금은 생명의 감소를 의미한다—자연에서 (생태 파괴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에서 (기본적 필요의 거부를 통해서) 여성들이 가치 절하되는 이유는 첫째, 그들의 일은 자연의 과정에 협조하기 때문이고 둘째, 필요를 충족하고 생계를 보장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가치 절하되기 때문이다. 악개발에서의 더 많은 성장은 정확히 생명의 유지와 생명-지원 체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존적이고 생태적인 개발의 모델로서 여성적 원리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생태학으로서의 페미니즘, 모든 생

9) Jonathon Porritt, Seeing Green, Oxford: Blackwell, 1984.

명의 원천인 프라크리티를 부활시키는 생태학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조 변동과 재구조화의 탈중심적 세력이 되었다.

이것은 우선 절대적이고 진보적이며 보편적이라고 간주되어온 '생산성'과 성장의 범주들이 현실에서는 가부장제적 범주들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다. 자연의 생산성과 성장, 그리고 여성의 생계 유지적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범주들은 생태적으로 파괴적이며 성별 불평등의 근원이다. 시장 경제를 기준으로 삼는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등장한 근대적·효율적·생산적 기술들은 심각한 생태적 대가를 치러야 하고, 대부분 여성들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낭은 자원 집약적이고 에너지 집약적인 생산 과정은 생태계로부터 점점 많은 자원을 회수하려 한다. 그 결과 주요 생태 과정들이 파괴되고 재생산 자원이 비-재생산적 자원으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요 자원이 유지되면서 생계 유지적인 생산의 토대에서 수확된다면 숲은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생물 군집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산업과 상업을 위한 재목을 대규모로 제한 없이 요구하는 것은 숲의 생태계가 갖고 있는 회복 능력을 초과할 만큼 연속적으로 과잉 벌목이 불가피하게 되고 결국 숲은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 된다. 물과 사료, 연료 채집이라는 여성의 일은 따라서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가령 가뭄철에서 내가 만난 여성들은 예전에는 연료와 사료를 몇 시간 안에 수집했었는데 이제는 먼 곳까지 트럭을 타고 가서 힘들게 풀과 나뭇잎을 모아야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이틀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자연의 내재적 재생 능력은 특정한 자원에 대한 과잉 착취 때문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생태 과정을 통해 관련된 여타 천연 자원에 가해지는 손상 때문에 파괴된다. 시내와 강의 담수 지역에서 나무를

지나치게 많이 베면 숲의 자원만이 아니라, 물의 순환 체계가 손상을 입어서 재생 가능한 물의 공급이 파괴된다. 자원 집약적 산업은 천연 자원에 대해 지나치게 요구할 뿐 아니라, 대지와 물, 토양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주요 생태 과정들을 파괴한다. 종종 이러한 파괴는 비생명적인 산업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어난다. 심각한 생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엘리트들에게 자원이란 아직도 사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패러다임은 계속 작동한다. 생존을 위한 자연의 과정을 경제 개발 과정의 요소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원 이전과 자원 파괴로부터 비롯되는 정치적 쟁점들을 은폐하고 관습적으로 사용된 생산성 개념에서 천연 자원에 대한 통제를 증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창출한다. 경제 과정에 필요한 다른 비용들은 결국 비가시화된다. 가령 현대화된 농부나 공장 노동자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힘은 천연 자원을 갈수록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로빈스Lovins는 이것을 현재 세계에서 작동 중인 '노예' 노동의 양으로 표시한다.[10] 그에 따르면 지구상의 개인은 평균 일 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약 50명의 노예에 맞먹는 양을 소유한다. 인간이 모든 자원들(나무, 화석 연료, 수력 전력, 핵)로부터 끌어온 전체 에너지는 최근에는 대략 8×10^{12}와트이다. 이것은 식량농업기구의(FAO) 1일 3천6백 칼로리의 식사 양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식량 에너지 양의 20배가 넘는 것이다. 여성이나 제3세계 농부들과 비교할 때 서구 남성의 '생산성'은 근본적으로 월등하지 않다. 이것은 '노예' 노동의 분배 불평등에 기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

10) S. R. Eyre, *The Real Wealth of Nations*, London: Edward Arnold, 1978에서 재인용.

인은 평균 나이지리아인보다 2백50배가 넘는 '노예'를 갖고 있다. "만일 이 2백50명의 '노예들' 중에서 2백49명이 감소된다면 한 사람의 미국인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바로 이런 자원 집약적이고 에너지 집약적 생산 과정이 생존으로부터, 따라서 여성으로부터 자원을 유출시킨다. 가부장제가 생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생태적 관점에서는 매우 파괴적인 생산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자원 집약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경제 발전은 종국에 가서는 인간 종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한다. 진보된 산업 사회에서 생태학에 기반한 정치적 갈등은 장기적인 생존의 선택과 단기간의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 사이의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와 같은 국가에서 생태학에 기반한 여성, 농부, 부족들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첨예하고 다급해졌다. 왜냐하면 이러한 갈등이 국민의 대다수를 위한 생존의 선택지들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위협에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고, 그 위협은 소수의 이익을 위한 자원 집약적이고 자원 낭비적인 경제 성장으로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시장 경제에서 천연 자원을 이용하는 조직적 원칙은 이윤과 자본 축적의 극대화이다. 자연과 인간의 필요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관리된다. 천연 자원의 수요는 시장에서 기록되는 수요에 한정된다. 개발의 이데올로기는 대부분 모든 천연 자원을 상품 생산을 위한 시장 경제로 끌어들이려는 전망에 기초한다. 이러한 자원들은 이미 자연에 의해서는 재생 가능한 자원의 생산을 지속하기 위해서, 여성에 의해서는 생계 유지와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시장 경제로 유용되면서 생태적 안정을 위한 조건이 부족해지고 여성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낳게 되었다.

두 종류의 가난

『가난: 민중의 풍요』라는 제목의 책에서 어떤 아프리카 출신 필자는 생계 유지적 가난과 박탈의 비참한 경험을 구별한다.[11] 생계 유지 생활에 대한 문화적 개념의 가난과, 박탈과 몰수의 결과인 가난의 물질적 경험을 구별하는 것은 유용하다. 문화적으로 인식된 가난은 실제 물질적 가난일 필요는 없다. 자급자족을 통해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계 유지 경제는 박탈이라는 의미에서는 가난하지 않다. 하지만 개발의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가난하다고 선언한다. 왜냐하면 자급자족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에 크게 참여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생산되고 공급되는 상품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지구적인 농업 사업이 판매하는 상업적으로 생산되고 공급된 가공 음식 대신에 (여성들이 기른) 수수를 먹는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인식된다. 시멘트 집 대신에 대나무나 진흙처럼 천연 재료로 직접 만든 집에서 살면 그들은 가난하다고 여겨진다. 합성 소재가 아닌 천연 섬유로 직접 지은 옷을 입으면 그들은 가난하다고 여겨진다. 문화적으로 인식된 가난처럼 생계 유지가 반드시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물질적 생활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반대로 수수는 가공식품보다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며 향토 재료로 만든 집이 그 지방의 기후와 생태계에 더 잘 맞으며 천연 섬유는 대부분의 경우 인공 섬유보다 더 낫고 가격도 적절하다. 이처럼 분별 있는 생계 유지 생활을 문화적으로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것은 개발 과정을 가난 퇴치 기획으로 정당화할 빌미를 제공한다. 문화적으로 편향된 가난 퇴치 기획은 건전한 생계 유지 생활 방식

11) R. Bahro, *From Red to Green*, London: Verso, 1984, p. 211.

을 파괴하고, 자원을 자원 집약적인 상품 생산으로 유출하는 것을 통해 생존의 필요 그 자체를 부인함으로써 진짜 물질적 가난이나 비참을 만들어낸다. 현물 생산과 식품 가공은 토지와 물의 자원을 생계 유지적 필요로부터 앗아가고 점점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음식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박탈한다. "농업의 산업화와 국제화를 향한 가차없는 과정들은 잔인하고 때로는 유별난 자연의 변덕보다도 더 사람들의 배고픔에 책임이 있는 듯하다. 고도로 기술적인 수출용 수확 모델이 기아를 증가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부족한 토지, 신용 대부, 물과 기술은 수출 시장을 위해 점유된다. 대부분 배고픈 사람들은 전혀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윤은 돈 없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기업들로 흘러 들어간다."[12]

에티오피아의 기아는 일부분 문화적으로 인식된 가난을 없앨 목적의 개발이 만들어낸 진짜 가난의 예이다. 유목 생활을 하는 아파르족을 (외국 기업들이 지원하는) 상업적 농업을 위해 아와쉬 계곡에 있는 그들의 전통적인 목초지에서 내쫓자 그들은 취약한 고지대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쳤고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소와 유목민의 기아를 초래했다.[13] 시장 경제는 계곡의 생존적 경제와 충돌했고 이어서 고산지에서 생존 경제와 자연 경제 간의 충돌을 낳게 되었다. 농업 상품의 전지구적 마케팅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초래한 새로운 결핍과 가난의 상황이라는 배경에서는 평가받지 못했다. 더욱이 이 새로운 가난은 더 이상 문화적이거나

12) R. J. Barnet, *The Lean Years*, London: Abacus, 1981, p. 171.
13) U. P. Koehn, "African Approaches to Environmental Stress: A Focus on Ethiopia and Nigeria" in R. N. Barrett(ed.),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Environmental Crisis*, Colorado: Westview, 1982, pp. 253~289.

상대적이지 않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지구상의 수백만의 생존을 위협한다.

생산성에 대한 가부장제적 개념에 토대를 둔 경제 체제는 바로 이러한 식민주의의 특수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현상에서 창출되었다. 이 경제 체제에서 유럽의 생산 중심지들은 이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 노동을 투입했다. 따라서 식민주의적 이해를 위해서는 자연의 풍요를 비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를 무릅쓰고서라도 노동 자원을 증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화는 비합법적으로 모든 상황과 이익 집단으로 보편화되었고 생산성 증대를 빌미로 노동력이 풍족하고 값싼 상황에서도 노동 감소적 기술들이 도입되었고 자원이 부족하고 이미 생계 유지 생산을 위해 충분히 사용된 곳에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도입되었다. 안정적 생태를 갖춘 전통 경제들은 기본적인 필수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산업적으로 진보한 부유한 경제와 천연 자원 이용 능력을 공유하게 되었다. 전통 경제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산업적으로 진보한 경제와 다르다. 첫째, 산업 사회에서는 고도의 에너지와 자원 투입을 요하고 구매력이 없는 대다수를 배척하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술 연쇄를 통해 필요가 충족된다. 둘째, 풍요는 산업 상품들과 서비스의 생산 증대를 요구하는 새롭고 인공적인 필요를 생산해낸다. 전통 경제는 생명과 무관한 필요의 충족이라는 문제에서는 진보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생명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인 한에서는 마샬 사린Marshall Sahlins이 "본래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라 부른 것인 경우가 많다. 아마존 부족들의 필요는 풍부한 우림에 의한 충족 그 이상이다. 그들의 가난은 우림의 파괴와 함께 시작된다. 인도 바스타의 곤드족이나 말레이시아 사라왁Sarawak의 페난족에 대해서도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착 기술에 토대를 둔 경제는 '뒤처지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기본적 필요를 거부당한다는 의미에서 가난은 전통 기술의 존재와 반드시 연관될 필요는 없고, 전통 기술의 제거 또한 반드시 근대적인 것들이 성장한 결과일 필요는 없다. 그와는 반대로 흔히 여성들이 창조하고 사용하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전통 기술의 파괴는 그들의 물적 토대의 파괴와 함께 자원 파괴의 대가를 짊어내야만 하는 사회에서 가난의 '여성화'에 책임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간주된다.

아마도 유목민이 겪는 현재의 가난은 전통적 유목 생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와의 계곡의 생산적인 초목지의 유용성 때문이다. 생존을 위한 자원 토대의 침식은 갈수록 전지구적 세력이 지배하는 시장 경제의 자원에 대한 요구 때문에 야기된다. 생태학적으로 파괴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불평등은 두 가지 방식으로 창출된다. 첫째는 특권 분배에서의 불평등은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불평등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는 정치적·경제적 성격의 특권들이 포함된다. 둘째, 자원 집약적 생산 과정은 특히 혜택을 덜 받은 경제 집단의 상당수 사람들이 생존의 기반으로 삼는 보조 원자재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이러한 산업 원자재의 소비는 순수하게 시장력에 의해 결정되며, 그 시장력에 부여된 사회적 혹은 생태적 요구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원 파괴의 비용은 외재화되고 사회의 다양한 경제 집단 사이에 불평등하게 배분되지만, 대체로는 여성들과, 자연으로부터 기본적인 물질적 요구들을 직접 충족하는 사람들이 더 많게 된다. 그것은 그들이 근대적 생산 체계가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표시할 구매력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구스타보 에스테바Gustavo Esteva

는 개발을, 그것을 조장하는 이들이 저지르고 희생자들은 고통받는 경제 전쟁이라고 부른다.[14]

개발의 역설과 위기는 문화적으로 인식된 가난과 진짜 물질적 가난을 잘못 동일시하고, 상품 생산의 성장과 기본적 욕구에 대한 더 나은 충족을 잘못 동일시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실제로 개발 과정의 결과, 물이 줄어들고 비옥한 땅이 사라지며 유전자적 풍부함이 줄어든다. 이러한 천연 자원들은 자연의 경제와 여성의 생존 경제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면 여성들과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유례없는 방식으로 빈곤화된다. 이들이 생물적 빈곤해지는 것은 이들의 생존을 지탱하는 자원들이 시장 경제로 흡수되고 그들 자신은 시장 경제에 의해 배척받고 추방된 사실 때문이다.

개발의 진행과 함께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 가능성은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가난이 제거될 것이라는 낡은 가정은 이제는 제3세계에서 벌어지는 여성들의 생태 운동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그 와중에도 이런 가정은 계속해서 가부장적 권력의 중심부들에서 개발의 사고 방식을 이끌고 있다. 생존은 생명의 거룩함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반면에 악개발은 '개발'의 신성함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에스테바는 개발의 신성함은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민족은 개발에 진력나 있다. 그들은 단지 살기를 원한다"고 그는 말한다.[15]

---

14) Gustavo Esteva, "Regenerating People's Space" in S. H. Mendlovitz and R. B. J. Walker, *Towards a Just World Peace: Perspectives From Social Movements*, London: Butterworths and Committee for a Just World Peace, 1987.

15) G. Esteva, a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Rome, 1985)에서의 발언.

여성적 원리의 회복은 악개발의 가부장적 토대들을 초월하고 변형하도록 해준다. 여성적 원리의 회복은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과 연결된 범주들로 성장과 생산성을 재규정하도록 해준다. 따라서 여성적 원리의 회복은 생태적인 동시에 페미니스트적 정치 기획으로서 생명과 다양성의 가치를 높여서 부를 창조하는 앎과 존재의 방식을 정당화하며, 자본 축적의 토대인 죽음의 문화의 앎과 실천을 탈합법화한다.

2. 과학, 자연, 성性

여성적 원리의 회복은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파괴, 폭력과 종속, 강탈과 제거라는 가부장제적 기획으로서의 학개발에 대한 지적이고 정치적인 도전이다. 여성적 원리를 중심으로 한 생명의 정치학은 정치·경제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과정들에 대한 과학의 기본적인 가정들에 도전한다.

학개발은 지적인 면에서 과학적 사상과 행위에 대한 환원주의적 범주들에 기반해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당화된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연을 파편화하고 여성을 생산 활동으로부터 추방하는 모든 기획들은 획일성과 집중화, 그리고 통제를 실현시키도록 환원주의적 개념들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어왔다. 따라서 개발은 '과학적 농법', '과학적 축산', '과학적 물 관리' 등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과학'의 환원주의적이며 보편화하는 경향들은 본원적으로 상호 연관된 다양한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며 파괴적이다. 여성적 원리는 자연의 상호 연관성과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 세계를 돌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비폭력적인 방식들의 대항적 범주가 되었다. 그것은 폭력에서 비폭력으로, 파괴에서 창조로, 반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는 과정들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파편화와 환원주의에서 전체주의와 복합성으로의 생태적 변환을 허용한다.

따라서 여성과 자연에 대한 폭력의 근원이 단지 '개발'인 것만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발 과정이 토대를 두고 있는 과학적 지식 자체가 폭력의 근원이다. 근대 환원주의적 과학은 개발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적 기획으로 밝혀졌다. 환원주의의 과학은 전문가로서의 여성을 배제해왔으며, 동시에 자연의 과정들과 상호 연관성을 파괴으로 이해하는 생태학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앎의 방식들을 배제했다.

가부장제적 기획으로서의 근대 과학

근대 과학은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지식 체계로 제시되면서, 보편성과 가치 중립성, 그리고 자연에 대한 객관적 주장들을 내세우는 방법적 논리에 의해 모든 다른 신념과 지식 체계를 대체한다. 하지만 근대 과학의 주류인 환원주의적이고 기계주의적인 패러다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정한 반응이다. 그것은 15, 16세기에 등장했던 과학 혁명의 형태로 등장한 서구 남성의 특정한 기획이다. 지난 몇 년 간의 페미니즘 연구는 지배적인 과학 체계가 인류 전체를 위한 객관의 힘이 아니라 (비록 스스로는 종의 보편적 향상을 위한다고 정당화하지만) 필연적으로 자연과 여성의 종속을 초래하는 남성적이고 가부장제적 기획으로 출현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딩Harding은 그것을 '서구적·부르주아적·남성적 기획'[1]으로 불렀고, 켈러Keller는 다

1) Sandra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p. 8.

음과 같이 말했다.

> 과학은 거의 인간 종의 특정한 하부 단위, 즉 백인 중산 계급 남성들에 의해 생산되어왔다. 근대 과학의 아버지들이 성별 언어에 의존했던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남성적이라 불릴 만한 철학, 즉 그 '남성적' 힘과, 자연을 남성에게 봉사하도록 묶어두고 자신의 노예로 만들 능력 면에서 옳고 없는 전세대들과 구별될 수 있는 철학을 찾으려 했다.[2]

베이컨(1561~1626)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요, 근대적 연구소와 산업적 과학이라는 개념의 주창자로서 왕립학회Royal Society에 영감을 준 사람이다. 근대 과학과 조직에 대한 그의 기여는 중요하다. 하지만 자연과 여성, 그리고 주변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 베이컨의 프로그램에는 모든 인간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과 힘을 과학으로 결합시켜서 중간 계급의 유럽 남성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베이컨의 실험 방식은 남성주의적 기획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 방식에는 남성/여성, 정신/물질, 객관/주관, 이성/감성 사이의 이분법과, 자연과 여성, 비서구에 대한 남성주의적이고 과학적인 지배의 결합이 있다. 그의 방식은 '가치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연에 대한 침략과 여성에 대한 지배의 남성주의적 양식이었다. 자연에 대한 통제된 작동을 통해 가설들을 엄격하게 테스트하는 것, 그리고 실험이 반복되려면 그러

2) Evelyn F. Keller, *Reflections on Gender and Scien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5, p. 7.

한 작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히 성차별적인 비유들로 정식화되어 있다. 자연과 탐구는 강간과 고문을 모델로 삼은 방식을 통해 개념화되어 나타나고—즉, 남성이 여성과 맺는 가장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관계를 모델로 해서—이러한 모델은 과학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구실로 제시된다. 베이컨에 따르면, "사물들의 본성은 타고난 자유로움보다는 기술의 작동을 통해서 더 쉽게 스스로를 드러낸다."[3] 과학적 지식의 혼육과 기계 발명은 "자연의 진행 과정을 단순히 점잖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며 근본 토대까지 뒤흔드는 힘을 가졌다."[4]

1951년 패링턴Farrington이 번역한 『시간의 남성의 탄생*The Masculine Birth of Time*』에서 베이컨은 "자연과 사회를 지배하게 될 축복받은 영웅과 슈퍼맨 종족"을 창조할 것을 약속했다.[5] 패링턴은 이 책의 제목이 여성으로 표상되는—수동적이고 나약한—구세대 과학으로부터 베이컨이 스스로를 진정으로 자처했던 과학혁명의 새로운 남성적 과학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뉴 아틀란티스*New Atlantis*』에서 '베이컨의 벤살렘Bensalem'은 과학적 연구 기관인 '솔로몬의 집'의 통치를 받는데, 이곳 출신의 남성 과학자들은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며, 어떤 것의 비밀을 밝히고 어떤 것을 연구소의 사적 재산으로 남겨둘지를 결정한다.

과학이 지배하는 사회는 베이컨의 벤살렘 구성에서 많은 부분

3) F.H. Anderson, (ed.), *Francis Bacon: The New Organon and Related Writings*, Indianapolis: Bobbs-Merill, 1960, p. 23.

4) J. Spedding, et. al (eds.), *The Works of Francis Bacon*(Reprinted), Stuttgart: F. F. Verlag, 1963, Vol. V, p. 506.

5) Keller, *Reflections on Gender and Science*, pp. 38~39에서 재인용.

을 발전시키는데, 이때 자연은 현대판 솔로몬의 집인 기업 연구소와 이들이 후원하는 대학 프로그램들에 의해서 변형되고 사지 절단당한다. 새로운 생명 공학과 함께 생산을 위한 재생산의 통제라는 베이컨의 전망은 실현되었으며, 그러는 동안 녹색 혁명과 생명-혁명은 『뉴 아틀란티스』에서는 단지 유토피아에 불과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우리는 나무와 꽃들이 제철보다 더 일찍 혹은 더 늦게 피고 자연적 순서보다 더 빨리 씨앗을 품게 할 법을 만든다. 우리는 법으로써 그것들을 그들의 본성보다 더 크게, 훨씬 더 많이 만들고 열매도 더 크고 달게, 그들의 본성과는 다른 맛과 향기, 색과 형태를 갖게 한다."[9] 베이컨에게 자연은 더 이상 어머니 자연Mother Nature이 아니라 침략적인 마성적 정신에 의해 정복당하는 여성적 자연이다. 머천트Carolyn Merchant가 지적하듯이 이렇게 자연이 살아 있고 양육하는 어머니에서 무능하고 죽어 있는, 조작 가능한 물질로 변질된 것은 팽창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작취 명령에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다. 양육하는 지구라는 이미지는 자연 착취에 대해서 하나의 문화적 규제로 작용했다. "사람은 심사리 어머니를 죽여서 그녀의 창자를 파내고 사지를 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베이컨의 프로그램과 과학 혁명이 만들어낸 지배와 정복의 이미지들은 모든 규제들을 제거했고 자연을 발가벗기기 위한 문화적 승인의 역할을 했다.

무두에 대한 정형 신탁적이고 유기적인 가정들이 제거됨으로써 자연의 죽음을 초래했고, 이것은 과학 혁명의 과급력 중 가장 큰 결과였다. 자연은 내재적 힘보다는 외적인 힘으로 움직이는 죽어 있고 무기력한 분자들의 체계로 보였기 때문에, 기계주의적인 체계 자체는 자연의 조작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게다가 개념적 틀로서의 기계적 질서는 권력에 기반한 가치들의 체계와 연합함으로써 상업 자본주의가 취한 방향들과 완전히 일치할 수 있었다."

근대 과학은 의식적으로 성별화된, 가부장제적인 활동이었다. 자연이 강간당한 여성과 더 비슷해보임에 따라 성별 역시 재창조되었다. 여성적 자연과 여성적 sex의 종속에 토대를 둔 남성적 모험으로서의 과학은 성별 양극화를 지지했다. 새로운 과학적, 기술적 권력인 가부장제는 산업 자본주의가 출현하기 위한 정치적 요구 사항이었다. 과학의 이데올로기는 한편으로는 자연의 벌거벗음을 조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외존과 남성의 권위를 정당화시켰다. 과학과 남성성은 자연과 여성성에 대한 지배와 연결되었고 과학과 성별 이데올로기들은 서로를 강화시켰다. 유럽에서 지식 보유자이며 전문가로서의 여성을 말살하기 위한 마녀 사냥의 히스테리는 두 세기에 걸친 과학 혁명과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것은 두 개의 주요한 세계 체계에 관한 갈릴레오의 『대화 *Dialogue*』에서 절정에 달했다가 런던의 왕립학회와 파리과학아카데미의 출현과 함께 사라졌다.[11]

7)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p. 191.
8) Brian Easlea, *Science and Sexual Oppression: Patriarchy's Confrontation with Women and Nature*, London: Weidenfeld and Nicholson, 1981, p. 94.

6) Carolyn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ew York: Harper & Row, 1980, p. 182.

마녀 심문은 자연에 대한 심문의 상징이며, 법정은 그러한 심문을 위한 모델이고,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한 고문은 무질서를 종속시키기 위한 도구라는 점은 권력으로서의 과학 혁명의 토대이다. 하비의 경우처럼 베이컨에게도 성의 정치학은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가정들이 겉보기에는 제거된 새로운 형태의 지식과 비판성의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게 될 경험적 방식의 상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12]

베이컨의 철학에 고무되어 만들어진 왕립학회는 그 설립자들에게는 분명히 남성주의적 기획으로 보였다. 1664년 왕립학회의 회장 헨리 올덴버르그Henry Oldenberg는 "남성적 철학을 수립하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정신이 굳건한 진실에 대한 지식으로 더욱 고결해질 것이다"[13]라고 학회 설립 의도를 선언했다. 그린빌Glanvill에게 과학의 남성적 목표는 "자연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만듦으로써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제국을 세울 방법들"을 아는 것이다.[14] 그린빌은 과학이 가장 유용한 기술이라고 변호하면서, 그 이유는 "과학이 인공 불의 폭력을 사용하면 자극이 덜한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을 잠재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15] 현대 과학과 권력과 지식의 결합을 통한 자연의 '탈-모성화' 역시 비유럽 민족들뿐 아니라 여성을 종속시키는 근원이었다. 뉴잉글랜드 회사의 중역이자 유명한 과학자였던 로버트 보일Robert Boyle은 기계의 철학이 자연뿐 아니라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권력의 도구로 부상했음을 주목했다. 그는 뉴잉글랜드 인디언들이 갖고 있던, 자연 작용에 대한 우스꽝스런 생각들을 없앤다는 자신의 의도를 분명히 표명했다. 그는 그들이 자연을 '일종의 여신'으로 인식하는 것을 공격했고, "사람들이 자연으로 부르는 것에 갖는 경외감은 신의 멸종한 생물들에 대한 인간의 제국을 낙담시키는 방해물이었다"고 주장했다.[16]

오늘날 새로운 생태학적 인식을 갖춘 전세계의 생태학자들은 아메리카 원주민과 여타 토착 민족들의 믿음에 관심을 돌려서 이런 믿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생태학과 여성 운동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자연과 타민족에 대한 백인 남성 제국의 충동 속에서 비합리성을 보고, 인디언 추장 스모할라Chief Smohalla가 "당신들은 나에게 땅을 갈라고 한다. 내가 땅을 파고 내 어머니의 가슴을 찢을 수 있겠는가? 당신들은 나에게 돌을 베고 건초를 만들어 내다 팔아 백인들처럼 부자가 되라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감히 내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자르겠는가?" 하고 외칠 때, 그의 말에서 합리성을 본다.[17]

생태 운동에 소중한 영감을 주었던 추장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는 "우리는 안다. 지구가 인간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 속한다는 것을. 모든 것들은 한 가족을 결합하는 피처럼 연결되어 있다. 지구에게 일어나는 일은 지구의 아들에게도 일어난다. 인간이 생명의 그물을 짠 것이 아니다. 인간은 그 속에서 단지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물에 하는 일이 무엇이든 결국

13) Easlea, *Science and Sexual Oppression*, p. 71.
14) 같은 책.

9)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p. 172.
10) Easlea, *Science and Sexual Oppression*, p. 70.
11) 같은 책.
12) Merchant, 앞의 책, p. 189.

재를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21] 이러한 지배는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폭력적이며 온전성을 위반한 것으로 이해된다. 환원주의적 과학은 자연과 여성을 종속시키며 그들의 완전한 생산성과 힘, 잠재력을 박탈하기 때문에 자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원이다. 환원주의의 인식론적 가정들은 존재론적 가정들과 관련되어 있다. 획일성 때문에 체계의 부분들에 대한 지식이 전체에 대한 지식으로 잘못 인식된다. 분리 가능성은 맥락에서 떨어져 나온 지식의 추상화를 허용하고 소외와 불참에 토대를 둔 유효성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객관성'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전문가'와 '스페셜리스트'만이 유일한 합법적 지식 탐구자이며 정의를 행사하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이윤, 환원주의, 폭력

환원주의 과학과 가부장제, 그리고 폭력과 이윤 간의 밀접한 연관은 군수 산업에 일조하면서 치명적 폭력을 공공연히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과학 연구의 80퍼센트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현대의 폭력은 직접 싸우는 적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시민들을 표적으로 삼는다. 이 책에서 나는 근대 과학이 가령 삼림과 농업과 같은, 과학 연구의 목적으로 인간 복지 운운하는 평화로운 영역에서조차 폭력과 이윤에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환원주의와 폭력, 이윤 사이의 관계는 남성주의적 과학의 탄생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남성주의적 과학의 환원주의적 성격은 이윤의 극대화와 자본 축적을 위한 통제되지 않는 자연 착취에 토대를 둔 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론적 답변이기 때문이다.

21)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p. xvi.

환원주의는 결코 인식론적인 우연이 아니며, 경제적·정치적인 특정 조직 형태의 요구 조건들에 대한 반응이다.[22] 환원주의적 세계관, 산업 혁명과 자본주의 경제는 동일한 과정의 철학적·기술적·경제적 구성 요소들이었다. 개인적 사업체와 경제의 파편적 부분들은 개인적 소유든 국가의 소유든 그것 나름의 효율성과 이윤을 염두에 둔다. 모든 기업과 분야는 사회적·생태적 비용의 극대화와 무관하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정도에 따라 효율성을 측정한다. 이러한 내부적 효율성의 논리는 환원주의가 제공해왔다. 자원 체계의 속성들 중 착취와 추출을 통해 이윤을 생산하는 것만이 고려된다. 생태 과정들을 안정시키며 상업적으로는 비착취적인 속성들은 무시되고 결국에는 파괴된다.

상업 자본주의는 전문화된 상품 생산에 토대를 둔다. 따라서 생산의 획일성과 천연 자원의 통합 기능적 사용이 요구된다. 이렇게 환원주의는 복잡한 생태계를 단일한 구성 요소로 환원시키고 구성 요소들은 다시 단일한 기능으로 환원된다. 환원주의는 나아가 단일 기능, 단일 요소적 착취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조작한다.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숲은 상업적 목재로 변하고 나무는 펄프와 제지업을 위한 셀룰로오스 섬유로 변한다. 숲, 토지, 유전자적 자원들은 펄프 제지의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 조작되며, 이러한 왜곡은 비록 숲에서 물의 산출량을 줄이고 숲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 형태들의 다양성을 축소시킨다 해도 전체적인 생산성 증대를 이유로 과학적으로 정당화된다. 살아 있는 다양한

22) J. Bandyopadhyay & V. Shiva, "Ecological Sciences: A Response to Ecological Crises" in J. Bandyopadhyay, et. al., *India's Environment*, Dehradun: Natraj, 1985, p. 196; J. Bandyopadhyay & V. Shiva, "Environment Conflicts and Public Interest Science" in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XXI, No. 2, Jan. 11, 1986, pp. 84~90.

생태계는 이렇게 '과학적' 임업과 임업 '개발'을 통해서 침범당하고 파괴된다. 이처럼 환원주의적 과학은 심화하는 생태 위기의 근원이다. 왜냐하면 자연을 심하게 훼손함으로써 자연의 유기적 과정들과 조절, 재생 능력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생계 유지 경제에서 자연과의 동반적 관계를 통해 부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여성들은 자연의 과정들에 대한 전체주의적이고 생태학적인 지식의 원리를 가진 전문가였다. 하지만 사회적 이익과 생계 유지의 필요에 집중된 이러한 대안적 앎의 양식들은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은 자연의 상호 연관성과 여성들의 삶과 일, 지식이 부의 창조와 맺고 있는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환원주의적 지식 체계와 비환원주의적 지식 체계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결코 인식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환원주의적 과학의 합리성은 선험적으로 월등하다고 선언된다. 만일 환원주의적 과학이 비환원주의적 앎의 양식들을 대체한다면, 그것은 인식적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정치적 지원을 통해 된 것이다. 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은 이윤을 목적으로 자연을 전유하는 것에 이데올로기적 지원뿐 아니라 재정적·물질적 보조를 제공한다. 진보(물질적 번영)와 뛰어난 합리성이라는 쌍둥이 신화는 개발 계획들과 패러다임의 작동 속에서 그 빛을 잃었고 광범한 생태 위기에 의해 가시적으로 타파되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해서 이런 신화들을 이데올로기로 변형시켰다. 개별 기업이나 분야에서 진보와 합리성이라는 이름하에 자연을 전유하면서 직접 더 큰 사회와 대면한다면,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사회적 비용과 개인적 이익을 평가할 수 있다. 그들은 진보와 퇴행, 합리성과 비합리성을 구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중재를 통해, 주체와 시민들

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진보를 가늠할 능력과 권리를 상실한다. 만일 그들이 '개발'의 혜택을 거두어들이는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이것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 작은 희생으로 정당화된다.

국가, 지배 엘리트, 잉여 가치의 창출 사이의 연결은 환원주의가 그것의 우월성을 세울 수 있었던 권력을 제공한다. 농업, 의학, 임업에서 배움의 제도들은 '과학적' 농업과 의학, 임업의 이름하에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서 환원주의적 과학의 우수성을 수립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람들을 훈련시킨다. 국가가 부여해주었던 권력을 상실하게 되면 환원주의는 자연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응하기에는 인식적으로 나약하고 비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다. 환원주의적 임업은 열대 우림을 파괴했고 환원주의적 농업은 열대 농장을 파괴하고 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지식 체계로서는 환원주의적 과학은 나약하고 부적당하다. 시장을 위한 지식 체계로서는 그것은 강력하고 이익이 된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대 과학은 자연과 여성, 빈곤층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서구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사회-정치-경제적인 체계를 지지하고 그것에 의해 지지받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돈만이 유일한 가치와 부의 기준이 되는 경제적 활동의 관점과 자연이 연결될 때 최종적인 환원주의가 이룩된다. 경제 활동의 조직 원칙으로서의 생명은 사라져버린다. 하지만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생명과 살아 있게 해주는 과정들에 대해 비균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에서 생명의 착취와 조작, 그리고 파괴는 돈과 이윤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이 둘 어떤 것도 자연의 생명과 자연의 생명 유지적 능력의 원천은 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불균형이 자본 축적의 증가와, 생명의 흐름과 생계 유지를 현금과

이윤의 유통으로 대체하는 과정인 '개발'의 팽창과 나란히 생명을 생산하는 자연의 잠재력이 줄어드는 것으로서의 생태 위기의 심화를 설명해준다. 서구 전문가들에 의한 아프리카의 '개발'은 아프리카 파괴의 주된 원인이다. 초국가적 은행과 기업에 의한 브라질의 '개발'은 생명을 희생으로 표현하는 아마존 우림의 풍요함을 파괴한 주요 원인이다. 아프리카와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수세기 동안 생태적으로 건화해온 포착적인 지식 체계를 가지고 생존해왔다. 역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보존해온 것을 서구 전문가들과 서구 지식이 몇십 년 안에, 심지어는 몇 년 안에 파괴했다.

이러한 생태계와 지식 체계의 파괴를 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은 환원주의의 폭력으로 규정한다. 1) 여성에 대한 폭력: 앎의 주체로서의 여성, 부족, 농부들은 전문가/비전문가의 구분을 통해 사회적으로 침해받고 이것은 대일의 장이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전문가이며 실천과 행위의 책임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정, 임업, 음식, 물의 체계와 같은 삶의 영역들에서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변화시킨다. 2) 자연에 대한 폭력: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은 근대 과학이 조작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인식 과정에서 자연의 온전성을 파괴할 때 침해받는다. 3) 지식의 수혜자들에 대한 폭력: 일반 사람들이 궁극적인 과학 지식의 수혜자라는 근대 과학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특히 빈곤층과 여성들—은 근대 과학에 의한 희생의 희생자들이며, 그들의 생산적 잠재력과 삶, 그리고 생명 유지적 체계들을 박탈당한다. 4) 지식에 대한 폭력: 유일한 합법적인 지식 형태의 지위를 갖기 위해서, 대안적 지식 양식보다 합리적으로 우월하다는 환원주의적 과학은 사실을 억제하고 변조해서 과학 그 자체에 폭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지식의 유기적 체계들을 비합리적이라고 선언하며 다른 사람들의 지

식 체계는 철저한 합리적 평가 없이 거부한다. 동시에 과학의 주장들에 대한 어떤 의문도 금지하는 새로운 성역을 만들어서 스스로 창조한 신화에 대한 폭로와 탐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두 종류의 사실들

과학, 기술, 사회의 관습적 모델은 폭력의 근원을 정치와 윤리, 과학적 지식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의 적용에서 찾는다. 이러한 모델의 기초가 되는 가치와 사실 사이에 가정된 이분법은 가치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 사이의 이분법을 함축한다. 이런 관점에서 폭력의 근원은 가치의 세계에 놓여진 과학적 지식은 사실의 세계에 속한다.

사실과 가치의 양분론은 근대 환원주의적 과학의 산물인데, 특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론적 대응이면서도 스스로를 가치로부터 독립적이라고 규정한다. 그것은 세계를 사실 대 가치로 분리함으로써 가치가 부여된 두 종류의 사실간의 진정한 차이를 은폐한다. 근대 환원주의적 과학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보편적인' 주장들을 낳는 '과학적' 방식과 일치하는 자연의 속성들과 법칙들의 발견이라고 인정받아왔다. 가치에 침윤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라는 환원주의적 과학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표대 위에서 점점 거부된다. 역사적으로 근대 과학의 지식을 포함해서 모든 지식은 복수적인 방법론의 이용에 기반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왔고, 환원주의 과학은 단지 사용 가능한 과학적 선택들 중 하나일 뿐이다.

'과학적 방법'이란 없다. 연구의 모든 부분에서 기초가 되고, 연구가 과학적이고 따라서 신뢰할 만하다고 보증하는 단일한

절차나 일련의 규칙들은 없다. 적합성에 대한 불변의 기준인 보편적이고 안정된 방식이라는 관념과 심지어는 보편적이고 안정된 합리성이란 관념조차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규모라도 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안정된 측정 기구라는 발상만큼이나 비현실적이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연구 영역을 따라 옮겨갈 때는 그들의 기준과 절차, 합리성의 기준을 수정한다. 그것은 그들이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옮겨갈 때 연구 이론이나 도구들을 전부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이다.[29]

과학이 순수하게 사실을 다룬다는 가정은 과학의 실제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근거도 얻지 못한다. 환원주의 과학의 '사실들'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범주들이며, 이 범주들은 그것의 발전과 정당화의 맥락인 서구 부르주아 가부장제적 체제의 문화적 표지들을 함축하고 있다. 캐롤라인 머천트는 서구에서 16세기까지 유기적인 메타포들이 어떻게 과학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여성적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유기적 지향을 가진 정신은 기계적 지향을 가지고 여성적 원리들을 제거하거나 차차의 방식으로 사용했던 정신에 의해 훼손되고 대체되었다. 1600년대에 서구 문화가 점점 기계화되어갔을 때 여성적인 대지와 성녀 대지의 정신은 기계에 의해 정복당했다."[30] 다른 전통을 가진 지식을 종속시키는 것은 '사실'로 '미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대해 문화적으로 구성된 일련의 사실들을 그와는 또 다른 일련의 사실들로 대체하는 것과 유사하다. 과학적 지식의

29) Paul Feyerabend, *Science in a Free Society*, New Left Books, 1978, p. 10.
30)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p. 2.

문화적 범주들은 인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윤리적이기도 하다.

양육하는 지구의 이미지가 지구에 대해서 사회적·도덕적으로 인정받은 인간 행위의 형태들에 대한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문화적 제약으로 보일 수 있다면, 정복과 지배라는 새로운 이미지들은 자연을 발가벗기는 것을 문화적으로 용인하는 역할을 했다. 사실을 구성하는 통제의 이미지들 또한 미묘한 '의무들'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만큼 윤리적인 제약이나 장려로 기능한다.

제3세계에서 환원주의적 세계 인식과 생태적 인식 사이의 갈등은 현대의 일상적 현실이며, 그 현실 속에서 훈련받은 서구의 남성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환원주의적 지식의 축소판이다. 여성 해방 운동과 생태 운동의 정치적 투쟁은 지식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인식론적 변화를 수반한다. 생존의 위기가 주요한 지적인 도전이 될 때 환원주의적 주장과 힘들의 가치와 유효성은 지속 가능성과 생태학적 기준에서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자연에 대한 순수한 사실적 묘사로서 그것과 경쟁하는 대안들보다 우월하다는 환원주의적 과학 지식에 대한 시각은 생태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 생태학은 생태계의 다른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주시한다. 특정한 자원 요소로 선택될 성질은 그것을 규정하는 맥락이라고 간주되는 관계에 의존할 것이다. 그 맥락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이끌고 있는 우선성과 가치에 의해 정해진다. 맥락의 선택은 하나의 가치가 결정되는 과정이며 그 선택이 어떤 속성들이 드러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다. 인간의 인식적·경제적인 활동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자연에 대해 중립적인 사실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에서 인식되는 성질들은 보는 방식에 따우될 것이고, 보는 방식은 자연의 자원에 대한 경제적 이해 관계에 따우된다. 이윤 극대화라

는 가치는 따라서 환원주의적 체계에 연관되어 있는 반면,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유지는 전체론적이고 생태학적인 체계에 연관되어 있다.

두 종류의 합리성

환원주의적 세계관의 존재론적 · 인식론적 구성 요소들은 특정한 과학적 실천을 위한 체계를 제공한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방법은 전적으로 대상의 배치로서의 질서에 존재한다. 만일 우리가 어려운 진리라도 발견하려 한다면 우리의 정신적 통찰력은 반드시 그러한 질서의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호한 가설들을 단계별로 좀더 간단한 가설들로 환원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질서를 정확히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절대적으로 단순한 직관적 이해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유사한 단계를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 시도할 것이다."[20] 데카르트의 관점에서 이러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자연의 주인이며 소유주로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묘하게도 자연과 같은 살아 있는 유기체(인간도 포함해서)의 경우에 현실에 대한 인식(진리)으로 이끌지 못한다. 살아 있는 유기체 속에서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총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유기체의 부분들은 매우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만일 그 어느 하나라도 떼어내면 전체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쿤Kuhn, 페이어아벤트Feyerband, 폴라니Polanyi 등은 근대 과학이 잘 만들어지고 안정된 과학적 방법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주장했다. 그 방법은 수많은 것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

20) Descartes, *A Discourse on Method*, London: Everyman, 1991, p. iv.

다는 것만이 유일하게 인정될 수 있다.

통제된 실험과 실험실은 환원주의적 과학의 방법론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대상은 자연 환경, 다른 대상들, 관찰자(들)와의 관계로부터 심리적으로 격리된다. 이렇게 제공된 맥락(가치 틀)은 어떤 성질들이 인식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따라서 특정한 종류의 일들을 초래한다. 자연에 대한 지배라는 베이컨 식의 프로그램은 강간, 고문, 심문의 언어와 비슷도 유정되고 생각되었던 통제된 실험에 주로 기초했다. '통제된' 실험은 따라서 정치적 선택이었고, 그 선택은 자연의 통제와 다른 방식의 앎을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연의 진리는 폭력에 의해서 더 접근이 용이하다고 가정되었고, 이러한 진리가 권력의 표대라는 것이 인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지식과 권력은 하나로 만나게 된다."[21] 하딩은 이것을 "도착적인 지식의 추장과 지배적 권력의 도착성 사이의 동맹"이라고 규정한다.

지식과 권력의 융착은 환원주의적 체계에 본질적이다. 왜냐하면 개념적 틀로서 기계주의적 질서는 상업 자본주의의 요구와 양립 가능했던 권력에 표대를 둔 일련의 가치들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 질서는 지식이 생성되고 구조되는 방식, 지식이 정당화되는 방식,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자연과 사회를 변형시키는 방식에 의해서 불평등과 지배를 양산한다. 북반구에 의한 남반구의 지배,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 서구화된 인간에 의한 자연의 지배는 인간성이라는 근거에서 인류의 나머지를 종속하거나 배제할 수 있었던, 지난 3세기 이상 동안 서구의 인간이 만들어낸 세계관에 내재된 지배에 뿌리를 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다. 하딩은

21) Merchant, *The Death of Nature*, p. 171에서 재인용.

이렇게 말한다.

> 우리는 이제 근대 서구 문화의 창조자들이 제공했던 앎의 방식과 세계에 대한 해석과, 그들을 제외한 우리들의 특징적인 앎의 방식과 해석 사이의 관계 속에 담긴 문화적 표지들의 결과를 식별할 수 있다. 서구 문화가 선호해온 방식들은 때로는 명확하게, 때로는 왜곡된 방식으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나 혹은 우리가 그렇기를 바랄 법한 세계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들을 창조해낸 자들—이들은 역사적으로 확인 가능하다—의 사회적 기획을 반영한다.[22]

환원주의적 과학이 다른 전통들의 지식을 배제하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1) 존재론적 차원: 단순히 다른 성질들을 주목하지 않는다. 2) 인식론적 차원: 인식과 앎의 다른 방식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사회학적 차원: 비전문인과 비숙련인은 지식에 접근해서 자신을 위해 판단하고 주장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과학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소재이다. 물질 세계를 아는 한 가지 방식을 위해서(환원주의자) 자연의 속성 중 한 가지 면만을 찾는(기계주의적) 한 집단의 사람들(전문가)을 택하는 것은 과학적 방식이 아니라 정치적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전적으로 '객관적'이고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자연 법칙'으로 제시된다. 몇몇 가지 판단에 붙어 있는 객관성이라는 외관은 특정한 전통이 사용되지만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주관성의 인상이 없다는 것은 객관성의 증거가 아니라 보지 못함의 증

27)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p. 15.

거이다. '중립적' 관찰 양식이라고 가정되었던 '통제된' 실험은 실제로는 정치적인 배제의 도구이며, 배제를 통해서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실험은 과학적 지위를 얻지 못하게 된다.

근대 과학에 대한 공격에서 폭력을 초래하는 것은 과학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을 기술에 적용할 때 정치적으로 남용하거나 비윤리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언제나 명료하게 그럴듯했다. 하지만 과학과 기술이 인식적으로 분리 불가능해지고 과학과 기술의 결합이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과학적 군산 복합체 속으로 편입되어온 오늘날에는 전적으로 지지받지 못한다. 과학을 갖가지 전문화와 하위 전문화로 조각조각 나누는 것은 과학과 특정한 사회적 조직의 모델, 다시 말해 특정한 이해관계 사이의 이러한 연결성에 대한 인식을 흐리는 연막으로 사용된다. 과학적 진리가 입증 가능하고 중립적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정당화된 신념이며 따라서 사회적 맥락과 무관하게 보편적이라고 과학은 주장한다. 하지만 배속된 전통들의 시각에서 볼 때 환원주의의 '진리'는 배속된 당사자들에게는 허위이다. 과연 우리는 근대 과학의 출현이 인간의 위대한 진보라고 간주해야 하는가? 여성과 비서구 문화를 포함한 인류 대다수의 사회적 지위가 강등되는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얻은 것인데도. 하딩은 나쁜 과학이 아니라 일반 과학에서 과거와 지배의 문화를 발견한 후 이렇게 묻는다.

> 생태적 재난을 초래하고 군사주의를 지원하며 인간의 노동을 육체적 · 정신적 불구를 만드는 일로 바꾸고 '다른 사람들'—피식민자, 여성, 빈민—을 통제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데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단지 응용 과학의 오용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실험 방식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이런 종류의 개념화가 나쁜 과학이라거나 오용된 과학으로 불리는 것이 특수하게 남성적인 일반 과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 주는가?[20]

근대 과학과 생태 위기

초자연-자연의 구분. 서구와 비서구 지역의 많은 철학자들과 사회학자, 인류학자들이 일체의 전통 사상을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역으로 추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근대 과학은 자연적이며 물질적이고, 경험적이며 이성적인 것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부여받았다. 추상적인 과학적 방식과 일치해서 과학자들은 직접 관찰 가능한 세계의 현실에 따라 진술을 제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과학자의 담론에서 이론적 개념들은 원칙적으로 직접 입증 가능한 관찰에 입각한 주장들로 환원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물론 과학 이론의 본질에 대한 초보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환원이 가능하지 않으며 그 대신에 관찰과 사실을 결정하는 것은 널리 퍼진 이론적 전제들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이론적으로 중립적인 관찰의 어휘가 없다는 것은 이론적인 주장들이 확실히, 결정적으로 입증될 가능성을 봉쇄한다. 다른 것들처럼 과학적 주장은 검증 모델과의 일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용어의 의미와 개념들, 관찰과 사실의 지위를 결정하는 이미 전제된 비유와 패러다임에 대한 과학자라는 전문가 집단의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서서히 인식되었다. 의미와 유효성은 자연 세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사회

20) Harding, 앞의 책, p. 102.

적 세계에 의해 통제되었다. 근대 과학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설명들은 전통적 사상의 신화와 근대 과학의 메타포, 전통적 공동체로 전제된 초자연적 실체와 근대 과학자들로 전제된 이론적 실체 사이를 구별하기 위한 어떤 기준을 남겨두지 않았다.

따라서 근대 과학과 전통적 사상의 이론과 실천을 인식하고 그것과 친숙해지게 되면 초자연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과 합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 사이의 구별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것은 근대 과학에 가정되어 있던 특권적인 인식론적 지위를 없애고 전통적 사상을 토착 과학의 지위로 올려놓는다. 왜냐하면 전통적 사상이 앎의 정당화 방식으로 구성되고 그 사상의 주장들이 해당 민족이 사용하는 일상 언어로 표현되며 그들의 언어 구조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범위에서 전통적 사상들은 각 사회와 그 민족에게 특별한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 사상에서 이론적 설명이 비로소 초자연적 영역이 아니라 자연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근대 과학의 설명과 동일한 인식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 사상이 갖는 인지적 힘은 과학적 설명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전통적이고 근대적 신념 체계들에 인식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 근대 과학에 인지적 우월성을 부여하는 시각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쿤이 보여준 바 있듯이, 과학자들은 실제로는 전형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어떤 경우든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21] 과학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개방되어 있지 않다. 과학적 탐구는 대중적 이미지가 전달하는 것

21) T. Kuhn,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처럼 수없는 대안들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시기에라도 당시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제약된다. 다른 한편, 전통적인 신념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통시적 시각에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신념의 정체 상태나 창조성 결여 등을 주장하는 것은 그저 추측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열린' 것과 '닫힌' 것이라는 상태에 대해 정당하게 말할 수는 없으며 단지 빠르게 변하는 것과 천천히 변해가는 믿음 체계에 대해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왜 사고 그 자체에서 일어난 더 많은 변화가 더 합리적이고 인지적으로 월등한 지식이 되어야 하는가? 포퍼의 반증 개념은 기꺼이 신념을 포기하는 것과 비판 정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게 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신념 체계들이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장으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혁명을 통한 진보라는 관점은 다시 문제에 부딪힌다. 쿤에 의하면 과학적 변화가 추상적 과학 방법이 제공하는, 순수하게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들에 따른 것이라고 할 때, 변화 자체가 어떻게 진보를 보장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관념과 지식이라는 포퍼의 비세속적인 제3의 세계에서도 신념을 더 높은 것으로 교체할수록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실제 세계에서는 관념과 신념이 행동을 선도하며 해석적 역할뿐 아니라 변형의 역할도 담당하기 때문에, 때로 너무나 빠른 신념 체계의 변화는 합리성과 비판적 정신이라기보다는 비합리성과 무책임성의 표시가 된다. 그러한 비합리성과 무책임성의 가장 두드러진 예는 현대의 생태 위기이다. 전통적 신념 체계가 생태적 재난을 초래한 환경을 물질적으로 변화시켜온 것은 흔치 않다. 토착 과학들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와 자연을 유지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한편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자연의 유지와 인간의 생계 유지 조건을 위협하는 것은 근대 과학 사상과 여기서 비롯된 실천에서 어떤 예외가 아니라 규칙인 듯하다. 특히 건강, 식량 생산과 소비와 관련된 분야에서 그렇다. 하지만 초자연적-자연적 구분과 사회-과학의 이원론을 무너뜨리고 토착 과학과 근대 과학 사이에 인식론적인 동가 관계를 세운 새로운 과학 철학들은 생태 위기에 대한 유물론적 관점에서 자연에 대한 신념의 지위를 논의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 모델을 만들어왔다. 쿤의 비탄력적인 패러다임 상자에 끼워 맞춰진 자연에 대한 결론은 자연이 부메랑처럼 돌아올 때 물질적 상황들을 도입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관점은 물질적 진공 상태를 초래한다. 자연에 대한 지식은 사고를 행위와, 신념을 실천과 구별짓는 이원론이 무너질 때에만 물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유물론적 평가 기준은 물질적 환경에서 일어난, 예견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예측된 변동보다 더 포괄적이고 강력할 때 신념 체계의 허약성을 볼 수 있게 해준다. 항생 물질이 중복 감염super-infection을 만들고 홍수 조절 조치가 홍수를 부르고, 비료제가 토양의 비옥도를 빼앗을 때 문제는 과학의 이용과 남용의 차원만은 아니다. 문제는 근대 과학에서의 지식 창출 과정 그 자체에 뿌리박혀 있다. 이 과정은 자연 자체가 만들어낸 물질적 문제보다는 과학적 신념을 통한 개입에 의해서 초래된 물질적 문제들과 더 관련이 있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

자연-초자연의 구분

유물론적 인식론에서 평가 단위를 제공하는 신념-행동과 이론-

실천의 통합은 근대 과학에서는 두 개의 다른 차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첫번째 차원에서 물질적 변동을 낳는 행동이나 실천은 실험실이라는 전문화된 환경에서 이뤄지는 과학자의 실천에 제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차원에서는 자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생태적 불안정성이 드러날 조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론을 유물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태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변동이 실험실이라는 조작된 환경보다는 좀더 넓은 자연적 배경 속에 있는 좀더 일반적인 실천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 분명한 사실은 과학적 이론화의 몇몇 유형들은 실천의 두번째 차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런 예들은 천체 물리학이나 분자 물리학과 같은 이론들인데, 이 두 이론은 현재 상태에서는 실험 조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질적 변화에서 정지되어 있고 좀더 큰 환경으로 넘쳐흐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은 토착 과학과 비교되거나 생태적 시각에서 평가되는 맥락에서는 그다지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비록 관념에 대한 분석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과학의 이원론적 철학에서는 이 분야들이 환원주의적-실증주의적 사고 체계에서 가장 진보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흥미로운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작업을 위해서 의미 있는 과학적 이론과 실천은 생태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좀더 넓은 자연적 환경에서 과학적 실천을 하는 유형이다.

근대 과학에는 지식에 대한 세번째 범주가 있는데, 이것은 분자 물리학과는 달리 실험적 연구실의 물질적 공간을 넘어서 있고, 건강, 식량, 농업에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는 달리 생태적 불균형을 낳지도 않는다. 전자 공학과 그 배경이 되는 전문 분야가 그 예이다. 이러한 과학적 영역들은 물리적으로 인공적이며 사람이 만든 환경에서 이뤄지는 실천이라는 두 차원 모두의 성격을 갖는다. 이

러한 신념에서 나온 변형 행동의 일부로 만들어진 가공품은 자연의 과정과 자연 내에서의 관계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자연에서 나왔으면서도 이 가공품들은 창조 후에는 자연과 독립해서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가공품을 만드는 일은 인간의 생존을 보장하는 자연 과정을 대체하지 않는다. 단지 자연의 물질 세계를 보충하는 것이지 그것을 대신할 대체물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이른바 탈산업화 사회들이 소위 저개발 국가들로부터 온 수입품들로 그들의 필수 식료품을 충당한다는 사실보다 인간이 자연에 지속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것을 더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겠는가? 생태적 시각에서 과학 사상의 물질적 부적합성은 인간의 생존에서 자연이 계속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맥락에서만 중요해진다.

역사와 자연에서 단선성을 내면화한 사람들에게 토착 과학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은 '뒤로 후퇴하는 것' 처럼 보일지 모른다. 자연의 생태계와 인간의 사회를 위한 안정된 질서로서 다원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착 과학을 통해 계몽되는 것은 환원주의의 길에서 한동안 길을 잃었다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자연은 다양하며 자연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이 다양성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토착 과학들은 다원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보편화된 환원주의 과학은 단일하기 때문에 자연을 믿을 만하게 설명할 수 없다. 어쨌든 객관성이라는 것이 그 대상을 파괴하는 단일한 부적절한 대답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

최근의 역사는 인간 활동의 몇몇 분야에서 생태적 사고와 행동으로 복귀하는 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유 수유의 원시적 실천은 신생아 식품 산업의 광고와 환원주의적 주

장 때문에 불신받아왔다. 하지만 모유 수유의 생태학은 다시 한번 제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시적' 실천은 지금에 와서는 계몽된 실천이 되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환원주의적 패러다임에서 발전될 유일한 방법인 듯이 보였다. 토착 의학에서 보여준 노력은 다시 한 번 건전한 약과 치료법을 돌려주고 있다. '40세기 동안의 농부들' 을 창조한 지속 가능한 유기 농법은 전통적 기반의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생태적 사고와 행동을 위한 이러한 각 단계는 토착 과학이 전통과 만남으로써 가능해졌다. 세계가 생존을 위해 보존되어야 한다면 보존하는 인간의 잠재력이 우선적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태계 파괴를 예견하고 멈출 수 있다.

현재 여성의 생태적 투쟁은 한결같음과 안정성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시도이며 자연의 필수적인 생태 과정과 균형을 이루는 것은 기술적 퇴보가 아니라 좀더 기술적으로 세련되어지는 것이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의 4분의 1이 토양과 물, 살아 있는 자원의 유전학적 다양성 때문에 겪어야 하는 기아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 자원 파괴적 기술이 유포되어 끊임없는 성장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것은 인종 학살의 주된 원천이 된다. 자연을 죽여서 인간을 살해하는 것은 오늘날 정의와 평화에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비가시적 형태의 폭력이다.

환원주의적 과학에 대해 페미니즘과 생태학으로부터 나온 비판은 과학적 신념을 평가하는 영역을 좀더 넓은 물질 세계로 확장한다. 사회적으로는 과학적 실험과 신념의 세계는 소위 숙련가와 전문가를 넘어서 세상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배제되어온 사람들 모두 —여성, 농부, 부족민—의 세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과학적 체계의 검증과 유효성은 실천과 실험이 사회와 자연 속

에서 진정한 생명 활동이 되는 그런 실천을 통한 유효성이 될 것이다. 하딩은 이렇게 말한다.

> 신이나 전통 그 어떤 것도 근대 문화에서 과학적 합리성이 받는 신뢰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 과학의 신성함이 터부로 만들어놓은 기획은 다른 기관이나 사회적 실천이 검증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과학을 검증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근대 과학의 탄생부터 인간에게 전해져온 신성한 계율이 아닌 문화적 가공품으로서 과학의 특혜받은 지적 구조와 실천을 시험하고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성별 상징 체계, 과학의 성별화된 사회적 구조와 개별 과학자들의 남성적 정체성과 행동이 문제들, 개념, 이론, 방식, 해석, 윤리, 그리고 과학의 의미와 목표에 표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30]

여성적 원리를 지적으로 회복하는 일은 환원주의가 낳은 죽음과 폐기성의 지적 문화를 무효화하는 힘으로서, 여성과 비서구 문화가 모든 생명의 민주주의를 수립하는 주요한 행위자가 되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낸다.

생태 운동은 자연이 생존을 위한 선택지를 보존하기 위해 보존되는 비폭력적인 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한 정치적 운동이다. 이 운동들은 아직 소규모이지만 점점 성장하고 있다. 이 운동들은 국지적이지만, 운동의 성공은 비국지적인 영향력이 있다. 이 운동들은 오직 생존권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는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권리와 결합된다. 이러한 풀뿌리

30) Harding,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p. 30.

녹색평론》 제57호 (2001년 3-4월호)

힐러리에게 암소를
세계화 경제를 넘어 '자급'의 삶으로

마리아 미즈/베로니카 벤홀트-톰센

이 글은 최근 국내에 《에코페미니즘》의 공저자 중의 한사람으로도 소개된 바 있는 독일의 생태여성주의 사상가이자 활동가인 마리아 미즈(Maria Mies)가 그 동료 베로니카 벤홀트-톰센(Veronika Bennholdt-Thomsen)과 함께 집필한 새로운 책 Eine Kuh fur Hillary : Die Subsistenzperspektive(1997)의 영어판 The Subsistence Perspective : Beyond the Globalized Economy(1999)의 서문을 옮긴 것이다. "Subsistence Perspective"는 성장 , 개발 , 세계화 경제의 이데올로기의 지배 밑에서 지금 파탄끝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에 필요한 진정하게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서 근년에 유럽, 특히 독일의 생태운동가들 사이에 관심적인 화두로 등장한 것으로 보여지만, 이 책의 저자들은 이 새로운 개념이 근본적으로 제3세계 빈민의 삶의 방식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영어 말인 subsistence는 기초적인 생존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문맥적으로 '자급의 삶'으로 번역하였다.

1995년 4월 북경에서 '유엔 세계 여성회의'가 열리기 몇달 전 미국의 퍼스트레이디 힐러리 클린턴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였다. 그녀의 방문목적은 방글라데시 시골마을들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어온 '그라민은행'(Grameen Bank=룸펜의 민중의 자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가난한 시골마을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소액의 사업자금을 무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 , 운영중에 있는 은행 — 역주)의 사업이 정말 소문대로 잘되고 있는지를 몸소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그라민은행의 소액대출은 방글라데시에서 농촌여성들의 상황을 놀랄 만큼 활성시켜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클린턴 부인은 정말 이 여성들의 힘이 소액대출 때문에 커졌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라민은행이나 개발지원 기관들에게는 '여성의 힘이 커진다'는 것은 한 여성이 자기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얼마간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힐러리 클린턴은 마이사하디 마을을 방문하였고, 거기서 그곳 여성들의 상황에 대하여 몇몇 여성들과 회견을 가졌다. 여성들은 대답하였다. "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수입이 있어요." 그들은 얼마간의 '자산'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암소, 닭, 오리 등이라고 했다. 아이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그들은 말했다. 이러한 대답을 듣고 클린턴 부인은 만족스러웠다. 마이사하디 마을에서 여성들의 힘은 분명 커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질문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 여성이 되고, 힐러리 자신이 대답을 해야 될 차례가 되었을 때 미국의 퍼스트레이디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질문과 대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아파[자매님], 당신은 암소가 있어요?"

"아뇨, 나는 암소가 없는데요."

"아파, 당신은 자기 소득이 있어요?"

운동의 성공은 생존이란는 진지구적 맥점과 연결되어 있다. 북쪽가 세계인의 경쟁 승리의 차원에서 생태학적으로 재구성되지 않는다면 평화와 정의는 계속해서 잠꼬대할 것이고 결국 인류의 반은 그 자체가 위험받을 것이다.

"실은, 전에는 내가 직접 벌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대통령이 되어 백악관으로 옮긴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돈버는 일을 그만두었답니다."
"아이들은 몇 있나요?"
"딸 하나예요."
"아이들을 더 갖고 싶진 않나요?"
"네, 하나나 둘쯤 더 갖고 싶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딸 첼시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마이샤하티 마을 부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참 안됐네! 힐러리 부인은 암소도 없고, 자기 소득도 없고, 아이도 딸아이 하나뿐이라는군."
방글라데시 농촌여성들의 눈에 힐러리 클린턴은 결코 힘이 있는 여성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꼈다.

암소 한마리와 닭 몇마리와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 힘이 있다고 느끼는 방글라데시의 농촌여성들과 힐러리 클린턴 사이의 인터뷰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여성들이 어째서 힐러리에게 동정심을 느끼는가? 힐러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방글라데시의 농촌여성들은 단지 순진하거나 무지한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여성들은 클린턴 부인이 '부유한'나라에서 왔고,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위의 에피소드는 힐러리 클린턴과 방글라데시 마을 부인들이 갖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요약적으로 드러낸다. 이 여성들은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와 전혀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은 '밑으로부터의' 관점, 즉 자급의 관점이다. 이런 시각에서 세상을 볼 때, 모든 사물과 관계는 전혀 다르게 보인다. 특히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다. 그것은 좋은 삶이 가능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고, 물건이 많아야 되고, 사치품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좋은 생활은 북반구의 부유한 나라와 세계도처의 부유계층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클린턴 부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북반구의 부유한 여성들의 관점과 전혀 다른 것이다.
아마도 방글라데시 시골에서의 그 회견은 클린턴 부인에게는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십중팔구 시골마을 부인들이 공손한 태도로 얼마간의 사업자금을 요청하고 이 세계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자의 아내인 자신을 우러러보리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시골마을 여자들은 힐러리의 '위로부터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인터뷰 동안, 그들은 부와 가난에 대해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수입상품으로 가득찬 슈퍼마켓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구인들이 갖고 있는 빈곤과 부와 좋은 삶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드러내주었다.
아마도 클린턴 부인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결핍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지 모른다. 자기 나라의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어떤 것일 것이다. 자부심, 위엄,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능력 —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우리는 그것이 '자급의 관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급의 관점은, 스스로의 생명(삶)을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서며, 자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의 모태이다. 우리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자급의 관점이다. 우리도 힐러리 클린턴처럼 부유한 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부의 모델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이런 형태의 '좋은 삶'의 추구가 초래하는 파괴 — 자연의 파괴, 외국인의 파괴, 민중의 자립과 존엄성의 파괴, 아이들의 미래의 파괴,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것의 파괴 — 때문이다. 우리는 항구적인 상품, 서비스, 돈의 성장을 노리는 '위로부터의' 관점으로는 이 시스템이 만들어낸 궁지에서 우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배적인 패러다임과의 근원적인 단절과 새로운 관점, 새로운 비전의 모색이 불가피하다.

우리가 자급의 관점의 윤곽을 그려나가려는 노력에 있어서, 방글라데시 농촌여성들은 우리의 스승이 된다. 그들이 힐러리 클린턴과 나눈 대화는 비단 그들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의 모든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중요한 것은 독립적인 생존을 확보하는 일이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부인들에게서 5가지 교훈을 얻는다.
첫째, 밑으로부터의 관점이다. 우리가 현실을 볼 때,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여성의 관점 특히 남반구의 농촌여성과 가난한 도시여성들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우리는 일상생활과 그 정치, 삶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여성들의 관점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밑으로부터의 관점은, 사회 '꼭대기층'의 삶과 라이프스타일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삶의 이미지라고 하는 믿음이 얼마나 그릇된 망상인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망상에서 벗어나옴으로써 우리는 이런 식의 이른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오직 소수에게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그것도 타자 — 자연, 타인, 여성, 아이들의 희생 위에 가능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둘째, 방글라데시의 여성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자급의 관점은 돈, 교육, 지위, 특권이 아니라 기초적 생존수단, 즉 한마리의 암소, 몇마리의 닭, 아이들, 땅, 그리고 얼마간의 독립적인 현금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이다.
셋째, 바로 이러한 독립적인 생존능력을 스스로 갖고 있다는 데 대한 깨달음이 마이샤하티 마을의 여성들에게 미합중국의 퍼스트레이디를 단지 그들의 '나이든 자매'로서 대등하게 대할 수 있는 자부심과 위엄과 용기를 부여한 것이다. 그들은 남의 도움으로 얻어먹는, 비굴한 거지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발로 서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배운 네번째의 교훈은 이 여성들의 인터뷰를 통해 엿보이는 정신자세는 《가족,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의 끝에서 프레데릭 엥겔스가 언명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지배계급에게 좋은 것은 그 지배계급이 속한 사회전체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오히려 방글라데시 여성들의 전망은 그 반대를 가리킨다. 즉, "방글라데시 마을 여성들에게 좋은 것은 전체사회에 좋은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뜻하는 것은, 사회주의적이고, 성차별이 없고, 비식민주의적이고, 생태적이며, 정의롭고 좋은 사회는 지배계급의 생활양식 — 예컨대, 모든 사람이 벤츠와 캐딜락을 소유한 — 을 모델로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런 유토피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급에 토대를 둔 기초적 생존양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엥겔스의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고자 했던 역사적 기획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결국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섯째, 우리는 세계를 '제1'과 '제3' 부분으로 나누는 정신분열 증상을 보기때이 한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 여성들도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들은 그들과 미합중국의 파스트에이다 사이를 갈라놓는 간극을 의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구분과, 이 구분에 따르는 갖가지 차별을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힐러리 클린턴은 부엇보다도 '나이 든 자매'이자 한사람의 여성이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그들 자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삶의 필요와 욕구 — 즉, 지금적 삶의 수단('남소')과 얼마간의 독립적 소득(남편으로부터 독립된)과 아이들 — 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이러한 자급의 입장이 그들 자신뿐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마을여성들과 같은 의견이다. '자급의 관점'은 이른바 개발도상국들과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다. 이른바 선진국들과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복잡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관점일 수밖에 없다. 이념적으로, 위계적으로 나뉘어진 두개의 경제는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물론 이른바 '경제'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도전한다. 만약 '경제'가 산업의 끊임없는 팽창, 상품의 생산 및 소비, 자본축적의 계속적인 확대를 목표로 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제'는 자급의 관점과 양립할 수 없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이 시스템은 경제를 조직하는 유일하게 가능한 모델로서 정리되어왔다. 우리는 흔히, "대안이 없다"라는 말을 듣는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부재'의 신드롬에 감염되기를 거부하면서, 우리는 이 책에서 새로운 '경제'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것은 여성과 타인들과 자연에 대한 계속적인 식민화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가부장적 경제시스템보다도 더 오래되고 동시에 더 젊은 경제 개념이다. 이 새로운 경제는 생명과 이 지상에서의 삶의 산출과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경제 및 사회활동의 중심에 두지, 돈이라는 죽은 물질의 끝없는 축적을 중심에 두지 않는다.

'자급'이라는 개념은 보통 가난과 후진성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우리는 자급이 의미하는 것은 생존의 가장자리에서의 고된 노동과 삶뿐만 아니라 삶속의 기쁨과 행복의 중요요소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의 것 — 일, 문화, 자기자신의 능력 — 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멈추고, 또 좋은 삶이란 '독립기'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라는 관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자기자신의 것에 대한 이러한 과소평가의 습관은 강요된 식민화와 전적화의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식민화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왔다. 스스로 자신의 것을 낮게 보는 이러한 습관은 나아가서, 우리가 '따라잡기 개발'과 '따라잡기 소비주의'라고 부르는 또하나의 환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 환상은 사회적 피라미드의 맨아래에 있는 모든 식민화된 사람들도 때가 되면 독립기의 사람들 수준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에 뿌리박혀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따라잡기' 경제모델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화되고, 계속 팽창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 경제의 맨아래쪽으로부터 보는 관점은, 어떤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절망감을 낳는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정으로 좋은 삶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러한 삶을 위해 필요한 진정한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하도록 도와준다. 방글라데시와 기타 다른 남반구 국가들의 농촌여성들은 백악관이나 그밖의 다른 부유한 세계로부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강한 여성들이다. 그들이 절망으로 생요로 하는 것은 그들의 등에서 억압자들이 떨어져나가는 일이다. 자기 사회내부의 가부장적 남성들, 다국적기업들,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세계은행과 IMF, 그리고 이러한 국제자본의 투견인들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자국내 관료들이 바로 그러한 억압자들이다.

우리의 사람적인 삶에 필요한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내부와 둘레에 있는 자연과의 협의 속에서만 발견될 수 있다. 이 힘은 돈이라는 죽은 물질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상호의존 속에 있지, 경쟁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자주적인 행동에 있지, 수동적인 소비생활에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너그러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기쁨 속에 있는 것이지, 개인주의적 이해관계와 사기성 속에 있는 게 아니다. 또한, 이 힘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우리의 친척이라는 우리 자신의 깨달음 속에 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독자들과 우리 자신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적 경제시스템이 결코 어떤 불변의 자연법칙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수세기 전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며,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대안부재' 신드롬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더러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대안이 결코 없는 게 아니다. 우리는 자급의 관점이야말로 대안이라고 믿는다. 게다가, 오늘날 이른바 경제의 세계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새롭고 특이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필수요건을 구성해왔던 식민화와 '원시적 축적'의 불가피한 연장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계속되어온 식민화와 그 파괴는 북반구의 산업국가들에서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은 북반구에 있어서의 절망하는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지금 산업화된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금융 · 경제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갑자기, 북반구 산업국가들에서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방글라데시의 농촌여성들로부터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아직 커다란 양적인 간극이 있지만, 그러나 구조적으로 볼 때 북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은 남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과 더이상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갑작스런 깨달음 앞에서, 대부분의 북반구 사람들은 사실을 부정하려 들거나 아니면 공포를 느끼고 있다. 경제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은 늘 그들에게 자본주의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해왔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북반구나 부유한 사람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따라잡기 개발을 통해서, 남반구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부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이 따라잡기 개발이란 것이 하나의 신화일 뿐이며, 한쪽의 부와 권보, 다른쪽의 빈곤과 피보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둘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사람들은 지배적인 경제시스템의 안팎생이라는 게 결국 대부분 허풍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갈수록 소수의 손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에 주변하여, 필연적으로 북반구에서조차도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점점더 빈곤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어간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 · 경제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돈과 자본이 인간한 삶을 위한 견고한 토대가 못된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토대는, 최근의 타일랜드에서처럼, 하루아침에 붕괴할 수 있고, 은행가라 할지라도 일시에 거지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금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의 대부분의 도시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에 불쾌함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경제의 붕괴는 세상의 종말, 물질적 안전의 끝을 의미한다. 방글라데시의 여성들과 달리, 그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땅조 한마리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방글라데시 마을여성들 —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을 대변하는 — 의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종말론적 절망의 기분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 그런 절망감은

북반구의 소수 승리받이들의 사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절망감은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특히 그들이 누리는 특권이 막대에 기초해 있으며, 모두에게 좋은 삶이란 — 즉, 지금적인 삶 — 그러한 특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금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또한 외부나 위로부터의 힘으로부터 커다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진 힘을 의식하고, 그에 따라 개인으로서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책에서 지금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 생태적, 경제적, 여성주의적, 반(反)식민주의적 관점에서 — 또한 이 새로운 관점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도처에서 시작되어왔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나아가서 이 새로운 관점이 변혁가는 '모든' 기본적 사회관계 — 남녀간, 세대간, 도농간, 여러 계급들 및 사람들 사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 — 를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
모든 경제 및 사회적 활동의 중심적 관심사가 죽어있는 돈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삶을 장조하고 유지하는 것이라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4주차

노동, 노동, 여성노동!

- 「기혼여성의 가족과 노동시장에서의 적응」 변은지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 1998
제5장 비정규 노동 실태 및 문제점 (2)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경제와사회51호 특집 / 장이수
3. 우리나라 여성노동의 구조의 변화와 특성
4.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
5.맺음말 : 여성노동자, 페미니즘, 노동조합
-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51호 특집 / 장지연
- 『[비정 끝에 선 삶 : 시장의 논리와 삶의 위기] 고삐 풀린 자본과 주변화된 여성노동』
당대비평 15호 특집 / 이주원)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3자 사원 연속 워크샵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조성희

(3) 비정규 노동의 문제점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 전략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을 이중구조화하여 소득분배를 악화시키고 비정규 노동자의 빈곤과 고용불안정을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실 직종에 걸쳐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은 실제로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별을 받고 있다. 파견 근로자의 경우 주 평균 근무일수는 5.9일, 주 평균근무시간은 58.2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며, 임금은 정규직의 70.3%에 불과하다. 파견직 내에서도 성별로 격차가 벌어져, 여성은 남성임금의 70% 정도에 불과한 반면, 근무시간은 남성보다 16%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조순경, 1998).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간의 괴리는 매우 커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최영숙, 1997). 이에, 본 절에서는 민주노총(1996)과 한국노동연구원(1997)의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의 노동력의 특성과 근로조건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노동현장에서 발견하는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1) 비정규 노동의 저임금 구조

한국노동연구원(1997)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평균적으로 정규직보다 25% 정도 낮다. 그 중에서도 파트타임이 정규직의 65%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연구(1996)에서는 비정규직이 계약직을 제외하고는 정규직의 68%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저임금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자의

경우 임시/일용직은 정규직의 64% 수준에 불과하며, 여자의 경우에도 파견직은 정규직의 50% 수준이며 임시/일용직은 86% 수준이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고용형태별, 성별을 불문하고 대부분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 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5-6 참조).

표 5-6. 고용형태별, 성별 임금수준 비교

(단위 : 만원, %)

고용형태별	전 체	남 자	여 자
정규직	162.9	172.5	127.6
임시/일용직	110.2(67.7)	110.4(64.0)	109.9(86.1)
파견직	110.6(67.9)	128.1(74.3)	65.0(50.9)
촉탁/계약직	145.8(92.5)	136.9(79.4)	165.9(130.0)
전 체	161.5	169.7	125.4

주 : 1) 임금=기본급+각종수당+연간보너스/12

2) ( )내는 정규직 임금에 비교한 상대임금임.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자료집,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6.

직종별로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면 모든 직종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사무직 남자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며 사무직 여자, 전문기술직 여자도 임금격차가 크다. 이에 비해 생산직, 단순노무직 등은 정규직의 86-7%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동일 직종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보면, 전체적으로 임시/일용노동자는 정규직의 83.2%, 파트타임 노동자는 83.2%, 파견노동자는 77.2%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에서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 고용형태,

직종, 성별을 불문하고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단 임금수준면에서 뿐만 아니라 각종 부가급여의 혜택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정규직은 모든 부가급여 항목에 걸쳐 80-90%대의 높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비정규 노동자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50%를 밑도는 적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상여, 산후휴가, 생리휴가 등은 매우 낮은 적용률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는 파트타임 노동자의 적용률이 특히 낮은 편이며, 외국인 노동자, 파견노동자도 비교적 낮은 적용률을 나타내고 있다.

2) 장시간 근로

주당 근로시간은 정규직이 평균 47.6시간인 반면, 비정규직 중 파견근로자의 경우 주당 50.3시간으로 가장 평균근로시간이 길었다. 또한, 파트타임은 43.1시간으로 정규직보다 3시간이 짧으며, 임시 일용직과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과 비슷한 시간인 46.2시간과 47.2시간을 나타냈다.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은 파견노동자이며 주당 근무시간이 가장 긴 것은 임시/일용 노동자이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42.9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에 가까웠는데, 이중 27.2%는 법정 근로시간인 44시간을 넘는 것을 나타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대 주당 56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고 볼 때, 12.3%가 적법한 근로시간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에 못지 않은 노동시간을 나타냈다.

이는 민주노총의 조사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표 5-7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 근무시간, 월간 근무일수가 정규직 노동자보다 길며 연간 유급 휴가일수는 적어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7 전산업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 및 휴가비교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 체	임시/일용	파견노동자	계약/촉탁
월간 근무일수(일)	27.02	27.49	25.93	25.97	27.93
일일평균 근무시간(시간)	9.80	9.92	8.70	11.40	9.04
주당평균 근무시간(시간)	51.23	48.30	47.65	46.83	46.12
연간실제 유급휴가일수(일)	16.16	11.33	9.84	17.13	15.35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자료집,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6.

3) 비정규직의 상용화와 고용불안정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근로계약 조건 실태를 보겠다. 민주노총(1996)의 연구에서, 자신의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 비정규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잘 모르고 있거나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파견노동자의 경우 64.1%가 자신의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는 사용회사, 파견회사, 파견노동자 3자간의 복잡한 근로계약 관계와 더불어 파견회사가 파견노동자에게 근로계약 내용을 잘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근로계약방법으로서는 정규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이 개별적, 또는 단체(노동조합 등)로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경우 단체근로계약 작성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개별적으로 서면 작성하거나 또는 구두계약(20.1%)하고 있으며 아예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맺지 않고 있는 경우도 16.4%에 달한다.

한국노동연구원(1997)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4년을 넘고 있어 비정규 근로의 상용화가 나타난다. 파견근로 및 파트타임이 4.4년, 임시, 일용직이 5년, 계약직이 5.2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계약이 자동 연장되거나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법을 통해 상용화되고 있으나, 신분상으로는 비정규직의 대우를 받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이 관행적으로 고용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계약시에 해고의 불안을 안고 있다. 고용안정성 면에서 비정규 노동자의 77.4%는 자신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불안정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4) 복리후생 적용의 배제

복리후생 측면에 있어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은 적용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7). 특히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초과수당과 휴일 특근수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어, 복리후생이 열악한 사각지대에 처해 있음이 문제점을 대두되고 있다.

표 5-8에서 알 수 있듯이 건설 일용 근로자의 복지 실태는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전무한 실정이다. 가장 심각한 고용불안정에 있는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혜택은 없고 부담만 있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가 가장 필요한 건설일용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정규직은 사업주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은 전체 노동자의 70%가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되므로 사업주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표 5-8.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장제도 비교

복지제도	상시 정규직	일용 비정규직
국민연금보험	5인이상 전사업장	적용안됨
산재보험	5인이상 전사업장	예외적 적용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등)
고용보험	30인이상 전사업장	적용안됨
근로자 복지증진	10인이상 전사업장	적용안됨
의료보험	5인이상 전사업장	지역의료(2-3배의 부담)

자료 : 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 정책자료, 1996

표 5-9는 금속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조건 및 복지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40개의 사업장 중 임시, 일용직의 경우 성리휴가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15%에 불과하며, 각종 법정 휴가도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다. 표 5-10의 전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으며, 제조업 사업장이 비제조업에 비해 더 열악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의 적용은 20~40%의 심각한 수준에 있다.

표 5-9. 금속산업의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복지조건의 비교

(단위 : %)

항 목	정규직	임시/일용직	파트타임 노동자	용역직(파견직)	외국인 노동자
프라근무수당	77.5	52.5	15.0	20.0	17.5
휴일특근수당	77.5	42.5	10.0	20.0	15.0
산업재해보험	72.5	32.5	7.5	17.5	5.0
의료보험	75.0	27.5	2.5	17.5	7.5
고용보험	75.0	30.0	20.0	12.5	2.5
국민연금보험	72.5	17.5	20.0	15.0	2.5
퇴직금제도	75.0	27.5	20.0	17.5	5.0
보너스	75.0	27.5	20.0	22.5	5.0
월차휴가	75.0	32.5	20.0	17.5	7.5
연차휴가	75.0	27.5	20.0	12.5	7.5
산전,산후휴가	67.5	12.5	20.0	10.0	2.5
생리휴가	72.5	15.0	20.0	12.5	5.0
노조가입자격	75.0	5.0	20.0	2.5	-

자료 : 민주금속연맹, 고용실태조사보고서, 1996년

주: 조사 노동조합수 : 40개

표 5-10. 전산업 정규직, 비정규직의 부가급여 혜택비교(노동조합조사)

(단위 : %)

항 목	정규직	비정규직			
		일 시	파트타임	파견노동	외국인
프라근무수당	97.5	67.8	37.5	36.8	76.6
휴일특근수당	95.1	57.4	29.2	54.1	71.4
산업재해보험	82.7	47.5	21.7	37.8	21.4
의료보험	97.5	54.1	21.7	43.2	39.7
고용보험	96.3	37.7	4.3	27.0	7.1
국민연금보험	96.3	37.7	8.7	35.1	7.1
퇴직금제도	97.5	54.1	13.0	45.9	21.4
보너스	98.8	47.5	4.3	49.6	21.4
월차휴가	96.3	59.1	17.4	54.1	28.6
연차휴가	98.8	49.2	8.7	40.5	28.6
산전,산후휴가	87.7	27.9	4.3	29.7	14.3
생리휴가	90.1	44.3	17.4	40.5	14.3
노조수	81(100.0)	83(100.0)	23(100.0)	27(100.0)	14(100.0)

자료 :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정책자료집, "노동시장 유연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996년.

5) 비정규 노동자의 직장불안족

이상에서 살펴본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그리고 고용불안정 상은 비정규 노동자의 직장 만족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60.5%가 불안족했으며, 근로조건에 대해 불안을 가진 이유는 정규직과의 차별대우(51.0%)와 저임금(43.8%) 때문이었다. 현재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지에 대해서는 반수를 약간 넘는 노동자가 이직을 희망하였다. 이직 희망이유로서는 저임금, 고용불안정, 직장의 장래성 결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추진되어 오고 있는 회사의 고용조정정책의 성격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합리화의 성격이 기술의 유연성에 기초한 정규직의 감원에 있기 보다는 고용의 유연성(수량적 유연성)에 기초한 정규직 감소-비정규직 증대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의 채용이유가 주로 인력조정의 용이성과 인건비의 절약에 있다고 응답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 노동자군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임시직/일용직 노동자와 용역노동자(파견노동자)의 채용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채용의 가장 큰 이유로는 인력조정의 용이성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한편 사내하도급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거의 57%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본에 의한 내부 노동시장의 계층화와 이로 인한 고용문제의 발생, 노동조합 영향력의 약화 가능성 등이 주요한 현안 문제로 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비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일상활동, 복지문제, 그리고 이들의 조직화 문제 등에 대한 노조의 대응은 아직까지 미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조직화 노력은 조사 대상업체 중 7.5% 정도에 그치고 있어, 양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이들 노동자들과의 결합문제가 노동조합의 중심사안으로 자리잡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와사회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강이수
(상지대 교수, 여성학)

이 글은 최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현재 여성노동자가 직면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은 최근의 경제위기의 충격은 물론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와 그에 따른 여성노동의 재구조화 추세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주로 1990년대 이후 여성노동력구조의 변화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통합은 불안정하지만, 여성들의 노동 참여의 양적 증대 즉, '노동력의 여성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기혼 여성노동력의 참여가 농가부문을 넘어서서 전체 생산부문으로 확장, 증대되고 있다. 저연령, 미혼 여성으로 대표되었던 생산직의 경우, 1998년에 미혼 성의 비율은 6.9%에 불과하다. 그외에 여성의 새로운 직무는 주로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는 서구에 비해 여전히 매우 크지만, 남녀 임금격차와 성별 직종분리는 최근 약간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주목되는 현상 중의 하나는 여성노동력 내부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 여성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고학력여성과 저학력여성, 미혼여성과 기혼여성과 같은 여성노동력 집단별로 이질화와 양극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변화된 노동시장상황하에서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문제도 다양화되고 있다. 노동력의 여성화는 성별 분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기혼여성노동력의 증대는 여성노동자문제에 있어 가족관련 요구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화와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 여성노동력의 증가라는 상황은 여성노동력의 증가라는 상황은 여성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성별 평등을 향한 페미니즘의 노력은 성별 격차의 축소라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력 내부의 격차 확대와 이질화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여성노동자 이해의 다양성과 문제영역을 짚어보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앞으로 노동조합과 페미니즘의 양 측면에서 새롭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1.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현재 여성노동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최근 우리 여성노동시장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여성실업의 증가와 실망실업자화, 파트타임이나 파견근로와 같은 비정규근로의 확대, 임신퇴직과 같은 가부장제적 고용관행의 공공연한 재등장 등 여성노동자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여성실업과 우선해고 그리고 비정규직화에 대한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등 단기적인 정책 제시와 모색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여성노동자 상황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드러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한 여성연구자는 지난 2, 30년 간 세계 각국의 여성노동시장에 대해 '성별 지각변동(Genderquake)'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급속한 구조변화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한다(Bradely, H., 1999). 즉, 경제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의 유연화전략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남녀노동력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도 더욱 직접적이고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같은 구조적 시각 속에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문제영역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여성노동이 경험하고 있는 주요한 변화의 축은 한편으로 '노동력의 여성화'의 진전과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력의 분절과 양극화'라는 두 측면이다(Afshar, H., 1999). 즉, 양적으로는 참여가 증대되고

해 여성들의 경험의 공통성(commonalities of experience)에 기초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업의 불안정성, 여성 취업 및 승진의 제한된 기회, 자녀양육 문제의 부담, 남성들의 성차별과 성폭력 등 여성이 경험하는 제반의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고, 일정한 성과를 획득해온 것이다. 이 같은 도전을 위해 페미니즘이 주도해온 주요 정책의 방향은 서구의 경우 성차별 금지와 각종 부문에서의 동등기회정책(Equal Opportunity Programmes)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등기회정책은 여타의 정치·경제적 도에서 여성 승진기회 장벽의 제거, 남녀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함으로써 남녀간의 격차를 축소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대부분의 노동계급 여성, 특히 저임의 게토화된 직업군에 있는 여성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들이 처해 있는 일터에서의 직업과 빈곤 상황 그리고 가정에서의 무임노동 및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이중적 부담을 극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Wanskere, R., 2001).

한편 차별금지법이나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 역시 고용주들이 변화에 대해 많은 저항을 해온 사적 부문보다는 법률, 의학, 회계 등 공식교육 경력 및 전문인으로서의 일정한 자격이 요구되는 직업이나 부문에서는 효과가 있으나, 대부분의 여성들이 고용된, 저숙련의 여성 중심적 직종들에서는 실제로 별이 거의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밀크만(Milkmann)은 이 같은 요구보다는 동일임금과 같은 요구들이 노동계급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Milkmann, R., 2000). 아울러 1990년대 들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정치적 분위기하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직적·투쟁적인 활동보다는 법적·정책적 과정에만 의존해 동등기회 확보에 주력함으로써 여성운동의 동력이 떨어졌고, 이에 따라 여성집단 내부의 양극화와 하층여성들의 불평등문제가 한층 심화된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결국 페미니즘이 성별 격차에 도전하여 일정한 성과를 얻은 반면에 여성 내부의 격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인식과 대처를 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하층 노동계급 여성들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방치되어왔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인 것이다.

3. 우리나라 여성노동력구조의 변화와 특성

그렇다면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성 그리고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검토해보기로 하자. 1960년대 산업화 이후 저임금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산업화로 저학력, 미혼여성의 참여를 주종으로 구성되어 있던 여성노동력의 특징은 1980년대 이후부터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여성노동력 구성의 대표적인 변화양상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동력의 여성화' 그러나 불안정한 통합

우리의 경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0년대 이후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60년 26.8%에서 1980년에는 42.8%로 증가하였다.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49.5%에까지 이르렀다가, 크게 감소하여 1998년에는 1990년 수준인 47.0%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2000년에는 48.2%를 나타내고 있다. 즉, 경제위기는 단기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 취업자 가운데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여성취업자수는 1963년 전체 취업자 756만 명 중 34.8%인 263만 명이었으나, 1990년에는 40.8%, 1997년 41.2%였다. 이 역시 경제위기 이후 감소하여 1998년에는 40.4%까지 떨어졌으나, 다시 서서히 증가하여 1999년에는 전체 취업자 2,280만 명 중 40.9%인 850만 3천 명에 이르고 있다(통계청, 2001). 즉, 우리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서구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지만, "노동력의 여성화"라는 일반적인 경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노동력의 여성화'가 서구에서처럼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통합된 양태인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경제위기 최초의 충격은 우리의 경우 여성노동력의 대량해고와 여성실업자 중 상당 부분이 실망실업

자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신경아, 1999). 즉, 실업시 계속 경제활동 참여인구로 남아 취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이전하는 것이다. 권혜자(1999)는 여성들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보다 높고,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확률은 남성보다 낮아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통합도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 그러나 남녀실업자의 실업탈출구조에 대한 분석을 보면, 여성노동자들은 재취업률, 즉 기대실업기간과 실업빈도는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쉽게 재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태홍, 2000).[3]

즉, 여성은 경기변동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밀려나 쉽게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고 있으나, 단 재취업시에는 남성에 비해 불리한 직업도 감수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다시 경제활동 참여의 증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력의 여성화'는 진행되고 있으나 제한적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은 전체 노동력의 주요 부분이면서도 여전히 일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보다는 부수적인 이차적 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성별 분업, 즉 남성=일, 여성=가정이라는 성별 분업이 깨지지 않고 있는 현실의 반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취업은 '남성=일, 여성=일과 가정'이라는 여성의 이중부담만을 강화하는 새로운 성별 분업으로 고정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가정이라는 성별 분업의 경계를 와해시키고, 남녀 모두에 있어 일과 가족이 병존하는 체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

2) 권혜자(1999)는 노동력인구의 이행확률분석에서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확률은 남성이 63.9%, 여성이 41.4%이고, 반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은 여성이 40.0%, 남성이 15.9%로 나타났다고 분석, 즉 여성의 경우 실업에서 취업상태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보다 낮은 반면, 실업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할 확률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즉,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실망노동자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3) 장지연의 연구에서도 실업에서 계속 실업자로 남아 있는 경우는 여성이 9.1%인 데 비해 남성은 그보다 많은 16.1%로 나타나 여성의 재취업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지연, 2001).

2) 기혼여성노동력의 증가와 가족문제

여성노동력구조의 변화 중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이다. 미혼·저연령 여성으로 대표되었던 산업화 초기 여성노동력의 구성은 1980년대 이후 기혼·고연령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기혼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살펴보면, 1980년 40.0%에서 1990년에 47.2%, 1999년에는 47.9%로 높아졌다. 이에 비해 미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80년 50.8%에서 1990년 46.5%, 1999년 43.9%로 약간씩 떨어지는 추세이다. 연령별로 보아도 1980년대 이후 24세 이하의 연령층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25~39세의 연령층은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여성취업자의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미혼은 22.1%, 유배우 여성은 65.3%, 사별·이혼은 12.6%이다.

기혼여성노동력의 참여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960, 70년대만 해도 여성은 가정이 우선이었으며, 결혼하면 퇴직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고, 따라서 주로 미혼여성노동력을 중심으로 고용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성들의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고학력화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 노동력 공급이 감소되면서 기혼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각 직종별로 미혼여성과 기혼여성의 분포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직종별 혼인상태별 여성 취업자 분포(1999) (단위: 천 명, %)

	미 혼	유배우	사별·이혼	전체
행정·관리직	1(4.5)	15(68.2)	6(27.2)	22(100.0)
전문가	138(37.1)	211(60.3)	9(2.6)	350(100.0)
기술직 및 준전문가	402(57.0)	285(40.4)	17(2.4)	705(100.0)
사무직	685(61.4)	418(37.4)	14(1.3)	1,116(100.0)
판매·서비스직	462(15.9)	2,028(69.6)	422(14.5)	2,912(100.0)
농림·수산직	4(0.4)	790(77.7)	224(22.0)	1,017(100.0)
생산직	147(6.7)	1,878(86.9)	355(16.3)	2,182(10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0, 228-229쪽.

<표 2> 생산직 여성노동자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천 명, %)

	1985년	1990년	1998년
미 혼	442(35.5)	386(20.3)	136(6.9)
유배우	683(54.9)	1,309(68.8)	1,524(77.5)
사별·이혼	120(9.6)	209(11.0)	307(15.6)
전 체	1,245(100.0)	1,904(100.0)	1,967(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원자료 테이프에서 재계산.
출처: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1999.

전문직 및 준전문가 직종과 사무직에서는 여전히 미혼여성의 비율이 높으나, 다른 직종에서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특히 60, 70년대 대표적인 저임금·미혼여성의 취업직종이었던 생산직의 경우에도 이제는 기혼여성노동력이 생산직 노동력의 주력군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1985년 생산직에서 미혼여성의 비율은 35.5%였으나, 1998년에는 6.9%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기혼여성이다.

그러나 기혼여성의 참여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취업경향은 여전히 단절적이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M자형 취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혼시 취업이 결혼과 출산으로 단절되는 이 같은 취업의 불연속성은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시 기혼여성들의 지위를 하향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된다(장지연·신경아, 2001).

기혼여성이 크게 증대하면서 이들이 경험하는 노동의 현실과 이해관계도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서구의 경우처럼 맞벌이가족이 규범화되는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혼여성노동자들에게는 노동현장에서의 동등한 임금과 대우, 기회의 평등, 성차별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혼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모성보호, 그리고 가사노동이나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자녀출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모성권의 보호나 자녀양육과 같은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책이 매우 미비한 형편이고, 이러한 영향이 최근에는 극단적인 출산율의 저하로 나타나기도 한다.[4] 일하는 여성을 위한 가

4) 1999년 한 가구당 평균 출산율은 1.42명에 불과하다. 이는 한 사회의 건전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70~1980년대 여성

족지원정책의 추구는 자칫 전근대적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접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5] 변화된 노동시장 상황은 이제 성차별적이지 않은 새로운 차원(nonsexist version)에서의 모성보호와 가족지원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

1980년대 이후 여성노동력구조 변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여성노동력이 비정규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현재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력의 규모는 남자는 정규직이 401만 명(51.5%), 비정규직이 377만 명(48.5%)으로 정규직이 조금 많고, 여자는 정규직이 139만 명(26.7%), 비정규직이 382만 명(73.3%)으로, 비정규직이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김유선, 2001). 직종별로 보면 전체 비정규직 10명 중 6명이 단순노무직과 기능직, 서비스직에 몰려 있다. 특히 서비스직, 판매직, 단순노무직은 10명 중 8~9명이 비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2000년 8월 기준 지난 3개월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84만 원으로 정규직 157만 원의 절반(53.7%)밖에 안된다. 가내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총액이 30만 원으로, 정규직의 19.2%, 파트타임은 52만 원으로 32.9%밖에 안된다. 그러나 주당 노동시간은 비정규직이 47.5시간으로 정규직 47.1시간보다 길다. 기타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금·시간외 수당·유급휴가·연월차 적용률도 정규직 73~90%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6~23%에 불과하며, 특히 여성 유급 출산휴가 적용률은 정규직 56%, 비정규직 5%에 불과한 형편이다(김유선, 2001).[6]

들의 출산 기피로 각종 육아지원책을 마련해서 대비하고 있는 유럽국가들, 특히 프랑스의 경우보다도 더욱 낮은 출산율이다.

5) 노동조합의 전통적인 가족요구는 항상 일과 가족의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기되었고, 따라서 페미니스트들의 직접적인 비판대상이 되어왔다. 대표적으로 가족부양자로서 남성의 역할 강화로 귀결된 가족임금제를 둘러싼 논란이 그것이다.

6) 비정규직 여성노동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문제점은 이번 호에 함께 실리게 되는 장지연(2001)의 글을 참조할 것.

우리나라의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는 서구 여성노동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온 파트타임이나 임시직 노동의 증대에 비해 훨씬 급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또한 여성들 스스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비정규직이 아닌, 여성노동력을 단기적인 저임금노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본가의 일방적인 공격에 의한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인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조순경, 1999).

4) 서비스 경제화와 여성 일의 성격 변화

198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서비스 경제화'라고 할 만큼 서비스산업 부문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서비스 기반 경제로의 이행이 진행되면서 여성의 취업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전체 여성취업자 중 3차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69.3%에 이르고 있다. 3차산업 중에서도 여성은 다시 몇 개의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전통적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서비스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면서도 공공 및 사회 서비스 부문이나, 금융업 그리고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유통산업에서 여성 취업이 크게 늘고 있다(이숙진, 2000).

서비스직에서도 공공 및 사회 서비스업이나 금융업 등 상위 직종에서는 정규직 취업이 일정 비율 유지되었으나, 최근에는 그나마 급격하게 개편되어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형편이다. 판매서비스직의 경우에는 1999년 81.9%가 임시직과 일용직에, 임시직의 63.7%, 일용직의 약 70%는 9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주희·장지연, 1999). 즉, 서비스산업 여성취업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체에 분산되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1980년대 이후 여성노동력구조의 변화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노동력의 여성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기혼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새로운 직무는 주로 서비스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여성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이 같

은 변화의 모습은 서구 여성노동시장에서 진행된 바와 같은 여성노동력의 재구조화와 일정한 정도 유사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력의 여성화'는 진행되지만, 불안정한 형태로서 노동영역에서의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일과 가정 분리체제에 대한 도전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또한 기혼여성의 증가, 서비스부문의 확대라는 공통성을 갖지만, 기혼여성의 취업경향은 단절적이고, 서비스부문은 더욱 사적이고 분산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서구의 경우보다 훨씬 급격하고 광범위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다.

4.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와 불평등

그렇다면 노동시장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의 경제적 지위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불평등은 강화되고 있는가 혹은 완화되고 있는가?

1)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는가?

성별의 입장에서 볼 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남녀 임금격차와 성별 직종분리 정도이며(Wharton Amy, S., 2000), 특히 남녀 임금격차는 모든 형태의 성차별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남녀 임금격차가 큰 나라에 속하며, 1985년 이전에는 남성의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의 평균임금은 그 절반도 안되는 극심한 차별구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상용직 남녀근로자의 임금격차를 분석한 김태홍의 연구를 보면, 1990년 53.5, 1997년 62.1이었으며, IMF 이후에도 남녀 임금격차는 1998년 63.7, 1999년 63.3으로 계속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홍, 2000: 142-143).[7] 즉,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는 수치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이 같은 상용직의 남녀 임금격차 중 1998년을 기준으로 한 추정 결과에 의하면 합리적인 격차 부분은 52.5%이었고, 비합리적인 임금차별 부분이 47.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도 가부장제적인 성차별에 의한 임금격차 부분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비합리적인 성차별에 의한 임금격차 역시 1990년 56.1%에서 1998년 47.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지적되었다(김태홍, 2000). 이 같은 남녀 임금격차의 축소는 부분적이지만 최근 여성노동관계 법 및 제도의 변화, 임금차별 근절정책의 지속적인 시행, 의식변화 등과 같은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위기 이후 남녀 임금격차의 개선은 IMF 이후에 소득이 감소된 여성근로자의 80%가 월평균임금 50~100만 원인 데 비해서, 월평균임금 240만 원 이상인 여성근로자는 오히려 전년에 비해서 증가한 데 기인하는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김태홍, 2000). 즉, 여성 본인의 임금개선 효과라기보다는 상위계층의 상대적 증가와 하위계층의 급격한 축소라는 여성 내부의 격차가 반영되었거나 남성임금의 상대적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비교가 어렵지만,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의 경우 정규직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 때,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4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홍, 2000: 143-144). 시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격차는 앞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후반에 상용직을 기준으로 한 남녀 임금차별은 부분적이나마 개선이 이루어졌고, 비합리적인 성차별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남녀 임금격차를 요인별로 나누어본다면 임금차별이 오히려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서구의 경우에도 남녀 임금격차는 풀타임에서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파트타임에서는 축소되지 않

7) 위 연구는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자료로 분석한 수치로, 이들 통계조사에서는 1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Walby, 1997).

2) 성별 직종분리는 완화되고 있는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를 분석할 때 중요한 또 하나의 측면은 성별 직종분리체계가 얼마나 견고한가의 문제이다. 성별 직종분리가 여성의 고용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분리체계가 견고할수록 남녀 임금격차의 확대와 여성 집중 업종의 상대적인 지위 하락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물론 경제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분리체계의 존재가 여성의 자리를 보장해주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연구도 있지만(Hiers, H. & J. Humphrey, 1985), 대다수의 연구들은 견고한 분리체계가 여성에게 이득이 되기보다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차별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Bradely, H., 1989; Milkman, R., 1985).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리체계는 여성노동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1994년 직종분류체계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성별 직종분리의 시계열 변화를 일관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최근 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직종분리를 살피보는 지수인 던칸지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별 직종분리 정도를 살펴본 결과 1990년에 들어와 약간씩 개선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1994년 이후에는 1990년대 초반과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나, 1994년에서 1997년까지 다시 약간 악화되었다가, 1997년부터 다시 던칸지수가 하락하는 등 직종 격리현상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김태홍, 2000). 다음 전체 직종 중 여성취업자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 집중 직종에 대한 분석에서도 여성 집중도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전체 여성취업자 중 10대 여성 취업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구성비는 1985년 72.8%에서 1993년 69.3%로 감소하였으며, 직종분류체계가 바뀐 1994년 이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김태홍, 2000: 100-101). 또한 교육전문가, 생명과학 및 보건전문가와 같은 전문직 그리고 일반 사무직과 같은 남성직종에서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직종분리현상은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성의 남성직종에 대한 진출이 느리게 진행됨으로써 특별한 정책적 조치가 있지 않으면 성별 직종분리현상이 급격히 개선될 수 없으며, 단지 여성 집중 직종의 구성만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김태홍, 2000: 116). 아울러 최근 성별 직종분리의 완화는 1997년 말부터 진행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여성인력감축이 여성 집중 직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데 일부 원인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되고 있어(조순경, 1999), 실제로 성별 직종분리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3) 여성노동력 내부의 격차 확대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질적 지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남녀 임금격차는 상용직의 경우 격차가 완만하게 해소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성별 직종분리는 여성 집중 직종으로의 집중도는 줄어들었지만, 남녀 간의 직종분리라는 틀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용의 측면에서 가부장적 성차별구조는 별로 시정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남녀 임금격차의 지속과 성별 분리의 지속은 성별 동질화(gender homogenization), 즉 여성 경험의 공통성을 피피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서구사회에서처럼 여성 노동력 내부의 격차 심화와 분절화를 통한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앞의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과 남녀간의 격차는 여성노동력의 전반적인 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이와 함께 1990년대 들어서서 고용관계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여성노동력 내부의 격차도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학력별로 여성집단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여성노동력구조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을 학력별로 살펴보기로 하자.

<표 3> 성별 학력별 고용형태 (2000) (단위: 천 명, %)

	여성			남성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졸 이하	255(15.8)	817(45.9)	651(38.3)	485(32.1)	364(31.8)	570(36.7)
고졸	597(28.9)	1,140(51.7)	447(19.4)	2,009(38.2)	1,084(27.8)	599(14.0)
전문대졸	304(74.8)	213(38.5)	47(6.8)	469(74.7)	147(22.1)	20(3.2)
대졸 이상	450(61.9)	273(34.2)	50(3.9)	1,660(86.1)	223(11.7)	35(1.8)
계	1,606(30.9)	2,439(46.5)	1,175(22.5)	4,623(36.5)	3,018(23.9)	1,115(14.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추가조사』, 원자료, 2000. 8.
출처: 정지연, '고학력여성의 경제활동 국제비교', 한국여성학회 발표논문 자료집, 2001.

<표 4> 학력별 임금격차

	여성			남성
	1995	1997	1998	1998
중졸 이하	100.0	100.0	100.0	100.0
고졸	121.7	125.9	129.2	111.3
초대졸	139.4	159.9	146.5	118.9
대졸	196.3	207.2	212.4	164.5

자료: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보고서』, 각년도.
출처: 김태홍, 2000: 146.

여성은 남성의 경우에 비해 전체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취업형태가 많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학력이 낮을수록 임시·일고와 같은 비정규직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8] 학력별 상용직 비율은 여성의 경우 대졸 이상에서는 61.9%인 데 비해, 고졸은 28.9%, 고졸 이하는 15.8%에 불과하다. 즉,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내부에서도 학력에 따라 상용직 취업비율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력별 임금격차실태를 성별로 비교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학력별 임금격차를 보면 중졸 이하를 100으로 했을 때, 대졸 여성과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1995년에는 중졸 대비 대졸 여성의 임금이 100 : 196.3이었으나 1998년에는 207.2, 1998년에는 212.4로 학력별

8) 여성의 고용형태를 보면, 2년 전인 1997년에 비해서도 전체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전혜숙(1999)의 연구에 의하면, 1997년 경제활동인구연보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 대졸자의 31.1%, 고졸의 45.1%, 중졸의 58.9%, 중졸 이만 학력의 81.2%가 비정규 노동자였다.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1998년의 경우 남성 내부의 학력별 격차가 100 : 164.5인 것과 비교해볼 때도 여성의 경우 학력별 격차는 훨씬 크다. 또한 위의 수치가 상용고를 중심으로 한 것이고, 학력이 낮아질수록 임시고나 일고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면, 취업 여성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금구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성은, 남성의 경우 20~22세에서 가장 낮은 임금으로 출발하여 정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 하락하는 데 비해, 여성의 임금곡선은 20~24세에서 출발하여 30~34세에 정점을 이루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점이다(노동부, 2000). 출산을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고 하향 취업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라 하겠다. 즉, 학력에 따른 여성 내부의 격차뿐만 아니라 혼인상태 및 연령집단별로도 여성 내부의 분화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이상에서처럼 우리의 경우에도 학력별로 여성 내부 격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형태로 볼 때 대졸 이상 여성과 고졸 이하 여성의 고용의 안정성에서 차이가 크며, 1990년대 이후 남녀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여성 내부의 학력별 임금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매우 저조한 우리 상황에서 저학력여성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서구사회에서의 고학력여성과 저학력여성의 양극화 현상과 그대로 동치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일단 취업한 여성을 기준으로 할 때, 여성노동자의 상황이 동질적이라기보다는 여성노동력 내부의 격차 확대라는 새로운 불평등 양상이 우리 노동시장에서도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여성노동의 문제는 남성노동력과 대비한 성차별의 문제로만 이해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인 여성의 이해와 다양성이라는 기반 위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여성노동자, 페미니즘, 노동조합

이상으로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특성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구에서처럼 여성노동력 내부의 구조 변화와 더불어 여성노동력 내부의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여성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라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페미니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용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 방치되고 있는 여성노동자문제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일차적인 작업은 여성의 조합 내로의 조직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대규모 작업장의 상용 여성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조합의 틀과 접근방식으로 변화한 여성노동력의 이해를 담아낼 수 있는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0년 1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0년에는 12.0%, 1995년에는 7.4%, 그리고 1998년에는 5.4%로 하락하였다(윤진호·정이환 외, 2001).9) 여성들의 70%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여성취업자의 60% 이상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는 4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하고 있다(한국여성노동자단체협의회, 1999). 더욱이 여성노동자들의 대다수는 기혼여성노동자로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며, 취업분야 또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부문에 집중해 있다. 이같이 변화된 상황에서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기존의 노동조합에 포괄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경우 '노동력의 여성화'와 함께 노동조합의 주요 세력으로서 여성을 포괄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Munro, 1999).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기혼여성노동자와 비정규직 여성노동력의 증가가 노동조합의 조직화

9) 남성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0년에 13.6%, 1990년에 20.5%로 높아졌다가 1995년에 15.9%, 1998년에 13.3%이다.

율을 제고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인식만 되었을 뿐, 과거의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와 다른 관심과 이해를 형성해가고 있는 여성노동력을 조직화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것이다. 최근 남성 비정규직 노동력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대다수 여성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제 변화된 여성노동시장 상황이라는 지점에서 이들의 이해를 담보해낼 수 있는 새로운 조직과 과제로 접근해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음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노동자의 이해와 불평등의 해소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여해왔는가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은 빠르게 성장해왔으며, 양성평등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페미니즘의 노력은 최근에도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은 많은 평등입법의 실현과 더불어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할당제의 마련이나 적극적 조치의 실시, 노동현장에서의 성폭력과 성희롱을 이슈화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그러나 완고한 남녀차별구조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에 비교해볼 때, 여성 내부에서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완고한 가부장적 남녀 차별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저조하며, 여성의 사회적 세력화가 미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노력은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노동관계법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효성이 미약한 우리 사회에서 법적·제도적 개선 효과는 전계층의 여성에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 각종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나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는 정부의 여성우대정책으로 떠들썩하게 선전되는 것에 비하면 그 효과는 너무 미약하다.10)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탁아시설의 확대나 육아휴직 도입,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기는 했지만, 절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과 빈곤 및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10) 1996년부터 시행된 여성채용목표제의 그동안의 수혜대상은 1996년에 19명, 1998년에 14명, 9급 공채까지 적용 대상자를 확장한 2000년에도 86명에 불과하다(강이수·신경아, 2001).

이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평등을 향한 페미니즘의 노력이 일부 여성집단에게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대다수 노동계층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평등을 조성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최근의 상황은 고용구조의 하위계층에 속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도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도 적절하게 수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논의가 준비되어야 할 시점이다.

2)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모색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성노동시장의 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 앞에 놓인 노동계층 여성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현재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노동조합(unionism)과 페미니즘(feminism)의 노력은 불충분하다. 그러나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지위를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틀이 바로 노동조합과 페미니즘임은 부인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들의 이해는 '여성'의 입장을 강조하는 페미니즘과 '노동자'의 입장을 강조하는 '노동조합'의 적절한 접점 위에서 가장 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동조합과 페미니즘의 적절한 만남을 모색한다는 일이 그리 단순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11)

11)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노동조합과 페미니즘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방향은 상호보완적이기보다는 갈등이나 모순을 빚어왔음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많다(Nancy F. Gabin, 1990). 페미니즘은 노동조합의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조직과 문화를 비판하고 도전해왔으며, 여성노동자들은 페미니즘의 남녀평등이라는 구호에 항상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와스켓(Warskett, 2001)이 지적하는 것처럼 지배계층 여성은 계급 그 자체의 변형 없이도 내적 성별관계 변형의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노동계층 여성은 항상 보다 근본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노동계층 여성에게 페미니즘의 구호는 때때로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이다(Warskett, 2001).

우선 노동조합은 방치되고 있는 대다수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와 조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1990년대 들어 계속 진행되어왔지만, 남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을 기울여오지 않은 것이 기존 노동조합의 태도이다. 또한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노조들은 현재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폐쇄적이다.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노동조합이 없어서'가 18.7%, '노동조합은 있지만 가입자격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38.0%로 나왔다고 한다(이주희·장지연, 1999).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가입자격을 주지 않는 기존 정규직 노동조합의 태도는 대다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이해를 추구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단위기업별 비정규직 노조나 업종별 조직화가 추구되고 있다. 아직 초보적인 상황이지만 여성노동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경험과 이해를 고려한 다양한 조직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은 기혼여성노동자와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혼여성노동력이 생산노동력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여성노동자의 문제는 이들이 당면한 문제와 이해를 중심으로 해결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기혼여성노동자 역시 계임금과 고용불안정, 열악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이 당면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와 더불어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모성보호의 확대, 이중부담의 해소 및 기타 가족의 다양한 필요 등을 노동조합의 요구로 적극적으로 담보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가부장적인 성차별에 도전해온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 '성별평등'의 논리가 담보해내지 못한 여성간의 불평등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급속하게 열악해지고 있는 하층 노동계층 여성들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모색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하는 여성의 페미니즘 혹은 노동계급 페미니즘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리라고 본다(Myra Marx Ferree, 1990). 사실 일하는 여성의 페미니즘 혹은 노동계급 페미니즘이란 구체적이고 일관된 페미니즘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성별 권리와 계급적 연대와 피부차는 이중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했던 일하는 여성들의 노력과 방향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reenwald, 1989). 즉, 일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성자본가의 논리에도 포섭되지 않으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이 가질 수 있는 개인지향성이나 관념적 추구를 넘어서서 실제적인 그들의 상황에서 구체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일하는 여성들의 선택과 요구를 확보시켜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12]

한편으로는 가부장적인 성차별의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상층 여성과 노동계층 여성 간의 분화가 진행되는 이중적 불평등구조에 놓여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여성노동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동조합과 페미니즘의 적절한 만남을 모색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노동력의 여성화, 즉 여성노동자의 증가를 노동조합의 강화로 연결시키고, 페미니즘을 통해 노동조합의 가부장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동시에 조직화를 통한 일하는 여성들의 평등을 확보하는 방안의 모색이라는,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2) 예를 들면 자본주의하에서 가족임금이나 보호입법, 기혼여성의 취업과 같은 논쟁적인 문제에 대해 노동계층 여성들은 남성 위주의 조합이나 여성의 개인적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하는 페미니즘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 초기 성 내 노동임지라는 보호입법의 제정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배제하고 성별 분업을 강화시키려는 조치로 반대했으나, 노동계층 여성들은 위험한 성 내 노동으로 인한 여성의 높은 유산과 사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환영하였다(Jane Humphries, 1981).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기혼여성 취업'을 둘러싼 논란에서 남성노동조합 지도자들은 가족임금제를 강화하고 기혼여성의 취업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페미니스트들은 기혼여성의 개인적 독립과 자율성이라는 견지에서 환성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노동계층 여성들은 페미니스트와 마찬가지로 기혼여성의 취업에 환성했으나 환성의 근거는 달랐는데, 개인적 권리라는 차원보다는 노동계급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한 경제적 선택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한 것 같다(Greenwald, M., 1989).

(1) 인적 특성

고용형태별로 그 구성원의 교육수준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부표 1>), 대부분의 비정규직 고용형태에서 남녀 모두 고졸 이하가 80~9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것은 비정규노동이 개인의 사정이나 필요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선진국의 논리가 우리의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 비정규노동자가 교육수준 면에서 정규직 노동자보다 월등히 낮다면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여성 비정규직 중에서 용역근로자와 호출근로자, 가내근로자의 학력수준이 특히 낮으며, 장기임시근로자의 경우 고졸 미만이 40%, 전문대졸 이상이 15.8%로 정규직근로자의 학력구성보다는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구성에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2) 일자리의 특성

여성 정규직노동자와 비교해볼 때 비정규직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부표 2>). 장기임시근로의 64%가 판매서비스와 단순노무직인 것을 비롯하여, 시간제근로의 73%, 파견근로의 82%, 용역근로의 90%, 호출근로의 78%, 독립도급의 84%가 이 두 가지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속기간 면에서도 비정규노동자는 두렷한 특징을 보인다. 정의상 계약근로와 호출근로의 근속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이고, 장기임시근로자조차도 47.6%가 지금까지 현재의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노동자에 비하여, 그리고 남성 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도 여성 비정규노동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독립도급과 용역근로의 경우가 비교적 중규모 수준의 사업장에도 분포하고 있으나, 그밖에는 모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기타 부가급여수준 등을 살펴본 <부표 3>에 따르면, 고용형태에 따라 두렷한 임금격차가 나타날 뿐 아니라, 같은 고용형태라도 성별로 차이가 있었다.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나타난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노동자가 114만 원인 데 비해, 장기임시근로자와 파견근로, 독립도급이 그나마 6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계약근로와 가내근로, 호출근로, 시간제, 가내근로 등 나머지 모든 범주의 고용형태에서 60만 원 미만이었다.

사회보험과 그밖에 퇴직금과 상여금 등 부가급여 수혜 여부 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여성의 경우, 정규직에서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퇴직금, 상여금 수혜자는 80% 이상인 데 비해서, 비정규직에서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의 수혜율이 그나마 20~30%대를 유지할 뿐 다른 고용형태에서는 10%대 이하였다.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는 형편이다.

(3) 기교인가 함정인가?

근로자의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 그 영향이 지대한 중요한 문제이다. 개별 근로자는 때때가 불확실해지며 소득이 저하되고 인적 자원의 개발에 동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피해자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근로가 근로생애 초기의 일시적인 경험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비정규직으로 일한 후에는 정규직고용으로 옮겨가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면 비정규고용의 확산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는 덜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비정규근로로 시작한 근로생애가 안정된 정규직근로로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 비정규고용형태의 확산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피해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고용형태의 확산에 대하여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다 진지한 접근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정규근로가 정규직으로 진입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덫이라면 이들에 대한 접근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가 청소년과 노년층 인구가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근로형태(stepping-stone hypothesis)인지, 아니면 여성과 저학력 근로자 같은 특정한 인구집단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근로형태(alternative hypothesis)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준·장지연(1999)은 '한국노동패널'이 조사한 15세 이후의 취업력(work history) 자료 중에서 적어도 10년 이상의 근로생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를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Method)에 기초한 사건순서분석을 통하여 본

당한다. 실제로 법을 전혀 어기지 않으면서 비정규인력을 사용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점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비정규직 인력을 활용하면서 기대하는 효과는 첫째,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Pfeffer & Baron, 1988; Abraham and Taylor, 1996; Nollen, 1996; 박우성, 2000). 정규직에 대한 해고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유연한 인력관리를 원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인력을 선호하게 되었다. 시간제근로(part-time employment)는 스케줄의 유연성(scheduling flexibility)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된다(Tilly, 1991). 생산물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생산기술도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기업도 노동에 대한 수요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이 비정규고용의 확대를 통해 기대하는 두번째 효과는 인건비 절감이다(Pfeffer & Baron, 1988; Nollen, 1996; 박우성, 2000). 정규직근로자의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던 여러 가지 제도들, 특히 복리후생비용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다. 넓게 보자면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셋째, 정규직 중심으로 조직화된 노조의 조직기반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활용하기도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Pfeffer & Baron, 1988; 박우성, 2000). 이것은 기업의 인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로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에게는 우월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심어주면서, 기업에 대한 헌신몰입을 요구하게 된다.

네번째, 때로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 디지털경제 또는 IT산업의 비중증가로 특징지어지는 최근의 급속한 기술발전은 기존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훈련을 통해 접근하기보다는 새로운 전문인력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더 비용이 저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여성 비정규직화에 대한 해석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기업이 비정규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고 하더라도,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는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 네 가지 이유만 가지고는 바로 얻어지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빠르게 증가한 1980~90년대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동시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Spalter-Roth & Hartmann, 1998), 이를 두고 노동력인구의 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 구성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의 한 원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달리 보자면, 비정규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유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남성들이 기피하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그나마 여성의 취업이 용이했던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력가치에 대한 일방적인 저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 가치의 때문에 여성은 차별적인 노동시장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하며, 성별로 구분지어진 직종분리와 직무분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는 직종의 성별 분절화가 성별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성이 특정한 직업에 몰려 있고, 이런 직업이 노동에 대하여 낮은 보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성별 임금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듯이,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의 비정규직화 경향이 더욱 분명하다면, 여성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중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장기임시직의 직종별 분포(<표 3>)나 전체 유형별 비정규직의 분포(<부표 2>)에 따르면, 비정규근로자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직종이 여성과 남성의 경우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의 직종 분포도 여성과 남성 간에 다를 뿐 아니라, 이렇게 분절된 직종구조하에서 특정 직종에 속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된다. 예컨대, 판매직과 대인서비스직에 여성근로자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직종들은 압도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직종이 성별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 직종에 대한 가치의 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르지만 평등한" 상태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 기업의 핵심업무가 아닌 저학력 단순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성의

<표 4> 성·학력별 고용형태 (단위: 천 명, %)

	전문대졸				대졸 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상용직	469	(74.7)	304	(54.8)	1660	(86.5)	430	(61.9)
임시직	147	(22.1)	211	(38.1)	225	(11.7)	233	(34.2)
일용직	20	(3.2)	47	(8.8)	35	(1.8)	30	(3.9)
전체	637	(100)	562	(100)	1918	(100)	693	(10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2000. 8).

경우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여성을 집에 주어진 고용형태가 차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표 4>에 나타난 고학력근로자의 고용형태의 분포에서 찾을 수 있다. 대졸 여성이라고 할지라도 38%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전문대졸은 43%가 비정규직이다. 남성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13%, 25%인 것에 비하면 여성은 고학력자도 비정규직으로 일할 가능성이 높다.

요약하자면, 여성과 남성의 직업과 직무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동시장구조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은 직종 직무에 대해서 비정규직화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현재까지로 볼 때, 비정규노동자의 규모를 추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00년 8월 부가조사이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면서도 입장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규모를 달리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차이점은 '고용계약'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향후 1년 이상 일을 계속할 수도 있겠으나 자신은 임시 일용노동자라고 응답한 자'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있음을 밝혔다. 이들은 전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32%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의 고용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악되어야 할 집단이다. 본 연구는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들은 명시적으로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용이 불안할 뿐 아니라 인력 구성, 임금수준, 부가급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단기간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의 확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다시 떠올려본다면 이들도 비정규근로의 하나의 하위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비정규근로자의 비중이 70%를 넘어선다. 남성의 경우 정규직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52%, 장기임시근로자가 27% 수준인 데 비해서, 여성은 정규직 상용근로자가 27%, 장기임시근로자가 32%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에서 성별 차이를 뚜렷이 드러낸다.

기업측의 입장에서 볼 때 비정규직 고용은 몇 가지 지켜야 하는 대가가 있기는 하지만, 고용의 수량적 유연성의 확보와 인건비 절감이라는 효과의 측면에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의 사회적인 결과는 우려할 만한 것이다. 비정규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험, 기타 부가급여수준 등을 살펴보면, 고용형태에 따라 뚜렷한 임금격차가 있었다. 2000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나타난 여성노동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노동자가 114만 원인 데 비해, 장기임시근로자와 파견근로, 독립도급이 그나마 60만 원을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뿐, 계약근로와 가내근로, 호출근로, 시간제, 가내근로 등 나머지 모든 범주의 고용형태에서 60만 원 미만이었다. 사회보험과 그밖에 퇴직금과 상여금 등 부가급여 수혜 여부 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저임금과 고용불안, 열악한 근로조건 등 비정규직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심각성을 더하게 된다. 첫째, 비정규직은 한번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함정이다. 비정규근로가 근로생애 초기의 일시적인 경험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을 비정규직으로 일한 후에는 정규직고용으로 옮아가는 경향이 지배적이라면 비정규고용의 확산이 미치는 사회적 여파는 덜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근로를 하다가 이를 더 이상 연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길이거나 혹은 전근로생애를 통하여 일관되게 지속되는 고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은 주로 '함정'이며, '가교'로서의 기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둘째, 여성 비정규근로자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볼 때, 개별 근로자의 인적 자본에 따라 정규/비정규가 결정된다기보다는 일자리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성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해볼 때 비정규직은 판매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장기임시근로의 64%가 판매서비스와 단순노무직인 것을 비롯하여, 시간제근로의 73%, 파견근로의 82%, 용역근로의 90%, 호출근로의 78%, 독립도급의 84%가 이 두 가지 직종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노동자에 비하여, 그리고 남성 비정규노동자에 비해서도 여성 비정규노동자는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비정규직화의 추세 속에서 개인의 교육투자와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서 여성의 비중이 높고, 여성 임금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일차적으로 여성의 노동력가치에 대한 일방적인 저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적 가치의식 때문이겠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성별로 구분지어진 직종분리와 직무분리이다. 임금근로자의 직종 분포가 여성과 남성 간에 현저히 다른 구조에서 특정 직종에 속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특히 이 과정에서 전통적으로 여성직으로 알려진 일자리들이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비정규고용형태의 확산은 기업이 노동의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인 견해의 근저에 깔려 있는 가정, 즉 평생직장을 보장받는 상황보다 무한경쟁의 상황에서 개인의 능력이 더 잘 발휘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위세를 급속히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계약직 노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그 방식이 단순히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을 결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조정과정에서 주로 여성이 담당하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사례가 자주 발견되는 등 그렇지 않아도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의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IMF 경제위기 이후 채용은 주로 비정규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아서 형평성을 상실함으로써 전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부표 1> 비정규노동자의 인적 특성

		정규	기간		근로시간	간접고용		특수고용		
남자										
		정규	장기임시	계약근로	시간제	파견근로	용역근로	호출근로	독립도급	가내근로
교육수준	고졸미만	11.0	32.0	38.5	39.6	27.7	48.4	51.8	18.0	54.5
	고졸	45.5	52.5	43.8	46.0	47.3	44.7	42.1	49.7	34.5
	전문대졸	10.5	6.5	4.4	2.1	11.6	3.4	2.5	10.5	2.9
	대졸이상	33.5	9.1	13.5	12.3	13.4	3.4	3.8	22.0	8.6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연령		38.4	36.9	39.5	37.2	41.1	48.9	42.5	37.0	38.1
여자										
		정규	장기임시	계약근로	시간제	파견근로	용역근로	호출근로	독립도급	가내근로
교육수준	고졸미만	16.9	39.9	46.0	41.3	32.8	77.6	67.7	25.8	55.1
	고졸	37.9	44.5	36.3	42.8	50.4	17.4	26.4	57.2	40.3
	전문대졸	19.0	7.3	8.5	5.3	11.2	3.6	2.9	6.8	1.6
	대졸이상	26.2	8.1	9.6	10.7	5.6	1.5	3.0	10.2	3.0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평균연령		31.8	37.7	38.9	39.1	36.3	48.6	46.4	38.8	35.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2000. 8)

이 사례의 주인공은 싸워서 결국 지역 신문을 통해 공개 사과를 받아[illegible]
그러나 상처가 너무 커서 회사를 계속 다닐 수는 없었다. 여기서 보는 직장[illegible]
성희롱, 폭언, 폭행은 명백히 고용을 위협하는 폭력 행위이다. 그럼에도[illegible]
장이 영세하여 단위 사업장에 근거한 노조가 없다는 사실은 여성 노동자[illegible]
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illegible]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이곳에 고[illegible]
어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더욱 악화되고 고용 불안도 심화[illegible]
있다. 무한 경쟁과 효율을 추구하는 사회적 흐름은 여성 노동력을 상대[illegible]
고 떠나갈 하찮은 주변 노동력으로 보는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illegible]
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 획득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여성, 그[illegible]
에서도 나이가 많은 중·고령층은 우선적인 퇴출 대상이고, 임신·출산[illegible]
아로 인해 모성 보호 비용이 많이 드는 여성들에게는 투자를 할 수 없[illegible]
실직이 서슴없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리라.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illegible]
들과 동시대를 살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구조 조정의 일차적인 희생[illegible]
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약자 우선 희생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면서 모두가 고통[illegible]
르게 분담하자는 말처럼 가증스런 허위는 없다. 재벌의 자식이 수백억[illegible]
증여세를 내는 것과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명의 임금 노동자를 희생시[illegible]
은 결코 평등한 고통 분담이 아니다. 또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처지[illegible]
아니다. 남성 노동자들이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수의 희생이 불가[illegible]
는 논리에 따르면서 그 '희생되는 소수'가 대부분 여성들로 채워지고[illegible]
사실을 슬쩍 눈감는다면 권리를 누리는 소수를 위해 무권리의 다수가[illegible]
노동을 감수해야 하는 사회는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다. 오늘 이 사회에[illegible]
자 우선 희생의 원칙'이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자본의 고[illegible]
세가 가해지는 데는, 지금까지 고용상의 성차별을 용인하고 고용 불[illegible]
건으로 인해 여성 노동이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게토(ghetto)화 되[illegible]

4) 『한국여성노조 2000년 투쟁사례집』

[illegible]은 관행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앉는 밥상이 다
[illegible] 아들과 딸이 먹는 반찬이 다르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가족들이 먹다 남
[illegible]식을 먹고, 자식은 아버지가 음식을 남기기를 기다려야 했던 기억을 대
[illegible]지니고 있다. 그러나 왜 노동 시장은 발전하는데 여성들은 남성과 같은
[illegible]은 임노동자가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여성에게 낮은 임금과 보상과
[illegible]주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다.
[illegible]가장이 실직한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가장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illegible] 체면을 돌볼 겨를이 없이 소위 '막일'을 마다하지 않겠지만, [illegible]
[illegible]려운 상태에서 상당수의 남성들이 일정 기간 실직 상태에 머물러 있을
[illegible], 이때 가정에서 가사 노동에만 묶여 있던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illegible]할 수 있는 직업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식당일, 파출부일, 보험
[illegible]원일, 매장 계산원 등등, 그 수효는 앉은자리에서 계산할 수 있을 만큼
[illegible]일 것이다. 또 그 일거리들은 대부분 과중한 노동량이 요구되는 것이거
[illegible] 노동인 경우가 적지 않다. 남성의 경우엔 일자리를 잃기 전에 집에
[illegible]지만 가사 노동과 육아의 경험이 적은 관계로 방치된 집안일은 속
[illegible] 여성을 거의 살인적인 이중 노동의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 여기서
[illegible]이 아니다. 만일 어머니의 '부재'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 그
[illegible]스란히 '밖을 나돌아다니는' 여성에게 돌려진다. 여성이 보험처럼
[illegible]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떨까? 친척이나 가
[illegible]들 사이의 관계가 훼손되기 십상인 그런 일들의 결과에 대한 책임
[illegible] 져야 할 것이다. 결국 평범한 기혼 여성의 노동은 정당한 노동으
[illegible]지 못한 채 허드렛일이나 불건전한 일로 치부되는 한편, 벌이는 가
[illegible]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당해야 할 책무가 됨으로써 여성의 삶은 더욱
[illegible]. 오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가정의 붕괴와 사막화는
[illegible] 여성을 가사 노동의 전담자로 묶어 놓고 고용 차별로 여성 노동을
[illegible]소화시킨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illegible]는 여성의 시대다. 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성 노동력

을 유연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기업들은 이야기한다. 그러나 우리네 [illegible] 느끼는 노동 시장 유연화의 실체는 여성들에게 재앙에 다름 아니다. [illegible]

'최저 임금'과 내팽개쳐지는 '모성 보호'

현재 정부가 정한 우리 나라 최저 임금은 42만 1,490원이다. 이 최저 [illegible]은 너무 낮아 이것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곳은 거의 없다. 특히 노[illegible]이 결성되어 있는 사업장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illegible] 이러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그것도 14년 근속자에서 [illegible] 최저 임금에 머물러 있는 경우조차 있다.

여성 가장으로서 대학교에서 14년간이나 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한 [illegible]자의 경우가 그 한 예이다. 처음에 그는 대학에서 직접 채용한 정규직[illegible]나 용역직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이후 몇 차례 더 용역 회사가 바뀌었[illegible]마다 임금이 삭감되었고 지금은 최저 임금을 받고 생활하고 있다.

용역 회사 사장은 교섭 과정에서 입찰 단가를 보여주면서 임금 인상[illegible]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입찰 단가가 너무 낮아 임금을 더 올[illegible] 회사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이었다. 대학가에 불어닥친 구조 조정의 [illegible] 직영으로 운영하던 식당이나 청소 업무가 용역 계약으로 바뀌어 버린 [illegible]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것[illegible]라 무조건 비용만을 따져 학교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선정하다 보[illegible] 입찰에 따르는 과당 경쟁이 생겨났고, 결국 용역 업체들은 살인적인 [illegible] 삭감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저희들은 학교 식당 앞에서 80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경상대학[illegible]당 조합원들입니다. 96년 3월 학교 식당이 민영화된 이후로 저희들[illegible]된서 임금 삭감과 여러 차례의 업주 교체로 인해 계속되는 고용 불안[illegible]면서도 오로지 경상대 가족 여러분에게 깨끗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illegible]해 오르고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용역 회사가 학교 당국에 [illegible]해야 할 보증금 미납으로 영업 정지를 당하고 학교가 다시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illegible]으면서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청춘을 바쳐서 일해 왔는 [illegible]의 3개월 계약직에 시간당 2,300원으로 신규 채용을 한다고 다시 이력서를 내 [illegible]하고 합니다.(당시 아르바이트 학생 임금이 시간당 3,000원이었다—인용자) [illegible]합원들은 6월부터 현재까지 돈 한푼 없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과 생활비 [illegible]천을 하며 빚을 내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illegible]에의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125일간의 투쟁을 통해 [illegible]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 [illegible]되지는 노동 조건을 묵묵히 감수해야만 한다. 학교에서 식당이나 청소 [illegible]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는 대부분 나이가 많은 중·고령층이다. 그러다 [illegible]자리를 잃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illegible]하용하여 끝임없는 노동 조건 하락이 강요되고 있으나, 학교 당국은 [illegible]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책임이 없다며 이러한 문제에 전 [illegible]울이지 않는다. 이것이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 내에서의 노동 조[illegible]

[illegible]기업은 겉으로는 여성 인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여성의 시대'를 떠 [illegible]아직도 여성을 온전한 노동권을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illegible] 보호 관련법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이러한 발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illegible]들은 출산 휴가 확대와 육아 휴직으로 인한 비용을 산출하면서 출산 [illegible]의 배우자인 남성 노동자 모두가 예외 없이 육아 휴직을 신청한다 [illegible]적인 계산법을 기초로 기업의 추가 부담이 8,500억 원에 이른다고 [illegible]치는 여성 노동계가 산정한 것보다 7,000억 원이나 과대 추정된 [illegible]다가 모성보호법안 저지의 첨병으로 나선 자민련의 조희욱 의원 [illegible]장에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아 놓고 이틀 만에 부엌에 나가 밥 [illegible]

을 지었어요. 우리 나라 여성들은 월차 12일에 생리 휴가 12일, 그러고 [illegible] 공휴 1년 365일 중에 105일을 놀아요. 90일(의 출산 휴가)이 통과된다면 [illegible]무는 165일을 논다고요. 이런 나라 있어요?"라며 상식과 수준이 의심스[illegible]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여성 노동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모성 보호 관련 법안은 [illegible]의를 마치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였지만, 4월 임시 국회에서 통[illegible]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임[illegible]산·육아 문제를 아직도 개인의 책임으로 취급하고, 마땅히 사회적으로 [illegible] 되어야 할 비용을 부담으로만 여기는 기업과 정치인들의 의식이 바뀌[illegible]한 여성 인력 개발은 요원한 일이다.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입만 벌리[illegible]는 '국가 경쟁력' 또한 강화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계약직,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현실

이제 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눈을 돌려 보자. 어느 합[illegible] 2000년 1월 1일, 5년차 이상 계약직 시간제 직원들을 해고했다. 해고[illegible]사의 현행 편장원 15명은 모두 5년 이상 근무자들로 지금까지 모두 4~[illegible]에 걸쳐 재계약을 해 왔다. 그러나 협력원측은 1999년 11월과 12월에[illegible] 계약직 시간제 직원을 신규 채용하면서도, '근속 연수 5년차 이상, 근[illegible]이 저조한 자'란 기준을 내세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다. 다행히 이[illegible]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가 나서서 "수 차례에 걸쳐 재계약한 경우[illegible]리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illegible]직 복직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3개월마다 재계약을[illegible]년이 되지 않았을 때 계약 해지를 한다거나 11개월짜리 계약을 하는 [illegible]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행법[illegible] 미만의 근로 계약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근로기준[illegible]

[illegible]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장[illegible]계약 기간 설정으로 인해 구속될 수 있는 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1[illegible]근로 계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기[illegible]은 현행법의 이런 허점을 이용하여 계약직을 써야 하는 합리적인 사유 [illegible]는데도 해고가 쉽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계약직 채용을 [illegible]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illegible]장의 경기 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등 100만 명에 달하는 특[illegible]노동자들도 현행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한 형편은 마찬가지이[illegible] 고용 형태의 노동자 가운데 80퍼센트 이상이 여성이다. 노동법상의 [illegible]회피하기 위해 여성 취업이 많은 업종에 특수 고용 형태의 계약을 확[illegible]는 것이다. 이들은 명백한 노동자이다. 그런데도 골프장 경기 보조원 [illegible]회사에서 직접 주던 임금을 골프장 내장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임금 지[illegible]을 바꾸면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의심받아 왔다. [illegible]교사나 보험 설계사의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채용의 전제 조건으[illegible]하고 있다. 모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illegible]고 있는 것이다.

[illegible] 경기 보조원들은 일하다 공에 맞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illegible] 치료비를 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illegible]. 다쳐서 며칠씩 병원에 입원하여 일하지 못했어도 이에 대한 아무 [illegible]보상받지 못하고 있다. 또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나이가 많다는 이[illegible]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눈밖에 났다는 이유로 하[illegible]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는 현실이다.

[illegible]교사들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모성 보호를 적용받지 못해 일[illegible]하는 경우가 많다. 한 교사의 경우 6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 임신을 [illegible]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에도 20여 가구를 방문하는 업무를 임[illegible]하도록 계속해야만 했다. 결국 무리한 업무로 인해 사산을 하게 [illegible]재보상이나 보험 처리 하나 없이 상처만 가득 안고 직장을 그만두어

아 했다.

보험 모집인들의 경우에는 영업 실적 보고와 수금에 대한 모든 의[illegible]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 회사들은 미수금의 책임은 노동자들에게[illegible] 넘기면서 모집인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할 각종 수당 중 미지급 '잔여[illegible]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

학습지와 보험 산업의 성장은 이들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과 노력[illegible]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기업주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온갖 [illegible] 고 실적을 강요하면서, 막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시점에[illegible] 몰라라 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유사 이래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 모든 인간의 삶이 온전히 보호[illegible] 있던 적은 없다. 더욱이 그 법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차[illegible] 게하는 가부장주의에 기초해 있을 때 여성의 존재는 원천적으로 법[illegible] 경계에 설 수밖에 없다. 여성들에게 법적 권리는 거의 언제나 시혜[illegible] 서 주어지기 일쑤였다. 여성들의 노동은 남성 노동에 비해 하위 노[illegible] 조 노동이라는 성차별주의로 인해 매우 편의적으로 취급되어 왔다. [illegible] 적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조류 속에서 그러한[illegible] 제는 때로는 아주 의도적인 형태로, 때로는 암묵적인 형태로 확대되[illegible] 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은 정리 해고의 위협 앞에서 '여성 우선 해고[illegible] 에 동의하고 있으며, 법 밖으로 밀려난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현실[illegible] 버리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인간적 · 법적 권리를 위해 힘겹게 싸[illegible] 난날의 투쟁과 사회적 진보의 성과는 경제 위기를 빌미로 무의 상태[illegible]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존중받을 이유가 있다—이 시대 여성 노동자의[illegible]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기도 했던 [illegible] 다. 그는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임금이 너무 적어 다른 일에 모[illegible]

[illegible]하는 날 생활 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아동용 도서를 판매하 [illegible]였다. 처음 3개월 동안은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지만 3개월 [illegible]열심히 하면 고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승진할 수 있다고 했다. [illegible]하다보니 그곳을 찾은 사람들 모두가 여성이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열 [illegible]했다. 쉬는 날도 빠지지 않고 책을 판매하기 위해 돌아다녔다고 했다. [illegible]을 때 그녀는 '판매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고지 판매 [illegible]는 개척 판매이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를 할 [illegible]이 유리할 것인지 본인이 판단을 내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illegible]으로 연고지 판매를 하라는 말이었다. 결국 이 여성은 아는 사람들 [illegible] 사 줄 것을 부탁했다. 다소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자신이 [illegible]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갚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illegible]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 고정급을 약속했 [illegible]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고 한다. '나 하나도 지탱하기 힘든데 어떻게 [illegible]까지 챙기느냐'고 말이다.

[illegible]개월 동안 2천만 원에 가까운 매상을 올렸지만 자신에게 돌아온 것 [illegible]었다고 했다. 한 달에 50~6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떨어졌는데 그 [illegible]와 고객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느라 써야 했기 때문에 남는 [illegible]는 것이다. 그녀는 주위 사람에게도 차마 제대로 말조차 할 수가 없 [illegible]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 너무나 비참해져서 견딜 [illegible]고 했다.

[illegible]에서 이런 처지의 여성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여성실업대책본부 [illegible]이 구인 의뢰가 오는 것도 판매원이다. 건강 보조 식품, 화장품, 수 [illegible] 다양한 판매 사원 모집이 제일 많다. 그러나 이들 구인 업체들의 [illegible],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물으면 '무조건 많을수록 좋 [illegible]을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많으면 좋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결국 [illegible]노동자의 삶이나 미래 설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1개월을 일하든 [illegible]하든 오로지 주변 사람들에게 물건만 많이 팔면 된다는 발상인 것

■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3차 사전 연속워크샵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현황과 과제

일시 : 2007. 07. 12. | 장소 : 민주노총 서울본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장 | [illegible]

1. 들어가며: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35], 필요한가?

-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라는 3차에 걸친 이번 연속토론회 기획의 기본 방향은 그 자체로 현재 양자가 결합하고 있지 못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이런 현실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함께 인식하는 것이 주요한 기획 취지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더불어 여성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족의 책임을 떠맡으면서도, 최소한의 법적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 ·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해야 하는 조건의 여성의 이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재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함께 바꾸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조직적 체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가 성별 분할선을 따고 노동의 불안정화를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권리 없이 노동자가 되고, 투쟁할 권리조차 없으며, 그래서 침묵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다순환의 고리 속에 있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어낼 방안은 없는 것일까?
- 이러한 여성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선 여성의 권리와 요구를 명확하고, 스스로를 대표할 조직과 이념이 필요하다. 여성노동자에게 페미니즘과 노동자운동은 둘 중 어느 하나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양자가 분리된 현실은 여성노동자의 주체화를 어렵게 만들고 여성노동자를 갈등적 상황에 놓이게 한다.
- 그렇다면 양자의 결합은 어떻게 가능한가? 아니 왜 결합하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의 노동조합은 왜 그러한 틀이 아닌가?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조직적으로'라는 노동자운동은 결합의 필요성에도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결합방식에 있어서도 일방(여성운동)의 포함을

35) 이 글에서는 '페미니즘'을 여성해방을 위한 사상과 운동을, '노동자운동'은 기존의 노동자계급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과 노동자계급정당의 운동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전개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모든 사회·정치 운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요구하거나, 노동자운동의 사상과 지향에서도 여성의 권리를 부문화, 특수화, 주변화시켜왔다. 이 과정에서 여성운동은 기존 노동자운동과의 분리를 여성의 주체화, 세력화를 위한 전략 혹은 전술로 채택해왔고 이는 현재 여성운동의 지배적인 양식이다. 또한 기존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은 '필요'에 따라 서로를 대상화, 도구화하면서 특정 이슈를 중심으로만 결합, 연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연대를 넘어 양자가 결합할 수 있으려면, 기존 운동들간의 연대를 다양화, 강화하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왜 결합할 수 없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내부의 성찰과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분리의 원인을 일방(노동자운동)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양자의 혁신은 필수적이다.

- 즉,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노동자운동이 왜 페미니즘을 사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노동자운동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현재 노동자운동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등이 토론회를 통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 1차 토론회 [왜 현재 "비정규직철폐투쟁"이 여성노동권 쟁취 투쟁이 아닌가]와 2차 토론회 [일·가정 양립 논의에서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는 "대공장 정규직 남성"을 노동자의 모델로 삼고 여전히 그러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왜" 여성노동자가 처한 구조적 위치와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인식할 수 없는가를 분석, 비판한 토론회였다.

: 1차 토론회에서는 노동자의 60%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에서, 노동자운동이 '정규직'의 틀을 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고 불안정 노동의 확산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운동이 "여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의 70%이상을 차지한다"는 현실에 대해 왜 "비정규직에 여성이 많다"라는 인식에 머물러있을 뿐, 여성노동자의 현실에 기초해서 현재의 노동의 불안정화를 분석, 비판하고, 노동자운동의 이념을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확장하고 있지 못한지를 분석, 평가하고자 했다.

: 2차 토론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자본이 오히려 '여성인력활용'이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을 쏟아내면서 '여성'에 주목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운동은 스스로 여성노동자의 이중부담과 성차별에 맞선 운동을 조직하고 있지 못한지를 보고자 했다. 오히려 정부와 자본이 위와 같은 정책들을 통해 여성에 대한 이중착취를 강화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운동은 이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여성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신자유주의의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순응해왔다.

: 이번 3차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노동자운동의 현실을 바탕으로, 노동조합 내 여성운동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실천해왔는지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자 한다.

2. 차이는 어떻게 차별로 만들어지는가?
: 기존 노동자운동의 '노동자'의 상징과 이념

○ 페미니즘의 등장과 도전

- '여성해방의 원인이 무엇인가'는 페미니즘 내부의 오랜 논쟁이기도 했으며, 이런 원인(계급/노동)이 더 근본적이냐를 두고 노동해방운동과 여성운동이 대립하기도 했다.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없는 자'가 되고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성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성차를 여성/남성의 불평등한 관계관계로 만드는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문제일 것이다.
- 근대정치의 형성과정에서 공적인 개인의 보편적 준거로서 시민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누가 (권리의 주체로)는 시민인가'는 소유권자를 중심으로 정의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 유색인종, 여성, 식민지는 시민에서 배제되었다. 이후 노동자와 흑인이 시민의 지위를 얻으자 여성은 배제되었다. 노동자의 자기소유와 자기통치를 이념으로 하는 노동자운동마저 (사회) 가정영역에 유폐된 '여성'이었는 부르주아의 관념을 공유했고, 여성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성적 차이는 모든 차이들을 주변화해 시민의 지위를 가르는 가장 기초적인 기준인 셈이 되었다.
- 이러한 배제에 맞선 여성들의 항의와 요구가 여성해방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다. 페미니스트들은 정체하거나 차별을 지켜보 만드는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고, 이는 여성적인 페미니즘의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왔다.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시민으로' 평등을 요구했고, 그런 차이 때문에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자기 성등의 일체이념을 전이했고 여전히 그러하다.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일체이념 전스면서 '시민권'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 왔다.
- 여태까지도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태어나며, 차별은 인종이거나 성이다. 따라서 페미니스트 정치는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성별분업을 재생산하는 가족제도와 이데올로기를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주체(여성들)가 요구하는 평등은 누구에게 평등인가?', 시민은 남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남성이 가진 인권'의 평등을 요구해야 했다. 그리고 여성은 '남성이 아닌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렇다면 성적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공정한 원리의 근거로 바뀔 수는 없는가? '성차의 페미니즘'은 성적 차이를 여성의 독자적 존재(여성성)로 재기하여 차이를 재기하기 일쑤였으며 기존의 남성-시민, 남성노동자 모델을 해체, 재구성하고자 하는 도전이다. 여성이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존 노동자운동의 '노동자'의 성별과 여성

- 기존 노동자운동의 기투영성은 그들만 '대공장 남성 정규직 중심성'으로 비판받아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이러한 비판에 대해 정치한 성찰과 반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일뿐더러 오히려 그것이 노조운동의 '현실'이라며 반문할 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러한 비판에 대한 대안 역시 대공장이 아닌 중소·영세사업장, 남성이 아닌 여성,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조합원의 '정치적 고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1999 최근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문제되었다. 이에 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한 우리는 성차 등

- 여성민중 노동현을 경험하려는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현재의 노조운동을 평가할 때 상황은 더 근본적이다. 노동조합은 '가정'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없는 (없다고 여겨지는), 생계부양자 남성만을 '노동자'로 전제한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 여성노동자는 보호 내지 배려를 필요로 하는 '특수집단'이지 보편적인 '노동자'가 아니며, 따라서 '가정'영역에 대한 책임은 여성노동자들만의 특수한 문제로, 취업여성 단체협약(요구안)에서도 모성보호, 여성보호 관련 조항은 분리되어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이제까지 노동운동의 이상은 생계부양자 남성이 불평등 없이 여성노동자의 주변적 지위를 '참을 수 있을 만큼' 만족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 "한국사회 노동운동은 여성노동자만이 겪어 온 성·가정 영역의 이중 부담을 '문제로 인식한 경험이 없다. 이는 단순히 노동조합 남성 간부와 조합원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무관심해서, 여성노동자와 함께 생활의 속수무책 앞에서 발생한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운동의 현재의 조건과 지위 자체가 여성노동자의 성·가정 부담, 이를 초래하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다."[99]
-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남성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임금생활'을 목표로 투쟁해왔고, 노동조합의 재정부담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조직화, 선전되어 왔다. 남성노동자의 부인을 전업주부로 상정하려는 '가족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것이 재정부담의 주요한 조직화 방안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은 남녀의 불평등한 관계관계를 재생산하는 가족의 유지를 목표로 투쟁해왔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총의 모태이 사건이라는 실주자의 실수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이러한 노동자 이상과 목표가 투영된 결과이다. 이러한 노조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의 계급은 당연시되어왔고, 최근에 제기되고 투쟁 역시 '여성가장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점에 이를 지 있거나 일찍이 여성같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에서 보고 있다.
- 그러나 노동조합이 목표로 했던 가족, (일부 노동자에게만 부분적으로 성취된) 가족임금이 형성된 인자유주의적 구조조정으로 심각하게 문제받고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가 그러한 목표를 방어하거나 고수하려해서는 낡은 조직률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노동자운동이 위기 또한 극복할 수도 없다. 이는 현재의 노동자운동이 기반하고 있는 남성성제부장이도 또, 후·사 문제, 가족임금 이데올로기를 전면적 비판하여 한다는 것이다.

3. 노동조합 내 페미니즘 실천의 성과와 한계

인용다.

99)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을 위하여" 2차 포럼 기념사업 정립 노동자의 한국사회 노동자운동의 한계와 과제 발제문

100) 이는 기존사업의 90%가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01) 이때부터 포스터 "일인인가 희망이세요" 캠페인포스터 이미지를 두고 비판받게 나서는 남편을 위해서 여성이 여기를 인자 등 희생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와 2000년 포스터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 캠페인에 남성이 여성의 이혼에 일을 두고 있고 서로 정규직 되면 결혼하자고 했다 대표적 예 두 개의 포스터 중이 여성활동가들의 분개거리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 노동자운동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모색과 실천은 누가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 노조운동 속에서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노조운동의 시점과 과제를 바꾸는 일을 의미한다. 즉 노조 페미니즘이 노조운동의 혁신의 "실체"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노조 내 페미니즘의 실천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어왔는가.

○ 주변화 된 여성위원회(여성활동가)의 지위와 역할

- 여성위원회(혹은 여성국)는 민주노총 내의 여러 개의 상설위원회 중의 하나로, 민주노총 중앙위원조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00년 여성할당제 논의가 시작된 후에야 만들어졌다. 또한 본조조합 제외하고는 여성할당 부과원칙이나 임원이 여성위원장을 하고는 있으나 정책 주요역할은 여성사업을 기획, 집행하기 위해서 '할당'되어 있지 않다. 민주노총 전체 주요 사업계획에 여성사업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사업은 여성위원회만의 사업으로 기획되거나 여성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와 활동력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 노조에서 여성과 관련된 문제는 조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여성위원회·여성부로 전달되어 독수화, 주변화되어 있고 조직의 여성위원회의 존재가 노조의 기투영성과 불성성에 대한 비판에 방패막이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여성위원회가 상층 여성활동가들에 대표되고 정도로 제한되어 있고, 여성위원회의 사업 구상을 위한 논의와 실천 역시 이들 상위직이 장하고 여성위원회도 여성노동자를 노조의 사업과 투쟁의 동원 대상 이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여성위원회 사업의 대부분은 산업단위 여성위원회의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것이고 민주노총 중앙 여성위원회의 사업계획 역시 여태조부터 여성노동자의 주체화, 세력화에 주력하기 보단 대다수 여성노동자의 현실 조건과 처지를 제도개선투쟁을 중심으로 기획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위원장이나 여성활동가들이 개인의 열의를 바탕으로 고민한다해도 인적결주에 따라 '이번'이 바뀌다보니 고민과 주체조차 지속성을 가지지 못한다.
- 위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가? 노조의 현재 운동모델 내 여성위원회 지위와 여성활동가들의 상황은 결국 여성노동자의 현재의 지위와 형성을 반영한다. 여성의 노동조합 활동의 장애도 남성과는 그 차이가 다르지 않다. 남성활동가의 노조활동 참여는 자신을 희생하는 결단인데 반해, 가사·양육 노동과 노조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활동가들은 일 하루의 힘들면다면 개인적으로 인소성의 어려움 뿐, 심하는 자기 배우(가정생활)의 추방을 다하지 않하는 여성으로 평가받다. 출산/양육을 하고 활동에 복귀하더라도 이 역시 임금의 '경력단절'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따라서 주변적인 위치를 벗어 피다보니, 이는 다시 여성이 하는 '운동'에 대한 비평가로 이어져 여성은 '종속된 활동가'의 기준에 머물러는 활동가가 된다.

○ 할당제의 함정

- 2002년 전교조의 30% 여성할당제(2004년 중앙집행위 임시조직 신임) 도입을 출발로, 민주노총 중앙

의 사무본부, 중앙연합·중앙노조, 사무금융연맹, 공무원노조, 금속노조 등이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할당제 도입을 위한 시점을 정하고 있다. 몇 년 동안 할당제가 시행되면서 할당제의 한계에 대한 평가에도 제기되은 있지만, 노조 내에서 '여성할당제'는 여전히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유력한 방안으로 그 성과가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구)공무연맹의 경우 여성조합원 비율 34.3%에 비해 5% 미만에 그쳤던 여성 대의원, 중앙위원 비율이 할당제 시행으로 30%까지 늘어난 경험과 여성위원회 사업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사업으로 여전히 할당제 시행은 노조 여성위원회의 가장 비중 있는 사업이 되고 있다.
- 여성할당제는 역사적으로 누적되어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반사회적' 조치이다. 즉 여성의 관리자로서 제기되기 보다는 제한된 관리자 풀 내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에 구성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근거로 여성대표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라서 제한적인 효과만을 기대할 뿐이다. 노조 운동의 목표가 여전히 '남성노동자'를 여성으로 채워 일주하거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할당 대표자 임원이 늘어도, 현재는 여성활동가들에게 크게 부담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할당제도 단체 여성활동가의 진출이 늘어 피해 줄어들고 있음에도 여성주의가 확대되고 있지 못한 현재 할당제의 한계가 기초단위, 집행단위까지 확대된다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 할당제의 성과에 대해서도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우선 여성할당 대표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할당제 주장의 근거는 소수자로서 여성의 과소대표성에만 맞추어져 있다. 즉 주장을 하기 위해 여성대표들이 필요한가만 질문은 빠져있고 여성주의는 조직적 차별과 성폭력으로서가 아니라 여성활동가들 개인의 의지와 능력, 노력 여부에 맡겨지게 된다. 여성대표가 그 자체로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성의 이용성을 기초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방향 속에서 존재하길 바랬도 다분히 존재하며, 할당제의 목표 자체가 그러한 구조변혁에 있지도 않다.
- 소수자 대표성 제고에 관한 할당제는 여성활동가의 여성문제를 여전히 주변화, 독수화 할 뿐이다. 할당제를 정치 확대하여 30%할당하더라도 간과되어지며, 여성활동가들이 여성의 고유한 권리를 주장하기 못한 채 남성노동자, 남성간부에 동일시되는 존재로서 노조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성노동자의 의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현재의 노조의 운동이념과 구조에서는 할당제가 여성활동가의 활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가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여성활동가의 재생산도 어려워지고

---

102) 대부분 30% 여성할당제를 도입, 30%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원회인 경우 여성조합원 3% 미만을 만들어야 10%인데 이조차도 노조 내 반발을 사고 있다. 반면 여성조합원 비율이 70%인 보건의료노조의 경우 민주노총 내 최대 여성사업장이지만 여성할당과 여성노동자의 권리 향상 등의 독자성만 사업을 구체 성취 향수하지 않고 여성위원회도 없다.

103) 토론회 "여성할당제를 넘어" -노조조합 내 현안해결 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 2007.1.19. 서울노동운동센터

104) 한국에서 교원노조의 위의해당사용수대표제는 할당제를 확대한 제도로 소개되는 경향이 있다. 동수대표제와 할당제로 기업 본 지위는 할당제가 일정의 인구비율을 대표제도에 기입하고, 정치적 과소 대표성을 한국사회로 수정하기 위한 조치이면 동수대표제는 원리의 일치되어서 사회노제인의 남성성을 강조로 하고 있다는 비판하고 생각 차이를 한발짝 미뤄해서 기입하고자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다르다. 유럽사회에서 이러한 할당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단단하고, 교원노조 한발짝 보편주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한 한발짝이다. 동수대표제는 그러한 기준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수대표제는 단기에도 내재하면 그 논리가 일치하지는 않고 여성정치 공헌하지 못하고, 결국은 할당제로 전락을 위한다는 점이다.

조직과 여성의 주변의 지위를 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정치, 소속 노조의 이해관계가 여성조직 조직 이해관계보다 앞서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 따라서 현재 할당제 시행과 할당제를 실현시키 위한 사업 전반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할당제가 시행된다면, 현재 노조운동의 변화를 위해 이런 여성사업이 필요한가라는 고민과 과제는 이제된 채 할당제 시행을 위한 요원, 할당제를 채우기 위한 여성조합원 교육과 사업에 모든 역량을 소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성폭력과 여성활동가들의 딜레마

-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 위원회'의 결성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발전해온 대학가의 반성폭력 운동의 영향을 토대로 하여 사회운동 내 성폭력 사건들을 폭로하면서, 운동사회의 가부장성과 반인권적인 가치관 반여성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주었다[19]. 100인의 사건은 운동사회 '민주성'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였고, 여성활동가들은 성폭력 사건을 포함, 논쟁하는 과정에서 '여성'으로서 사회에 자연스러운 운동조직 내 여성활동가 포함하여 여성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사회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그러나 사회운동 내 성폭력의 문제를 가해자 대 피해자의 대립구도, 즉에서 '여성'의 원칙을 가지고 접근한 것은 사회운동의 지향, 그 주요한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조직의 뿌리에서 만들었다.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은 조직 내에서 여성이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하기 보다는 오른자에를 분배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도 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따른 여성해방 원칙 아니며,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보호조치라 반발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개인들간의 심상치의 문제로 축소되었다.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노조의 여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는 변하지 않은 채, 노조는 여전 공적 제문제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에서 여성활동가들은 폭력에 대한 감수성은 높아지는 반면, 남성활동가들은 페미니즘에 대한 배척은 인식과 적대감을 키우기도 했다. 그렇다고 말면, 인고 참수된 사건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 노조 여성활동가들은 상당한 역량과 사건을 스스로한테 남성들이 저지른 성폭력을 여성들이 피주적으로 피해자에의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또한 성폭력 가해자 남성활동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주인으로 인식되면서 피해자의 지도하는 다르게 정화대들에 활용될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 그렇다면 여성위원회는 성폭력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성적 폭력만이 아니라 여성의 정체적 독립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사회적요, 및 관계, 구조, 사회를 포함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한다. 결국 여성노동자가 겪는 성차별의 하게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은 기존의 사건접수-진상조사-징계로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 해결 과정으로 해결될 수 없고, 노조 운동의 혁신의 과제와 방향으로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

[19] 100인위원회 사건을 '폭로', '용기', 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것은 일리가 그 당시 노동인 전체가 노동을 도피하는 것이다. 100인위원회 사건은 폭력 '활동가', 인 내에서 반성과 성찰을 요구하였고, '여성활동가' 로 가 해자는 성찰을 실천 하였다. 개인적인 경험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100인위원회의 참여한 여성활동가들에게는 가 가장일의 계기가 되거나 운동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을 형성시켰던에 반해 남성활동가에게는 대신의 기회이기 하나 과한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았을 뿐이라 조직의 가치들의 기대를 형성시키기도 했다.

다.

- 세월 들어, 여성위원회가 성폭력을 여성 개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 즉 "공동체에 대한 폭력"으로 인식·제기하고 기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무방한 자신의 역할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성폭력을 뿌리뽑는 조직 시대을로기를 마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적 조직에 대한 사과, 정계 등 '조직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좀 더 일반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 조직 가해자들은 조직에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조직에 대한 사과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정계를 수용하는 것에 비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물의'는 성폭력 자체가 아니라 여성이 성폭력을 제기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권리 자체가 공동체의 기본 원리로 기입된다면,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 공동체의 기본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현재 민주노동당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당기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세월 들어 성폭력 전담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구성 중 여성위원 비주적 참여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은 여성운동이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피해자-노조의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 혹은 노조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에 역량을 투여해야 하고, 변화된 당기위와 노조 문화에 기반해 당기위원회가 성폭력 사건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전환을 해볼 수도 있다.

4. 변화를 위한 도전: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 형성을 위한 과제

-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적 도전은 가난해져서 있어왔다. 포스터의 표현[20] '자연 페미니즘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노조운동을 혁신하고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이끄는데 기여했는가?' 질문하면서 중심부 국가의 노조페미니즘의 성과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임금적인 할당이나 단체교섭에서 성과를 얻는데 있어 페미니즘은 실질적이고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둘째, 가정과 직장 사이의 이데올로기에 관하는 페미니즘적 통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도전받아 왔다. 셋째, 젊은 노조들에서 민주적인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은 페미니즘적인 민주적인 논의의 영향에 따라 변화되었다. 넷째, 여성들이 더 많이 리도적인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작업장, 공동체 그리고 사회운동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사실 노동조합 페미니스트들은 남성동료들에게 경제주의라고 비판받는 처지를 주문해왔으며, 그 근저에 남성 지배적인 비주니스 노조주의 만큼이나 주류적인 페미니즘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신진국에서 노조 페미니즘의 시도에 대한 위해 갖은 평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 노동조합 페미니즘은 어떠한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이 아직 미미하고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비롯되어 하는가? 여성해방은 여성노동자의 스스로의 자각과 실천이 없을 때만이 가능하며, 그 출발 지점가 '변화를 위한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에 있어야

---

[20] 로즈마리 포스터, '중심부국가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페미니즘의 도전: 가능성과 한계', 월간 사회진보연대 2001년 8월호(이화) 참조 등

할 것이다.

○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 실천이 주는 시사점

- 70년대 중반 형성되었던 이탈리아 노조 페미니즘의 의미를 평가할 때, 페미니즘과 좌파의 방법론 문제와 양조 작용, 자녀의 양육의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 페미니즘과 사회주의가 다소의 불일치와 긴장은 있었지만 결코 갈등상태에 빠지진 않았다. 이런 여성운동의 유형에서, 우리는 이탈리아의 노동자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긴밀하게 접촉해왔고, 생산영역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화·정치적 영향들이 노동자운동이 가장의 해도를 보였다는 점을 주의한다.

- 이탈리아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부재한 상태에서 70년대 중반에 노조페미니즘이 전개되고 프랑스에서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이론이 주입되면서 성적차이의 페미니즘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페미니즘적 문화는 노조의 전통적인 가치와 여성노동에 대한 분석이 접목되어 새로운 문제의식 조직형태, 그리고 노조활동의 새로운 형태들을 생산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은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적 차이의 미술적인 여성주체에 대한 확신을 목표로 활동하였다.

- 노조 내에서의 페미니즘의 중요한 의제를 논할 때 만들어진 것으로 '180시간 요구'를 들 수 있다. 일주 손실 없이 이 일이 교육받을 권리로서 제기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운영되어있는 것에 노동자 여성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페미니스트 그룹을 시작의 성, 건강, 낙태, 여성 노동의 문제와 같은 가장 절정적인 페미니즘의 주제들에 대해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냈고, 영향력 미친을 고려하였다. 이 일이 노조가 일상생활 중심의 변화의 의제를 제시하여 '내적의 권리'의 없은 시대적 이슈와 결합하여 여을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 또한 노동조합 여성활동가들 만이 아니라 페미니스트 그룹들 사이의 협동에 의해 '코스가' 개혁되고 협력할 수 있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조 페미니즘을 이탈리아 공산당에서 주동하여 80년대는 '여성조로부터 나오는 여성의 할 수 있는 주제를 만 여성정당을 여성위기에 이른다. 이 전망은 성적 차이를 토대로 하는 성별화된 권리인 여성권의 독특을 차이성과 보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 대안적인 노동조합 페미니즘 형성을 위한 과제

- 노조 내 페미니즘 실천의 방향을 노조의 이념에 성적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권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관 문제는 여성이념의 내용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러다 보니 공장기계 개혁이 나올 수가 없고, 선거 시기에 종속되어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이 상실되는 것이다. 생명한 생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지금 상태로는 여성활동가들이 죽을 뿐 살 활동해도 노동조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맞는 사업을 발전해야 할 것이다.

1) 노동조합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해체하고, 새로운 노동자운동의 이념과 전략 구축

- 여성권과 노동권을 결합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접근하는 관점을 벗어남에야 한다. 성차별에 기반한 여성의 보편적 권리로서 노동권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데, 이를 위해 기업과 산별노조의 중층 남은 노동자의 요구에 주목이 집중되어야 한다. 특히 현재의 동원노동의 상품화를 통한 사회적 방식을 비판하고, 여성 산 노동의 사회화·정책(의 기업의 해임 강화)에 동원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요구해야 한다. 현재의 '여성규격 정책주장' 역시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의 불안정화 페미니즘을 분석, 비판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노동자상, 노동정책, 사회구조 전반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노동자운동의 이념의 수준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조의 기존 임금요구안의 세계를 분석,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이태리부녀의 여성노동자 주체화, 세력화를 위한 사업을 기획, 집행

- 할당제는 여성들을 특수집단화하거나 남성노동자에 종속시킬 뿐이다. 소수 여성활동가들에게 성장(고속승진의 기회)의 기회가 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정 한정적 혜택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할당제 시행으로 이러한 상황이 더 고착화되고 있다.

- 따라서 할당제의 제한적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여성할당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일주어져서는 안 되며, 조직의 여성노동자의 이해로부터의 주체화, 세력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 여성위원회·여성국, 여성대표들에 의해 제안되고 노조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① 우선 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으로 여성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 시간 사례를 사업화하고 노조에 홍보, 인적 역량 배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여성위원회가 여성비정규직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방식일 수 있다.

- ② 여성노동자가 주체화, 세력화 되는 것은 스스로 현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교육받을 권리'를 노동조합이 주요한 요구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 내용과 방식도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재 노조 내의 교육은 학업이 부족해서 단체협약 요구안 설명이나 해당 투쟁사안에 대한 교양강의 정도에 그치고 있고, 여성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이나 여성건강학교도 조직보호/성폭력/할당제 주제에 국한되어 있고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기 마련이다.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문화와 운동방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노동자의 주요한 권리인식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③ 3월 여성노동자대회나 10월 17일 전문협에서 V 등을 기업으로 여성노동자의 대중의 행진을

---

[10] "한국 여성노동자의 권장한 노동자상이 인정하는 사회적인 출산휴가는 주류들의 입장 기업 기초적인 노동기본권의 폭력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출산휴가가 비록 개별인 사용하는 휴가이고 해도 여성노동자가 "노동자" 인 것이 사라니 일반적에 이어진다면 그 법률상은 모성도 최상법적 일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 출산을 독신일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용주의 "죄" 는 전장 사회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죄로 다뤄질 수 있을 것이다." - 2차 포럼에 발제된 글

함께 보는 〈안토니아스 라인 Antonia's Line〉